

연구보고 2016-35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한국아동패널 II)

김은설 배윤진 조숙인 이예진 송신영
임준범 박은영 김신경 김은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2008년부터 시작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이 향후 12년간 계속될 장기 프로젝트로 거듭나며 2016년부터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 II’라는 새로운 제목 하에 이어지게 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1,600여 패널 가족을 대상으로 성장과 육아 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제9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2016년 패널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였으며, 이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대부분 벗어나고 초등 첫 해의 학교 적응 시기를 거쳐 안정적 중기 아동 발달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인지, 학습 측면의 자극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확장되었고 사회적 활동 범위도 가정, 또래를 넘어서 학급, 학교, 학원 등으로 넓어졌으며, 교사와의 관계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9세 아동의 이같은 변화를 작년부터 패널 조사에 반영해오고 있다. 특히 9차 조사에서는 개인 내적으로도 급격한 발달적 전환을 보여주는 이 시기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의 인지 발달에 관심을 두고 다요인 지능검사를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에 진행된 8차년도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와 더불어 1차~8차년도까지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영유아기 주요 변인 추이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9차년도 조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정, 학교, 육아지원 정책등과 같은 육아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육아정책 설계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신 패널 가족들과 학교담임 선생님들, 또한 도움을 주신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서 잘 활용되고 나아가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머 리 말	3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9
4. 보고서의 구성	22
II. 8차년도(2015) 조사 결과 분석	23
1. 패널 8차년도 조사의 특징	23
2. 8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 특성	24
3. 아동 발달 특성	30
4. 부모 특성	120
5. 가구 특성	167
6. 학교 특성	189
7. 지역사회 특성	220
8. 정책 특성	243
III. 1~8차년도 주요 변인 추이 분석	254
1. 아동 특성	254
2. 부모 특성	262
3. 가구 특성	270
4. 지역사회 특성	271
IV. 9차년도(2016) 패널 연구 사업 보고	273
1.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개요	273

2. 9차년도 조사 진행	281
3. 9차년도 대상자 관리	292
4. 자료 보급 및 확산	298
V. 정책적 시사점	304
1. 학령기 패널 자료가 보여 주는 특징적 결과	304
2. 정책 방안 제안	307
참고문헌	313
Abstract	319
부록	321
부록 1. 차수별 조사 내용 상세표	323
부록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	342
부록 3. 9차년도(2016) 조사 안내문	349
부록 4. 9차년도(2016) IRB 승인 통지서	350
부록 5. 8차년도(2015) 질문지	351
부록 6. 한국아동패널 국·영문 홍보 리플렛	434

표 차례

〈표 I-2- 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19
〈표 I-2- 2〉 한국아동패널 2016 (9차년도) 조사 변인	20
〈표 II-1- 1〉 한국아동패널 2015년 조사별 성공률	24
〈표 II-2- 1〉 8차 조사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	25
〈표 II-2- 2〉 8차 조사 참여 부모의 일반적 특성	26
〈표 II-2- 3〉 8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2- 4〉 8차 조사 참여 가구의 교육서비스 이용 특성	29
〈표 II-3- 1〉 8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30
〈표 II-3-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32
〈표 II-3- 3〉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33
〈표 II-3- 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34
〈표 II-3- 5〉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35
〈표 II-3- 6〉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	37
〈표 II-3- 7〉 음료수 섭취 빈도	38
〈표 II-3- 8〉 유산균 복용 기간	39
〈표 II-3- 9〉 미디어 이용 시간	41
〈표 II-3-10〉 미디어 이용 이유	42
〈표 II-3-11〉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43
〈표 II-3-12〉 함께 자는 사람(중복응답)	44
〈표 II-3-13〉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	45
〈표 II-3-14〉 주로 재워주는 사람(중복응답)	46
〈표 II-3-15〉 아침에 스스로 기상 여부 및 횟수	47
〈표 II-3-16〉 숙면 여부 및 밤잠 중 깨는 횟수	49
〈표 II-3-17〉 기상 및 취침 시각	50
〈표 II-3-18〉 수면 시간	51
〈표 II-3-19〉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53
〈표 II-3-2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숙제 및 책 읽기	54
〈표 II-3-21〉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실내/외 놀이	56

〈표 II-3-22〉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외출 및 기본생활	57
〈표 II-3-23〉 아동의 실내외 운동시간	59
〈표 II-3-24〉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쇼핑 및 친인척 방문	62
〈표 II-3-25〉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놀이기구 및 여행	63
〈표 II-3-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 및 동아리 활동	64
〈표 II-3-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종교 및 봉사활동	65
〈표 II-3-28〉 아동의 신장 및 허리둘레	67
〈표 II-3-29〉 아동의 체중 및 BMI	68
〈표 II-3-30〉 아동의 치아 건강	69
〈표 II-3-31〉 아동의 시력 건강	70
〈표 II-3-32〉 아동의 우세 손	71
〈표 II-3-33〉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건강 상태	72
〈표 II-3-34〉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73
〈표 II-3-35〉 아동의 입원치료 여부 및 횟수	74
〈표 II-3-36〉 아동의 입원치료 기간 및 이유	74
〈표 II-3-37〉 아동의 통원 치료	75
〈표 II-3-38〉 아동의 만성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76
〈표 II-3-39〉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76
〈표 II-3-40〉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의사 진단 여부	77
〈표 II-3-41〉 아동의 천명 증상 여부 및 횟수	77
〈표 II-3-42〉 아동의 천명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횟수	78
〈표 II-3-43〉 아동의 천식 진단 시기	78
〈표 II-3-44〉 아동의 천식 치료	79
〈표 II-3-45〉 아동의 모세기관지염 횟수 및 앓은 시기	79
〈표 II-3-46〉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 여부 및 종류	80
〈표 II-3-47〉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 발생 횟수 및 지속 시기	80
〈표 II-3-48〉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으로 인한 영향(중복응답)	81
〈표 II-3-49〉 아동의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 여부	81
〈표 II-3-50〉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 여부 및 기간	81
〈표 II-3-51〉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진단 시기	82
〈표 II-3-52〉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증상 여부	82

〈표 II-3-53〉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치료 여부 및 기간	83
〈표 II-3-54〉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진단 시기	83
〈표 II-3-55〉 아동의 식품알레르기 증상 여부 및 종류	84
〈표 II-3-56〉 식품알레르기 유발 의심 음식(중복응답)	84
〈표 II-3-57〉 아동의 항생제 복용	85
〈표 II-3-58〉 아동의 진통제/해열제 복용	85
〈표 II-3-5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86
〈표 II-3-60〉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88
〈표 II-3-61〉 아동의 표현 어휘력	89
〈표 II-3-62〉 아동의 수용 어휘력	90
〈표 II-3-63〉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91
〈표 II-3-64〉 아동의 자아존중감	93
〈표 II-3-65〉 아동의 미래 기대	94
〈표 II-3-66〉 아동의 미래 기대: 진학	96
〈표 II-3-67〉 아동의 행복감	97
〈표 II-3-68〉 아동의 학교 및 교사 선호도	98
〈표 II-3-69〉 아동의 과목 선호도	99
〈표 II-3-70〉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 긍정적 인식	100
〈표 II-3-71〉 아동의 학교 생활 느낌: 부정적 인식	101
〈표 II-3-72〉 문제행동 점수	103
〈표 II-3-73〉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105
〈표 II-3-74〉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106
〈표 II-3-75〉 기타 문제행동 하위요인	108
〈표 II-3-76〉 DSM 진단척도 1	109
〈표 II-3-77〉 DSM 진단척도 2	111
〈표 II-3-78〉 문제행동 특수척도	112
〈표 II-3-79〉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 수행 적응	113
〈표 II-3-80〉 친구 수	114
〈표 II-3-81〉 친구와의 주말 놀이 빈도	115
〈표 II-3-82〉 친구와의 방과 후 놀이 빈도	116
〈표 II-3-83〉 친구와의 싸움 빈도	117

〈표 II-3-84〉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교 적응	118
〈표 II-4-1〉 8차년도 부모 특성 변인	120
〈표 II-4-2〉 부모의 연령 및 학력	121
〈표 II-4-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122
〈표 II-4-4〉 부모의 우울	122
〈표 II-4-5〉 부모의 자아존중감	123
〈표 II-4-6〉 부모의 행복감	124
〈표 II-4-7〉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125
〈표 II-4-8〉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125
〈표 II-4-9〉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 일-가정 이점과 갈등	126
〈표 II-4-10〉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 일-양육 이점과 갈등	127
〈표 II-4-11〉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127
〈표 II-4-12〉 부모의 결혼만족도	128
〈표 II-4-13〉 부모의 부부갈등	128
〈표 II-4-14〉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129
〈표 II-4-15〉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129
〈표 II-4-16〉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 병력(중복응답)	130
〈표 II-4-17〉 부모의 음주 실태	130
〈표 II-4-18〉 부모의 흡연	131
〈표 II-4-19〉 부모 취/학업 상태	131
〈표 II-4-20〉 어머니의 희망 근로 시간 형태	132
〈표 II-4-21〉 어머니의 시간제 희망 이유	133
〈표 II-4-22〉 어머니의 일/학업을 하지 않는 이유	134
〈표 II-4-23〉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134
〈표 II-4-24〉 어머니의 일을 하는 이유	135
〈표 II-4-25〉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136
〈표 II-4-26〉 부모의 직업군	137
〈표 II-4-27〉 부모의 종사상 지위	137
〈표 II-4-28〉 어머니 근무일 및 시간	138
〈표 II-4-29〉 후속출산 계획 여부	139
〈표 II-4-30〉 후속출산 미계획 이유	139

〈표 II-4-31〉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140
〈표 II-4-32〉 이상 자녀수	141
〈표 II-4-33〉 기대 자녀수	142
〈표 II-4-34〉 자녀 기대성별	142
〈표 II-4-35〉 부모의 양육행동	143
〈표 II-4-3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44
〈표 II-4-37〉 부모의 공동 양육: 가족통합, 훈육	146
〈표 II-4-38〉 부모의 공동 양육: 비난, 갈등	147
〈표 II-4-39〉 모-자녀 상호작용 1: 이야기 해주기 및 함께 노래 부르기 ...	148
〈표 II-4-40〉 모-자녀 상호작용 2: 미술/만들기 도와주기 및 집안일 함께하기	150
〈표 II-4-41〉 모-자녀 상호작용 3: 퍼즐게임 및 자연에 대한 이야기, 과학 놀이하기	151
〈표 II-4-42〉 모-자녀 상호작용 4: 조립용완구 및 운동하기	152
〈표 II-4-43〉 모-자녀 상호작용 5: 아이와 읽기, 쓰기, 숫자를 익힘 및 책 읽어주기	154
〈표 II-4-44〉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155
〈표 II-4-45〉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156
〈표 II-4-46〉 부모 감독	157
〈표 II-4-47〉 부모 감독1: 아동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음 ·	157
〈표 II-4-48〉 부모 감독2: 아동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음	158
〈표 II-4-49〉 부모 감독3: 아동이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	158
〈표 II-4-50〉 부모 감독4: 아동이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음	159
〈표 II-4-51〉 부모의 학업관심도	160
〈표 II-4-52〉 자녀 숙제 시 타인 도움 정도	161
〈표 II-4-53〉 자녀 숙제 시 도움 제공자	162
〈표 II-4-54〉 사회적 지원 인원	163
〈표 II-4-55〉 사회적 지원 정도	164
〈표 II-5- 1〉 8차년도 가구 특성 변인	167
〈표 II-5- 2〉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168
〈표 II-5- 3〉 거주 주택 유형	169
〈표 II-5- 4〉 습기 여부	169
〈표 II-5- 5〉 장소별 습기로 인한 얼룩진 모양 여부 및 정도	170
〈표 II-5- 6〉 눈에 보이는 곰팡이 여부	170

〈표 II-5- 7〉 집의 연식	171
〈표 II-5- 8〉 바닥재	171
〈표 II-5- 9〉 난방형태	172
〈표 II-5-10〉 주방 유형	172
〈표 II-5-11〉 리모델링 여부	173
〈표 II-5-12〉 패널 아동의 개별 방 여부	173
〈표 II-5-13〉 애완견 수	173
〈표 II-5-14〉 가습기 사용 및 살균제 사용 여부	174
〈표 II-5-17〉 방향제 또는 디퓨저 사용 여부 및 사용 횟수	174
〈표 II-5-16〉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175
〈표 II-5-17〉 플라스틱 용기 사용 형태	175
〈표 II-5-18〉 뜨거운 음식 및 음료의 플라스틱 용기 보관 여부	176
〈표 II-5-19〉 음료수 용기	176
〈표 II-5-20〉 간접 흡연	177
〈표 II-5-21〉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 근로소득	177
〈표 II-5-2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78
〈표 II-5-23〉 월평균 지출	178
〈표 II-5-24〉 패널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179
〈표 II-5-25〉 가구 자산	180
〈표 II-5-26〉 부채 여부	180
〈표 II-5-27〉 가구 부채액 및 월상환금	181
〈표 II-5-28〉 HOME: 영역별 비교	181
〈표 II-5-29〉 HOME: 총점	182
〈표 II-5-30〉 HOME: 물리적 환경	182
〈표 II-5-31〉 HOME: 가족 통합	183
〈표 II-5-32〉 HOME: 가족 공동체	184
〈표 II-5-33〉 HOME: 강화	184
〈표 II-5-34〉 HOME: 학습자료와 기회	185
〈표 II-5-35〉 HOME: 정서적 분위기	186
〈표 II-5-36〉 HOME: 성숙함 장려	187
〈표 II-5-37〉 HOME: 반응성	187

〈표 II-6- 1〉 8차년도 학교 특성 변인	189
〈표 II-6- 2〉 학교 진학여부	190
〈표 II-6- 3〉 아동의 학교 결석 여부	190
〈표 II-6- 4〉 결석 이유 및 일 수(중복응답)	191
〈표 II-6- 5〉 초등학교 비용, 부담 정도 및 만족도	192
〈표 II-6- 6〉 학교 소재지	192
〈표 II-6- 7〉 학교 설립 유형	193
〈표 II-6- 8〉 1학년 등교시간	193
〈표 II-6- 9〉 무상급식 여부 및 급식 제공 장소	194
〈표 II-6-10〉 중점 특색사업 해당여부	194
〈표 II-6-11〉 아동발달에 대한 특색사업의 도움 정도-1	195
〈표 II-6-12〉 아동발달에 대한 특색사업의 도움 정도-2	195
〈표 II-6-13〉 동료 교사 태도	196
〈표 II-6-14〉 학교장 지도성에 대한 교사 인식	196
〈표 II-6-15〉 전체 학급 수 및 해당학급 학생 수	197
〈표 II-6-16〉 학급 아동 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	197
〈표 II-6-17〉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비율 및 교실 크기 적절성에 대한 인식	197
〈표 II-6-18〉 도서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198
〈표 II-6-19〉 영어교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198
〈표 II-6-20〉 과학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199
〈표 II-6-21〉 컴퓨터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199
〈표 II-6-22〉 음악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200
〈표 II-6-23〉 강당/체육관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200
〈표 II-6-24〉 놀이터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200
〈표 II-6-25〉 기타 시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201
〈표 II-6-26〉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201
〈표 III-6-27〉 학교의 리모델링 여부 및 종류	202
〈표 II-6-28〉 교사 성별 및 연령	203
〈표 II-6-29〉 교사경력 및 1학년 담임경력	203
〈표 II-6-30〉 교사의 최종학력 및 직위	203
〈표 II-6-31〉 교사 근무시간	204

〈표 II-6-32〉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단일 선택)	204
〈표 II-6-33〉 교수 효능감 및 교직 만족도	205
〈표 II-6-35〉 업무 스트레스	206
〈표 II-6-35〉 초등돌봄교실 참여 정도(1학년): 교사 응답	207
〈표 II-6-36〉 담당 학급의 통합학급 학생 여부	207
〈표 II-6-37〉 과제 부과 정도 및 과제량 적절성	207
〈표 II-6-38〉 학교 과제 예상 소요시간	208
〈표 II-6-39〉 수업방식에 대한 지각	208
〈표 II-6-40〉 유아기 발달 특성 유아-초등교육 연계에 대한 지각	209
〈표 II-6-41〉 생활기록부 연계 및 적응활동 도움정도에 대한 지각	209
〈표 II-6-42〉 유아-초등교육 연계 관련 연수 여부	210
〈표 II-6-43〉 모의 아동 등/하교길 동반 빈도	210
〈표 II-6-44〉 부의 아동 등/하교길 동반 빈도	211
〈표 II-6-45〉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	212
〈표 II-6-46〉 어머니의 학교 행사 참여빈도	212
〈표 II-6-47〉 부의 학교 행사 참여빈도	213
〈표 II-6-48〉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에 대한 교사지각	214
〈표 II-6-49〉 학부모 행사 참여 필요성에 대한 교사 지각	214
〈표 II-6-50〉 학기 중 이용하는 돌봄 및 양육 서비스(중복응답)	215
〈표 II-6-51〉 돌봄 및 양육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215
〈표 II-6-52〉 돌봄 및 양육 서비스 이용 비용 및 만족도	216
〈표 II-6-53〉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217
〈표 II-6-54〉 사교육 이용 시간 및 만족도	217
〈표 II-6-55〉 월평균 사교육비용 및 부담 정도	218
〈표 II-6-56〉 사교육 이용 이유	218
〈표 II-6-57〉 영어 사교육 주 이용 이유	219
〈표 II-6-58〉 사교육 미 이용 이유	219
〈표 II-7- 1〉 8차년도 지역사회 특성 변인	220
〈표 II-7- 2〉 거주지 유형	221
〈표 II-7- 3〉 지난 조사 이후 이사 횟수	222
〈표 II-7- 4〉 패널 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222

〈표 II-7- 5〉 지역 규모	223
〈표 II-7- 6〉 6개 권역 구분	224
〈표 II-7- 7〉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의 거리	224
〈표 II-7- 8〉 가까운 도로의 규모	225
〈표 II-7- 9〉 가까운 도로의 통행량	226
〈표 II-7-10〉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227
〈표 II-7-11〉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228
〈표 II-7-12〉 교육, 의료, 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228
〈표 II-7-13〉 놀이터 이용 편리성	229
〈표 II-7-14〉 공원 이용 편리성 인식	229
〈표 II-7-15〉 산책로 이용 편의성	230
〈표 II-7-16〉 놀이공원 이용 편의성	231
〈표 II-7-17〉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이용 편리성	232
〈표 II-7-18〉 실외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	233
〈표 II-7-19〉 영화관 이용 편리성	233
〈표 II-7-20〉 체육 관람 및 운동 시설	234
〈표 II-7-21〉 공연시설 이용 편리성	235
〈표 II-7-22〉 도서관 이용 편리성	236
〈표 II-7-23〉 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237
〈표 II-7-24〉 교육 시설 이용 편리성	237
〈표 II-7-25〉 공공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238
〈표 II-7-26〉 공공 여가 시설 이용 만족도	239
〈표 II-7-27〉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240
〈표 II-7-28〉 교육, 의료,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240
〈표 II-7-29〉 양육환경의 적절성 1	241
〈표 II-7-30〉 양육환경의 적절성 2	242
〈표 II-8- 1〉 8차년도 정책 특성 변인	243
〈표 II-8-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구분	244
〈표 II-8- 3〉 양육지원정책 수혜율	245
〈표 II-8- 4〉 정신건강지원정책 수혜율	246
〈표 II-8- 5〉 저소득지원정책 수혜율	247

〈표 II-8- 6〉 정책지원의 도움 정도	248
〈표 II-8- 7〉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시행률과 이용률	249
〈표 II-8- 8〉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249
〈표 II-8- 9〉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필요 순위	250
〈표 II-8-10〉 지난 1년간 생활비 지원 유무 및 지원 제공자	251
〈표 II-8-11〉 정부 및 직장 지원 제도의 의 출산/양육 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력	252
〈표 III-1- 1〉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1	254
〈표 III-1- 2〉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2	255
〈표 III-1- 3〉 아동의 수면 습관	255
〈표 III-1- 4〉 아동의 체중	256
〈표 III-1- 5〉 아동의 신장	256
〈표 III-1- 6〉 아동의 안경 및 시력교정도구 사용 여부	258
〈표 III-1- 7〉 아동의 우세손	258
〈표 III-1- 8〉 지난 1년간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258
〈표 III-1- 9〉 아동의 어휘력 발달	259
〈표 III-1-10〉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및 교사 선호도	260
〈표 III-1-11〉 아동의 문제행동 임상 집단 구분	261
〈표 III-2- 1〉 어머니의 취업 여부	262
〈표 III-2- 2〉 일자리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 만족도	264
〈표 III-2- 3〉 부모의 우울	265
〈표 III-2- 4〉 부모의 자아존중감	265
〈표 III-2- 5〉 부모의 결혼만족도	266
〈표 III-2- 6〉 부모의 부부갈등	267
〈표 III-2- 7〉 부모의 양육행동	268
〈표 III-2- 8〉 양육 스트레스	268
〈표 III-2- 9〉 사회적 지지	269
〈표 III-3- 1〉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	270
〈표 III-4 1〉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272
〈표 IV-1- 1〉 아동 특성 주요 변인	275
〈표 IV-1- 2〉 부모 특성 주요 변인	276
〈표 IV-1- 3〉 가구 특성 주요 변인	276

〈표 IV-1- 4〉 학교 및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주요 변인	277
〈표 IV-1- 5〉 지역사회 특성 주요 변인	278
〈표 IV-1- 6〉 육아 정책 특성 주요 변인	278
〈표 IV-2- 1〉 9차년도 조사원 교육 일정	282
〈표 IV-2- 2〉 9차년도 조사원 교육 내용	282
〈표 IV-2- 3〉 9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일정	284
〈표 IV-2- 4〉 9차년도 부모 대상 질문지 구성	285
〈표 IV-2- 5〉 9차년도 CAPI(보호자용) 질문지 구성	287
〈표 IV-2- 6〉 9차년도 건강관련 질문지 구성	289
〈표 IV-2- 7〉 9차년도 CAPI(아동용) 질문지 구성	290
〈표 IV-2- 8〉 9차년도 수행 검사(M-FIT) 구성	291
〈표 IV-2- 9〉 9차년도 CAWI(학교용) 질문지 구성	292
〈표 IV-3- 1〉 권역별 원 표본 수	293
〈표 IV-3- 2〉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지역별 조사원 수 및 전년 대비 동일률	296
〈표 IV-3- 3〉 한국아동패널 2008~2015년 조사 참여율	297
〈표 IV-4- 1〉 7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298
〈표 IV-4- 2〉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승인 및 사용 현황	300
〈표 IV-4- 3〉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연도별 발간 추이	300
〈표 IV-4-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2015년 발간 논문의 활용차수(중복)	301
〈표 IV-4- 5〉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2015년 발간 논문의 내용분류	301

그림 차례

[그림 I-2- 1] 한국아동패널 2016 연구 내용	18
[그림 II-3- 1] 아동의 식생활 진단	36
[그림 II-3- 2] 아동의 수면 및 기상	48
[그림 II-3- 3] 아동의 일상적 주중 일과활동	58
[그림 II-3- 4] 아동의 활동별 참여	61
[그림 II-3- 5] 표준성장도표 백분위수 대비 아동의 신체치수	69
[그림 II-3- 6]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휘력 발달	91
[그림 II-3- 7] 아동의 성별에 따른 미래 기대	95
[그림 II-3- 8] 아동의 학교 생활 느낌	102
[그림 II-3- 9] 성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104
[그림 II-3-10] 성별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106
[그림 II-3-1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107
[그림 II-3-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타 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109
[그림 III-1-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및 수면 시각	255
[그림 III-1- 2] 표준 성장지표 대비 아동의 체중 및 신장	257
[그림 III-1- 3] 사고/중독 및 입원 치료 여부	259
[그림 III-1- 4] 아동의 어휘력 발달	260
[그림 III-1- 5] 아동의 교육(보육) 기관 및 교사 선호도	261
[그림 III-1- 6] 아동의 문제행동	262
[그림 III-2- 1] 어머니의 취업 여부	263
[그림 III-2- 2] 취업 유지 집단 어머니의 직업군	263
[그림 III-2- 3] 취업 유지 집단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264
[그림 III-2- 4] 부모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266
[그림 III-2- 5]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267
[그림 III-2- 6]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	269
[그림 III-2- 7] 사회적지지	270
[그림 III-3- 1] 월 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	271
[그림 IV-1- 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274

[그림 IV-1- 2] 한국아동패널 자료 수집 절차	279
[그림 IV-1- 3] 한국아동패널 자료 개발 절차	280
[그림 IV-1- 4] 한국아동패널 자료 확산	281
[그림 IV-2- 1]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조사 흐름도	283
[그림 IV-2- 2] CAPI 진행 데이터 관리	284
[그림 IV-2- 3] CAPI(보호자용) 화면 구성의 예	286
[그림 IV-3- 1]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 조사 결과 리포트 예시	294
[그림 IV-3- 2] 한국아동패널 9차(2016년) 경품 추첨 내용	294
[그림 IV-3- 3]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아동 답례품	295
[그림 IV-3- 4] 한국아동패널 2008~2015년 조사 참여율	297

부록 표 차례

〈부표 1- 1〉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323
〈부표 1- 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일상생활 특성	323
〈부표 1- 3〉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324
〈부표 1- 4〉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326
〈부표 1- 5〉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327
〈부표 1- 6〉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개인 및 부부 특성	329
〈부표 1- 7〉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330
〈부표 1- 8〉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직업 특성	330
〈부표 1- 9〉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양육 특성	332
〈부표 1-10〉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333
〈부표 1-11〉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물리적 특성	333
〈부표 1-12〉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경제적 특성	334
〈부표 1-13〉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가정환경 특성	334
〈부표 1-14〉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육아지원 서비스	335
〈부표 1-15〉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대인 서비스	335
〈부표 1-16〉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보육/교육 기관	336
〈부표 1-17〉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보육/교육 기관 외	338
〈부표 1-18〉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사교육 및 돌봄 서비스 특성	338
〈부표 1-19〉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공교육 특성	339
〈부표 1-20〉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일반적 특성	340
〈부표 1-21〉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양육환경	340
〈부표 1-22〉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위탁가구 환경	340
〈부표 1-23〉 차수별 정책 변인: 국가지원	341
〈부표 1-24〉 차수별 정책 변인: 직장 지원	341
〈부표 2- 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343
〈부표 2- 2〉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345
〈부표 2- 3〉 8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346
〈부표 2- 4〉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	346
〈부표 2- 5〉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347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동일한 아동을 출생 이후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직·간접적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삶의 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신생아시기부터의 수집·누적된 자료의 희귀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2027년까지 연구 시기가 연장되었으며,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 연구-한국아동패널 II’로 명명됨.
- 2016년 9차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에 맞게 조사를 설계하여 조사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부모, 가정, 학교 등의 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8차년도까지의 수집 데이터를 통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사성 있는 연구 성과를 생산하여 확산하고자 함.
 -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학령기 진입 후 부모 및 가정, 학교, 육아지원 정책 등의 아동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향후 육아정책의 설계에 유의한 논의점을 제공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지속적으로 조사한 주요 변인들의 현 시점 적절성을 검토하고, 패널 초기 모형개발을 토대로 이론적 탐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수정·보강하여 9차년도 조사 문항을 개발함. 이를 위해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 2015년에 수집된 8차년도 일반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성장·발달과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8차년도 기초분석은 외부 연구협력진을 활용해 개발한 횡단 가중치를 적용해 진행함.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종단적 변화 추이를 살펴봄. 종단 추이는 외부 연구 협력진을 활용해 개발한 종단 가중치를 적용해 실시함.
- 클리닝을 완료한 7차년도 자료는 학술대회와 지속적 자료 분석을 통한 추가 자료 정리를 마치고 2016년 12월경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2. 8차년도(2015) 조사 결과 분석

가. 8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개요

- 8차년도 조사는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을 고려하여 내용이 구성됨.
 - 육아지원 서비스 영역이 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교체되었으며,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내용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됨.
 - 아동의 학령기 진입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업 관련 문항, 유-초 연계에 대한 문항이 보강됨.
 - 아동의 성장에 따라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고려한 문항들이 추가됨.
 -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CBCL, HOME 등의 주요 도구들이 해당 연령 기준에 맞는 버전으로 교체됨.
 - 아동의 자기 보고 문항이 추가되어, 자아존중감, 미래기대, 행복감, 학교생활, 또래 관계 등을 직접 응답하도록 함.
- 8차년도 조사는 총 패널 2,150명 중 1,598명이 참여하였음.

나. 8차년도 참여대상의 특성 전반

- 8차 참여 아동의 월령은 평균 87.98개월(표준편차 1.58)로 만 7.3개월임.
- 8차 참여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37.92세(표준편차 3.72), 아버지 40.35세(표준편차 3.98)이었으며, 어머니의 43.6%, 아버지의 88.5%가 취업(또는 학업과 병행) 중이었음.
- 8차 참여 가구의 88.2%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으며, 조부모

및 친인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1.7%였음. 패널 아동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1명이 63.0%, 2명이 22.4%였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도 11.5%였음. 가구의 평균 소득은 462.99만원(표준편차 201.46)으로, 350~449만원이 25.5%, 450~549만원 24.2%이었음.

- 8차 참여 아동의 97.4%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96.1%가 정규 학교 교육 외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음. 이용 중인 사교육 기관은 학원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비용은 평균 28.06만원(표준편차 18.38)이었음.

다. 아동 발달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남아 817명, 여아 781명임.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37.5%, 둘째아는 39.3%임.

□ 일상생활

- 식습관 진단 결과 3점 만점 기준으로 섭취 권장 식품 중에서는 과일과 단 백질류 섭취가 2.35점, 2.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유/유제품 섭취가 1.87점으로 가장 낮았음. 과잉 섭취 자제 권장 항목에서는 튀김 볶음요리의 섭취가 2.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장 및 소금의 추가 섭취는 1.44점으로 가장 적은 경향을 보였음.
- 패널 아동의 평균 TV 시청 시간은 주중 1시간(표준편차 0.78), 주말 2.19시간(표준편차 1.19)로 주말에 더 오랜 시간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었음. 가정 내에서 TV를 시청, 미디어 기기 이용 이유는 아동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84.3%, 82.4%로 가장 많았음. 아동이 휴대폰(스마트폰)을 소유한 경우는 30.7%였음.
- 패널 아동은 평균 6.47세(표준편차 0.91)부터 혼자 잠을 자기 시작하며, 학령기에 혼자 잠을 자는 경우가 12.4%였음. 전체 아동의 72.1%는 아침에 스스로 기상할 수 있으며, 평균 주당 4.47회(표준편차 2.04)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함. 93.1%의 아동은 숙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주중 21시 49분~7시 28분(9.63시간), 주말 22시 12분~8시 1분(9.75시간)까지 수면을 취함.
- 아동의 평일 하루의 활동 시간은 학교 활동(5.57시간), 실내 활동(5.01시간),

사교육 활동(1.70시간), 기본생활 시간(1.31시간), 바깥놀이 시간(0.78시간), 외출 시간(0.38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내 활동 중 장난감 놀이(1.49시간)가 가장 길었고, 미디어기기 이용시간(0.39시간)이 가장 짧았음.

- 90% 이상의 아동이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당일 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여행,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종교 활동 참여는 34.9%로 다른 활동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봉사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은 각각 3.7%, 2.3%였음.

□ 신체 및 건강 특성

- 패널 아동의 평균 신장은 123.51cm, 허리둘레는 평균 58.01cm, 체중은 25.28kg, BMI 16.50kg/m²로 나타남.
- 평균 6.11세부터 빠지기 시작한 유치는 2015년 평균 5.25개가 빠졌고, 충치는 0.79개였음.
- 전체 아동 중 7.4%가 안경을, 0.2%가 시력교정도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평균 5.63세부터 착용하기 시작함.
- 연간 입원 치료 기간이 1년 평균 5.37일이며, 한 달 간 통원 치료 경험이 있는 아동은 31.8%였음. 만성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는 3.5%,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는 0.6%,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는 62.8%였음.

□ 인지 및 언어 발달

-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해 3점 만점에서 어머니는 계획 및 조직화 1.57점(표준편차 0.40), 행동 통제 1.30점(표준편차 0.32), 정서 통제 1.40점(표준편차 0.41), 부주의 1.49점(표준편차 0.42)로 응답함. 동일 내용에 대해 교사는 계획 및 조직화 1.45점(표준편차 0.52), 행동 통제 1.27점(표준편차 0.44), 정서 통제 1.22점(표준편차 0.43), 부주의 1.24점(표준편차 0.43)으로 어머니 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보고함.
- 전체 아동의 표현 어휘력 점수는 87.03점(표준편차 13.32), 수용 어휘력 점수는 85.17점(표준편차 14.80)으로 나타남.
- 아동의 학습 능력에 대해 교사는 5점 만점에 국어 4.16점(표준편차 0.96), 수학 4.34점(표준편차 0.89), 전체 4.26점(표준편차 0.90)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보고함.

□ 사회 및 정서 발달

-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45점(표준편차 0.50)이었음.
- 아동은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21.6%, 유명한 사람이 23.0%,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15.9%였음. 언제까지 학교를 다니고 싶은지에 대해 아동의 대학 74.0, 고등학교 14.7%, 초등학교 6.9%, 중학교 4.5%의 순으로 응답함.
-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3.25점(표준편차 0.48점)이었으며, 학교 선호는 3.21점(표준편차 0.90), 교사 선호는 3.42점(표준편차 0.76)였음. 아동의 과목 선호도는 국어 평균 2.99점(표준편차 0.96), 수학 3.20점(표준편차 0.98)이었음.
- 아동의 수업 참여는 평균 3.20점(표준편차 0.77), 즐거움 점수는 3.19점(표준편차 0.91), 기분 좋아지는 정도는 3.23점(표준편차 0.86)으로 패널 아동은 학교생활에 상당히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14.98점(표준편차 13.74), 내재화 문제 3.74점(표준편차 4.14), 외현화 문제 4.19점(표준편차 4.48)이었음.
- 패널 아동은 평균 10.33명(표준편차 9.13)의 친구가 있었음. 남·여 아동은 각각 평균 7.38명, 7.57명의 동성 친구와 2.96명의 이성 친구가 있었음.

라. 부모 특성

- 2008년 태어난 패널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2015년 기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93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39세임.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는 대졸 38.5%, 전문대졸 27.2%, 고졸 27.1%, 대학원졸 6.7%의 순임.
- 부모의 우울 수준은 부모의 3/4 가량(어머니 75.7%, 아버지 74.6%)이 정상수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18.4%가 경도/중등도, 6.0%가 중도의 우울을, 아버지의 20.6%가 경도/중등도, 4.8%가 중도의 우울 수준을 보고함.
-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어머니는 평균 3.02점, 아버지는 3.80점으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어머니는 2.95점, 아버지는 3.03점으로 어머니에게서 취업 여부,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58.5%가 만족하는 편이었고, 31.7%가 보통, 9.8%가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었음. 부모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 초혼이 97.7%로 대다수였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131.13개월(표준편차 36.87)로 약 10.9년 정도로 나타남.
-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3.7점, 아버지 4.0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높게 나타남. 부부갈등 역시 어머니 2.59점, 아버지 2.06점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갈등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음.
-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 병력은 부모 모두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어머니 35.9%, 아버지 33.4%로 가장 많고, 어머니의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을 앓고 있는 비율도 15.2%였음.
- 부모의 직업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취/학업 상태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전체의 92.9%가 취업(휴직 포함) 중이었고, 어머니는 39.5%가 취업(휴직 포함) 중이었음. 어머니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 상태인 경우가 43.0%로 가장 많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취업상태 비율이 높았음.
-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92.1%로 대다수임. 이상적인 자녀수는 어머니의 경우 2명이 60.1%, 3명이 24.9%,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고, 아버지의 경우 2명이 58.5%, 3명이 30.5%이었음.
- 부모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2.42점, 아버지 2.21점으로 어머니가 다소 높았고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음.
- 어른 없이 있을 때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든 아동 출생순위와 지역규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출생순위 별로 항상 주고받는다든 응답이 첫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자녀 숙제 시 도움 제공자를 묻는 질문에 엄마가 90.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형제자매 4.4%, 아빠 3.3%, 교사 1.0%, 조부모 0.9% 순으로 나타남.

마. 가구 특성

- 가구 구성 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89.6%로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하며,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확대가족 형태는 6.8%, 여기에 친척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3.0% 정도였다.
-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6.7%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12.6%, 단독주택 7.8%, 기타 2.9%의 순임. 10년 이상된 집에 사는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고, 6~10년이 24.4%, 2~5년이 20.8%, 1년 이하가 5.0%순이었음.
- 패널 아동이 혼자 쓸 수 있는 개별 방이 있는 경우는 56.1%였음.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한 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8%,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3%였음.
- 패널 아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습기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76.4%의 패널 가구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이 중 31.1%의 패널 가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은 약 464만원, 취업모의 근로소득은 약 185만원 정도로 나타났음.
- 보호자가 인지하는 자신의 대한민국 내,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 친인척, 친구, 동호회 등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 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10단계로 나누어 보면, 4.86단계 정도로,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패널 아동에게 용돈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3.5%만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있고, 60.0%는 주지 않으며, 26.6%가 필요할 때마다 준다고 응답함.
-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용 가정환경 검사를 활용해 질을

측정하였음. 전체 평균은 59점 만점에 47.55점으로, 중위점을 기준으로 7점 낮은 경우를 위험집단으로 분류할 시, 위험집단은 20.4% 정도로 나타났음.

바. 학교 특성

- 8차년도 조사시점인 2015년도에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99.4%임. 입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명(0.3%)의 미 진학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없어서였음.
- 국·공립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형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가정에서 월평균 부담하는 비용은 54만 8천원이었음. 대부분 아동이 국·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96.9%), 2.3%는 사립, 0.6%는 대안, 0.1%는 국제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등교시간이 9시 이전인 경우가 66.4%이며,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33.6%이었음. 대도시 지역은 9시 이전에 등교하는 비율이 79.4%로 9시에 등교하는 학교보다 훨씬 많았음.
- 교사 대상 조사 결과, 해당 학년 학급 수는 평균 5.39학급이며,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 학교에서 평균 학급 수가 적었음. 아동이 속한 학급의 학생 수는 평균 24.79명이며,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평균 학생 수가 많았음.
- 담임교사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교사가 95.3%, 남자 교사는 4.7%였으며, 읍면지역에는 남자 교사의 비율이 8.5%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었음. 교사의 총 경력은 평균 17.58년이며, 1학년 담임 경력은 평균 4.31년이었음.
- 교사들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 과제를 부과하는지 조사해보면, 주3~4회가 34.4%로 가장 많았고, 전혀 제시하지 않는 교사가 3.6%임. 그리고 교사들이 아동에게 부과한 과제의 예상 소요시간은 15~30분 미만이 58.7%이며, 30분~1시간 21.0%, 15분 미만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초등교육 연계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4.11점), 특히 읍면지역의 교사들은 4.29점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과반수가 학기중에 교육이 아닌 아동의 돌봄이나 양육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69.7%), 그 외에는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이 돌봐주거

나(17.4%)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12.5%)가 많았음.

- 패널 아동 중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전체의 4.1%에 불과함. 이용하고 있는 교과목으로는 체육이 59.6%, 음악 48.6%, 수학 45.9%, 한글(국어) 40.1% 등의 순이었음.

사. 지역사회 특성

- 조사가 실시된 2015년과 이전 2014년 조사 시기 간 약 1년 동안 이사를 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한 1,574가구의 23.2%가 거주지를 옮겼음.
- 패널 아동 가정이 위치한 지역을 시·도 구분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인권이 33.5%로 가장 많고 서울 16.7%, 부산·울산 및 경남권역이 15%로 세 번째의 비율을 차지함.
- 양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한 여가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나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살펴봄. 놀이터, 공원, 산책로에 대해서는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내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0~40% 정도만이 편리하다고 하였음.
-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패널 가정의 54.4%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도서관이용은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공공시설 중 편리하게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아. 정책 특성

- 아동 패널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0.6%, 차상위계층은 2.4%인 것으로 조사됨.
- 국가가 제공하는 양육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의 혜택을 패널 가구가 얼마나 수혜하고 있는지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56%, 자녀세액공제는 37.9%의 부모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돌봄서비스 중 아이돌봄은 1.0%, 초등돌봄교실 17.1%, 방과후 돌봄 2.5%로 응답함.
-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중에는 패널 가구 중 2.8%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2.7%가 '저소득층 급식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에서 제공하는 각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시행하는 비율과 이를 이용한

경험의 비율을 보면, 여성의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비율은 51.9~58.5%이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33.0~36.3%정도이다. 유연근무제는 25~30% 가량의 직장이 시행하고 있고 그 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15.9~18.6%정도임.

3. 1~8차년도 주요 변인 추이 분석

가. 아동 특성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던 7차년도까지 평균 7시간 정도를 기관에서 보냈던 데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5.54시간으로 1시간 이상 감소됨. 돌봄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8차년도에 큰 폭으로 늘어 2시간 30분정도 까지 늘어남.
- 평균 취침 시간은 연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기상 시간은 차츰 일러져 8차년도는 7차년도보다 11분 더 먼저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음.
- 시력교정기구 사용 여부를 보면 안경을 착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우세손은 대부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8차년도에는 양손 사용 비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나. 부모 특성

- 어머니의 취업률(학업 중 포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연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하는 어머니의 47.6%가 전문직 관련 종사자이며, 35.3%는 사무종사자였음. 어머니들의 직업 만족도는 대부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 정도는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음.
-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만족도 인식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부모 모두 자녀가 취학 직전 시기에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고, 초등학교 입학 후 회복되는 현상을 보임. 부부 갈등 인식은 영아기 이후 점진적으로 조금씩 높아짐.
- 부모의 양육행동은 큰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모두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자녀 양육을 하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자녀가 4세 이후가 되면서 줄어들었다가, 초등학교령기에 진입하며 높아짐.

다. 가구 특성

- 월 평균 가구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3년간 20만원 정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가구 지출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자녀가 2~3세일 때 큰 폭으로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폭이 8~9만원 선으로 유지되고 있음.

라.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의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 시설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연도별로 대부분 차이가 없음.

4. 9차년도(2016) 패널 연구 사업 보고

- 기존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중단연구 리뷰 등을 통해 9차년도 질문지를 개발하였음. 아동 수행검사로 초등 고학년, 중·고등 시기와의 연계를 위해 다요인 지능검사(M-FIT)를 실시함.
- 패널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8차년도 조사 결과 리포트를 web으로 개별 전달하였으며, 경품 행사 진행, 아동 답례품 지급 등의 노력을 지속함.
- 조사원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원 교육 및 중간점검과 더불어, 조사원들 간의 SNS 채팅방 개설, 슈퍼바이저 감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함.
- 9차년도 실사는 1,525가구로 전년 대비 95.4%의 성공률을 보임.
- 제 7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영국의 Kathy Sylva(University of Oxford)와 독일의 Bernhard Kalicki(The German Youth Institute, DJI)를 기조강연자로 국내·외 중단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함.
- 누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신청한 연구자는 927명이었으며, 데이터를 활용해 395건의 연구물이 발간됨.

5. 정책적 시사점

□ 학교의 제도적 개선

-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수의 연장: 방과후 과정이나 학교 외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수적으로 늘어나는 취업모가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조부모에게 자녀 돌봄을 의존하게 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유아기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보다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 시간이 더 짧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초등학교의 고학년 수준과 비슷한 하교 시간 즉, 오후 3시 또는 3시 30분까지 학교의 정상 일과가 진행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기록부의 학교와의 연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생활 기록부가 아동의 입학과 함께 자동으로 초등학교에 전달된다면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개별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부모 특성에 따른 지원

- 취업모 1학년 자녀에 대한 영유아 종일반의 개방: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모 자녀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아동이 여러 학원을 바쁘게 다니도록 하기 보다는 유아기의 안전함과 익숙함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동의 안정적 발달에 유용할 수 있음.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보다 탄력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조건이나 교사 등에서 방안이 필요함.
- 저소득 가구 1학년에 대한 독서 지원 강화: 8차년도 패널 조사의 결과로도 학력과 가구 소득, 거주하는 도시 유형 등이 아동의 언어 및 인지, 정서발달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므로 특히 읍·면인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 가구에 대해 독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어휘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인지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출산 대책의 방향성

- 두 자녀 가정 수립 지원: 자녀를 둘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음을 반영하여, 다자녀를 3명부터로 인정하고 이들에게만 주택, 교육비 등 혜택을 주는 현행 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을 2자녀부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직 함.

- 유연근무제의 확대: 초등 1학년을 둔 부모에게 있어 가장 만족도가 큰 유연근무제가 모든 직장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성 확대
 - 공공 도서관 활용성 제고: 공공 문화시설 등의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도서관이 다른 문화 시설이나 체험 공간보다 접근성이 높고 이용의 벽이 낮다는 것에 집중함.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도서관이 문화적 체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2008년 이래 중단 없이 진행해오고 있다. 즉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동이 태어나 성장하는 환경의 영향, 신체적·정신적 모든 측면을 포함한 아동의 발달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한 패널 아동을 대상으로 해마다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과 지역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한국아동패널이 국가의 장기적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보겠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초기에, 조사 참여 아동이 초등 6학년이 되는 시기까지 총 10회에 걸친 자료의 산출을 목표로 했으므로 패널 아동 초등 2학년이 되는 2016년은 연구 대상 연도가 아니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1, 3, 6학년 시기만을 조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연구예산조차 책정되지 않아 2016년은 조사대상 연도에서 빠져있었다(이정림 외, 2010; 이정림 외 2011; 김은설 외, 2012).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발달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신생아 시기부터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누적된 종단 자료의 희귀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패널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향후 10년의 연구 지원을 정부가 약속했고 이에 따라 본 2016년 조사가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속되게 될 것이다.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 패널로 시작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1년을 주기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연구 착수 당시 신생아였던 패널은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201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학령기에 들어섰다. 초등학교 입학은 많은 변화를 동반하는데 국가 의무교육과정인 형식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고, 생활환경이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또래관계의

규모와 중요성도 커진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의 인지 발달, 정서·사회적 발달 등은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구체적 사물에 대해 정신적 활동을 통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자의식적 정서에 대한 이해 및 내면화, 조절 등이 발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 발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축적해온 영유아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기에 대한 지속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경험과 이전 시기의 발달이 아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부모와의 관계와 지지가 아동기 사회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유아기 육아 지원기관 이용이나 초등 입학 전·후의 공교육과 사교육 보육의 경험이 아동의 인지·정서·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동기 발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올해 2016년 9년차 조사는 이제 꽤널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기로, 학령기 이전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거의 벗어나고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기 또한 거쳐 지나온 명실상부한 중기 아동기에 해당한다. 아동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에 아동은 인지발달에서 주요한 전환점을 맞을 정도로 급격한 발달을 보여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되어 학교생활과 성취에도 점차 집중할 수 있게 된다(Berk, 2008). 이렇게 발달적 변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아동의 어떠한 측면을 꽤널 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자료를 새롭게 축적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향후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활용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2016년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특별히 아동의 인지적 능력 발달에 관심을 두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꽤널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인지, 학습 측면의 자극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확장되었고 사회적 활동 범위도 가정, 또래를 넘어서 학급, 학교, 학원 등으로 넓어졌으며, 교사와의 관계 또한 학생과 학부모로서 이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와의 보호적, 보육적, 상호작용 중심적, '서비스 제공자 대 소비자'적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기관의 변화에 따른 꽤널 아동의 적응 및 발달적 변화

에 관한 자료를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부모의 변화, 가정환경, 사회 및 국가 정책적 변화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지난 8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 이 시기에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문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결과와 답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 경험이 이후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는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아동패널 2016 연구는 올해 실사 조사 수행을 위한 아동발달 검사도구를 선정하고 질문 문항을 확정하며, 이전 2015년에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여 그 종단적,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내용

한국아동패널의 9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는 한국아동패널 2016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9차년도 조사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주요 변인들을 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적절한 문항이 될 수 있도록 유지, 추가, 삭제하였다. 또한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에서 제시한 조사 영역 및 변인을 토대로 하되, 만 8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발달검사 및 조사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아동의 학교생활과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보강하였다.

전반적인 조사내용의 체계는 8차년도까지의 연구와 동일하다. 다만, 7차년도까지 기본 틀로 가지고 있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관련 특성이 2015년부터 학교 관련 특성과 방과후 활동으로 변경되었다.

아동 특성에서는 2015년부터 구강 건강 정보가 추가되고 아동의 정서, 사회적 발달에 따라 주관적 삶의 만족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친구와의 관계 등 또래관계, 학교 적응 등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다요인 지능검사(M-FIT)를 실시하여 전반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측

정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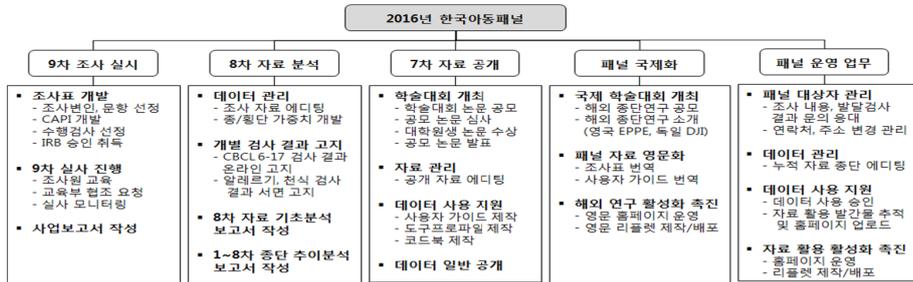
둘째, 2015년에 실시한 8년차 일반조사 결과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만 6세아의 발달결과와 이와 관련된 가정환경 및 부모 특성, 기관·교사 변인, 지역 사회와 육아정책의 수혜 등 생태학적 제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주요 변인들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변인의 전반적인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8년 간 0~7세 패널아동의 발달 추이를 분석하여 중단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변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나 그럼에도 지속적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변인을 선별하여 이들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7차년도 자료 클리닝을 완료하고 일반 공개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 조사가 완료된 7차년도 자료의 클리닝을 1차적으로 마친 뒤 이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한 후 2016년도 12월경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공개하였다.

다섯째, 패널 유지와 자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학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아동의 개별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2016년 9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 유지가 주요한 과업으로 요구되었다. 패널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브로슈어, 생일 카드 및 연말 연하장 발송, 거주지 정보 변경 고지에 따른 사례품 제공 등을 계속하고, 한국아동패널 참여자 및 탈락자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서 패널조사 참여율 제고를 모색하였다.

본 한국아동패널 2016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2-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2-1] 한국아동패널 2016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고찰 및 문항 선정

9차년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문항 개발을 위해 기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발달검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 확인하여 적절한 문항과 검사 도구를 선정하였다.

〈표 1-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1	심층조사 ¹⁾	학술대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15세	16~18세	19세		
2008	1차																
2009		2차														1차	
2010			3차													부가조사 ²⁾	1회
2011				4차													2회
2012					5차												3회
2013						6차										2차	4회
2014							7차										5회
2015								8차									6회
2016									9차							3차 ³⁾	7회
2017										10차							
2018											11차						
2019												12차					
2020													13차			4차 예정	
2021														14차			
2022															15차		
2023																16차	
2024																17차	5차 예정
2025																18차	
2026																19차	
2027																	20차 6차 예정

- 주: 1)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크게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됨.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조사로써 매년 실시함. '심층조사'는 2~3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문항 내용 및 검사 방법이 일반조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실행함.
- 2) 한국아동패널 3차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횡단자료를 구축함.
- 3) 8차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5년~2016년까지 질병관리본부 R&D 과제로 아산병원과 각 지역별 거점 병원에서 혈액, 소변, 폐기능 검사 등의 심층조사가 실시됨.

〈표 1-2-2〉 한국아동패널 2016 (9차년도) 조사 변인

구분	조사 변인(대분류)
아동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일상생활
부모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직업 특성, 개인 특성, 부부 특성, 부모됨, 양육 특성, 지원 특성, 학교 특성
가구	인구학적 특성, 가계 경제 요소, 가정환경, 건강특성
학교	학교 특성, 학급 특성, 교사 특성
지역사회	일반적 특성, 물리적 특성
육아정책	공공부조

나. 전문가 자문회의

M-FIT 다요인 지능검사에 대한 패널 도구로서의 활용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사 개발을 주도했던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과 해석, 활용 및 시행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종단적, 횡단적 가중치 부여의 방법과 사용을 위해 가중치 산출 분야 통계학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설문조사

본 패널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패널 CAPI 조사, 패널 아동의 부모에 대한 대면 조사, 아동의 교사에 대한 WEB 조사, 그리고 아동에 대한 발달 검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 패널 CAPI 조사

- 조사 대상: 약 1,770¹⁾ 패널 가구의 아동 및 양육자(대부분 어머니)
- 조사 내용
 - 패널 특성 조사: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구특성, 학교 및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등
 - 가정환경 조사: 환경 관찰을 통한 HOME 측정지 이용

1)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총 2,150가구 중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처가 두절된 380가구를 제외하고 1,770가구를 유효패널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조사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질문지(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CAPI)이용 대인면접
- 조사 절차: 조사 대상 가구에 전화로 접촉하여 방문일자를 정하고 가구 방문. 이 때 질문지가 탑재된 노트북을 지참하여 개인 면담 및 관찰로 진행

2) 부모조사

- 조사 대상: 약 1,770명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 조사 내용: 양육태도, 심리적 특성, 직업 특성, 가족 상호작용 등
- 조사 방법: 우편용 질문지
- 조사 절차: 질문지를 우편으로 패널 가정에 발송하여 응답을 요청하고 가구를 방문하여 수거함.

3) 교사조사

- 조사 대상: 패널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 조사 내용: 학교 특성, 교사 특성, 가정 협력, 아동발달 특성 등
- 조사 방법: 웹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 절차: 조사 대상 아동의 어머니에게 아동의 담임 교사를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담임 교사에게 전화하여 실시 안내. 교사 조사를 위해 교육부 협조를 구함.

4) 아동발달 수행검사

- 조사 대상: 패널 아동
- 조사 내용: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M-FIT 다요인지능검사 등
 - ※ M-FIT 다요인지능검사(초등2학년용) 구성: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도식화능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추리력(약 40분 소요)
- 조사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화 된 설문지(CAPI) 이용 대인면접, 수행 검사

라. 외부 연구협력진 활용

패널의 8차년 자료에 대한 횡단가중치와 종단가중치 산출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협력진으로 활용하여 가중치 산출을 진행하였다.

마. 자료 에디팅 및 학술대회 개최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1~7차년도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학계 전문가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7차년도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를 공모하는 과정을 시행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한 연구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패널 자료 활용 연구의 활성화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바. 패널 유지 및 홍보 실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패널 가정에 대해 이사 등 가정의 변동 사항을 추적하고 선물과 경품을 해당자에게 보내며, 연하장 등을 발송하여 패널로서의 계속적 활동을 유지하도록 관리, 지원하였다. 또한 아동패널 자체 홈페이지(국문, 영문)를 통해 아동패널을 홍보하고 자료의 활용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 외에도 데이터의 사용 허가, 허가된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다음에서 이어지는 본 한국아동패널 2016 보고서는 II장에서 2015년에 실시된 조사인 8차년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1차부터 8차까지 조사된 지속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도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IV장에서는 2016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사업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8차년도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도별 변인 변화와 가중치 작성과정, 패널 유지 및 홍보를 위한 리플렛 등은 [부록]에 정리하여 추가하였다.

II. 8차년도(2015) 조사 결과 분석

1. 패널 8차년도 조사의 특징

가. 조사의 특징 및 성공률

본 장의 기초분석에 활용되는 8차년도 조사는 패널 아동이 만 7세로 초등 학령기에 진학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이 구성되었다. 만 7세 시점의 8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에 앞서 2015년 조사의 특징을 간략히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지원 서비스 영역의 내용이 아동의 진학에 따라 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교체 되었다. 7차년도 조사까지 영유아기 아동이 다니던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육아지원기관 조사는 아동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 조사로 대체되었다.

둘째, 아동의 학령기 진입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업 관련 문항이 보강되었다.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 수행 능력, 집행기능 등 변화된 미시체계 적응 능력과 학업 수행 관련 항목이 포함되었다.

셋째, 아동의 성장에 따라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고려한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대표적으로 수면, 과제 수행 시의 도움, 용돈 지급, 부모 감독, 휴대폰 소유 여부, 활동 참여 정도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넷째,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유-초 연계 측면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기존 사용 도구들이 대체되었다. 대표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CBCL 1.5-5 질문지를 초등·청소년기에 사용할 수 있는 CBCL 6-18로 변경하였으며, 가정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HOME 질문지를 유아기용인 EC-HOME에서 아동기용인 MC-HOME으로 교체하였다.

여섯째, 아동의 성장에 따라 자아존중감, 미래기대, 행복감,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 아동이 면접원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의 자기 보고 문항을 추가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된 8차년도 조사별 성공률은 <표 II-1-1>과 같으며, 해당 질문지는 부록 5에 수록하였다. CAPI(보호자용)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전체 조사 참여자는 1,598명으로 완료되었다. 8차년도에 경우 대다수의 조사가 90% 후반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부모 동의 후 교사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학교 조사의 성공률도 9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1-1〉 한국아동패널 2015년 조사별 성공률

구분	조사방법	응답자	참여자 수	성공률
CAPI(보호자용) ¹⁾	면접 조사	아동의 주 양육자	1,598	100.0
CAPI(아동용)		아동	1,560	97.6
REVT 검사	아동대상 수행검사	아동	1,560	97.6
어머니 대상	지필식 우편	어머니 ³⁾	1,556	97.4
아버지 대상	설문조사 ⁵⁾	아버지	1,469	91.9
아동 행동발달	지필식 설문조사	아동의 주 양육자	1,577	98.7
건강관련			1,577	98.7
학교	웹 기반 설문조사	아동의 담임 교사	1,031	90.1 ⁴⁾

- 주: 1) 조사별 성공률은 CAPI(보호자용)를 기준으로 함.
 2) 아동의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 대상' 질문지를 응답하도록 함.
 3) 학교 조사의 성공률은 담임교사를 조사를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한 1,144명을 기준으로 함.
 4)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필식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송부한 후 가구방문 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8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 특성²⁾

8차 조사 참여 표본의 특성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아동, 부모,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이 이용하는 학교 및 사교육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아동의 일반 특성

8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1%, 여아가 48.9%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외동)아 46.5%, 둘째아 42.0%, 셋째아 10.3%의 순이었다. 월령은 평균 87.98개월로, 88개월 24.7%, 87개월 19.8%, 89개월 17.7% 순으로 분포하여, 대다수의 아동이 만 7세 초반에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성

2) 제시된 자료는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값임.

별, 출생순위 및 월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8차 조사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단위: %(명)	
					$\chi^2(df) / F$	
전체	100.0(1,598)	100.0(678)	100.0(655)	100.0(264)	-	
성별						
남아	51.1(817)	49.3(334)	51.6(338)	54.7(145)	2.37(2)	
여아	48.9(781)	50.7(344)	48.4(317)	45.3(120)		
출생순위						
첫째(외동)	46.5(743)	48.4(328)	45.0(295)	45.3(120)	8.02(6)	
둘째	42.0(671)	41.7(283)	42.7(280)	40.8(108)		
셋째	10.3(164)	8.3(56)	11.5(75)	12.5(33)		
넷째 이상	1.3(20)	1.6(11)	0.8(5)	1.5(4)		
월령						
84개월	0.1(2)	0.1(1)	0.2(1)	0.0(0)	-	
85개월	4.3(68)	5.5(37)	4.3(28)	1.1(3)		
86개월	15.1(242)	14.9(101)	15.0(98)	16.2(43)		
87개월	19.8(317)	21.7(147)	20.5(134)	13.6(36)		
88개월	24.7(395)	23.3(158)	24.6(161)	28.7(76)		
89개월	17.7(283)	14.6(99)	19.1(125)	22.3(59)		
90개월	12.5(200)	12.8(87)	11.8(77)	13.6(36)		
91개월	4.1(66)	5.6(38)	3.2(21)	2.6(7)		
92개월	1.6(25)	1.5(10)	1.5(10)	1.9(5)		
평균 월령(표준편차)	87.98(1.58)	87.95(1.65)	87.95(1.55)	88.15(1.48)		1.94

나. 부모의 일반 특성

8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37.92세, 아버지 40.35세로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35~39세가 52.1%, 아버지의 경우 40~44세가 44.2%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 아버지의 연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경우 도시의 규모가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작아질수록 연령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이 어머니 37.7%, 아버지 42.0%, 고등학교 졸업이 어머니 28.7%, 아버지 26.2%, 전문대학이 어머니 27.4%, 아버지 20.2%로 부모가 동일한 순의 비율로 조사 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고학력자가 53.2%로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

력은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 아버지의 88.5%가 취업 또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 중인 반면, 어머니의 경우 43.6% 정도가 취업 또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2-2〉 8차 조사 참여 부모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100(159)	100.0(675)	100.0(654)	100.0(261)	100.0(1,568)	100.0(664)	100.0(645)	100.0(259)
연령								
29세 이하	1.1(18)	0.6(4)	1.4(9)	1.9(5)	0.2(3)	0.2(1)	0.3(2)	0.0(0)
30~34세	15.5(247)	14.4(97)	14.2(93)	21.8(57)	6.4(100)	5.4(36)	7.0(45)	7.3(19)
35~39세	52.1(828)	53.8(363)	54.1(354)	42.5(111)	35.8(562)	36.4(242)	34.6(223)	37.5(97)
40~44세	27.1(431)	26.7(180)	26.8(175)	29.1(76)	44.2(693)	45.2(300)	43.9(283)	42.5(110)
45세 이상	4.2(66)	4.6(31)	3.5(23)	4.6(12)	13.4(210)	12.8(85)	14.3(92)	12.7(33)
평균 연령	37.92	38.10	37.86	37.57	40.35	40.45	40.35	40.11
(표준편차)	(3.72)	(3.68)	(3.59)	(4.09)	(3.98)	(3.98)	(3.98)	(4.02)
F	-	2.02			-	0.70		
학력 ¹⁾								
초등 졸업 이하	0.1(1)	0.1(1)	0.0(0)	0.0(0)	0.0(0)	0.0(0)	0.0(0)	0.0(0)
중등 졸업	0.4(6)	0.4(3)	0.0(0)	1.1(3)	0.4(7)	0.5(3)	0.3(2)	0.8(2)
고등 졸업	28.7(456)	28.9(195)	26.5(173)	33.7(88)	26.2(410)	25.5(169)	22.2(143)	38.0(98)
전문대 졸업	27.4(435)	25.8(174)	26.8(175)	33.0(86)	20.2(316)	18.7(124)	20.3(131)	23.6(61)
4년제 대졸	37.7(599)	36.6(247)	41.9(274)	29.9(78)	42.0(658)	43.0(285)	45.4(293)	31.0(80)
대학원 이상	5.8(93)	8.1(55)	4.9(32)	2.3(6)	11.2(175)	12.4(82)	11.8(76)	6.6(17)
$\chi^2(df)$	-	5.84(2)			-	24.13(2) ^{***}		
경제활동 ²⁾								
취업중	39.9(635)	40.7(275)	40.5(265)	36.4(95)	87.2(1,368)	86.0(571)	89.3(576)	85.3(221)
학업중	0.4(6)	0.6(4)	0.0(0)	0.8(2)	0.0(0)	0.0(0)	0.0(0)	0.0(0)
취/학업 병행	3.7(59)	3.7(25)	2.9(19)	5.7(15)	1.3(21)	2.1(14)	0.6(4)	1.2(3)
미취/학업	54.6(868)	54.5(368)	54.4(356)	55.2(144)	5.1(80)	3.9(26)	5.4(35)	7.3(19)
무응답	1.4(22)	0.4(3)	2.1(14)	1.9(5)	6.3(99)	8.0(53)	4.7(30)	6.2(16)
$\chi^2(df)$	-	0.20(2)			-	4.41(2)		

*** $p < .001$.

주: 1) 부모 학력은 빈도 수 특성을 고려하여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함.

2) 전체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모두 무응답으로 기재하였으며, 통계 분석을 위하여 취/학업자와 미취/학업자로 분류하여 분석함.

다. 가구의 일반 특성

8차 조사에 참여한 88.2%의 대다수 패널 가구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으며, 조부모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11.7%,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같은 기타 유형의 가구가 0.1%였다. 가구의 구성원은 평균 4.16명으로, 4명인 가구가 62.5%로 가장 많고, 5명이 21.8%, 3명이 12.0%의 순이었다. 가족 형태는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핵가족의 경우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였다.

패널 대상 아동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1명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22.4%였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도 11.5%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패널의 경우 평균적으로 1.1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 및 아동의 형제자매 수는 지역 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소득을 보면, 350~449만원이 25.5%, 450~549만원이 24.2%, 250~349만원이 18.0%였으며, 평균 462.9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사후 분석으로 Scheffe을 실시하였을 때, 읍·면지역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2.8%로,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2-3〉 8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만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chi^2(df)/F$
전체	100.0(1,598)	100.0(678)	100.0(655)	100.0(265)	-
가구형태 특성 ¹⁾					
부모+자녀	88.2(1,409)	91.2(618)	84.9(556)	88.7(235)	
조부모+부모+자녀	7.4(119)	6.6(45)	7.8(51)	8.7(23)	
부모+자녀+친척	0.8(12)	0.4(3)	0.9(6)	1.1(3)	13.92(2)**
조부모+부모+자녀+친척	3.5(35)	1.5(10)	6.4(42)	1.5(4)	
기타	0.1(2)	0.3(2)	0.0(0)	0.0(0)	
가구원 수					
2명	0.5(8)	0.9(6)	0.0(0)	0.8(2)	
3명	12.0(192)	11.9(81)	12.5(82)	10.9(29)	
4명	62.5(999)	64.9(440)	62.3(408)	57.0(151)	-
5명	21.8(349)	18.6(126)	23.1(151)	27.2(72)	
6명 이상	3.2(50)	3.6(25)	2.1(14)	4.2(11)	
평균 가구원 수(표준편차)	4.16(0.70)	4.13(0.72)	4.15(0.67)	4.23(0.74)	2.11

(표 II-2-3 계속)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chi^2(df)/F$
아동의 형제자매 수					
0명	11.5(183)	11.9(81)	11.5(75)	10.2(27)	
1명	63.0(1,007)	65.2(442)	63.1(413)	57.4(152)	
2명	22.4(358)	19.0(129)	23.4(153)	28.7(76)	-
3명 이상	3.1(50)	3.8(167)	2.1(86)	3.8(408)	
평균 형제자매 수(표준편차)	1.18(0.68)	1.15(0.69)	1.17(0.66)	1.26(0.70)	2.58
가구 소득					
149만원 이하	1.0(16)	1.0(7)	0.6(4)	1.9(5)	
150~249만원	6.1(97)	6.6(45)	3.8(25)	6.1(97)	
250~349만원	18.0(287)	18.1(123)	17.6(115)	18.0(287)	
350~449만원	25.5(403)	24.6(167)	25.2(165)	25.2(403)	
450~549만원	24.2(387)	23.9(162)	24.1(158)	24.2(387)	-
550~649만원	10.0(160)	10.8(73)	10.5(69)	10.0(160)	
650~749만원	6.4(103)	5.8(39)	7.5(49)	6.4(103)	
750~849만원	3.3(53)	2.9(20)	4.3(28)	3.3(53)	
850~949만원	1.2(19)	1.3(9)	1.5(10)	1.2(19)	
950만원 이상	4.6(73)	4.9(33)	4.9(32)	4.6(73)	
평균(표준편차)	462.99(201.46)	458.74(199.67)	483.53(211.30)	423.00(173.10)	8.79**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²⁾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8(12)	1.2(8)	0.5(3)	0.4(1)	
차상위 계층	2.0(32)	1.9(13)	2.3(15)	1.5(4)	1.04(2)
해당 없음	97.2(1,554)	96.9(657)	97.3(637)	98.1(260)	

** $p < .01$, *** $p < .001$.

주: 1) 가구형태는 빈도 수 특성을 고려해 핵가족(기타 포함)과 그 외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 실시.

2) 빈도 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없음과 그 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라. 학교 및 사교육 이용 특성

8차 조사에 참여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한 경우 97.4%의 대다수가 국/공립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 1.8%, 대안학교 0.6%, 국제학교 0.3% 순이었다.

아동의 담임교사는 40대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0.2%, 50대가 25.5%로,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차 조사 참여 아동의 96.1%가 정규 학교 교육 외의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사교육 이용 특성은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또한 이용 중인 사교육 기관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원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 방과후 교실 이용이 24.7%, 학습지가 20.6%, 가정내 개인/그룹지도 8.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이용 중인 사교육 이용비용은 10~19만원이 27.2%, 20~29만원이 22.9%, 30~39만원이 18.9%로, 평균 28.06만원이었다. 이는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읍·면지역에서 사교육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4〉 8차 조사 참여 가구의 교육서비스 이용 특성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chi^2(df)/F$
단위: %(명)					
초등학교 유형					
국/공립	97.4(1,553)	97.6(660)	96.8(633)	98.1(260)	
사립	1.8(29)	1.5(10)	2.3(15)	1.5(4)	
국제	0.3(4)	0.6(4)	0.0(0)	0.0(0)	-
대안학교	0.6(9)	0.3(2)	0.9(6)	0.4(1)	
계(수)	100.0(1,595)	100.0(676)	100.0(654)	100.0(265)	
담임교사의 연령					
20대	10.7(110)	9.8(43)	11.1(46)	11.7(21)	
30대	30.2(311)	33.2(145)	24.8(103)	35.2(63)	
40대	31.6(326)	32.5(142)	31.3(130)	30.2(54)	-
50대	25.5(263)	21.5(94)	31.6(131)	21.2(38)	
60대	2.0(21)	3.0(13)	1.2(5)	1.7(3)	
계(수)	100.0(1,031)	100.0(437)	100.0(415)	100.0(179)	
평균 연령(표준편차)	42.13(9.34)	41.78(9.15)	42.94(9.48)	41.12(9.38)	2.93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함	96.1(1,535)	96.8(656)	96.2(630)	94.0(249)	3.97(2)
이용하지 않음	3.9(63)	3.2(22)	3.8(25)	6.0(16)	
계(수)	100.0(1,598)	100.0(678)	100.0(655)	100.0(265)	
사교육 이용 기관(다중응답)					
학원	40.2(1,237)	39.5(526)	41.4(527)	39.1(184)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	8.0(246)	7.2(96)	9.3(119)	6.6(31)	
학습지	20.6(633)	19.5(259)	21.8(278)	20.4(96)	
인터넷/화상 강의	0.6(18)	0.5(6)	0.8(10)	0.4(2)	-
교내 방과후 교실	24.7(761)	26.7(355)	21.9(279)	27.0(127)	
사설 기관 교육	3.6(110)	3.9(52)	3.2(41)	3.6(17)	
공공 기관 교육	2.3(70)	2.8(37)	1.5(19)	3.0(14)	
계(수)	100.0(1,535)	100.0(1,331)	100.0(1,273)	100.0(471)	

(표 II-24 계속)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chi^2(df)/F$
사교육 이용비용					
0만원	1.2(19)	0.8(5)	0.5(3)	4.5(11)	
1~9만원	7.9(120)	6.6(43)	7.6(48)	11.7(29)	
10~19만원	27.2(415)	28.6(186)	22.6(142)	35.2(87)	
20~29만원	22.9(350)	19.8(129)	25.9(163)	23.5(58)	-
30~39만원	18.9(288)	18.1(118)	21.9(138)	13.0(32)	
40~49만원	9.8(150)	10.8(70)	10.8(68)	4.9(12)	
50만원 이상	12.1(185)	15.4(100)	10.7(67)	7.3(18)	
계(수)	100.0(1,527)	100.0(651)	100.0(629)	100.0(247)	
평균 비용(표준편차)	28.06(18.38)	29.90(19.75)	28.52(16.83)	22.05(17.20)	17.15***

*** $p < .001$.

주: 초등학교에 미진학한 3명은 분석에서 제외됨.

3. 아동 발달 특성

가. 아동 특성 관련 변인 구성

8차년도 조사의 아동 발달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인지 및 언어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로 구분되며, 해당 변인은 <표 II-3-1>과 같다. 아동 특성 변인은 아동의 보호자(주로 어머니), 담임교사, 아동 본인의 응답 그리고 조사원 측정으로 수집되었다.

아동의 체중, 신장, 허리둘레는 가구 방문 시 조사원이 직접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어휘력 발달은 조사원 주도 하의 수행 검사로 실시되었다. 아동 특성 중 학업수행 능력, 학교 적응, 집행기능 등은 담임교사 응답으로, 자아 발달, 정서 발달, 친구 문제 등은 아동 응답으로 수집되었으며, 기타 변인은 아동의 보호자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표 II-3-1〉 8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특성	◦ 성별, 출생월, 월령
	출생순위	◦ 출생순위, 출생순위 변동 사유
일상생활	식생활	◦ 식생활 진단
		◦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 음료수 섭취 빈도
		◦ 유산균 복용 여부 및 기간, 마지막 복용 시기

(표 II-3-1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상생활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이용 시간, 이유 ◦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자는 사람,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 주로 재워주는 사람 ◦ 숙면 여부, 밤잠 중 깨는 횟수 ◦ 아침에 스스로 기상 여부, 횟수 ◦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 시간
	실내/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활동 시간 ◦ 실내 운동 시간, 실외 운동 시간 ◦ 활동별 참여 빈도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 신장, 허리둘레, 주관적 건강상태 ◦ 빠진 유치 개수,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충치 개수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운동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세 손
	질환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및 횟수 ◦ 통입원 치료 여부, 횟수, 기간, 이유, 통·입원 치료 횟수 ◦ 장애 판정 여부, 유형 및 판정급수 ◦ 만성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 알레르기 질환별 징후,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횟수 ◦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치료 여부, 치료 기간 및 약물 ◦ 알레르기 질환 유발 의심 식품, 식품 제한 ◦ 항생제, 진통제/해열제 복용 여부 및 횟수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능
	언어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어휘력, 표현 어휘력
	학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수행 능력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미래 기대
	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 학교 선호도, 교사 선호도, 과목 선호도, 학교 생활 느낌
	사회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행동, 사회성 및 학업 수행 적응 ◦ 친구 수, 친구와의 놀이 빈도, 싸움 빈도 ◦ 학교 적응

나. 인구학적 특성

2015년 8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아동 수는 총 1,598명이다. 남아 817명(51.5%), 여아 781명(48.5%)이 참여하였으며, 출생순위 별로는 첫째아(37.5%)와 둘째아(39.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 시 패널 아동의 평균 월령은 87.91개월(만 7.33세)로 나타났으며, 최저 84개월부터 최고 92개월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표 11-3-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월령	
남아	51.5(817)	평균(표준편차)	87.91(1.57)개월
여아	48.5(781)	84개월	0.2(2)
계(수)	100.0(1,598)	85개월	5.1(68)
출생순위		86개월	15.2(242)
외동아	12.1(183)	87개월	20.1(317)
첫째아	37.5(560)	88개월	25.0(395)
둘째아	39.3(671)	89개월	17.6(283)
셋째아	9.9(164)	90개월	11.6(200)
넷째아 이상	1.2(20)	91개월	3.8(66)
계(수)	100.0(1,598)	92개월	1.3(25)
		계(수)	100.0(1,598)

다. 일상생활

1) 식생활

가) 식생활 진단

아동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이 실생활 진단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원척도는 ‘항상 그런 편이다’를 1점, ‘아닌 편이다’를 3점으로 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나, 원만한 해석을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더 많이 섭취함을 의미한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우유나 유제품(요거트, 요플레 등)을 매일 2병 이상 마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외동아나 첫째아에 비해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우유나 유제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모의 자녀,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가정의 자녀, 가구 소득이 531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단백질 류(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의 음식을 가장 빈번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저학력(고졸 이하)이거나,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장 적은 양의 과일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3〉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단위: 점(명)

구분	수	우유/유제품		단백질 류		채소		과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69)	1.87	0.75	2.34	0.61	2.20	0.69	2.35	0.68
아동 성별									
남	(805)	1.95	0.76	2.36	0.61	2.17	0.71	2.35	0.69
여	(764)	1.78	0.73	2.33	0.62	2.23	0.67	2.35	0.68
<i>t</i>		3.96***		1.12		-1.96		-0.8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1)	1.78 ^a	0.75	2.43	0.58	2.26	0.70	2.49	0.65
첫째	(550)	1.85 ^{ab}	0.78	2.33	0.63	2.22	0.68	2.37	0.67
둘째 이상	(838)	1.91 ^b	0.72	2.33	0.51	2.17	0.69	2.31	0.70
<i>F</i>		4.47*		0.98		0.75		2.27	
모 취업 여부									
취업	(681)	1.86	0.74	2.30	0.62	2.20	0.71	2.33	0.69
미취업	(858)	1.87	0.75	2.38	0.61	2.20	0.68	2.37	0.68
<i>t</i>		-0.32		-2.18*		-0.10		-0.98	
모 학력									
고졸이하	(454)	1.81	0.72	2.28 ^a	0.65	2.19	0.69	2.24 ^a	0.70
전문대졸	(429)	1.83	0.72	2.27 ^a	0.59	2.18	0.66	2.34 ^b	0.68
대졸이상	(678)	1.93	0.78	2.42 ^b	0.59	2.21	0.71	2.42 ^b	0.67
<i>F</i>		1.34		9.45***		0.64		9.4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4)	1.85	0.75	2.28 ^a	0.64	2.15	0.68	2.27 ^a	0.72
341~400만원	(385)	1.85	0.72	2.31 ^a	0.62	2.21	0.71	2.36 ^b	0.65
401~530만원	(389)	1.86	0.73	2.33 ^a	0.59	2.16	0.70	2.33 ^{ab}	0.69
531만원 이상	(382)	1.93	0.80	2.46 ^b	0.60	2.27	0.69	2.46 ^b	0.65
<i>F</i>		0.94		5.86**		1.33		4.49**	
지역 규모									
대도시	(666)	1.80	0.72	2.33	0.63	2.18	0.68	2.35 ^b	0.68
중소도시	(642)	1.92	0.77	2.35	0.62	2.24	0.71	2.40 ^b	0.67
읍면지역	(261)	1.90	0.75	2.34	0.55	2.15	0.67	2.25 ^a	0.72
<i>F</i>		1.10		0.12		1.26		4.50*	

* $p < .05$, ** $p < .01$, *** $p < .001$.

과잉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에 관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남아가 여아에 비해, 첫째가 외동아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가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보다는 남아가,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보다는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가 간장 혹은 소금을 추가한 짠 음식에 더 빈번히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류(예: 삼겹살, 갈비, 장어 등)와 단순 당류(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등)섭취의 경우 배경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3-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단위: 점(명)

구분	수	튀김/볶음요리		지방류		짠 음식		단순 당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69)	2.22	0.68	2.04	0.71	1.44	0.59	2.14	0.75
아동 성별									
남	(805)	2.25	0.68	2.07	0.72	1.48	0.61	2.14	0.76
여	(764)	2.18	0.68	2.01	0.69	1.41	0.57	2.13	0.74
<i>t</i>		2.11*		1.85		2.47*		0.7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1)	2.13 ^a	0.71	2.04	0.71	1.49	0.60	2.04	0.76
첫째	(550)	2.27 ^b	0.66	2.05	0.70	1.41	0.59	2.16	0.73
둘째 이상	(838)	2.20 ^{ab}	0.68	2.03	0.71	1.45	0.59	2.15	0.75
<i>F</i>		6.00**		0.06		0.34		0.18	
모 취업 여부									
취업	(681)	2.20	0.68	2.02	0.73	1.45	0.59	2.12	0.74
미취업	(858)	2.23	0.67	2.06	0.69	1.44	0.60	2.16	0.75
<i>t</i>		-0.68		-1.30		0.40		-0.42	
모 학력									
고졸이하	(454)	2.10 ^a	0.69	2.00	0.70	1.50	0.64	2.16	0.74
전문대졸	(429)	2.22 ^{ab}	0.65	2.05	0.70	1.45	0.59	2.09	0.76
대졸이상	(678)	2.29 ^b	0.68	2.06	0.72	1.41	0.56	2.16	0.74
<i>F</i>		6.27**		1.00		3.35*		2.2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4)	2.17	0.70	1.98	0.72	1.44	0.61	2.18	0.75
341~400만원	(385)	2.16	0.72	2.03	0.71	1.44	0.59	2.10	0.68
401~530만원	(389)	2.27	0.63	2.05	0.66	1.46	0.59	2.15	0.77
531만원 이상	(382)	2.26	0.66	2.10	0.74	1.42	0.58	2.15	0.78
<i>F</i>		1.49		1.12		0.26		0.32	

(표 II-3-4 계속)

구분	수	튀김/볶음요리		지방 류		짬 음식		단순 당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666)	2.23	0.67	2.06	0.72	1.45	0.61	2.16	0.72
중소도시	(642)	2.20	0.68	2.02	0.71	1.43	0.58	2.11	0.77
읍면지역	(261)	2.23	0.71	2.02	0.69	1.45	0.58	2.16	0.75
F		0.23		0.86		0.11		0.54	

* $p < .05$, ** $p < .01$.

아동의 규칙적인 식습관(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은 아동의 출생 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세끼 식사를 가장 규칙적으로 챙겨먹는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매일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는 여아가 편식 없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였고, 가구 소득 531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의 아동이 음식을 더 골고루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5〉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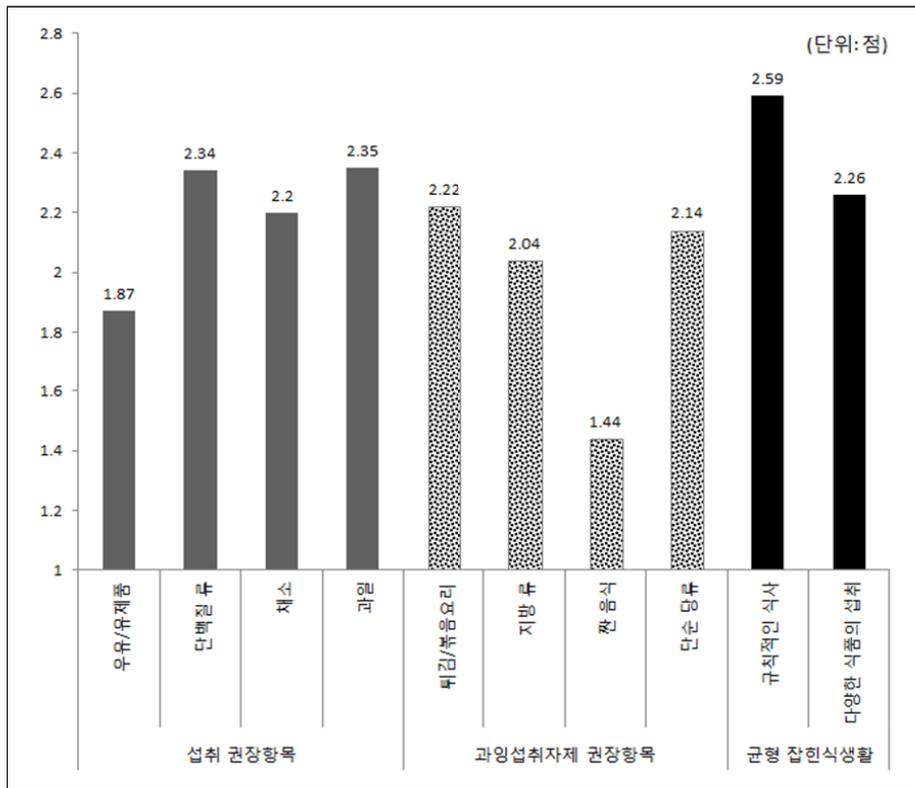
구분	수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69)	2.59	0.57	-	2.26	0.70	-
아동 성별							
남	(805)	2.61	0.56	1.42	2.22	0.72	-2.48*
여	(764)	2.57	0.59		2.30	0.6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1)	2.57	0.59	4.15*	2.36	0.74	1.33
첫째	(550)	2.54	0.58		2.26	0.73	
둘째 이상	(838)	2.63	0.56		2.23	0.67	
모 취업 여부							
취업	(681)	2.58	0.58	-0.16	2.25	0.72	-0.20
미취업	(858)	2.60	0.57		2.26	0.69	
모 학력							
고졸이하	(454)	2.49 ^a	0.66	7.99***	2.20	0.73	2.02
전문대졸	(429)	2.60 ^b	0.55		2.26	0.70	
대졸이상	(678)	2.65 ^b	0.53		2.28	0.6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4)	2.50 ^a	0.64	5.95***	2.18 ^a	0.71	3.07*
341~400만원	(385)	2.61 ^b	0.57		2.25 ^{ab}	0.70	
401~530만원	(389)	2.60 ^b	0.57		2.23 ^{ab}	0.71	
531만원 이상	(382)	2.66 ^b	0.51		2.34 ^b	0.69	

(표 II-3-5 계속)

구분	수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규모							
대도시	(666)	2.57	0.58	0.60	2.24	0.71	1.63
중소도시	(642)	2.62	0.57		2.30	0.70	
읍면지역	(261)	2.59	0.57		2.19	0.70	

* $p < .05$, *** $p < .001$.

패널 아동의 식생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함께 비교해본 결과, 섭취 권장 식품 중에서는 과일과 단백질 류의 섭취가 가장 높았고, 우유/유제품 섭취가 가장 낮았다. 과일 섭취 자체 권장 항목에서는 튀김 볶음요리의 섭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장 소금의 추가 섭취가 가장 적은 경향이 있었다.



[그림 II-3-1] 아동의 식생활 진단

나) 음료 섭취

패널 아동이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정수기 물을 마신다는 응답이 전체 61.7%로 가장 높았으며, 수돗물과 시판 생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19.9%와 16.2%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와 어머니 학력 수준,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순위는 동일하였으나, 외동아의 경우 시판 생수를 먹는 비율(21.7%)과 지하수를 먹는 비율(2.5%)이 다른 출생순위의 아동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수돗물을 먹는 비율(21.6%)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모 학력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수돗물을 먹는 비율(읍면지역 24.4%, 모 학력 고졸이하 23.7%, 가구소득 340만원 이하 27.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가구 소득이 높고 어머니가 고학력인 경우, 시판 생수를 마시는 비율(대도시 18.8%, 모 학력 대졸이상 21.3%, 가구소득 531만원 이상 19.2%)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II-3-6〉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

구분	수돗물	정수기 물	시판 생수	지하수	계(수)	$\chi^2(df)$
전체	19.9	61.7	16.2	2.1	100.0(1,529)	-
아동 성별						
남	18.2	61.8	17.2	2.8	100.0(780)	2.46(3)
여	21.8	61.6	15.2	1.4	100.0(74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2	58.6	21.7	2.5	100.0(180)	13.46(6)*
첫째	18.7	62.1	17.0	2.2	100.0(535)	
둘째 이상	21.6	62.2	14.3	1.9	100.0(814)	
모 취업 여부						
취업	18.7	61.5	17.6	2.1	100.0(668)	2.02(3)
미취업	21.2	61.6	15.3	2.0	100.0(833)	
모 학력						
고졸이하	23.7	62.7	11.6	2.0	100.0(443)	25.43(6)***
전문대졸	20.9	63.4	13.0	2.7	100.0(420)	
대졸이상	17.1	59.8	21.3	1.8	100.0(65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7.6	53.4	15.4	3.6	100.0(388)	31.93(9)***
341~400만원	19.6	64.4	13.8	2.3	100.0(372)	
401~530만원	17.2	63.1	17.6	2.1	100.0(380)	
531만원 이상	15.7	64.7	19.2	0.5	100.0(371)	

단위: %(명)

(표 II-3-6 계속)

구분	수돗물	정수기 물	시판 생수	지하수	계(수)	$\chi^2(df)$
지역 규모						
대도시	22.1	58.2	18.8	0.9	100.0(651)	
중소도시	15.8	67.3	15.3	1.6	100.0(625)	32.15(6)***
읍면지역	24.4	57.4	12.0	6.2	100.0(253)	

* $p < .05$, *** $p < .001$.

아동의 음료수(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어린이 음료, 과일 주스 등)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회 음료수를 마신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가 25.3%,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18.8%였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음료수를 아예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대졸이상 21.7%), 어머니 학력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1일 2~3회 섭취한다는 빈도가 다른 모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졸이하 1.8%).

〈표 II-3-7〉 음료수 섭취 빈도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마시지않음	주 1회	주 2~3회	1일 1회	1일 2~3회		
전체	18.8	51.1	25.3	4.0	0.9	100.0(1,571)	-
아동 성별							
남	15.5	53.8	25.0	4.6	1.0	100.0(805)	
여	22.2	48.1	25.5	3.4	0.7	100.0(766)	7.55(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4.7	41.5	29.2	4.1	0.4	100.0(181)	
첫째	17.6	51.7	26.3	3.9	0.5	100.0(549)	10.65(8)
둘째 이상	18.2	52.9	23.5	4.1	1.3	100.0(841)	
모 취업 여부							
취업	21.3	46.3	27.7	4.2	0.4	100.0(681)	
미취업	16.6	54.6	23.6	3.9	1.2	100.0(860)	9.44(4)
모 학력							
고졸이하	13.3	52.3	28.9	3.8	1.8	100.0(457)	
전문대졸	19.3	56.4	21.0	3.1	0.2	100.0(429)	22.42(8)**
대졸이상	21.7	46.9	25.9	4.8	0.7	100.0(67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6.3	51.0	25.8	5.8	1.2	100.0(393)	
341~400만원	14.9	56.6	25.3	2.8	0.4	100.0(387)	
401~530만원	19.4	48.2	27.3	3.6	1.5	100.0(390)	17.43(12)
531만원 이상	22.5	50.2	23.2	3.7	0.4	100.0(382)	

(표 II-3-7 계속)

구분	마사지없음	주 1회	주 2~3회	1일 1회	1일 2~3회	계(수)	$\chi^2(df)$
지역 규모							
대도시	18.9	51.0	24.9	4.6	0.6	100.0(669)	6.40(8)
중소도시	19.8	49.8	25.4	4.0	1.1	100.0(642)	
읍면지역	16.0	54.4	25.8	2.7	1.1	100.0(260)	

** $p < .01$.

다) 유산균 복용

패널 아동의 유산균 복용 여부와 기간을 조사한 결과, 약 60%의 패널 아동이 유산균(람노스, VSL3, 라시도필, 락피도, 듀오락 등)을 복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균을 복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복용한지 3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25.2%).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유산균 복용 여부와 기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첫째들이 유산균을 먹는 비율(49.7%) 중 최근 6개월 사이에 유산균 복용을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40.8%).

〈표 II-3-8〉 유산균 복용 기간

구분	복용 안함	3개월 이내	3~6개월	7~12개월	1년 이상	계(수)	$\chi^2(df)$
전체	59.9	25.2	7.1	2.6	5.2	1000(1,555)	-
아동 성별							
남	59.0	26.3	6.7	2.5	5.5	100.0(797)	0.20(4)
여	60.8	24.0	7.5	2.7	4.9	100.0(75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63.8	18.4	7.1	3.8	6.9	100.0(181)	42.68(8)***
첫째	50.3	32.3	8.5	3.2	5.7	100.0(544)	
둘째 이상	66.0	21.6	6.1	1.9	4.4	100.0(830)	
모 취업 여부							
취업	62.5	24.7	6.8	2.3	3.6	100.0(673)	3.86(4)
미취업	57.5	25.9	7.2	3.0	6.5	100.0(852)	
모 학력							
고졸이하	65.7	21.6	6.6	2.3	3.8	100.0(449)	14.04(8)
전문대졸	56.4	29.6	6.7	2.8	4.6	100.0(426)	
대졸이상	58.0	25.0	7.8	2.7	6.5	100.0(67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1.9	26.4	6.2	1.8	3.8	100.0(389)	6.97(12)
341~400만원	57.6	26.2	7.4	2.5	6.2	100.0(384)	
401~530만원	61.0	23.6	7.6	3.2	4.5	100.0(387)	
531만원 이상	57.5	26.2	7.8	2.4	6.2	100.0(377)	

단위: %(명)

(표 II-3-8 계속)

구분	복용 안함	3개월 이내	3~6개월	7~12개월	1년 이상	계(수)	$\chi^2(df)$
지역 규모							
대도시	59.9	25.3	7.8	2.2	4.8	100.0(662)	
중소도시	59.6	25.0	7.0	2.5	5.8	100.0(636)	2.81(8)
읍면지역	60.4	25.4	5.6	3.9	4.7	100.0(257)	

*** $p < .001$.

2) 미디어

패널 아동이 하루 중 TV를 시청하는 시간과 인터넷, 게임기,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통하여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을 주중, 주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 패널 아동의 평균 TV시청 시간은 주중 1시간(SD=0.78), 주말 2.19시간(SD=1.19)으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아동이 더 오랜 시간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중, 주말 TV시청 시간은 공통적으로 아동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은 주중, 주말에 가장 오래 TV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주중과 주말 TV 시청시간이 길었다. 아동의 주중 TV시청 시간은 모 취업 여부와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혹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가 TV에 더 오래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미디어기기 이용 시간은 주중 평균 0.39시간(SD=0.48), 주말 평균 0.77시간(SD=.79)으로, TV와 마찬가지로 주중보다는 주말 이용 시간이 길었다. 미디어기기 이용 시간은 TV시청 시간보다는 짧은 경향이 있었다. 주중, 주말의 미디어기기 이용 시간은 공통적으로 아동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의 미디어기기 이용 시간이 길었고,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미디어기기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말 미디어기기 사용 시간의 경우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주말에 긴 시간 미디어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9〉 미디어 이용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수)	TV 시청				미디어기기 사용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1.00	0.78	2.19	1.19	0.39	0.48	0.77	0.79
아동 성별									
남	(817)	1.02	0.79	2.22	1.21	0.41	0.51	0.85	0.84
여	(781)	0.97	0.96	2.16	1.16	0.37	0.45	0.69	0.73
<i>t</i>		0.98		1.34		1.76		3.3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0.97	0.61	2.10 ^{ab}	1.15	0.36 ^a	0.51	0.77 ^{ab}	0.90
첫째	(560)	0.95	0.80	2.09 ^a	1.22	0.33 ^a	0.46	0.67 ^a	0.75
둘째 이상	(855)	1.04	0.80	2.29 ^b	1.16	0.44 ^b	0.49	0.85 ^b	0.78
<i>F</i>		3.40*		4.73**		9.73***		7.73***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1.05	0.79	2.27	1.19	0.40	0.51	0.81	0.83
미취업	(874)	0.96	0.77	2.14	1.17	0.38	0.45	0.74	0.73
<i>t</i>		2.25*		1.31		1.12		1.25	
모 학력									
고졸이하	(463)	1.22 ^c	0.83	2.53 ^c	1.26	0.78 ^b	0.55	0.91 ^b	0.87
전문대졸	(435)	1.06 ^b	0.78	2.25 ^b	1.13	0.37 ^a	0.45	0.77 ^a	0.75
대졸이상	(692)	0.82 ^a	0.71	1.95 ^a	1.12	0.34 ^a	0.45	0.69 ^a	0.75
<i>F</i>		40.61***		29.57***		11.60***		8.4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1.17 ^c	0.82	2.36 ^c	1.14	0.45 ^b	0.47	0.88 ^b	0.84
341~400만원	(393)	1.04 ^b	0.80	2.20 ^{bc}	1.24	0.40 ^b	0.49	0.78 ^b	0.75
401~530만원	(395)	0.95 ^b	0.75	2.16 ^{ab}	1.18	0.39 ^b	0.51	0.78 ^b	0.82
531만원 이상	(392)	0.85 ^a	0.73	2.06 ^a	1.17	0.31 ^a	0.44	0.65 ^a	0.73
<i>F</i>		14.21***		6.26***		7.57***		2.99*	
지역 규모									
대도시	(678)	1.05 ^{ab}	0.81	2.25	1.16	0.31 ^a	0.44	0.70 ^a	0.77
중소도시	(655)	0.92 ^a	0.75	2.11	1.23	0.43 ^b	0.50	0.83 ^b	0.80
읍면지역	(265)	1.06 ^b	0.77	2.23	1.12	0.48 ^b	0.53	0.82 ^b	0.81
<i>F</i>		3.03*		0.81		18.71***		7.78***	

* $p < .05$, ** $p < .01$, *** $p < .001$.

가정 내에서 TV를 시청하고 있고, 미디어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패널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TV와 미디어기기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TV를 시청하는 이유로 'TV보는 것을 아동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4.3%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꼽힌

이유는 '습관적으로 TV를 시청한다'는 응답이었다(6.7%). TV 이용의 이유는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 학력이 낮은 경우 습관적으로 TV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다른 모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고(9.4%), 아동이 TV를 좋아해서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대를 졸업한 어머니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87.6%).

미디어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아동이 미디어기기 이용하는 것을 좋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82.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정보 검색 및 학습을 위해서'였고, 전체의 9.1%가 이에 해당하였다. 미디어기기 사용 이유는 아동의 성별과 모 학력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남아들에 비해 여아들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학습을 위해 미디어기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12.3%).

〈표 II-3-10〉 미디어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TV 시청					미디어기기 사용					계(수)
	선호	교류	학습	습관	기타	선호	교류	학습	습관	기타	
전체	84.3	4.9	2.2	6.7	2.0	82.4	3.6	9.1	3.2	1.7	100.0(1,293)
아동 성별											
남	84.4	4.8	2.4	6.6	1.8	85.5	3.4	6.3	3.9	0.9	100.0(784)
여	84.1	5.0	2.1	6.7	2.2	78.9	3.9	12.3	2.3	2.7	100.0(744)
$\chi^2(df)$	0.64(4)					20.94(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0.4	7.0	3.7	6.2	2.7	69.2	9.9	15.7	2.0	3.2	100.0(179)
첫째	83.5	5.9	2.0	6.6	2.0	79.9	3.1	11.5	4.6	0.8	100.0(528)
둘째 이상	85.8	3.6	2.0	6.8	1.8	86.5	2.6	6.3	2.5	2.0	100.0(821)
$\chi^2(df)$	9.70(8)					-					
모 취업 여부											
취업	85.2	3.9	1.1	8.3	1.4	81.7	3.7	9.9	3.0	1.7	100.0(669)
미취업	83.8	5.6	2.9	5.5	2.2	82.9	3.5	8.2	3.5	1.9	100.0(832)
$\chi^2(df)$	8.96(4)					0.43(4)					
모 학력											
고졸이하	81.6	5.2	1.5	9.4	2.2	86.6	4.2	4.0	4.7	0.5	100.0(450)
전문대졸	87.6	4.3	1.3	5.6	1.2	81.2	3.4	10.4	2.0	3.0	100.0(420)
대졸이상	84.1	5.0	3.2	5.6	2.1	80.1	3.3	11.9	2.9	1.8	100.0(650)
$\chi^2(df)$	15.69(8)*					22.25(8)**					

(표 II-3-10 계속)

구분	TV 시청					미디어기기 사용					계(수)
	선호	교류	학습	습관	기타	선호	교류	학습	습관	기타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83.9	4.4	2.5	6.0	3.2	81.4	4.9	7.5	3.8	2.3	100.0(385)
341~400만원	83.9	5.5	2.4	6.4	1.9	84.2	2.6	7.9	3.2	2.1	100.0(374)
401~530만원	86.4	3.4	1.3	7.3	1.6	85.5	2.2	9.6	2.0	0.7	100.0(382)
531만원 이상	82.3	6.6	2.2	7.5	1.3	78.6	4.9	11.3	3.8	1.3	100.0(368)
$\chi^2(df)$	7.10(12)					-					
지역 규모											
대도시	85.5	4.2	1.7	6.6	2.0	83.7	3.3	8.7	1.8	2.4	100.0(651)
중소도시	83.8	5.5	2.2	6.7	1.7	80.4	3.7	9.7	4.4	1.9	100.0(618)
읍면지역	82.1	5.0	3.4	6.8	2.6	84.3	4.1	8.5	3.2	0.0	100.0(259)
$\chi^2(df)$	1.03(8)					7.72(8)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69.3%로 나타났다. 휴대폰 소유 여부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보다는 여아가, 형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외동아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에 휴대폰을 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1〉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구분	있음	없음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30.7	69.3	100.0(1598)	-
아동 성별				
남	27.7	72.3	100.0(817)	6.23(1)*
여	33.9	66.1	100.0(78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6.4	63.6	100.0(183)	18.99(2)***
첫째	34.2	65.8	100.0(560)	
둘째 이상	26.7	73.3	100.0(855)	
모 취업 여부				
취업	33.8	66.2	100.0(694)	1.40(1)
미취업	28.2	71.8	100.0(874)	

(표 II-3-11 계속)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모 학력				
고졸이하	36.7	63.3	100.0(463)	13.57(2)**
전문대졸	33.8	66.2	100.0(435)	
대졸이상	25.0	75.0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9.5	70.5	100.0(399)	0.42(3)
341~400만원	28.7	71.3	100.0(393)	
401~530만원	31.6	68.4	100.0(395)	
531만원 이상	31.5	68.5	100.0(392)	
지역 규모				
대도시	30.7	69.3	100.0(678)	0.66(2)
중소도시	31.0	69.0	100.0(655)	
읍면지역	30.1	69.9	100.0(265)	

* $p < .05$, ** $p < .01$, *** $p < .001$.

3) 수면

패널 아동의 수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과 함께 자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였다.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아동과 함께 자는 사람으로 가장 많이 꼽힌 대상은 엄마(58.8%)였고, 형제·자매가 두 번째로 높았다(54.9%). 외동아가 엄마와 함께 자는 경우가 79.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의 경우 형제와 함께 자는 비율이 엄마와 함께 수면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표 II-3-12〉 함께 자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혼자 잠	아빠	엄마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단위: %(명) (수)
전체	12.4	30.5	58.8	54.9	1.7	0.4	(2,549)
아동 성별							
남	12.6	32.3	59.5	55.1	1.9	0.4	(1,318)
여	12.2	28.5	58.0	54.7	1.4	0.3	(1,23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5.3	40.4	79.4	0.8	1.7	0.6	(249)
첫째	11.3	36.3	61.1	69.5	1.4	0.1	(1,037)
둘째 이상	12.5	23.8	52.1	57.0	1.9	0.5	(1,263)
모 취업 여부							
취업	11.5	31.4	61.9	53.4	2.3	0.6	(1,132)
미취업	13.2	30.1	57.0	56.4	0.5	0.2	(1,374)

(표 II-3-12 계속)

구분	혼자 잠	아빠	엄마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수)
모 학력							
고졸이하	9.0	32.7	62.9	55.5	1.0	1.0	(768)
전문대졸	13.9	29.1	58.3	53.8	0.9	0.0	(685)
대졸이상	13.4	30.3	57.3	55.7	1.6	0.2	(1,08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7.7	31.6	61.8	58.8	2.1	0.8	(664)
341~400만원	12.7	34.4	58.8	57.8	0.9	0.2	(651)
401~530만원	15.3	27.7	59.0	51.8	1.3	0.4	(612)
531만원 이상	14.1	29.2	55.9	52.1	1.6	0.1	(596)
지역 규모							
대도시	11.7	34.4	62.7	58.8	1.4	0.6	(1,165)
중소도시	14.5	27.6	55.8	49.7	1.7	0.2	(984)
읍면지역	9.2	27.5	55.9	57.4	2.3	0.0	(400)

주: 형제자매에는 친인척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아동 연령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혼자 수면을 하는 경우가 1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은 평균적으로 6.47세(SD=0.91)가 되었을 때 함께 자는 사람 없이 혼자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아동이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구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3-13〉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단위: 세(명) t/F
전체	6.47	0.91	(191)	-
아동 성별				
남	6.46	0.84	(97)	-0.26
여	6.49	0.98	(9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6.48	0.82	(27)	0.20
첫째	6.43	0.96	(58)	
둘째 이상	6.50	0.89	(106)	
모 취업 여부				
취업	6.52	0.69	(81)	0.84
미취업	6.45	1.03	(107)	

(표 II-3-13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모 학력				
고졸이하	6.72	0.58	(40)	1.36
전문대졸	6.42	1.09	(59)	
대졸이상	6.40	0.88	(9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71	0.56	(30)	0.93
341~400만원	6.42	1.06	(42)	
401~530만원	6.44	0.69	(61)	
531만원 이상	6.40	1.10	(56)	
지역 규모				
대도시	6.43	1.03	(78)	0.66
중소도시	6.48	0.85	(86)	
읍면지역	6.60	0.67	(27)	

취침 시 아동을 주로 재워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알아본 결과, 돕는 이 없이 스스로 잔다는 응답이 69.8%로 가장 많았다. 엄마가 재워준다는 응답이 24.7%로 다른 가족들(아빠, 형제자매, 조부모)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외동아의 경우 스스로 잠을 청한다는 비율이 49.6%, 어머니가 재워주는 비율이 43.8%로 나타나, 외동의 어머니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4〉 주로 재워주는 사람(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수)
	스스로	아빠	엄마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전체	69.8	4.1	24.7	4.7	0.6	0.1	(1,660)
아동 성별							
남	68.4	4.4	26.9	4.3	0.7	0.1	(855)
여	69.9	3.3	25.0	3.8	0.5	0.1	(80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9.6	10.7	43.8	0.0	0.3	0.0	(194)
첫째	70.3	3.5	26.2	3.8	0.6	0.1	(587)
둘째 이상	73.0	2.5	21.5	5.2	0.6	0.1	(879)
모 취업 여부							
취업	71.0	3.9	24.1	3.7	0.8	0.1	(722)
미취업	68.1	3.7	27.6	3.9	0.2	0.1	(905)

(표 II-3-14 계속)

구분	스스로	아빠	엄마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수)
모 학력							
고졸이하	75.3	2.9	21.1	3.1	0.1	0.2	(477)
전문대졸	71.1	4.0	23.8	5.0	0.3	0.0	(453)
대졸이상	64.1	4.3	30.6	4.1	0.8	0.0	(72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6.5	3.3	28.4	3.6	0.9	0.3	(414)
341~400만원	73.1	3.9	22.0	4.8	0.2	0.0	(407)
401~530만원	70.4	2.5	25.2	2.7	0.7	0.0	(403)
531만원 이상	66.7	5.4	27.6	5.5	0.6	0.0	(416)
지역 규모							
대도시	74.3	3.1	23.3	2.5	0.0	0.1	(701)
중소도시	64.3	5.0	29.2	4.6	1.1	0.1	(686)
읍면지역	67.4	3.0	25.1	6.9	0.9	0.0	(273)

전체 패널 아동의 72.1%는 아침에 스스로 기상할 수 있으며, 평균 주당 4.47회(SD=2.04)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스스로 기상하는 정도와 횟수가 달라졌는데, 형제가 있는 경우 특히 첫째아(75.4%)가 외동아(61.4%)에 비해 스스로 일어나는 비율이 높았고, 스스로 기상하는 횟수 역시 첫째아가 4.82회(SD=2.01)로 둘째 이상(4.24회)과 외동아(4.26회)에 비해 높았다.

〈표 II-3-15〉 아침에 스스로 기상 여부 및 횟수

단위: %, 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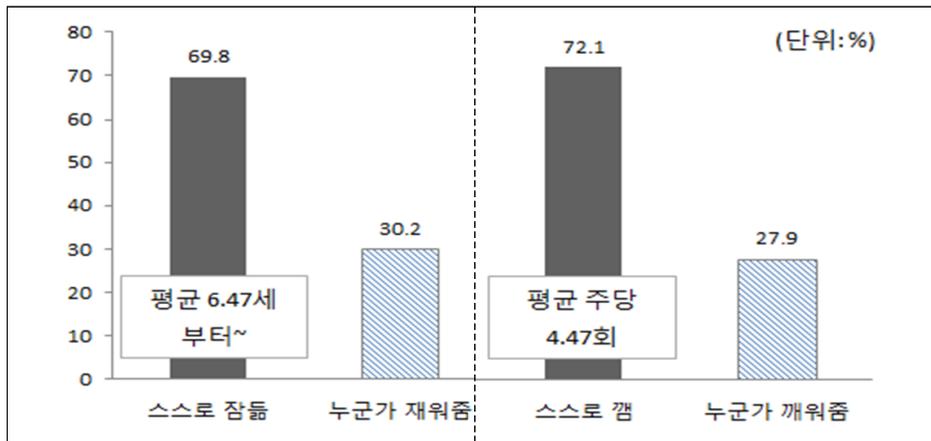
구분	스스로 기상 여부			$\chi^2(df)$	스스로 기상하는 횟수			
	스스로 함	깨워야 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72.1	27.9	1000(1538)	-	4.47	2.04	(1,154)	-
아동 성별								
남	74.5	25.5	1000(817)	1.01(1)	4.46	2.05	(599)	0.20
여	69.6	30.4	1000(781)		4.49	2.03	(55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61.4	38.6	1000(183)	9.47(2)**	4.26 ^a	2.17	(118)	9.69***
첫째	75.4	24.6	1000(560)		4.82 ^b	2.01	(425)	
둘째 이상	72.2	27.8	1000(855)		4.24 ^a	2.00	(611)	
모 취업 여부								
취업	70.4	29.6	1000(694)	2.07(1)	4.41	2.05	(487)	0.76
미취업	72.9	27.1	1000(874)		4.53	2.03	(642)	

(표 II-3-15 계속)

구분	스스로 기상 여부			$\chi^2(df)$	스스로 기상하는 횟수			t/F
	스스로 함	개워야 함	합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학력								
고졸이하	68.6	31.4	1000(463)	4.19(2)	4.39	2.12	(318)	1.43
전문대졸	75.6	24.4	1000(435)		4.34	2.00	(320)	
대졸이상	72.0	28.0	1000(692)		4.58	2.01	(51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73.4	26.6	1000(399)	1.39(3)	4.42	2.04	(287)	0.19
341~400만원	74.6	25.4	1000(393)		4.54	2.05	(294)	
401~530만원	70.4	29.6	1000(395)		4.42	2.08	(283)	
531만원 이상	71.3	28.7	1000(392)		4.51	1.98	(281)	
지역 규모								
대도시	70.7	29.3	1000(678)	5.16(2)	4.46	2.08	(471)	1.14
중소도시	72.0	28.0	1000(655)		4.53	2.00	(481)	
읍면지역	76.0	24.0	1000(265)		4.36	2.04	(202)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수면 및 기상 습관을 요약해보면, 평균 6.47세부터 홀로 잠자리에 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잠드는 경우가 약 70%로 나타났다. 72.1%의 패널 아동이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상할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주당 4.47회 스스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2] 아동의 수면 및 기상

패널 아동의 대부분(93.1%)은 밤에 깨지 않고 숙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모의 자녀가 밤중에 깨지 않고 숙면하는 비율이 95.5%로 미취업 어머니 자녀의 비율 91.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아동이 자다가 깬다고 보고한 경우가 12.2%로 나타나,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비율(87.8%)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패널 아동은 밤중에 평균 1.17회(SD=0.42)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 401~530만원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이 빈번하게 잠에서 깨는 경향이 있었다(1.45회).

〈표 II-3-16〉 숙면 여부 및 밤잠 중 깨는 횟수

단위: %, 회(명)

구분	숙면 여부				밤잠 중 깨는 횟수			
	깨지 않음	깬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계(수)	t/F
전체	93.1	6.9	100.0(1,598)	-	1.17	0.42	100.0(109)	-
아동 성별								
남	91.9	8.1	100.0(817)	1.10(1)	1.18	0.46	100.0(61)	0.59
여	94.5	5.5	100.0(781)		1.16	0.37	100.0(4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93.5	6.5	100.0(183)	.34(2)	1.16	0.45	100.0(12)	1.00
첫째	92.7	7.3	100.0(560)		1.15	0.43	100.0(41)	
둘째 이상	93.4	6.6	100.0(855)		1.19	0.41	100.0(56)	
모 취업 여부								
취업	95.5	4.5	100.0(694)	4.70(1)*	1.32	0.57	100.0(37)	1.77
미취업	91.2	8.8	100.0(874)		1.10	0.32	100.0(71)	
모 학력								
고졸이하	93.7	6.3	100.0(463)	.07(2)	1.18	0.39	100.0(47)	1.46
전문대졸	92.6	7.4	100.0(435)		1.27	0.55	100.0(31)	
대졸이상	93.0	7.0	100.0(692)		1.10	0.33	100.0(3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87.8	12.2	100.0(399)	17.54(3)**	1.14 ^a	0.35	100.0(45)	3.87*
341~400만원	95.6	4.4	100.0(393)		1.08 ^a	0.35	100.0(22)	
401~530만원	94.4	5.6	100.0(395)		1.45 ^b	0.63	100.0(22)	
531만원 이상	95.0	5.0	100.0(392)		1.03 ^a	0.17	100.0(18)	
지역 규모								
대도시	93.9	6.1	100.0(678)	5.51(2)	1.19	0.48	100.0(40)	0.30
중소도시	91.1	8.9	100.0(655)		1.16	0.37	100.0(56)	
읍면지역	96.3	3.7	100.0(265)		1.15	0.46	100.0(13)	

* $p < .05$, ** $p < .01$.

패널 아동은 주중에 평균적으로 아침 7시 28분에 기상하고, 21시 49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아침 8시 1분에 일어나고, 22시 12분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이 주중에 비해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17〉 기상 및 취침 시각

단위: 시:분(명)

구분	(N)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21:49	0:43	22:12	1:16	7:28	0:26	8:01	0:48
아동 성별									
남	(817)	21:50	0:37	22:12	1:27	7:27	0:27	7:59	0:48
여	(781)	21:49	0:49	22:12	1:01	7:28	0:24	8:03	0:48
<i>t</i>		1.81		0.15		-0.34		-1.8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21:51 ^{ab}	0:41	22:08 ^{ab}	1:52	7:29 ^b	0:26	8:04 ^b	0:48
첫째	(560)	21:44 ^a	0:36	22:04 ^a	1:19	7:25 ^a	0:26	7:53 ^a	0:45
둘째 이상	(855)	21:53 ^b	0:48	22:19 ^b	1:01	7:29 ^b	0:25	8:06 ^b	0:49
<i>F</i>		5.36 ^{**}		4.94 ^{**}		6.03 ^{**}		11.74 ^{***}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21:56	0:38	22:16	1:27	7:27	0:26	8:04	0:51
미취업	(874)	21:45	0:46	22:09	1:07	7:28	0:25	7:58	0:46
<i>t</i>		3.75 ^{***}		1.57		-1.76		1.53	
모 학력									
고졸이하	(463)	21:47	0:58	22:11	1:35	7:27	0:25	8:03	0:50
전문대졸	(435)	21:50	0:35	22:18	0:42	7:27	0:24	8:01	0:47
대졸이상	(692)	21:50	0:36	22:09	1:19	7:28	0:26	7:59	0:48
<i>F</i>		1.41		2.09		0.06		0.9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21:46	0:59	22:09	1:26	7:26	0:27	8:00	0:49
341~400만원	(393)	21:47	0:36	22:14	0:43	7:28	0:26	8:00	0:46
401~530만원	(395)	21:52	0:36	22:09	1:47	7:28	0:25	8:01	0:49
531만원 이상	(392)	21:52	0:36	22:14	0:46	7:29	0:25	8:01	0:48
<i>F</i>		1.42		1.13		0.53		0.07	
지역 규모									
대도시	(678)	21:51	0:52	22:14	1:28	7:25 ^a	0:26	8:02	0:50
중소도시	(655)	21:48	0:37	22:10	1:13	7:31 ^b	0:25	8:01	0:48
읍면지역	(265)	21:48	0:35	22:11	0:40	7:24 ^a	0:25	7:57	0:42
<i>F</i>		0.10		0.14		12.59 ^{***}		0.46	

** $p < .01$, *** $p < .001$.

주중, 주말의 취침 및 기상 시각은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일수록 아동의 취침과 기상시간(주중, 주말 모두)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는 주중에 미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밝혀져, 아동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취침 시각이 늦어지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중 기상 시각은 지역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의 아동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아동 보다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표 II-3-17 참조).

패널 아동의 평균 수면 시간은 주중에 9.63시간(SD=0.62), 주말에 9.75시간(SD=0.77)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중 수면 시간은 아동의 출생순위와 모 취업 여부, 지역 규모에 따라 상이했는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외동아와 첫째아에 비해 총 주중 수면 시간이 짧았고, 취업모의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주중에 잠을 적게 자는 경향이 있었다. 중소도시 거주 아동의 주중 수면 시간은 대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길었다. 주말의 경우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달라졌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평균적으로 0.11시간 더 오래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주말 수면 시간 편차는 아동 성별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여아는 주중보다 주말에 0.17시간, 취업모의 자녀는 주중보다 주말에 0.21시간 더 오래 자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남아와 비취업모의 주중-주말 수면 시간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II-3-18〉 수면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9.63	0.62	9.75	0.77	0.13	0.79
아동 성별							
남	(817)	9.62	0.61	9.70	0.80	0.09	0.91
여	(781)	9.64	0.63	9.81	0.73	0.17	0.77
<i>t</i>			-1.56		-3.71***		-2.3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9.63	0.62	9.75	0.83	0.12	0.83
첫째	(560)	9.68	0.58	9.76	0.70	0.08	0.72
둘째 이상	(855)	9.59	0.65	9.75	0.81	0.17	0.83
<i>F</i>			3.85*		0.20		2.88

(표 II-3-18 계속)

구분	(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9.52	0.63	9.72	0.80	0.21	0.84
미취업	(874)	9.72	0.60	9.78	0.75	0.07	0.75
<i>t</i>		-5.23***		-1.86		2.27*	
모 학력							
고졸이하	(463)	9.64	0.67	9.74	0.87	0.10	0.85
전문대졸	(435)	9.62	0.60	9.72	0.94	0.09	0.73
대졸이상	(692)	9.63	0.60	9.78	0.73	0.16	0.79
<i>F</i>		0.12		0.34		0.2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9.63	0.68	9.76	0.81	0.13	0.78
341~400만원	(393)	9.67	0.61	9.76	0.72	0.09	0.75
401~530만원	(395)	9.60	0.60	9.72	0.75	0.12	0.76
531만원 이상	(392)	9.61	0.58	9.79	0.78	0.18	0.83
<i>F</i>		0.89		0.36		0.33	
지역 규모							
대도시	(678)	9.56 ^a	0.62	9.71	0.77	0.16	0.81
중소도시	(655)	9.72 ^b	0.61	9.80	0.81	0.08	0.82
읍면지역	(265)	9.60 ^a	0.62	9.76	0.67	0.17	0.67
<i>F</i>		11.81***		1.88		2.15	

* $p < .05$, ** $p < .01$, *** $p < .001$.

4) 실내/외 활동

가) 일과활동 시간

패널 아동의 하루 일과 중 공·사교육 기관 이용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받는 교육/돌봄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패널 아동은 주중에 하루 평균 5.57시간(SD=1.14)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1.70시간(SD=1.20) 학교 외 기관(사교육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모 취업 여부와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모의 자녀가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읍면지역의 아동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에 보다 더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사교육 기관 이용 시간은 모 취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상

이하였다. 취업모의 자녀는 주중에 학교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주중에 아동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다. 주말에 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0.14시간)과 사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0.27시간)은 주중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아동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주말에 보내는 시간은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사교육 기관 이용 시간이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비해 짧은 경향이 있었다.

〈표 II-3-19〉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단위: 시간(명)

구분	(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차	평균	표준차	평균	표준차	평균	표준차
전체	(1,598)	5.57	1.14	0.14	0.75	1.70	1.20	0.27	0.80
아동 성별									
남	(817)	5.59	1.14	0.15	0.77	1.70	1.16	0.28	0.83
여	(781)	5.55	1.15	0.13	0.72	1.71	1.24	0.26	0.77
<i>t</i>		1.12		-0.52		0.62		-0.1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5.60	1.06	0.15	0.69	1.82	1.13	0.34	0.72
첫째	(560)	5.62	1.15	0.11	0.68	1.68	1.12	0.25	0.68
둘째 이상	(855)	5.54	1.16	0.17	0.81	1.70	1.27	0.27	0.89
<i>F</i>		0.79		1.92		1.10		0.54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5.82	1.29	0.10	0.58	1.83	1.30	0.26	0.80
미취업	(874)	5.38	0.98	0.18	0.86	1.60	1.10	0.28	0.81
<i>t</i>		7.40***		-1.95		3.02**		0.13	
모 학력									
고졸이하	(463)	5.67	1.18	0.11	0.63	1.57 ^a	1.23	0.26	0.98
전문대졸	(435)	5.64	1.13	0.11	0.74	1.74 ^b	1.16	0.27	0.77
대졸이상	(692)	5.48	1.13	0.18	0.81	1.76 ^b	1.20	0.27	0.69
<i>F</i>		1.44		2.17		3.47*		0.7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5.58	1.12	0.07	0.47	1.49 ^a	1.16	0.27	0.79
341~400만원	(393)	5.56	1.06	0.25	1.00	1.48 ^a	1.05	0.25	0.77
401~530만원	(395)	5.51	1.22	0.10	0.59	1.85 ^b	1.21	0.23	0.66
531만원 이상	(392)	5.63	1.15	0.17	0.83	1.98 ^b	1.24	0.29	0.73
<i>F</i>		1.13		1.57		18.89***		0.34	

(표 II-3-19 계속)

구분	(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678)	5.55	1.15	0.12	0.60	1.80	1.26	0.26	0.71
중소도시	(655)	5.52	1.10	0.19	0.92	1.66	1.13	0.34	0.96
읍면지역	(265)	5.78	1.20	0.09	0.58	1.58	1.16	0.15	0.50
F		5.99**		1.48		2.14		3.98*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하루 평균 숙제 시간은 주중 0.80시간(SD=0.54), 주말 0.66시간(SD=0.66)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중 숙제 시간은 어머니 학력과 지역 규모에 따라, 주말 숙제 시간은 가구 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중 숙제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아동의 주중 숙제 시간이 유의미하게 짧았다. 또한,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가정, 읍면지역 아동이 주말에 상대적으로 짧은 숙제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주중 0.69시간(SD=0.47), 주말 0.93시간(SD=0.73)으로, 주중에 비해 주말에 더 긴 시간 책을 읽는 경향이 있었다. 주중, 주말 독서 시간은 공통적으로 아동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아, 외동아 혹은 첫째아의 독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주중 및 주말에 오랜 시간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는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주중에 독서하는 시간이 짧았다.

〈표 II-3-2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숙제 및 책 읽기

단위: 시간(명)

구분	(수)	학교,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숙제 시간				책 읽는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0.80	0.54	0.66	0.66	0.69	0.47	0.93	0.73
아동 성별									
남	(817)	0.80	0.53	0.66	0.66	0.67	0.48	0.88	0.71
여	(781)	0.80	0.55	0.65	0.67	0.72	0.46	0.99	0.76
t		-1.17		0.63		-2.96**		-3.59***	

(표 II-3-20 계속)

구분	(수)	학교,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숙제 시간				책 읽는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0.87	0.51	0.79	0.72	0.73	0.45	0.94	0.62
첫째	(560)	0.81	0.53	0.67	0.69	0.73	0.48	1.01	0.75
둘째 이상	(855)	0.78	0.55	0.62	0.62	0.65	0.47	0.88	0.74
<i>F</i>		1.74		2.18		5.11**		4.62*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0.79	0.57	0.67	0.70	0.66	0.47	0.94	0.75
미취업	(874)	0.82	0.51	0.66	0.64	0.72	0.48	0.93	0.72
<i>t</i>		-0.56		0.50		-2.06*		0.81	
모 학력									
고졸이하	(463)	0.78 ^a	0.58	0.61	0.62	0.60 ^a	0.47	0.79 ^a	0.70
전문대졸	(435)	0.80 ^{ab}	0.54	0.66	0.65	0.65 ^b	0.40	0.95 ^b	0.69
대졸이상	(692)	0.82 ^b	0.51	0.69	0.70	0.77 ^c	0.50	1.01 ^b	0.76
<i>F</i>		3.16*		2.80		21.61***		16.26***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0.79	0.54	0.62 ^a	0.63	0.67	0.47	0.89	0.68
341~400만원	(393)	0.78	0.52	0.66 ^{ab}	0.66	0.72	0.46	0.96	0.77
401~530만원	(395)	0.82	0.55	0.65 ^{ab}	0.70	0.69	0.50	0.91	0.72
531만원 이상	(392)	0.81	0.55	0.71 ^b	0.67	0.68	0.45	0.97	0.74
<i>F</i>		2.01		2.70*		1.65		2.02	
지역 규모									
대도시	(678)	0.82 ^b	0.56	0.65 ^b	0.67	0.71	0.49	0.92	0.71
중소도시	(655)	0.82 ^b	0.53	0.72 ^c	0.68	0.68	0.46	0.94	0.73
읍면지역	(265)	0.69 ^a	0.50	0.53 ^a	0.56	0.66	0.46	0.95	0.79
<i>F</i>		7.09**		8.88***		0.26		0.39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하루 평균 실내 활동(장난감 놀이, 자유롭게 어슬렁거리기 등의 실내 활동) 시간은 주중 1.49시간(SD=0.95), 주말 2.47시간(SD=1.51)으로 조사되었다. 주중 실내 활동 시간은 아동 출생순위와 지역 규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첫째아와 대도시 거주 아동이 주중 가장 긴 시간 실내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도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의 실내 활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패널 아동은 주중에 하루 평균 0.78시간(SD=0.67), 주말에 1.89시간(SD=1.2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바깥놀이 시간은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미취

업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가정에서 아동의 바깥놀이 시간이 더 길었다. 주말 바깥놀이 시간의 경우, 가구 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341~400만원 사이인 가정, 대도시 거주 가정에서 주말 바깥놀이 시간이 가장 짧은 경향이 있었다.

〈표 II-3-21〉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실내/외 놀이

단위: 시간(명)

구분	(수)	실내 활동				바깥놀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1.49	0.95	2.47	1.51	0.78	0.67	1.89	1.27
아동 성별									
남	(817)	1.48	0.92	2.45	1.48	0.80	0.70	1.93	1.29
여	(781)	1.50	0.97	2.49	1.54	0.76	0.64	1.84	1.24
<i>t</i>		0.06		-0.22		0.74		1.6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1.31	0.80	2.27	1.35	0.76	0.57	1.95	1.27
첫째	(560)	1.55	0.99	2.55	1.58	0.74	0.69	1.92	1.30
둘째 이상	(855)	1.48	0.95	2.46	1.48	0.81	0.68	1.85	1.24
<i>F</i>		3.32*		0.97		2.67		0.38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1.46	0.96	2.47	1.54	0.65	0.62	1.90	1.28
미취업	(874)	1.52	0.95	2.45	1.48	0.87	0.70	1.87	1.26
<i>t</i>		-1.48		0.62		-5.85***		-0.61	
모 학력									
고졸이하	(463)	1.39	0.95	2.44	1.47	0.78	0.75	1.94	1.33
전문대졸	(435)	1.48	0.95	2.55	1.53	0.78	0.71	1.86	1.18
대졸이상	(692)	1.56	0.94	2.42	1.50	0.78	0.60	1.87	1.28
<i>F</i>		2.25		1.12		0.13		0.2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1.46	1.00	2.50	1.57	0.86 ^b	0.74	2.00 ^b	1.28
341~400만원	(393)	1.53	0.92	2.37	1.44	0.82 ^{ab}	0.67	1.78 ^a	1.18
401~530만원	(395)	1.48	0.91	2.54	1.53	0.74 ^a	0.67	1.84 ^{ab}	1.25
531만원 이상	(392)	1.47	0.97	2.40	1.46	0.71 ^a	0.59	1.93 ^{ab}	1.36
<i>F</i>		0.89		2.44		4.48**		2.84*	
지역 규모									
대도시	(678)	1.58 ^b	1.04	2.76 ^b	1.68	0.72 ^a	0.71	1.75 ^a	1.28
중소도시	(655)	1.41 ^a	0.87	2.18 ^a	1.34	0.84 ^b	0.64	1.98 ^b	1.27
읍면지역	(265)	1.43 ^a	0.86	2.40 ^a	1.26	0.80 ^b	0.65	2.01 ^b	1.19
<i>F</i>		11.69***		29.38***		10.88***		8.60***	

* $p < .05$, ** $p < .01$, *** $p < .001$.

하루 일과 중 외출하는 시간은 주중에 0.38시간(SD=0.52), 주말에 2.88시간(SD=1.87)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주중 외출 시간은 아동 성별, 모 취업 여부, 모 학력,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보다는 여아의 외출 시간이 길었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아동의 주중 외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아동의 주말 외출 시간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 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 아동의 주말 외출 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었다.

아동의 기본 생활(식사하기, 씻기, 옷 입기 등)을 위한 시간은 주중 평균 1.31시간(SD=0.50), 주말 평균 1.59시간(SD=0.63)이었으며, 주중 기본생활 시간은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주말 기본생활 시간은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 자녀보다 미취업모 자녀의 주중 기본생활 시간이 길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말 기본생활 시간이 가장 짧았다.

앞서 다루었던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패널 아동의 평균 기타 시간은 주중 0.27시간(SD=0.54), 주말 0.46시간(SD=0.77)으로 나타났다.

〈표 II-3-22〉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외출 및 기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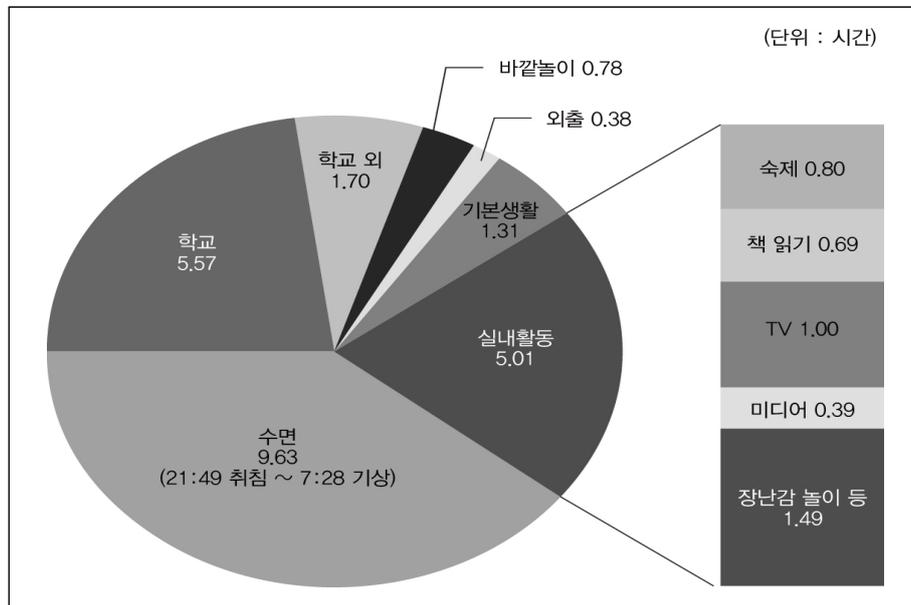
단위: 시간(명)

구분	(수)	외출				기본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0.38	0.52	2.88	1.87	1.31	0.50	1.59	0.63
아동 성별									
남	(817)	0.35	0.49	2.84	1.87	1.32	0.50	1.58	0.64
여	(781)	0.42	0.55	2.92	1.87	1.30	0.50	1.59	0.62
<i>t</i>		-2.52*		-0.24		1.12		0.5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0.46	0.50	2.83	1.51	1.23	0.46	1.61	0.70
첫째	(560)	0.35	0.49	2.90	2.00	1.32	0.50	1.58	0.63
둘째 이상	(855)	0.39	0.54	2.88	1.86	1.32	0.51	1.58	0.61
<i>F</i>		2.67		0.69		2.41		0.14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0.29	0.49	2.90	1.85	1.29	0.49	1.56	0.61
미취업	(874)	0.45	0.54	2.89	1.91	1.32	0.50	1.59	0.63
<i>t</i>		-5.66***		0.97		-2.05*		-1.86	

(표 II-3-22 계속)

구분	(수)	외출				기본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학력									
고졸이하	(463)	0.33	0.52	2.68	1.95	1.31	0.48	1.57	0.64
전문대졸	(435)	0.36	0.53	2.93	1.81	1.27	0.49	1.54	0.60
대졸이상	(692)	0.42	0.51	2.99	1.86	1.33	0.52	1.62	0.64
<i>F</i>		7.12**		1.67		0.59		1.1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0.41	0.53	2.63 ^a	1.75	1.28	0.50	1.57	0.66
341~400만원	(393)	0.37	0.50	2.87 ^a	1.91	1.33	0.50	1.65	0.61
401~530만원	(395)	0.37	0.53	3.05 ^b	1.83	1.32	0.47	1.57	0.61
531만원 이상	(392)	0.38	0.51	2.98 ^b	1.96	1.31	0.51	1.57	0.64
<i>F</i>		0.43		3.53*		0.42		0.76	
지역 규모									
대도시	(678)	0.34 ^a	0.52	2.91	1.90	1.28	0.49	1.48 ^a	0.60
중소도시	(655)	0.44 ^b	0.52	2.79	1.82	1.33	0.51	1.66 ^b	0.63
읍면지역	(265)	0.37 ^b	0.52	3.02	1.92	1.31	0.49	1.66 ^b	0.67
<i>F</i>		10.14***		1.51		1.37		8.3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3-3] 아동의 일상적 주중 일과활동

패널 아동의 평일 하루 동안의 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수면 시간(9.63시간)이 가장 길었고, 그 뒤로 학교 활동 시간(5.57시간), 실내 활동 시간(5.01시간), 사교육 활동 시간(1.70시간), 기본생활 시간(1.31시간), 바깥놀이 시간(0.78시간), 외출 시간(0.3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활동 중 장난감 놀이하는 시간(1.49시간)이 가장 길었고, 미디어기기 이용시간(0.39시간)이 가장 짧았다(그림 II-3-3 참조).

패널 아동의 실내 운동 시간(하루에 집밖(골목, 마당, 놀이터 등)에서 햇볕 쬐며 노는 시간)은 주중 평균 53.43분(SD=34.73), 주말 평균 54.66분(SD=45.74)으로 나타났으며, 주중 실내 운동 시간은 아동 성별, 출생순위,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 외동아, 중소도시 거주 아동이 실내에서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패널 아동의 실외 운동 시간(하루에 태권도, 공놀이, 수영 등의 운동을 하는 시간)은 주중에 평균 50.55분(SD=38.57), 주말에 88.46분(SD=66.30)으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실외 운동에 더욱 긴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실외 운동 시간은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가계 소득이 높은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의 실외 운동 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었다.

〈표 II-3-23〉 아동의 실내외 운동시간

단위: 분(명)

구분	실내 운동 시간						실외 운동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438)	53.43	34.73	(1,209)	54.66	45.74	(1,491)	50.55	38.57	(1,377)	88.46	66.30
아동 성별												
남	(759)	60.09	37.82	(615)	57.72	48.64	(756)	52.30	39.02	(706)	92.57	70.12
여	(679)	45.82	29.01	(594)	51.39	42.17	(715)	48.66	38.00	(671)	83.99	61.56
<i>t</i>		7.32***			1.83			0.69			0.0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0)	61.44 ^b	39.10	(144)	63.62	43.61	(173)	52.68	45.90	(160)	88.26	62.84
첫째	(509)	52.78 ^a	32.90	(434)	50.03	38.54	(514)	49.18	35.71	(488)	86.46	60.70
둘째 이상	(759)	51.90 ^a	34.64	(631)	55.92	50.72	(784)	51.04	38.61	(729)	90.03	70.97
<i>F</i>		5.67**			2.36			1.02			0.09	
모 취업 여부												
취업	(624)	52.39	34.77	(525)	53.26	46.16	(632)	46.99	35.29	(602)	87.01	66.20
미취업	(786)	54.08	34.97	(659)	56.01	45.63	(810)	53.25	40.90	(749)	90.32	66.46
<i>t</i>		-1.24			-0.54			-2.31*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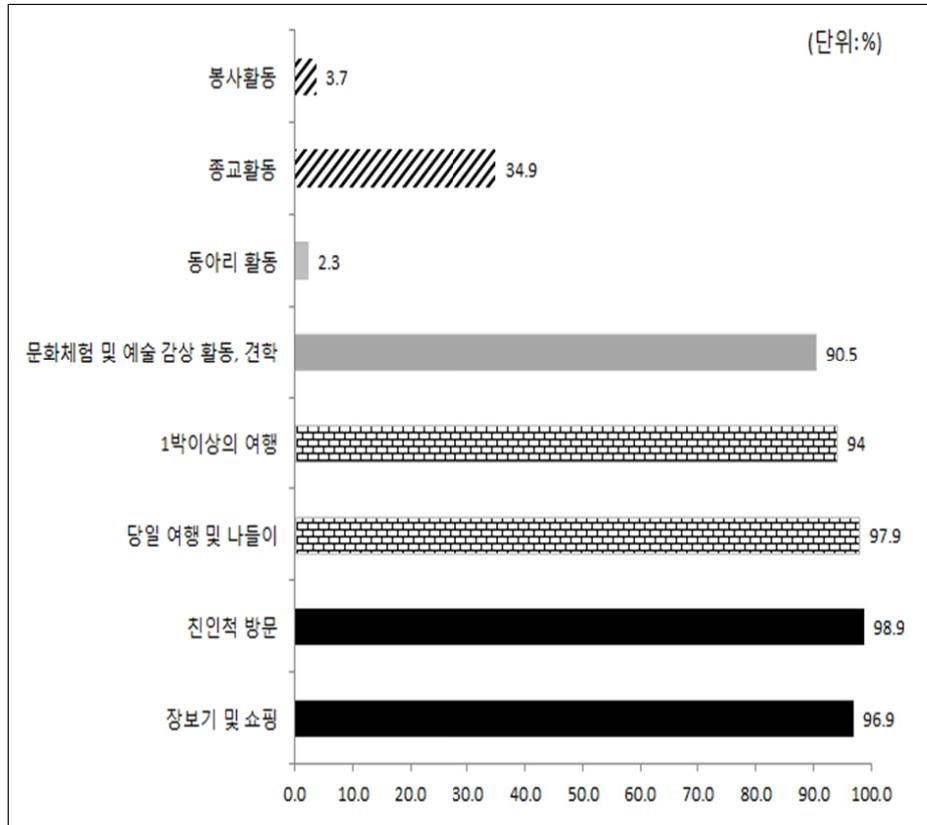
(표 II-3-23 계속)

구분	실내 운동 시간						실외 운동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모 학력												
고졸이하	(401)	54.77	42.28	(344)	57.56	52.66	(419)	54.54	41.07	(388)	100.48	74.03
전문대졸	(393)	51.08	31.51	(325)	51.28	38.76	(404)	49.64	37.61	(376)	84.25	63.09
대졸이상	(637)	54.02	31.74	(533)	54.82	44.97	(640)	48.80	37.52	(605)	84.23	62.15
F		0.64			0.30			1.50			2.5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50)	53.55	38.70	(296)	54.37	44.80	(375)	53.30 ^b	40.23	(345)	87.42	60.60
341~400만원	(357)	54.11	32.97	(287)	55.08	44.27	(365)	53.51 ^b	39.92	(337)	92.73	73.97
401~530만원	(360)	55.62	36.67	(308)	51.78	41.96	(362)	51.26 ^b	41.70	(348)	86.11	63.31
531만원 이상	(357)	50.16	29.96	(305)	55.14	47.94	(354)	44.92 ^a	30.69	(331)	87.63	66.83
F		2.04			0.04			4.14 ^{**}			0.10	
지역 규모												
대도시	(624)	52.93 ^a	35.24	(524)	52.09	47.28	(629)	46.97	35.10	(594)	84.65	66.07
중소도시	(588)	56.45 ^b	35.88	(486)	58.06	44.02	(596)	53.63	40.39	(543)	91.75	63.18
읍면지역	(226)	47.00 ^a	28.75	(199)	53.37	45.04	(246)	52.46	41.82	(240)	90.63	72.92
F		5.71 ^{**}			1.90			3.16 [*]			0.70	

* $p < .05$, ** $p < .01$, *** $p < .001$.

나) 활동별 참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 아동이 지난 1년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당일 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 여행, 문화 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90%이상의 패널 아동이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당일 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여행,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참여율이 전체 패널의 34.9%로 다른 활동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동 참여율은 각각 3.7%, 2.3%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3-4] 아동의 활동별 참여

위에서 제시한 활동 중 장보기 및 쇼핑의 참여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흥미롭게도 대도시 아동들이 쇼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95.4%)이 중소도시(98.2%), 읍면지역(97.7%)의 아동들의 참여율에 비해 낮았다. 연간 장보기 참여 횟수는 평균 51.22회(SD=42.69)로 1주에 한번 정도 쇼핑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방문은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패널 아동들이 참여하는 활동이었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친인척 방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간 친인척 참여횟수는 총 평균 27.94회(SD=38.79)로 패널 아동은 2주에 한번 꼴로 친인척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24〉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쇼핑 및 친인척 방문

단위: %, 회(명)

구분	(수)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3.1	96.9	51.22	42.69	1.1	98.9	27.94	38.79
아동 성별									
남	(817)	3.9	96.1	46.78	36.97	1.0	99.0	27.17	33.38
여	(781)	2.3	97.7	55.85	47.49	1.3	98.7	28.76	43.80
$\chi^2(df)/t$		3.89(1)		-4.14***		1.09(1)		-0.4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4.8	95.2	58.13	45.41	0.6	99.4	24.84	30.96
첫째	(560)	2.2	97.8	49.83	40.31	0.7	99.3	30.05	37.45
둘째 이상	(855)	3.4	96.6	50.64	43.61	1.6	98.4	27.11	41.32
$\chi^2(df)/F$		3.25(2)		2.26		2.60(2)		1.47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3.0	97.0	48.63	37.63	0.8	99.2	29.82	43.70
미취업	(874)	2.9	97.1	52.87	45.39	1.3	98.7	26.79	34.46
$\chi^2(df)/t$		1.16(1)		-1.30		0.56(1)		1.15	
모 학력									
고졸이하	(463)	3.2	96.8	55.03	47.18	2.6	97.4	27.92	41.13
전문대졸	(435)	3.3	96.7	50.70	42.61	0.8	99.2	27.21	32.77
대졸이상	(692)	2.6	97.4	49.41	39.74	0.4	99.6	28.58	40.79
$\chi^2(df)/F$		0.15(2)		1.97		13.38(2)**		0.5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3.9	96.1	51.46	48.80	1.5	98.5	27.94	39.81
341~400만원	(393)	2.1	97.9	51.72	38.94	0.7	99.3	28.28	42.51
401~530만원	(395)	2.6	97.4	52.79	42.27	0.8	99.2	28.30	35.58
531만원 이상	(392)	3.3	96.7	48.30	39.01	0.4	99.6	27.15	37.50
$\chi^2(df)/F$		1.01(3)		0.35		-		0.06	
지역 규모									
대도시	(678)	4.6	95.4	51.67	41.38	1.8	98.2	27.93	35.59
중소도시	(655)	1.8	98.2	50.05	44.03	0.4	99.6	27.53	41.68
읍면지역	(265)	2.3	97.7	52.95	42.64	0.9	99.1	28.97	39.31
$\chi^2(df)/F$		8.95(2)*		0.24		3.06(2)		1.78	

* $p < .05$, ** $p < .01$, *** $p < .001$.

지난 1년 동안 패널 아동은 평균 25.75회(SD=26.73)의 당일 여행과 나들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여행 및 나들이 횟수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더 빈번하게 당일 여행과 나들이를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박 이상의 여행에 참여하는 비율(94%)은 당일 여행 및 나들이에 참여하는 비율(97.9%)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었다. 1박 이상

의 여행을 가는 횟수는 1년 기준 평균 6.02회(SD=7.03)로 나타났다. 1박 이상의 여행에 참여하는 비율과 연간 참여 횟수는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상이하었는데,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여행 참여율과 연간 참여 횟수가 모두 높았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여행 참여율과 참여 횟수가 낮았다.

〈표 II-3-25〉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나들이 및 여행

구분	(수)	단위: %, 회(명)							
		당일 여행 및 나들이				1박이상의 여행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2.1	97.9	25.75	26.73	6.0	94.0	6.02	7.03
아동 성별									
남	(817)	1.9	98.1	25.55	24.53	6.1	93.9	5.72	6.76
여	(781)	2.2	97.8	25.95	28.88	5.9	94.1	6.34	7.28
		$\chi^2(df)/t$		0.71(2)		0.07		0.01(1)	
								-1.4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1.7	98.3	26.22	22.87	3.8	96.2	7.10	8.40
첫째	(560)	2.3	97.7	27.55	26.70	7.4	92.6	6.21	7.47
둘째 이상	(855)	2.0	98.0	24.29	27.52	5.6	94.4	5.62	6.24
		$\chi^2(df)/F$		0.17(2)		2.89		3.56(2)	
								2.87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2.5	97.5	25.06	24.14	4.8	6.5	6.23	7.32
미취업	(874)	1.6	98.4	26.63	28.75	95.2	93.5	5.88	6.71
		$\chi^2(df)/t$		0.41(1)		-0.36		0.42(1)	
								1.55	
모 학력									
고졸이하	(463)	2.7	97.3	22.81 ^a	29.33	10.0	90.0	5.61 ^a	6.43
전문대졸	(435)	2.3	97.7	23.74 ^a	20.72	6.2	93.8	5.30 ^a	6.15
대졸이상	(692)	1.5	98.5	28.86 ^b	28.01	3.2	96.8	6.65 ^b	7.59
		$\chi^2(df)/F$		1.50(2)		10.63 ^{***}		25.52(2) ^{***}	
								4.16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3.2	96.8	23.52	27.42	12.2	87.8	4.64 ^a	5.02
341~400만원	(393)	1.2	98.8	25.77	27.62	5.8	94.2	6.44 ^b	7.04
401~530만원	(395)	2.3	97.7	26.59	25.94	2.8	97.2	6.01 ^b	7.28
531만원 이상	(392)	1.6	98.4	27.31	26.28	2.8	97.2	6.99 ^b	8.20
		$\chi^2(df)/F$		7.75(3)		1.48		33.84(3) ^{***}	
								7.14 ^{***}	
지역 규모									
대도시	(678)	2.2	97.8	27.07	28.84	6.7	93.3	6.21	7.32
중소도시	(655)	1.8	98.2	25.83	26.47	5.0	95.0	6.10	6.93
읍면지역	(265)	2.5	97.5	22.13	20.68	6.8	93.2	5.33	6.42
		$\chi^2(df)/F$		1.65(2)		2.70		3.39(2)	
								0.32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 참여율은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수준,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외동아는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 참여율이 형제가 있는 가정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체험 및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으로 문화체험 및 예술 활동 참여율이 낮았다. 패널 아동들은 1년에 10.41회(SD=15.94)의 문화체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 참여 횟수는 어머니 학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11.30회)에 연간 참여 횟수가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10.68회), 전문대졸(8.72회) 순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동아리 활동 참여율은 모든 활동 중 최저비율로 2.3%였고, 참여하는 아동의 연간 참여 횟수는 47.80회(SD=42.03)로 조사되었다.

〈표 11-3-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 및 동아리 활동

단위: %, 회(명)

구분	(수)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 견학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9.5	90.5	10.41	15.94	97.7	2.3	47.80	42.03
아동 성별									
남	(817)	9.6	90.4	9.49	10.63	98.1	1.9	57.56	52.29
여	(781)	9.3	90.7	11.39	20.03	97.2	2.8	40.98	31.26
		$\chi^2(df)/t$		0.01(1)		-1.55		0.74(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13.1	86.9	12.11	10.65	98.7	1.3	48.00	0.00
첫째	(560)	6.8	93.2	10.12	11.87	98.5	1.5	44.40	38.50
둘째 이상	(855)	10.5	89.5	10.25	19.33	96.8	3.2	48.92	44.99
		$\chi^2(df)/F$		6.90(2)*		1.81		2.24(2)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7.4	92.6	9.66	9.66	97.8	2.2	64.34	49.20
미취업	(874)	10.9	89.1	11.05	19.45	97.5	2.5	37.07	32.40
		$\chi^2(df)/t$		3.80(1)		-0.96		0.72(1)	
모 학력									
고졸이하	(463)	16.2	83.8	10.68 ^{ab}	25.72	97.9	2.1	49.26	18.25
전문대졸	(435)	10.1	89.9	8.72 ^a	9.10	98.3	1.7	56.21	28.76
대졸이상	(692)	4.8	95.2	11.30 ^b	11.52	97.1	2.9	44.09	51.99
		$\chi^2(df)/F$		33.92(2) ^{***}		3.08*		3.39(2)	

(표 II-3-26 계속)

구분 (수)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활동, 견학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14.5	85.5	44.16	36.61	97.3	2.7	61.95	49.56
341~400만원 (393)	8.6	91.4	62.41	54.84	97.3	2.7	49.67	38.91
401~530만원 (395)	8.7	91.3	48.00	0.00	98.1	1.9	55.61	41.51
531만원 이상 (392)	5.5	94.5	32.42	44.98	98.0	2.0	46.75	30.89
$\chi^2(df)/F$	19.85(3) ^{***}		1.55		0.36(2)		0.18	
지역 규모								
대도시 (678)	12.4	87.6	10.21	10.91	96.9	3.1	49.06	47.70
중소도시 (655)	5.7	94.3	10.69	20.64	98.0	2.0	50.45	34.07
읍면지역 (265)	10.9	89.1	10.23	12.51	98.9	1.1	27.52	18.39
$\chi^2(df)/F$	9.83(2) ^{**}		0.02		0.33(2)		0.65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종교 활동 참여율은 모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패널 아동의 종교 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종교 활동 참여율은 소득이 531만원 이상이거나, 34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아주 높거나 적은 경우 종교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패널 아동은 평균적으로 연간 53.53회(SD=41.52)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간 참여 횟수 역시 가구 소득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아동의 연간 참여 횟수가 61.95회에 이르렀고, 소득이 531만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연간 참여 횟수가 46.75회에 머물러 그 차이가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봉사 활동 참여율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아의 봉사 활동 참여율은 7.6%로 출생순위가 첫째(1.8%) 혹은 둘째 이상(4.2%)인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외동아의 부모가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3-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종교 및 봉사활동

단위: %, 회(명)

구분 (수)	종교활동				봉사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8)	65.1	34.9	53.53	41.52	96.3	3.7	24.73	51.55

(표 II-3-27 계속)

구분	(수)	종교활동				봉사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	(817)	63.9	36.1	54.41	42.25	96.8	3.2	25.28	43.58
여	(781)	66.3	33.7	52.53	40.66	95.8	4.2	24.29	57.11
$\chi^2(df)/t$		0.50(1)		0.30		0.51(1)		-0.1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3)	67.5	32.5	59.17	49.84	92.4	7.6	21.39	19.91
첫째	(560)	65.2	34.8	48.24	31.35	98.2	1.8	43.23	95.03
둘째 이상	(855)	64.3	35.7	56.13	45.41	95.8	4.2	20.45	39.10
$\chi^2(df)/F$		0.34(2)		2.00		7.89(2)*		1.08	
모 취업 여부									
취업	(694)	65.1	34.9	53.68	44.32	95.2	4.8	21.41	40.34
미취업	(874)	64.6	35.4	53.54	39.79	97.0	3.0	28.67	62.04
$\chi^2(df)/t$		0.01(1)		-0.50		2.90(1)		-0.61	
모 학력									
고졸이하	(463)	67.5	32.5	56.85	45.02	96.7	3.3	21.46	17.46
전문대졸	(435)	66.8	33.2	56.90	45.62	95.9	4.1	18.56	19.01
대졸이상	(692)	62.4	37.6	50.03	36.96	96.3	3.7	30.60	73.43
$\chi^2(df)/F$		6.75(2)*		2.16		1.02(2)		0.1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62.1	37.9	61.95 ^b	49.56	96.2	3.8	16.56	17.47
341~400만원	(393)	71.3	28.7	49.67 ^a	38.91	96.9	3.1	41.32	57.64
401~530만원	(395)	64.4	35.6	55.61 ^{ab}	41.51	96.6	3.4	15.75	17.39
531만원 이상	(392)	62.1	37.9	46.75 ^a	30.89	95.6	4.4	29.19	78.02
$\chi^2(df)/F$		7.88(3)*		4.05**		1.94(3)		0.58	
지역 규모									
대도시	(678)	62.6	37.4	52.89	38.88	95.9	4.1	21.61	42.32
중소도시	(655)	66.5	33.5	52.50	40.76	96.8	3.2	29.66	70.86
읍면지역	(265)	67.8	32.2	58.01	49.97	96.1	3.9	23.62	18.20
$\chi^2(df)/F$		0.60(2)		0.21		0.30(2)		0.17	

* $p < .05$, ** $p < .01$.

라.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및 전반적 건강상태

아동의 신체 특성으로 신장, 허리둘레, 체중과 BMI 지수, 치아 건강, 시력 및 우세 손 등을 알아보았으며, 그리고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1) 신체 특성

먼저, 아동의 평균 신장은 123.51cm이며, 평균 허리둘레는 58.01cm이다. 신장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크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외동아에 비해 평균 신장이 작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31만원 이상) 평균 신장이 더 크다. 허리둘레 역시 남아가 더 길고,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읍면지역 아동의 허리둘레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8〉 아동의 신장 및 허리둘레

구분	신장					허리둘레				
	평균	표준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차	최솟값	최댓값	(수)
전체	123.51	5.10	107.2	114.0	(1,559)	58.01	5.82	47.0	83.4	(1,553)
아동 성별										
남	124.03	5.14	109.0	144.0	(781)	58.80	5.89	47.0	82.0	(794)
여	122.95	4.99	107.2	140.5	(761)	57.17	5.61	47.0	83.4	(759)
<i>t</i>			4.99***					5.0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24.39 ^b	4.83	109.0	138.0	(177)	58.45	5.58	47.0	79.0	(177)
첫째	123.69 ^{ab}	5.05	109.0	140.5	(549)	58.08	5.61	47.0	79.0	(546)
둘째 이상	123.16 ^a	5.17	107.2	144.0	(833)	57.86	6.01	47.0	83.4	(830)
<i>F</i>			6.02**					0.7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23.07 ^a	5.08	107.2	138.5	(392)	58.04	5.84	47.0	81.0	(388)
341~400만원	123.05 ^a	5.50	109.0	144.0	(387)	58.04	6.20	47.0	82.0	(386)
401~530만원	123.91 ^{ab}	4.90	111.0	140.0	(383)	57.98	5.48	47.0	78.0	(382)
531만원 이상	124.03 ^b	4.90	110.0	140.5	(384)	58.04	5.77	47.0	83.4	(384)
<i>F</i>			3.04*					0.01		
지역 규모										
대도시	127.8	4.97	108.5	140.0	(658)	57.94 ^a	5.93	47.0	83.4	(656)
중소도시	123.29	5.19	110.0	144.0	(641)	57.65 ^a	5.58	47.0	82.0	(638)
읍면지역	123.34	5.17	107.2	140.5	(260)	59.07 ^b	5.97	49.0	79.0	(259)
<i>F</i>			2.29					5.12**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평균 체중은 25.28kg, BMI지수는 16.50kg/m²이다. 체중과 BMI 모두 아동의 성별 및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인 경우 그리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치가 더 크다. 한편 BMI는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하인 집단에서 수치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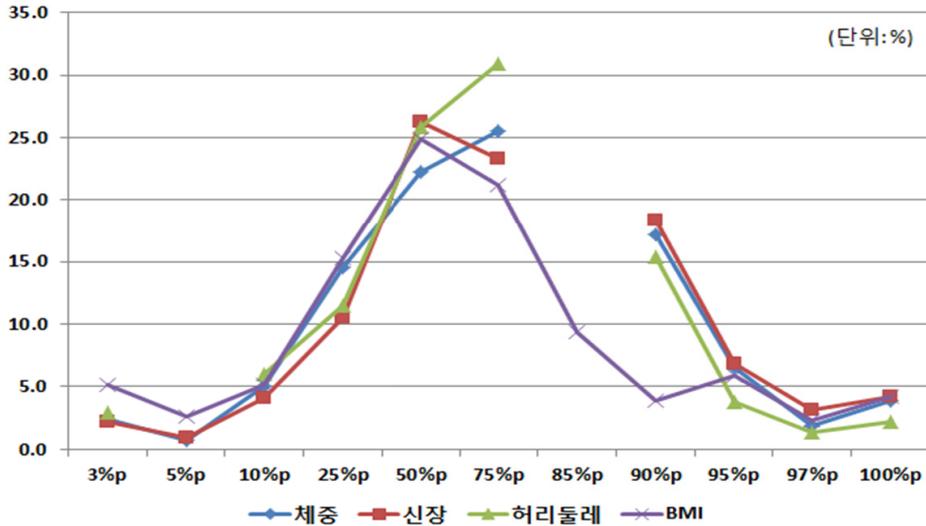
〈표 II-3-29〉 아동의 체중 및 BMI

단위: kg, kg/m²(명)

구분	체중					BMI				
	평균	표준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차	최솟값	최댓값	(수)
전체	25.28	4.54	16.8	48.7	(1,556)	16.50	2.26	11.2	28.8	(1,556)
아동 성별										
남	25.80	4.66	16.8	48.2	(797)	16.69	2.31	12.5	28.8	(797)
여	24.72	4.34	17.0	48.7	(759)	16.29	2.19	11.2	27.5	(759)
<i>t</i>			4.74***					3.0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5.45	4.21	18.0	42.0	(177)	16.40	2.16	12.7	24.1	(177)
첫째	25.37	4.47	17.3	48.2	(549)	16.51	2.19	12.6	26.2	(549)
둘째 이상	25.17	4.67	16.8	48.7	(830)	16.51	2.33	11.2	28.8	(830)
<i>F</i>			0.60					0.23		
모 학력										
고졸이하	25.45	4.78	16.8	48.2	(451)	16.72 ^b	2.45	12.5	28.8	(451)
전문대졸	25.57	4.59	17.3	48.7	(427)	16.58 ^a	2.27	11.2	27.5	(427)
대졸이상	24.95	4.30	17.0	45.2	(670)	16.29 ^a	2.07	12.0	24.9	(670)
<i>F</i>			1.34					5.1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5.01	4.81	16.8	48.2	(391)	16.42	2.35	11.2	28.8	(391)
341~400만원	25.14	4.83	17.0	45.2	(385)	16.52	2.40	12.5	26.2	(385)
401~530만원	25.41	4.22	18.0	42.0	(393)	16.50	2.18	12.5	24.9	(393)
531만원 이상	25.59	4.29	17.3	48.7	(384)	16.57	2.11	12.5	27.5	(384)
<i>F</i>			1.23					0.29		
지역 규모										
대도시	25.33 ^a	4.65	17.1	48.7	(657)	16.45 ^a	2.28	11.2	28.8	(657)
중소도시	24.96 ^a	4.30	16.8	45.2	(640)	16.36 ^a	2.10	12.0	24.2	(640)
읍면지역	25.90 ^b	4.78	17.3	45.0	(259)	16.96 ^b	2.49	12.5	28.8	(259)
<i>F</i>			5.57**					6.85**		

** $p < .01$, *** $p < .001$.

이상의 신체지수들을 2007년 표준성장도표에서 아동의 월령 및 성별을 고려하였을 때의 백분위수 지점을 찾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I-3-5]와 같다. 그래프 모양은 정상분포곡선과 유사하며 꼬리가 살짝 올라간 즉, 백분위수가 아주 낮거나 높은 집단이 약간 많아지는 형태를 띤다.



[그림 II-3-5] 표준성장도표 백분위수 대비 아동의 신체치수

다음으로 아동의 치아 건강을 살펴보면, 평균 6.11세부터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며, 현재까지 평균 5.25개의 유치가 빠졌고, 충치는 0.79개이다. 여아가 남아보다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도 빠르고 현재까지 빠진 유치 개수도 더 많아서 여아의 치아 발달이 남아보다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더 빨랐으며, 충치 개수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 비해 낮은 가구(340만원 이하)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0> 아동의 치아 건강

구분	빠진 유치 개수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충치 개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25	2.31	(1,597)	6.11	0.70	(1,541)	0.79	1.47	(1,598)
아동 성별									
남	4.93	2.23	(816)	6.15	0.70	(790)	0.78	1.44	(817)
여	5.59	2.34	(781)	6.06	0.71	(751)	0.81	1.50	(781)
<i>t</i>		-5.67***			2.34*			-0.0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45	1.97	(183)	6.12	0.66	(177)	0.65	1.35	(183)
첫째	5.17	2.40	(560)	6.08	0.71	(538)	0.86	1.57	(560)
둘째 이상	5.25	2.31	(854)	6.13	0.71	(826)	0.78	1.42	(855)
<i>F</i>		0.36			1.03			1.13	

단위: 개, 세(명)

(표 II-3-30 계속)

구분	빠진 유치 개수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총치 개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16	2.47	(398)	6.19	0.68	(383)	0.93 ^b	1.51	(399)
341~400만원	5.23	2.31	(393)	6.13	0.71	(384)	0.75 ^a	1.52	(393)
401~530만원	5.35	2.22	(395)	6.01	0.70	(380)	0.77 ^{ab}	1.50	(395)
531만원 이상	5.34	2.24	(392)	6.10	0.72	(375)	0.75 ^a	1.37	(392)
F		1.69			2.53			2.63 [*]	
지역 규모									
대도시	5.16	2.38	(678)	6.05 ^a	0.71	(654)	0.73	1.37	(678)
중소도시	5.33	2.20	(655)	6.18 ^b	0.70	(639)	0.90	1.58	(655)
읍면지역	5.28	2.36	(264)	6.07 ^a	0.68	(248)	0.72	1.43	(265)
F		0.99			7.99 ^{***}			0.82	

* $p < .05$, ** $p < .001$.

또한 아동의 시력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아동 중 7.4%가 안경을, 0.2%는 시력교정도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경 및 교정도구 착용 시기는 평균 5.63세로 유아기 후반부터임을 알 수 있다.

〈표 II-3-31〉 아동의 시력 건강

구분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및 종류				단위: %, 세(명) 착용 시기	
	사용 안함	안경	시력교정도구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92.4	7.4	0.2	100.0(1,598)	5.63	1.35
아동 성별						
남	93.2	6.6	0.2	100.0(817)	5.65	1.53
여	91.4	8.3	0.2	100.0(781)	5.62	1.17
$\chi^2(df)/t$			0.86(1)			0.1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6.6	12.7	0.8	100.0(183)	5.85	1.85
첫째	93.9	6.1	0.0	100.0(560)	5.74	1.25
둘째 이상	92.6	7.2	0.2	100.0(855)	5.48	1.10
$\chi^2(df)/F$			5.25(2)			1.3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90.8	9.0	0.2	100.0(399)	5.76	1.18
341~400만원	93.7	6.3	0.0	100.0(393)	5.19	1.80
401~530만원	93.4	6.2	0.4	100.0(395)	5.37	1.22
531만원 이상	91.5	8.3	0.2	100.0(392)	5.96	1.10
$\chi^2(df)/F$			1.76(3)			1.37

(표 II-3-31 계속)

구분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및 종류				착용 시기	
	사용 안함	안경	시력교정도구	계(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91.3	8.5	0.2	100.0(678)	5.71	1.10
중소도시	92.1	7.7	0.2	100.0(655)	5.47	1.59
읍면지역	95.7	4.0	0.3	100.0(265)	5.96	1.26
	$\chi^2(df)/F$			4.34(2)	1.07	

주. 교차분석의 통계값은 기대 빈도를 고려하여 '사용 안함'과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다음으로 아동의 신체 특성 중 운동 능력에 해당하는 우세 손을 알아보았다. 아동의 90.3%는 연필 등의 필기도구 사용 시 우세 손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며, 식사하거나 물건 집기에서도 약 80% 이상의 대부분이 우세 손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필기도구만큼의 비율은 아니며 대신 양손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물건 집기에서 여아보다 양손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외동인 경우 우세 손으로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표 II-3-32〉 아동의 우세 손

단위: %(명)

구분	크레파스 또는 연필 사용			식사하기			물건 집기			(수)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전체	90.3	7.0	2.7	89.1	6.7	4.2	84.3	5.7	10.0	(1,598)
아동 성별										
남	90.3	7.3	2.4	88.7	7.3	4.0	82.5	6.2	11.3	(817)
여	90.2	6.8	3.0	89.6	6.1	4.3	86.1	5.3	8.6	(781)
	$\chi^2(df)$		0.36	2.73(2)			6.10(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8.0	4.1	7.9	85.1	4.8	10.1	76.9	5.1	18.0	(183)
첫째	90.3	7.7	2.0	89.6	6.7	3.8	83.7	6.2	10.1	(560)
둘째 이상	90.8	7.3	2.0	89.8	7.1	3.1	86.4	5.6	8.0	(855)
	$\chi^2(df)$		14.89(4)**	8.55(4)			10.73(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90.2	8.0	1.8	87.9	7.5	4.7	81.7	6.5	11.8	(399)
341~400만원	90.2	7.6	2.2	89.1	7.7	3.2	84.8	6.7	8.5	(393)
401~530만원	91.0	4.3	4.7	90.2	5.7	4.1	86.1	5.2	8.7	(395)
531만원 이상	90.1	8.3	1.6	89.8	6.5	3.8	84.7	5.0	10.3	(392)
	$\chi^2(df)$		6.46(6)	4.77(6)			5.95(6)			

(표 II-3-32 계속)

구분	크레파스 또는 연필 사용			식사하기			물건 집기			(수)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지역 규모										
대도시	89.4	7.6	3.0	87.9	6.5	5.6	83.1	6.3	10.7	(678)
중소도시	92.5	6.1	1.4	91.8	5.8	2.4	87.2	4.9	7.9	(655)
읍면지역	87.1	7.9	5.1	85.9	9.2	4.9	80.3	6.4	13.3	(265)
$\chi^2(df)$	6.95(4)			7.95(4)			8.84(4)			

* $p < .05$, ** $p < .01$

어머니에게 아동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 대부분이 자녀가 건강한 편이다 혹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아보다는 여아에 대해 그리고 거주 지역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경우 자녀가 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3-33〉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건강 상태

구분	단위: %, 점(명)						평균	표준 편차	t/F
	전혀 하지 않음	건강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전체	0.1	0.7	6.3	53.0	39.9	100.0(1,598)	4.32	0.63	-
아동 성별									
남	0.2	1.1	8.4	51.7	38.6	100.0(817)	4.27	0.68	-2.37*
여	0.0	0.4	4.2	54.3	41.2	100.0(781)	4.36	0.5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0.0	1.1	4.1	49.4	45.4	100.0(183)	4.39	0.62	
첫째	0.0	0.6	7.1	52.4	39.9	100.0(560)	4.32	0.63	0.66
둘째 이상	0.2	0.7	6.3	54.2	38.5	100.0(855)	4.30	0.6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0	1.6	8.8	51.9	37.7	100.0(399)	4.26	0.68	1.97
341~400만원	0.5	1.1	5.4	52.8	40.1	100.0(393)	4.31	0.67	
401~530만원	0.0	0.1	7.3	55.8	36.8	100.0(395)	4.29	0.60	
531만원 이상	0.0	0.1	3.7	51.3	44.9	100.0(392)	4.41	0.57	
지역 규모									
대도시	0.3	0.7	7.3	58.4	33.4	100.0(678)	4.24	0.63	3.22*
중소도시	0.0	0.9	5.7	46.8	46.6	100.0(655)	4.39	0.64	
읍면지역	0.0	0.5	5.4	53.8	40.3	100.0(265)	4.34	0.60	

* $p < .05$

2) 질환 및 치료

가)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사고 또는 중독으로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8.4%이며, 이들의 치료 횟수는 1회가 77%로 가장 많았다. 치료 경험은 성별과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보다는 남아가 그리고 소득이 낮거나(340만원 이하) 혹은 높은 집단(531만원 이상)에서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 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II-3-34〉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단위: %(명)

구분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있음	없음	계(수)	1회	2회	3회이상	계(수)
전체	8.4	91.6	100(1598)	77.7	13.6	8.7	100.0(128)
아동 성별							
남	10.1	89.9	100(817)	71.1	17.0	11.9	100.0(79)
여	6.6	93.4	100(781)	88.3	8.1	3.6	100.0(49)
$\chi^2(df)$	6.66(1)*			1.08(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0.2	89.8	100(399)	72.9	19.9	7.2	100.0(42)
341~400만원	5.6	94.4	100(393)	76.1	13.1	10.8	100.0(18)
401~530만원	6.2	93.8	100(395)	74.5	12.1	13.4	100.0(28)
531만원 이상	12.2	87.8	100(392)	84.3	9.0	6.6	100.0(40)
$\chi^2(df)$	11.56(3)**			1.56(3)			
지역 규모							
대도시	8.1	91.9	100(678)	76.4	15.7	7.8	100.0(56)
중소도시	9.4	90.6	100(655)	79.2	15.6	5.2	100.0(56)
읍면지역	6.7	93.3	100(265)	76.7	0.0	23.3	100.0(16)
$\chi^2(df)$	1.78(2)			0.28(2)			

주: 기대빈도로 인하여 교차분석은 '1회', '2회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p < .05$, ** $p < .01$

나) 입원/통원 치료

입원치료를 한 적 있는 아동은 전체의 7.4%이며, 이들은 지난 1년간 평균 1.08회 입원을 한 적이 있었으며, 출생순위에 있어 형제가 있는 첫째 아동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입원 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5〉 아동의 입원치료 여부 및 횟수

단위: %, 회(명)

구분	입원치료 여부			연간 입원치료 횟수			
	있음	없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7.4	92.6	100.0(1,598)	1.08	0.36	1	3
아동 성별							
남	8.3	91.7	100.0(817)	1.09	0.37	1	3
여	6.6	93.4	100.0(781)	1.08	0.34	1	3
	$\chi^2(df)/t$		0.40(1)	-0.7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4	95.6	100.0(183)	1.00	0.00	1	3
첫째	10.9	89.1	100.0(560)	1.03	0.17	1	2
둘째 이상	5.6	94.4	100.0(855)	1.17	0.53	1	3
	$\chi^2(df)/F$		7.72(2)*	1.98			
지역 규모							
대도시	7.2	92.8	100.0(678)	1.04	0.24	1	3
중소도시	8.1	91.9	100.0(655)	1.11	0.42	1	3
읍면지역	6.6	93.4	100.0(265)	1.12	0.42	1	3
	$\chi^2(df)/F$		0.04(2)	0.44			

* $p < .05$

또한 지난 1년간 총 입원기간은 평균 5.37일이며, 최소 1일에서 최대 40일의 범위를 보인다. 입원 치료 이유로는 기타 41.7%를 제외하고 수술 19.9%, 장염 19.1%, 폐렴 17.7% 등의 순이었다.

〈표 II-3-36〉 아동의 입원치료 기간 및 이유

단위: 일, %(명)

구분	연간 입원치료 기간				입원치료 이유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폐렴	골절	장염	수술	기타	계(수)
전체	5.37	4.89	1	40	17.7	1.6	19.1	19.9	41.7	100.0(113)
아동 성별										
남	5.21	0.41	1	25	14.2	2.7	20.5	16.0	46.5	100.0(61)
여	5.59	5.75	1	40	22.4	0.0	17.2	25.1	35.4	100.0(52)
	$\chi^2(df)/t$		-0.72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08	0.75	3	5	31.0	0.0	31.4	26.5	11.0	100.0(47)
첫째	5.02	2.90	1	20	20.1	1.4	20.9	17.8	39.9	100.0(64)
둘째 이상	6.12	7.04	1	40	11.8	2.0	14.2	21.8	50.3	100.0(111)
	$\chi^2(df)/F$		0.72		-					

(표 II-3-36 계속)

구분	연간 입원치료 기간				입원치료 이유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폐렴	골절	장염	수술	기타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4.77	3.04	1	20	11.3	0.0	27.1	18.6	43.0	100.0(47)
중소도시	6.30	6.44	1	40	24.5	1.7	12.2	19.5	42.0	100.0(47)
읍면지역	4.27	2.84	1	14	15.6	5.4	16.9	24.6	37.5	100.0(19)
$\chi^2(df)/F$	0.92				-					

주: 1)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 특성상 차이검증이 불가함.
 2) 입원치료의 기타 이유로는 ‘편도 수술’, ‘감기 및 독감’, ‘교통사고’ 등이 포함됨.

다음으로 최근 한 달 간 통원 치료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31.8%이며, 여아보다는 남아가,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보다는 외동이거나 첫째가,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통원 치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통원치료 횟수는 월 평균 2.12회이며, 최소 1회에서 최대 15회의 범위로 나타났다.

〈표 II-3-37〉 아동의 통원 치료

단위: %, 회(명)

구분	치료 여부			월간 통원치료 횟수			
	있음	없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31.8	68.2	1000(1598)	2.12	1.79	1	15
아동 성별							
남	35.0	65.0	1000(817)	2.20	1.91	1	15
여	28.4	71.6	1000(781)	2.01	1.63	1	14
$\chi^2(df)$	8.59(1)**			0.8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6.2	63.8	1000(183)	2.14	1.44	1	10
첫째	34.9	65.1	1000(560)	2.07	1.70	1	12
둘째 이상	28.4	71.6	1000(855)	2.15	1.96	1	15
$\chi^2(df)$	7.40(2)*			0.09			
지역 규모							
대도시	36.0	64.0	1000(678)	2.01	1.60	1	14
중소도시	28.6	71.4	1000(655)	2.36	2.06	1	15
읍면지역	28.9	71.1	1000(265)	1.90	1.62	1	9
$\chi^2(df)$	8.07(2)*			1.46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 특성상 차이검증이 불가함.

* $p < .05$, ** $p < .01$

다) 주요 질환

주요 질환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으며 3개월 이상 해당 질환이 계속된 경우를 조사하였다. 먼저 선천성 심장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진단 받은 아동은 전체 3.5%이며, 이들 중 74.2%는 만성 부비동염(축농증)을, 12.5%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었다.

〈표 II-3-38〉 아동의 만성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명)

구분	진단 여부			진단받은 만성 질환(중복응답)				(수)
	있음	없음	계(수)	선천성 심장질환	간질	만성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전체	3.5	96.5	1000(1549)	12.5	7.1	74.2	6.3	(49)
아동 성별								
남	4.3	95.7	1000(817)	8.7	9.8	77.0	4.6	(30)
여	2.6	97.4	1000(781)	19.0	2.3	69.3	9.4	(19)

다음으로 의사소통 장애 등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0.6%이다. 이들은 운동 장애(30.6%), 자폐 스펙트럼(26.1%), 의사소통 장애(15.4%) 등을 경험하고 있다.

〈표 II-3-39〉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명)

구분	진단 여부			진단받은 심리사회적 질환(중복 응답)							(수)
	있음	없음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0.6	99.4	1000(1549)	15.4	26.1	6.0	6.0	30.6	6.0	9.8	(11)
아동 성별											
남	0.9	99.1	1000(817)	21.8	36.9	8.6	8.6	27.4	8.6	5.4	(9)
여	0.2	99.8	1000(781)	0.0	0.0	0.0	0.0	65.1	0.0	34.9	(2)

주: ① 의사소통 장애(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② 자폐 스펙트럼, ③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④ 특정 학습 장애,

⑤ 운동 장애(틱장애, 정형적 독장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⑥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 장애(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방화증, 도벽증), ⑦ 기타 장애

라)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질환의 진단 여부를 알아본 뒤, 천식,

모세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및 식품 알레르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 받은 아동은 전체의 62.8%로 앞서 살펴본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많은 아동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66.4%)들이 여아보다, 외동(71.1%)이거나 첫째(68.2%)인 경우 둘째 이상인 아동보다 진단 받은 비율이 더 높다. 진단 받은 질환 수는 평균 1.57개이며, 남아들은 1.66개로 여아들보다 많다. 이들은 알레르기 비염(74.8%)을 가장 많이 진단받았으며, 그 외에도 모세기관지염(33.4%), 아토피 피부염(32.9%) 등을 경험하고 있다.

〈표 II-3-40〉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의사 진단 여부

구분	진단 여부			진단 질환 수		진단 종류(중복응답)					계(수)
	있음	없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①	②	③	④	⑤	
전체	62.8	37.2	100.0(1,598)	1.57	0.77	9.0	33.4	74.8	32.9	8.7	(1,563)
아동 성별											
남	66.4	33.6	100.0(817)	1.66	0.83	12.2	32.3	79.0	32.9	10.2	(895)
여	59.0	41.0	100.0(781)	1.47	0.69	5.1	34.7	69.7	33.0	7.0	(668)
$\chi^2(df)/t$	9.78(1)**			3.97***							

주: ① 천식, ② 모세기관지염, ③ 알레르기 비염, ④ 아토피 피부염, ⑤ 식품알레르기
 ** $p < .01$, *** $p < .001$.

(1) 천식

숨 쉴 때 가슴에서 쉼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나는 증상을 의미하는 천명 증상을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보인 적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17.0%이며, 여아보다 남아들에게서 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들 중 찬 공기 노출이나 운동 시 천명 증상을 보인 경우는 30.1%이며, 최근 1년간 증상을 보인 아동은 전체의 4.0% 정도이다.

〈표 II-3-41〉 아동의 천명 증상 여부 및 횟수

구분	출생 후 현재까지 천명 여부		찬 공기노출 운동 시 천명 여부	최근 12개월 동안 천명 횟수							계(수)		
	있음	없음		계(수)	0회	1회	2회	3회	4회	6회 이상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0회	1회	2회	3회	4회	6회 이상	계(수)
전체	17.0	83.0	100.0(1,573)	30.1	69.9	100.0(240)	96.0	1.3	0.8	0.6	1.0	0.4	100.0(1,566)

(표 II-3-41 계속)

구분	출생 후 현재까지 천명 여부			찬 공기노출 운동시 천명 여부			최근 12개월 동안 천명 횟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0회	1회	2회	3회	4회	6회	7회 이상	계(수)	
아동 성별															
남	19.2	80.8	100.0 (806)	31.2	68.8	100.0 (146)	95.0	1.8	1.1	0.4	1.1	0.7		100.0 (808)	
여	14.7	85.3	100.0 (767)	28.6	71.4	100.0 (94)	97.0	0.7	0.4	0.9	0.9	0.1		100.0 (762)	
$\chi^2(df)$	7.62(1)**			0.32(1)			-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 특성상 차이검정이 불가함.

** $p < .01$.

천명 증상이 있는 아동 중 최근 1년간 천명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아동은 약 10.5%, 입원을 한 아동은 약 19.5%이었다.

〈표 II-3-42〉 아동의 천명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횟수

단위: %(명)

구분	응급실 방문 횟수				입원 횟수			
	0회	1회	2회	계(수)	0회	1회	2회	계(수)
전체	89.5	9.1	1.4	100.0(61)	80.5	15.3	4.2	100.0(54)
아동 성별								
남	93.3	4.6	2.1	100.0(37)	83.2	16.8	0.0	100.0(32)
여	82.8	17.2	0.0	100.0(24)	75.4	12.3	12.3	100.0(22)

주: 빈도 특성상 차이검증이 불가함.

또한 아동이 천식을 진단 받은 시기는 만3~4세가 34.5%로 가장 많으며 절반 정도는 만 3세미만의 영아기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3〉 아동의 천식 진단 시기

단위: %, 개(명)

구분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3~35개월	만 3~4세	만 5~6세	만 7세 이상	계(수)
전체	19.0	27.8	34.5	16.0	2.7	100.0(93)
아동 성별						
남	19.2	29.2	32.7	15.2	3.7	100.0(70)
여	18.5	23.8	39.5	18.1	0.0	100.0(23)

주: 빈도 특성상 차이검증이 불가함.

최근 1년간 천식 치료를 받은 아동은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이들 중 치료를 위해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류코트리엔 길항제를 복용한 아동은 각각 53.2%, 77.2%이었으며, 약물 사용 기간은 <표 II-3-44>와 같다.

<표 II-3-44> 아동의 천식 치료

단위: %(명)

구분	최근 12개월 동안 천식 치료 여부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					류코트리엔 길항제 복용					
	있음	없음	계(수)	①	②	③	④	계(수)	①	②	③	④	⑤	계(수)
전체	4.5	95.5	100.0(2561)	46.8	40.8	10.3	2.1	100.0(56)	22.8	42.4	30.8	1.9	2.1	100.0(56)
아동성별														
남	6.1	93.9	100.0(799)	42.6	41.9	14.0	1.5	100.0(35)	23.7	47.0	27.8	0.0	1.4	100.0(35)
여	2.8	97.2	100.0(762)	55.8	38.5	2.4	3.4	100.0(21)	20.5	31.7	37.8	6.3	3.7	100.0(21)
$\chi^2(df)$	4.13(1)*			-					-					

주: 1) ① 사용하지 않음, ② 1개월 이내,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2)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 특성상 차이검증이 불가함.

* $p < .05$.

(2) 모세기관지염

만 3세 이전에 모세기관지염을 진단 받은 아동 중 모세기관지염을 1~2회 앓은 아동이 74.4%이었으며, 65% 이상이 생후7~24개월이 처음 앓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3-45> 아동의 모세기관지염 횟수 및 앓은 시기

단위: %(명)

구분	생후 36개월 내 모세기관지염을 앓은 횟수				처음 모세기관지염을 앓은 시기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생후 6개월 이전	생후 7~12개월	생후 13~24개월	생후 25~36개월	계(수)
전체	74.4	16.9	8.7	100.0(317)	10.7	30.7	35.3	23.4	100.0(319)
아동성별									
남	74.9	16.2	8.9	100.0(174)	11.8	31.4	36.4	20.4	100.0(177)
여	73.8	17.7	8.5	100.0(143)	9.4	29.9	33.9	26.7	100.0(142)
$\chi^2(df)$	0.61(2)				3.85(3)				

주: 빈도 특성상 차이검증이 불가함.

(3) 알레르기 비염

다음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앓은 아동을 조사한 결과이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의미

한다.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보인 적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50.5%이며,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코막힘이 가장 많았다(71.4%).

〈표 II-3-46〉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 여부 및 종류

단위: %(명)

구분	출생 후 현재까지 알레르기비염 증상 여부			주로 나타나는 증상(중복응답)				
	있음	없음	계(수)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간지러움	(수)
전체	50.5	49.5	100.0(1,576)	23.0	24.0	71.4	33.1	(1,189)
아동 성별								
남	55.9	44.1	100.0(808)	23.4	23.6	72.2	35.7	(679)
여	44.9	55.1	100.0(768)	22.4	24.6	70.4	29.7	(508)
$\chi^2(df)$		14.22(1) ^{***}				-		

^{***} $p < .001$.

또한 최근 1년간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난 아동은 약 45% 정도이며, 1주일에 4일 이상 증상을 보인 아동은 7.9%이었다. 증상 지속 시기는 대부분(87.0%) 4주 이내이다.

〈표 II-3-47〉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 발생 횟수 및 지속 시기

단위: %(명)

구분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 증상 발생 횟수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 증상 지속 시기		
	없음	1주일에 4일 미만	1주일에 4일 이상	계(수)	4주 이내로 지속	4주 이상 지속	계(수)
전체	54.3	37.8	7.9	100.0(1,566)	87.0	13.0	100.0(689)
아동 성별							
남	49.7	40.7	9.5	100.0(801)	86.0	14.0	100.0(386)
여	59.1	34.7	6.3	100.0(765)	88.2	11.8	100.0(303)
$\chi^2(df)$		14.52(2) ^{**}					

^{**} $p < .01$.

최근 1년간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경험한 아동은 47.3%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29.1%)이나 학교생활(16.2%)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코피가 남, 집중력 저하, 별 불편함 없음 등이 있었다.

〈표 II-3-48〉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으로 인한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수면장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학교생활의 불편함	기타	(수)
전체	47.3	29.1	16.2	23.0	(669)
아동 성별					
남	16.8	24.9	16.3	26.2	(374)
여	48.1	34.7	15.9	18.9	(295)

최근 1년간 알레르기비염 증상과 눈이 가렵고 비비게 되는 증상을 함께 경험한 아동은 전체의 35.1%이었다.

〈표 II-3-49〉 아동의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35.1	64.9	100.0(1,558)	-
아동 성별				
남	37.1	62.9	100.0(796)	0.73(1)
여	33.0	67.0	100.0(762)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대해 최근 1년간 치료를 받은 아동은 33.6%이다. 이들 중 치료제로 항히스타민제 또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한 아동은 약 62% 정도이며, 사용 기간은 <표 II-3-50>과 같다.

〈표 II-3-50〉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 여부 및 기간

단위: %(명)									
구분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 치료 여부			항히스타민제 또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사용 기간					
	있음	없음	계(수)	사용 안함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계(수)
전체	33.6	66.4	100.0(1,572)	37.9	46.3	8.5	4.0	3.2	100.0(638)
아동 성별									
남	37.0	63.0	100.0(806)	36.5	47.3	8.4	4.7	3.1	100.0(348)
여	30.0	70.0	100.0(766)	39.8	45.1	8.6	3.2	3.3	100.0(290)
$\chi^2(df)$	5.03(1)*			1.93(4)					

* $p < .05$.

한편 아동이 의사로부터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시기는 만 3~6세 유아기가 약 67%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3-51〉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진단 시기

단위: %(명)

구분	생후 12 개월 이내	생후 13~ 35개월	만 3~4세	만 5~6세	만 7세 이상	계(수)	$\chi^2(df)$
전체	3.0	21.9	34.5	33.0	7.6	100.0(708)	-
아동 성별							
남	3.3	20.4	36.2	31.4	8.7	100.0(403)	3.53(4)
여	2.7	23.9	32.1	35.1	6.2	100.0(305)	

(4) 아토피피부염

가려운 피부발진이 얼굴, 귀, 목, 접히는 부위, 몸통 등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아토피피부염(또는 태열) 증상이 출생 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아동은 전체의 22.3%이며, 그 중 최근 1년 간 증상이 나타난 아동은 74.3%이었다.

〈표 II-3-52〉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증상 여부

단위: %(명)

구분	출생 후 현재까지 아토피피부염 증상 여부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증상 여부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2.3	77.7	100.0(1,570)	74.3	25.7	100.0(333)
아동 성별						
남	19.3	80.7	100.0(805)	72.3	27.7	100.0(155)
여	25.5	74.5	100.0(765)	75.9	24.1	100.0(178)
$\chi^2(df)$		3.78(1)			1.29(1)	

이러한 아토피피부염 증상 때문에 최근 1년간 치료를 받은 아동은 전체의 13.9%이며, 이들 중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크림, 로션 포함: 더마톱, 아드반탄, 리도멕스, 락티코트, 락티케어 등)를 사용한 아동은 90% 이상으로 사용 기간은 <표 II-3-53>과 같다.

〈표 II-3-53〉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치료 여부 및 기간

단위: %(명)

구분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치료 여부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기간					
	있음	없음	계(수)	사용 안함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계(수)
전체	13.9	86.1	100.0(1,560)	6.5	67.8	12.9	2.9	9.9	100.0(216)
아동 성별									
남	14.3	85.7	100.0(799)	7.4	60.5	16.3	3.7	12.1	100.0(116)
여	13.5	86.5	100.0(761)	5.5	76.0	9.1	2.0	7.4	100.0(100)
$\chi^2(df)$	0.72(1)			1.99(4)					

*** $p < .001$.

한편 아동이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시기는 35개월 이전의 영아기가 약 68%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3-54〉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진단 시기

단위: %(명)

구분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3~35개월	만 3~4세	만 5~6세	만 7세 이상	계(수)	$\chi^2(df)$
전체	35.9	32.3	17.5	12.2	2.0	100.0(315)	-
아동 성별							
남	36.0	36.9	15.6	9.1	2.4	100.0(175)	4.22(4)
여	35.8	26.8	19.9	16.0	1.5	100.0(140)	

(5) 식품 알레르기

출생 후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는 아동은 17.2%이며, 이들 중 대부분(93.5%)은 의심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 증상이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식품알레르기로 인해 6개월 이상 특정 음식을 제한한 적이 있는 아동은 8.0%이었다.

〈표 II-3-55〉 아동의 식품알레르기 증상 여부 및 종류

단위: %(명)

구분	출생 후 현재까지 식품알레르기 증상 여부			주로 나타나는 증상(중복응답)					6개월 이상 음식 제한 여부		
	있음	없음	계(수)	피부	위장관	호흡기	아나 팔라시스	(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7.2	82.8	1000(1576)	93.5	10.6	3.4	0.3	(283)	8.0	92.0	1000(452)
아동 성별											
남	18.1	81.9	100.0(808)	92.0	12.2	4.1	0.0	(152)	10.1	89.9	1000(241)
여	16.3	83.7	100.0(768)	95.3	8.7	2.6	0.7	(131)	5.6	94.4	1000(211)
$\chi^2(df)$	0.88(1)			-					1.49(1)		

주: 피부 증상은 두드러기, 피부발진, 습진, 입주위 부종, 얼굴이 붓는다, 가려움증 등, 위장관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등, 호흡기 증상은 기침, 콧물, 쌉쌉거림, 호흡곤란, 청색증 등, 아나필락시스는 쇼크, 혈압저하, 의식저하, 저혈압 등을 의미함.

*** $p < .001$.

이러한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은 갑각류가 22.0%로 가장 많았고, 과일 19.8%, 계란 14.5%, 우유 14.4%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과자 등의 인스턴트식품과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등이 있었다.

〈표 II-3-56〉 식품알레르기 유발 의심 음식(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남	여	구분	전체	남	여
계란	14.5	16.1	12.5	돼지고기	3.4	2.9	4.0
우유	14.4	15.6	13.2	깨	2.0	3.8	0.0
콩	4.7	3.3	6.4	견과류	5.4	3.3	7.7
땅콩	7.4	7.8	7.0	갑각류	22.0	26.3	17.1
밀	5.3	5.0	5.6	과일	19.8	22.2	17.0
메밀	0.4	0.0	1.0	채소	7.7	5.5	10.1
소고기	4.9	6.3	3.3	기타	37.2	31.7	43.4
닭고기	1.3	1.0	1.7	(수)	(359)	(191)	(168)

주: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잣 등, 갑각류는 새우, 게, 가재, 굴 등, 과일은 복숭아, 메론, 수박, 키위, 사과,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채소는 셀러리, 당근, 겨자, 마늘, 브로콜리, 감자, 양파, 후추, 토마토 등을 포함함.

마) 약제 복용

약제 중 항생제와 진통제나 해열제 복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항생제를 3일 이상 복용한 경험에 대해 출생 후 12개월 이전에 복용하였다는 아동은 54% 이상으로 전체 아동의 절반가량이었고, 최근 1년 이내에 복용한 아동은 약 60%

이상이며, 복용 횟수는 1~2회 복용한 경우(35.7%, 38.8%)가 가장 많았다. 여아보다는 남아가 복용한 경험이 더 많았으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의 아동보다 외동이거나 첫째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항생제 복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7〉 아동의 항생제 복용

구분	돌 이전 복용					최근 12개월 이내 복용					
	없었음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없었음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45.2	35.7	8.9	10.2	1000(1560)	38.5	38.8	11.5	11.2	1000(1565)
아동 성별											
남	13.8	34.0	10.0	12.2	1000(801)	37.7	35.8	12.0	14.5	1000(801)	
여	46.8	37.4	7.8	8.0	1000(759)	39.4	24.1	10.8	7.7	1000(764)	
$\chi^2(df)$			16.53(3)**					20.50(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6.5	25.6	6.9	11.1	1000(178)	32.0	40.2	13.7	14.0	1000(180)	
첫째	45.7	36.1	7.6	10.7	1000(547)	33.5	38.9	12.2	15.5	1000(547)	
둘째 이상	42.3	37.7	10.4	9.6	1000(835)	43.8	38.4	10.4	7.4	1000(838)	
$\chi^2(df)$			10.12(6)					24.31(6)***			

** $p < .01$, *** $p < .001$.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진통제나 해열제를 복용한 아동은 약 60% 이상이며, 복용 횟수는 3~4개월에 1회 이하가 가장 많았다. 항생제와는 달리 여아가 남아보다 복용 여부에 있어서는 복용 비율이 높으나 그 횟수에 있어서는 남아가 비교적 자주 복용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3-58〉 아동의 진통제/해열제 복용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없었음	3~4개월에 1회 이하	1개월에 1~3회	1주일에 1~6회		
전체	37.3	53.5	7.1	2.1	100.0(1,564)	-
아동 성별						
남	39.0	50.6	7.7	2.6	100.0(801)	9.66(3)*
여	35.5	56.6	6.3	1.5	100.0(76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5.7	53.0	6.5	4.7	100.0(180)	8.70(6)
첫째	36.0	52.8	8.5	2.8	100.0(549)	
둘째 이상	38.8	54.1	6.1	1.0	100.0(835)	

* $p < .05$

마. 인지 및 언어 발달

1) 인지 발달

지난 6개월 동안의 아동 행동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아동의 집행 기능(계획 및 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부주의 정도)에 대해 보고하였다. 3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3점=자주 그렇다)를 바탕으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 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보고에 따르면, 자녀의 계획 및 조직화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와 첫째아는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어머니 학력이 대졸이상, 가구 소득 531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의 자녀는 계획 및 조직화 기능에서 어려움이 적은 편이었다. 행동 통제의 경우 아동 성별과 어머니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아들이 행동 통제에서 여아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편이었고, 어머니 학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행동 통제의 어려움이 많았다. 정서 통제 측면에서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남아와 첫째아가 정서 통제의 어려움이 높은 편이었고, 어머니 학력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정서 통제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 아동의 부주의함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아동 성별,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부주의한 편이었으며, 취업모의 자녀가 취업하지 않은 엄마들의 자녀에 비해, 외동아가 형제가 있는 아동들에 비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5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구분	(수)	단위: 점(명)							
		계획 및 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부주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56)	1.57	0.40	1.30	0.32	1.40	0.41	1.49	0.42
아동 성별									
남	(792)	1.65	0.42	1.38	0.35	1.45	0.42	1.55	0.42
여	(764)	1.48	0.35	1.21	0.27	1.36	0.40	1.42	0.40
<i>t</i>		7.97***		9.94***		3.30**		6.7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8)	1.55 ^{ab}	0.42	1.32	0.36	1.35 ^a	0.42	1.57 ^c	0.45
첫째	(547)	1.62 ^b	0.39	1.31	0.32	1.45 ^b	0.42	1.52 ^b	0.42
둘째 이상	(831)	1.53 ^a	0.39	1.28	0.31	1.38 ^a	0.40	1.45 ^a	0.40
<i>F</i>		5.92**		2.06		7.01**		13.04***	

(표 II-3-36 계속)

구분	(수)	계획 및 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부주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677)	1.56	0.40	1.30	0.32	1.40	0.42	1.52	0.42
미취업	(856)	1.57	0.39	1.30	0.33	1.40	0.40	1.47	0.41
<i>t</i>		0.20		1.31		0.09		2.82**	
모 학력									
고졸이하	(451)	1.61 ^b	0.42	1.32 ^b	0.35	1.45 ^b	0.44	1.49	0.43
전문대졸	(429)	1.59 ^b	0.39	1.30 ^{ab}	0.31	1.41 ^{ab}	0.39	1.50	0.41
대졸이상	(673)	1.53 ^a	0.38	1.29 ^a	0.31	1.38 ^a	0.40	1.49	0.41
<i>F</i>		11.24***		3.92*		3.50*		1.0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1)	1.60 ^b	0.40	1.32	0.34	1.46 ^c	0.43	1.48 ^a	0.41
341~400만원	(385)	1.57 ^b	0.39	1.31	0.34	1.43 ^{bc}	0.43	1.47 ^a	0.42
401~530만원	(384)	1.60 ^b	0.42	1.30	0.31	1.36 ^{ab}	0.38	1.54 ^b	0.44
531만원 이상	(380)	1.49 ^a	0.37	1.26	0.30	1.36 ^a	0.39	1.46 ^a	0.39
<i>F</i>		6.30***		2.17		4.59**		2.66*	
지역 규모									
대도시	(658)	1.58	0.40	1.32	0.32	1.41	0.41	1.48	0.40
중소도시	(643)	1.55	0.39	1.28	0.31	1.40	0.42	1.51	0.42
읍면지역	(255)	1.59	0.40	1.31	0.34	1.41	0.38	1.47	0.42
<i>F</i>		1.77		1.64		0.13		0.0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계획 및 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부주의에 대한 교사의 점수는 어머니의 점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아동의 계획 및 조직화 능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아동 성별,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아가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이 여아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계획 및 조직화 행동 상의 문제가 많았다. 행동 통제의 경우 아동 성별과 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여아보다는 남아가, 고학력 어머니 보다는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가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정서 통제의 경우 아동 성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일관되게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대한 교사 인식의 경우 아동 성별, 모 취업 여부, 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부주의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어머니가 취업했거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부주의함을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60〉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단위: 점(명)

구분	(수)	계획 및 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부주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31)	1.45	0.52	1.27	0.44	1.22	0.43	1.24	0.43
아동 성별									
남	(524)	1.58	0.57	1.42	0.53	1.30	0.51	1.36	0.51
여	(507)	1.32	0.41	1.12	0.24	1.13	0.31	1.11	0.27
<i>t</i>		8.77***		11.74***		6.81***		9.9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3)	1.46	0.58	1.33	0.46	1.23	0.43	1.23	0.44
첫째	(365)	1.45	0.50	1.27	0.41	1.21	0.42	1.27	0.42
둘째 이상	(563)	1.45	0.51	1.26	0.45	1.21	0.44	1.22	0.43
<i>F</i>		0.50		1.01		0.26		1.42	
모 취업 여부									
취업	(466)	1.44	0.50	1.28	0.43	1.23	0.43	1.25	0.43
미취업	(548)	1.45	0.52	1.26	0.44	1.20	0.42	1.22	0.42
<i>t</i>		1.05		1.79		0.93		2.76**	
모 학력									
고졸이하	(315)	1.54 ^b	0.58	1.35 ^b	0.51	1.25	0.48	1.30 ^b	0.51
전문대졸	(312)	1.42 ^a	0.47	1.23 ^a	0.38	1.17	0.33	1.22 ^a	0.67
대졸이상	(401)	1.41 ^a	0.49	1.25 ^a	0.41	1.22	0.45	1.21 ^a	0.40
<i>F</i>		8.21***		6.99**		1.13		5.0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74)	1.53 ^b	0.58	1.31	0.46	1.24	0.45	1.28	0.46
341~400만원	(250)	1.38 ^a	0.45	1.23	0.41	1.17	0.39	1.18	0.37
401~530만원	(255)	1.45 ^{ab}	0.50	1.25	0.38	1.18	0.37	1.26	0.44
531만원 이상	(246)	1.42 ^a	0.49	1.30	0.47	1.26	0.47	1.22	0.41
<i>F</i>		3.32*		1.13		1.67		1.60	
지역 규모									
대도시	(437)	1.48	0.52	1.27	0.41	1.19	0.40	1.23	0.41
중소도시	(415)	1.42	0.51	1.26	0.44	1.22	0.45	1.25	0.46
읍면지역	(179)	1.46	0.52	1.31	0.48	1.26	0.46	1.24	0.42
<i>F</i>		1.50		0.95		0.96		0.10	

* $p < .05$, ** $p < .01$, *** $p < .001$.

2) 언어 발달

패널 아동의 언어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표현어휘검사와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아동의 표현 어휘력은 평균 87.03점(SD=13.32)이었으며, 전체 79.5%의 아동이 정상발달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출생순

위,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아동의 표현 어휘력 수준이 달리 나타났다. 남아보다는 여아가, 형제가 있는 아동들 보다는 외동아가, 저학력 보다는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가, 가구 소득이 낮은 가정보다 높은 가정의 아동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표현 어휘력을 보여주었다.

〈표 II-3-61〉 아동의 표현 어휘력

단위: 점, %(명)

구분	원점수		정상성 기준			
	평균	표준편차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계(수)
전체	87.03	13.32	79.5	12.6	7.9	100.0(1,445)
아동 성별						
남	85.94	13.68	76.0	14.1	9.9	100.0(741)
여	88.19	12.83	83.2	11.0	5.8	100.0(704)
	$\chi^2(df)/t$	-2.81**	9.85(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90.69 ^b	14.87	84.7	9.8	5.5	100.0(162)
첫째	88.03 ^b	13.18	84.0	9.3	6.7	100.0(522)
둘째 이상	85.40 ^a	12.80	74.8	15.7	9.7	100.0(761)
	$\chi^2(df)/F$	7.65***	14.84(4)**			
모 취업 여부						
취업	87.59	13.69	80.2	12.3	7.5	100.0(622)
미취업	86.62	12.96	79.2	12.4	8.4	100.0(794)
	$\chi^2(df)/t$	0.23	0.68(2)			
모 학력						
고졸이하	83.38 ^a	11.26	71.7	17.7	10.6	100.0(423)
전문대졸	86.57 ^b	13.33	78.5	13.0	8.6	100.0(398)
대졸이상	89.76 ^c	13.89	85.7	8.5	5.8	100.0(616)
	$\chi^2(df)/F$	31.05***	25.13(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84.14 ^a	12.86	72.5	14.7	12.8	100.0(368)
341~400만원	85.68 ^b	11.54	80.0	12.9	7.1	100.0(360)
401~530만원	88.50 ^b	12.84	83.1	11.0	5.9	100.0(355)
531만원 이상	90.29 ^c	15.00	84.1	10.4	5.5	100.0(353)
	$\chi^2(df)/F$	12.85***	17.25(6)**			
지역 규모						
대도시	86.65	13.01	78.4	13.4	8.3	100.0(622)
중소도시	87.37	13.74	80.0	11.8	8.1	100.0(591)
읍면지역	87.20	13.07	81.2	12.3	6.4	100.0(232)
	$\chi^2(df)/F$	0.05	0.57(4)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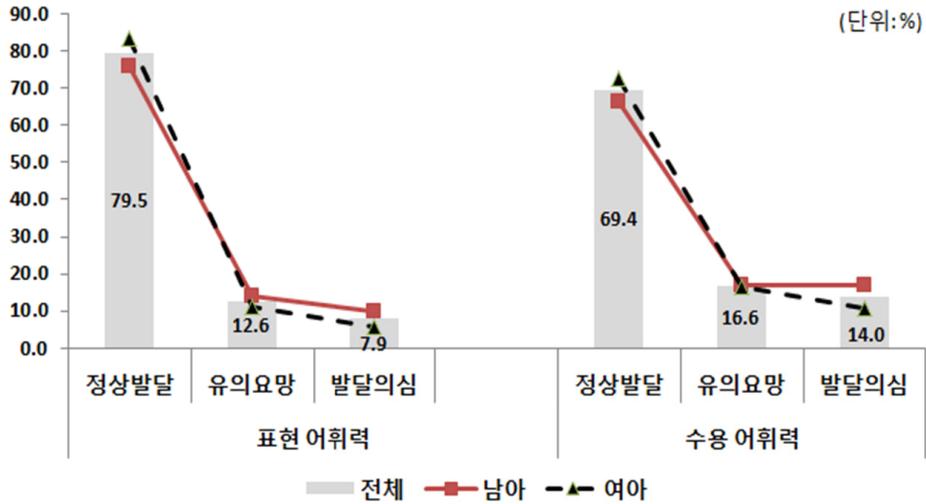
전체 패널 아동의 수용 어휘력 점수는 평균 85.17점(SD=14.80)으로 나타났다. 69.4%의 아동이 수용 어휘력 정상 발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현 어휘력(79.5%)에 비해 정상발달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조금 낮았다. 표현 어휘력과 비슷하게 아동의 수용 어휘력도 아동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 외동아,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 고소득 가구의 아동이 언어를 이해하는 수용 어휘력에서 나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표 II-3-62〉 아동의 수용 어휘력

단위: 점, %(명)

구분	원점수		정상성 기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전체	85.17	14.80	69.4	16.6	14.0	100.0(1,523)
아동 성별						
남	83.95	15.30	66.4	16.8	16.8	100.0(784)
여	86.50	14.13	72.6	16.5	10.9	100.0(739)
$\chi^2(df)/t$	-3.09**		7.07(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8.87 ^b	16.87	77.2	72.5	65.3	100.0(172)
첫째	85.93 ^b	14.65	12.7	13.8	19.7	100.0(537)
둘째 이상	83.75 ^a	14.20	10.1	13.8	15.0	100.0(761)
$\chi^2(df)/F$	7.49**		10.64(4)*			
모 취업 여부						
취업	85.96	15.26	71.1	14.9	14.0	100.0(659)
미취업	84.70	14.38	68.4	18.2	13.4	100.0(835)
$\chi^2(df)/t$	0.97		4.79(2)			
모 학력						
고졸이하	81.47 ^a	14.03	59.7	20.8	19.5	100.0(443)
전문대졸	85.36 ^b	14.71	68.3	18.8	13.0	100.0(417)
대졸이상	87.53 ^c	14.83	76.5	12.9	10.5	100.0(655)
$\chi^2(df)/F$	23.67***		37.30(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82.05 ^a	14.61	57.9	22.7	19.4	100.0(384)
341~400만원	83.78 ^{ab}	14.53	70.1	16.2	13.7	100.0(377)
401~530만원	86.26 ^b	14.29	73.2	15.5	11.4	100.0(374)
531만원 이상	88.64 ^c	14.76	77.1	11.9	11.0	100.0(375)
$\chi^2(df)/F$	11.56***		23.56(6)**			
지역 규모						
대도시	84.88	14.02	67.7	18.2	14.1	100.0(644)
중소도시	85.39	15.33	69.1	16.2	14.8	100.0(628)
읍면지역	85.41	15.41	74.7	13.6	11.7	100.0(251)
$\chi^2(df)/F$	0.05		3.98(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3-6]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휘력 발달

3) 학습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패널 아동의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력과 전체 학업수행 능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동 성별,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여아와 첫째아가 국어, 수학 그리고 전반적 학업수행 능력에서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가정과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국어, 수학, 전반적 학업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교사가 대도시의 교사에 비해 아동의 언어능력, 수리력, 전반적 학업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3-63>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구분	(수)	국어		수학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31)	4.16	0.96	4.34	0.89	4.26	0.90
아동 성별							
남	(524)	3.95	1.05	4.22	0.97	4.09	0.99
여	(507)	4.39	0.79	4.47	0.76	4.43	0.75
<i>t</i>		-7.63***		-4.29***		-6.14***	

(표 II-3-63 계속)

구분	(수)	국어		수학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3)	4.27 ^{ab}	1.06	4.46 ^{ab}	0.89	4.37 ^{ab}	0.94
첫째	(365)	4.30 ^b	0.89	4.45 ^b	0.81	4.37 ^b	0.83
둘째 이상	(563)	4.04 ^a	0.97	4.24 ^a	0.93	4.14 ^a	0.92
<i>F</i>		6.14 ^{**}		5.36 ^{**}		6.11 ^{**}	
모 취업 여부							
취업	(466)	4.19	0.94	4.38	0.81	4.29	0.83
미취업	(548)	4.16	0.96	4.33	0.93	4.25	0.93
<i>t</i>		-0.38		0.39		-0.01	
모 학력							
고졸이하	(315)	3.93 ^a	1.08	4.13 ^a	1.03	4.03 ^a	1.03
전문대졸	(312)	4.23 ^b	0.90	4.43 ^b	0.78	4.33 ^b	0.82
대졸이상	(401)	4.30 ^b	0.85	4.44 ^b	0.80	4.37 ^b	0.80
<i>F</i>		13.59 ^{***}		13.89 ^{***}		14.76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74)	4.01 ^a	1.09	4.19 ^a	1.08	4.10 ^a	1.07
341~400만원	(250)	4.20 ^b	0.90	4.40 ^b	0.789	4.31 ^b	0.81
401~530만원	(255)	4.16 ^{ab}	0.95	4.38 ^b	0.79	4.27 ^b	0.83
531만원 이상	(246)	4.31 ^b	0.83	4.42 ^b	0.79	4.37 ^b	0.79
<i>F</i>		4.46 ^{**}		5.22 ^{**}		4.97 ^{**}	
지역 규모							
대도시	(437)	4.06 ^a	1.02	4.25 ^a	0.95	4.16 ^a	0.95
중소도시	(415)	4.25 ^b	0.88	4.43 ^b	0.83	4.34 ^b	0.83
읍면지역	(179)	4.22 ^{ab}	0.94	4.37 ^{ab}	0.83	4.30 ^{ab}	0.86
<i>F</i>		3.64 [*]		5.23 ^{**}		4.80 ^{**}	

* $p < .05$, ** $p < .01$, *** $p < .001$.

바. 사회 및 정서 발달

1) 자아 발달

패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에게 직접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그림 속의 아동과 패널 아동 사이에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 수용, 어머니의 수용에서 비슷한 정도를 물어보았다. 자아존중감 척도 24개 문항의 평균점수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패널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3.45점($SD=0.50$)이며, 아동 성별,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여아(3.52점)가 남아(3.38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고학력일 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3.48점)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중소도시(3.45점), 읍면지역(3.38점)순으로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낮았다.

〈표 II-3-64〉 아동의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45	0.50	(1,560)	-
아동 성별				
남	3.38	0.53	(798)	-4.84***
여	3.52	0.44	(76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51	0.51	(177)	1.78
첫째	3.45	0.51	(549)	
둘째 이상	3.44	0.48	(834)	
모 취업 여부				
취업	3.48	0.48	(677)	1.60
미취업	3.42	0.51	(854)	
모 학력				
고졸이하	3.39 ^a	0.50	(453)	4.52*
전문대졸	3.46 ^{ab}	0.49	(427)	
대졸이상	3.48 ^b	0.49	(67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38 ^a	0.53	(392)	6.71***
341~400만원	3.42 ^a	0.50	(387)	
401~530만원	3.46 ^a	0.50	(383)	
531만원 이상	3.55 ^b	0.44	(385)	
지역 규모				
대도시	3.48 ^b	0.49	(658)	3.22*
중소도시	3.45 ^{ab}	0.48	(642)	
읍면지역	3.38 ^a	0.56	(260)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미래 기대와 관련해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질문 하였다. 전체 아동의 26.7%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보고하였다. 유명한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23%, 21.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3-65〉 아동의 미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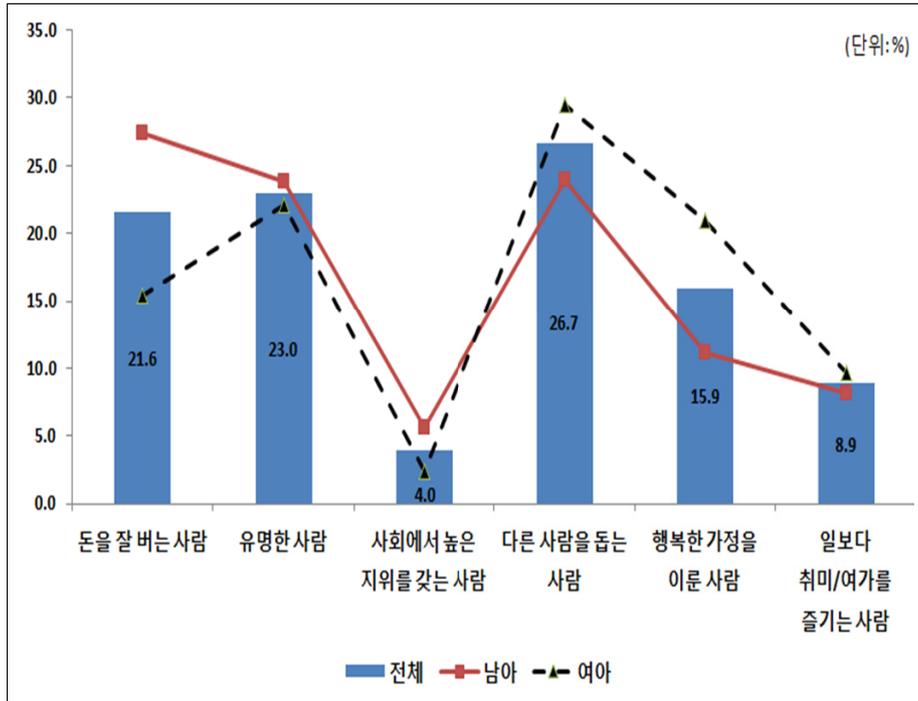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계(수)	$\chi^2(df)$
전체	21.6	23.0	4.0	26.7	15.9	8.9	100.0(1,554)	-
아동 성별								
남	27.4	23.8	5.6	23.9	11.1	8.1	100.0(794)	49.66(5)**
여	15.4	22.1	2.4	29.5	20.9	9.7	100.0(76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4.9	22.9	4.4	25.5	14.6	7.8	100.0(176)	
첫째	19.8	22.2	3.5	25.7	18.5	10.3	100.0(547)	4.26(10)
둘째 이상	22.1	23.6	4.4	27.7	14.2	8.1	100.0(831)	
모 취업 여부								
취업	21.4	22.0	4.5	28.9	15.0	8.3	100.0(674)	6.34(5)
미취업	21.3	23.8	3.9	25.3	16.5	9.3	100.0(851)	
모 학력								
고졸이하	22.6	19.2	5.1	28.6	16.1	8.4	100.0(451)	
전문대졸	21.6	23.2	2.6	24.8	16.8	11.0	100.0(427)	15.36(10)
대졸이상	20.5	25.4	4.4	26.6	15.2	8.0	100.0(66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2.9	23.0	3.1	24.0	18.4	8.5	100.0(391)	
341~400만원	20.9	22.1	6.0	25.5	15.8	9.7	100.0(384)	14.15(15)
401~530만원	23.6	22.8	2.8	28.8	13.3	8.7	100.0(382)	
531만원 이상	19.2	23.6	4.3	28.5	16.0	8.4	100.0(384)	
지역 규모								
대도시	21.2	21.9	4.6	28.2	15.2	8.8	100.0(657)	
중소도시	24.3	22.7	3.1	25.3	16.0	8.6	100.0(638)	10.21(10)
읍면지역	16.3	26.2	5.0	25.8	17.0	9.7	100.0(259)	

*** $p < .001$.

아동의 미래 기대는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는 미래에 '돈을 잘 버는 사람(27.4%)'이 되길 바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여아의 경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29.5%)'이 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더 많이 기대되는 특성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래에 가장 역할을 할 남아들은 돈을 잘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하는 것과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반면, 타인을 돕고, 가정을 잘 꾸리는 역할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여아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7] 아동의 성별에 따른 미래 기대

언제까지 학교를 다니고 싶은지 아동에게 직접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74%가 대학까지 학교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교까지 다니고자 한다는 응답은 14.7%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81.1%의 외동아가 대학교까지 교육받고 싶다고 한 반면,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대학교육까지 받고 싶다고 경우가 71%에 머물러, 외동아가 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에 비해 미래 진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었다.

〈표 II-3-66〉 아동의 미래 기대: 진학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수)	$\chi^2(df)$
전체	6.9	4.5	14.7	74.0	100.0(1,558)	-
아동 성별						
남	8.2	3.4	14.6	73.8	100.0(796)	6.53(3)
여	5.5	5.5	14.8	74.2	100.0(76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8	2.1	12.0	81.1	100.0(177)	16.47(6)*
첫째	6.3	2.2	15.7	75.7	100.0(547)	
둘째 이상	7.8	6.7	14.5	71.0	100.0(834)	
모 취업 여부						
취업	6.2	4.8	15.2	73.9	100.0(676)	0.76(3)
미취업	7.5	4.2	13.9	74.4	100.0(853)	
모 학력						
고졸이하	8.4	5.9	15.4	70.3	100.0(453)	10.64(6)
전문대졸	6.0	4.7	18.4	70.9	100.0(427)	
대졸이상	6.6	3.3	11.3	78.7	100.0(67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9.4	4.8	16.4	69.5	100.0(391)	11.97(9)
341~400만원	7.0	5.0	15.9	72.2	100.0(387)	
401~530만원	5.1	4.7	14.2	76.0	100.0(382)	
531만원 이상	6.4	3.6	11.6	78.4	100.0(385)	
지역 규모						
대도시	6.1	4.9	13.9	75.0	100.0(657)	7.25(6)
중소도시	6.8	3.7	15.1	74.4	100.0(641)	
읍면지역	9.3	5.1	15.3	70.3	100.0(260)	

* $p < .05$.

2) 정서 발달

패널 아동에게 전반적 행복감(예: 학교 공부, 가족, 친구, 학교에서의 행복감)과 주관적 행복감(예: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행복감)에 대해 질문하였다. 4점 척도(1점=전혀 행복하지 않음, 4점=매우 행복함)의 응답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패널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평균 3.25점(SD=0.48), 주관적 행복감은 3.20점(SD=0.53)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행복감은 아동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주관적 행복감은 아동 성별과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보다는 여아의 전반적 행복감 및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고, 둘째

아 혹은 외동아 보다 첫째아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이 높았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중소도시나 읍면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보고하였다.

〈표 II-3-67〉 아동의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60)	3.25	0.48		3.20	0.53	
아동 성별							
남	(798)	3.17	0.50	-6.49***	3.12	0.55	-6.43***
여	(762)	3.33	0.45		3.28	0.5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7)	3.23 ^a	0.53	7.11**	3.22	0.52	1.65
첫째	(549)	3.29 ^b	0.45		3.21	0.53	
둘째 이상	(834)	3.22 ^a	0.49		3.19	0.53	
모 취업 여부							
취업	(677)	3.26	0.48	1.00	3.20	0.53	0.61
미취업	(854)	3.23	0.49		3.19	0.53	
모 학력							
고졸이하	(453)	3.21	0.50	1.16	3.15	0.54	2.22
전문대졸	(427)	3.25	0.48		3.19	0.52	
대졸이상	(672)	3.27	0.48		3.23	0.5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2)	3.21	0.50	1.02	3.15	0.54	1.29
341~400만원	(387)	3.25	0.47		3.18	0.53	
401~530만원	(383)	3.28	0.49		3.24	0.52	
531만원 이상	(385)	3.26	0.46		3.23	0.53	
지역 규모							
대도시	(658)	3.25	0.48	1.13	3.25 ^a	0.50	3.02*
중소도시	(642)	3.25	0.47		3.18 ^{ab}	0.55	
읍면지역	(260)	3.22	0.52		3.11 ^b	0.55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 교사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1점(전혀 좋아하지 않음)~4점(매우 좋아함)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학교 선호도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에 비해 여아들이 학교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에 학교 선호도

가 낮은 편이었다. 대도시의 아동들이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학교를 선호하였다. 교사 선호도의 경우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였는데, 역시 남아에 비해 여아의 교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68〉 아동의 학교 및 교사 선호도

단위: 점(명)

구분	학교 선호도				교사 선호도			
	(수)	평균	표준편차	t/F	(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59)	3.21	0.90	-	(1,556)	3.42	0.76	-
아동 성별								
남	(797)	3.07	0.97	-6.33***	(794)	3.21	0.82	-12.20***
여	(762)	3.37	0.80		(762)	3.66	0.6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7)	3.26 ^{ab}	0.81	4.38*	(175)	3.47	0.71	0.89
첫째	(548)	3.27 ^b	0.89		(547)	3.45	0.72	
둘째 이상	(834)	3.16 ^a	0.93		(834)	3.40	0.79	
모 취업 여부								0.05
취업	(677)	3.21	0.90	0.14	(675)	3.42	0.81	
미취업	(853)	3.21	0.91		(852)	3.42	0.72	
모 학력								
고졸이하	(453)	3.16	0.94	0.99	(452)	3.42	0.79	0.95
전문대졸	(427)	3.22	0.91		(425)	3.37	0.84	
대졸이상	(671)	3.24	0.88		(671)	3.46	0.6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1)	3.08	0.96	1.18	(391)	3.37	0.77	2.17
341~400만원	(387)	3.26	0.90		(387)	3.45	0.75	
401~530만원	(383)	3.25	0.88		(381)	3.37	0.82	
531만원 이상	(385)	3.23	0.87		(384)	3.50	0.70	
지역 규모								
대도시	(657)	3.27 ^b	0.91	4.90**	(657)	3.46	0.76	3.00
중소도시	(642)	3.17 ^a	0.89		(640)	3.38	0.75	
읍면지역	(260)	3.16 ^a	0.90		(259)	3.44	0.78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에게 국어와 수학 수업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아동의 국어 수업 선호도 평균 점수는 2.99점(SD=0.96), 수학 수업 선호도 평균 점수는 3.20점(SD=0.98)으로 보고되었다. 국어 과목의 경우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국어 공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수학의 경우 배경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3-69〉 아동의 과목 선호도

단위: 점(명)

구분	국어				수학			
	(수)	평균	표준편차	t/F	(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56)	2.99	0.96	-	(1,556)	3.20	0.98	-
아동 성별								
남	(794)	2.78	0.99	-8.36**	(794)	3.20	1.01	0.47
여	(762)	3.21	0.87		(762)	3.20	0.9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5)	3.09	0.94	0.85	(175)	3.20	0.96	0.28
첫째	(547)	2.97	0.96		(547)	3.21	0.95	
둘째 이상	(834)	2.98	0.97		(834)	3.19	1.00	
모 취업 여부								
취업	(675)	3.03	0.98	0.92	(675)	3.20	1.01	-0.18
미취업	(852)	2.95	0.95		(852)	3.19	0.96	
모 학력								
고졸이하	(452)	3.02	0.98	1.18	(452)	3.16	0.98	0.42
전문대졸	(425)	2.90	1.01		(425)	3.21	1.01	
대졸이상	(671)	3.03	0.92		(671)	3.21	0.9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1)	2.91	0.96	0.36	(391)	3.18	0.97	1.56
341~400만원	(387)	3.00	0.97		(387)	3.16	0.99	
401~530만원	(381)	2.98	1.00		(381)	3.27	0.97	
531만원 이상	(384)	3.06	0.91		(384)	3.19	0.98	
지역 규모								
대도시	(657)	3.02	0.95	1.13	(657)	3.24	0.95	0.90
중소도시	(640)	2.97	0.98		(640)	3.15	1.01	
읍면지역	(259)	3.03	0.94		(259)	3.21	0.97	

** $p < .01$.

패널 아동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며, 학교 다니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학교생활로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 4점이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업참여 점수는 평균 3.20점(SD=0.77), 즐거움 점수 평균 3.19점(SD=0.91), 기분 좋아지는 정도 3.23점(SD=0.86)으로 패널 아동은 학교생활에 상당히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의 수업 참여 정도는 아동 성별, 어머니의 학력 수준,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3.06점)보다 여아(3.36점)가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3.25점), 아동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3.25점)에 수업 참여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학교생활의 즐거움은 아동 성별, 출생순위,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아(3.36점), 첫째아(3.25점), 대도시 거주 아동(3.24점)의 학교생활 즐거움 점수가 높았다. 학교생활로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는 여아(3.37점), 첫째아(3.28점), 대도시 거주 아동(3.31점)이 학교생활을 통해 기분 좋은 느낌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70〉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 긍정적 인식

단위: 점(명)

구분	수업 참여			즐거움			기분 좋음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57)	3.20	0.77	(1,559)	3.19	0.91	(1,557)	3.23	0.86
아동 성별									
남	(795)	3.06	0.81	(797)	3.03	0.97	(796)	3.10	0.93
여	(762)	3.36	0.69	(762)	3.36	0.81	(761)	3.37	0.76
<i>t</i>		-8.22***			-6.69***			-5.6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6)	3.21	0.75	(177)	3.21 ^{ab}	0.90	(176)	3.22	0.86
첫째	(548)	3.18	0.76	(548)	3.25 ^b	0.88	(548)	3.28	0.87
둘째 이상	(833)	3.22	0.78	(834)	3.14 ^a	0.94	(833)	3.20	0.86
<i>F</i>		0.16			4.19*			3.14*	
모 취업 여부									
취업	(675)	3.21	0.76	(677)	3.20	0.91	(676)	3.24	0.88
미취업	(853)	3.20	0.78	(853)	3.19	0.92	(852)	3.22	0.86
<i>t</i>		0.15			-0.03			0.18	
모 학력									
고졸이하	(451)	3.18 ^a	0.78	(453)	3.18	0.95	(452)	3.19	0.90
전문대졸	(427)	3.15 ^a	0.80	(427)	3.17	0.91	(427)	3.21	0.90
대졸이상	(671)	3.25 ^b	0.74	(671)	3.21	0.89	(670)	3.27	0.82
<i>F</i>		3.60*			0.85			0.8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1)	3.13	0.78	(391)	3.08	0.92	(391)	3.13	0.89
341~400만원	(386)	3.26	0.78	(387)	3.22	0.93	(385)	3.23	0.91
401~530만원	(382)	3.20	0.79	(383)	3.21	0.91	(383)	3.28	0.86
531만원 이상	(385)	3.22	0.73	(385)	3.23	0.90	(385)	3.28	0.80
<i>F</i>		0.73			0.93			0.87	
지역 규모									
대도시	(657)	3.24 ^b	0.74	(657)	3.24 ^b	0.90	(657)	3.31 ^b	0.85
중소도시	(640)	3.19 ^a	0.78	(642)	3.15 ^a	0.92	(641)	3.20 ^{ab}	0.86
읍면지역	(260)	3.16 ^a	0.81	(260)	3.14 ^a	0.92	(259)	3.10 ^a	0.90
<i>F</i>		4.89**			4.34*			6.17***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생활이 지루하다는 인식은 평균 1.77점(SD=0.83)이었으며, 학교생활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은 1.31점(SD=0.66)이었다. 학교생활이 지루하다는 인식은 아동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달랐는데, 남아(1.87점)가 여아(1.65점)에 비해 지루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1.71점)에 비해 외동아(1.79점)와 둘째이상(1.81점)의 출생순위를 가진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더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생활이 시간 낭비라는 인식의 경우, 아동 성별, 가구 소득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남아(1.40점)가 여아(1.20점)에 비해 학교생활이 시간낭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1.36점)에서 이러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의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패널 아동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3-8 참조).

〈표 II-3-71〉 아동의 학교 생활 느낌: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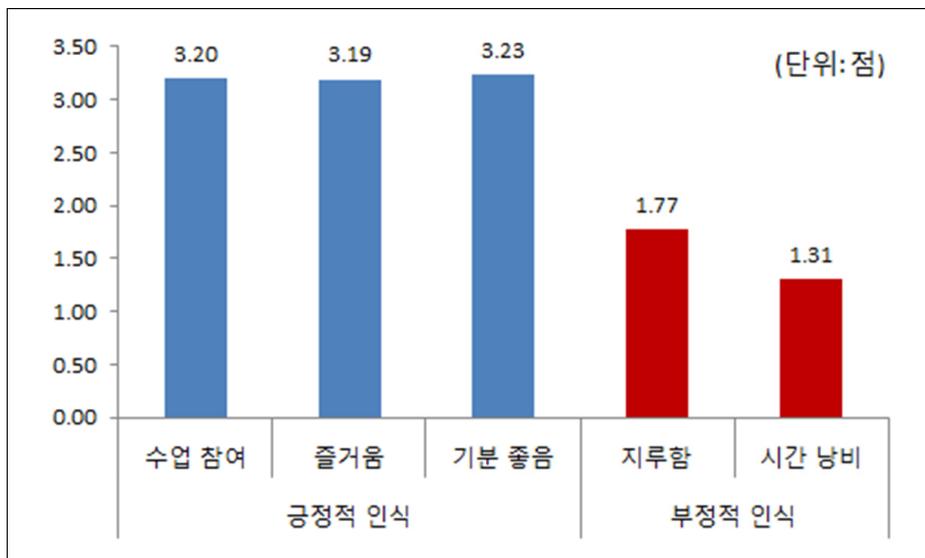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지루함				시간 낭비라는 인식			
	(수)	평균	표준편차	t/F	(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58)	1.77	0.83	-	(1,558)	1.31	0.66	-
아동 성별								
남	(796)	1.87	0.89	5.25***	1.40	0.74	5.70***	
여	(762)	1.65	0.75		1.20	0.5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6)	1.79	0.88	3.10*	1.26	0.63	0.42	
첫째	(548)	1.71	0.82		1.28	0.61		
둘째 이상	(834)	1.81	0.83		1.34	0.70		
모 취업 여부								
취업	(676)	1.78	0.85	0.74	1.31	0.66	0.01	
미취업	(853)	1.76	0.82		1.31	0.66		
모 학력								
고졸이하	(452)	1.78	0.86	0.17	1.35	0.72	2.02	
전문대졸	(427)	1.77	0.83		1.33	0.65		
대졸이상	(671)	1.76	0.82		1.27	0.6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1)	1.84	0.86	0.90	1.36 ^b	0.66	3.16*	
341~400만원	(387)	1.69	0.85		1.30 ^{ab}	0.70		
401~530만원	(382)	1.73	0.80		1.33 ^b	0.67		
531만원 이상	(385)	1.82	0.81		1.23 ^a	0.59		

(표 II-3-71 계속)

구분	지루함				시간 낭비라는 인식			
	(수)	평균	표준편차	t/F	(수)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규모								
대도시	(657)	1.77	0.85	1.34	1.29	0.65	1.82	
중소도시	(641)	1.80	0.81		1.32	0.67		
읍면지역	(260)	1.69	0.85		1.33	0.6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3-8] 아동의 학교 생활 느낌

3) 사회성 발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6-18)를 이용하여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과 총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총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수면 및 기타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행동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폐널 아동의 총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은 14.98점(SD=13.72)이며, 아동 성별,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총 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총 문제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첫째아와 외동아가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

보다 총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총 문제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감, 우울, 위축됨과 같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행동과 이와 관련된 신체증상을 포함한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전체 평균은 3.72점 (SD=4.14)이며, 아동의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내재화 문제는 외동아, 혹은 둘째 이상의 출생 순위를 가진 아동보다는 첫째아에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내면화 문제가 높은 경향이 보였다.

〈표 II-3-72〉 문제행동 점수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14.98	13.74	3.74	4.14	4.19	4.48
아동 성별							
남	(807)	16.42	14.88	3.81	4.35	4.73	4.88
여	(770)	13.45	12.22	3.67	3.91	3.60	3.94
<i>t</i>		3.78***		0.19		4.3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15.43 ^b	13.93	3.94 ^{ab}	4.46	4.00	4.17
첫째	(553)	16.16 ^b	13.97	4.29 ^b	4.26	4.25	4.27
둘째 이상	(844)	13.99 ^a	13.45	3.29 ^a	3.92	4.18	4.70
<i>F</i>		4.92**		7.93***		0.91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14.83	12.77	3.53	3.76	4.32	4.49
미취업	(864)	15.10	14.45	3.90	4.42	4.09	4.49
<i>t</i>		-0.16		-1.46		0.91	
모 학력							
고졸이하	(457)	16.81 ^b	16.34	4.08 ^b	4.81	4.92 ^b	5.43
전문대졸	(430)	14.52 ^a	12.06	3.71 ^{ab}	3.97	3.94 ^a	3.80
대졸이상	(682)	14.24 ^a	12.87	3.58 ^a	3.80	3.92 ^a	4.18
<i>F</i>		6.87**		3.12*		7.4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17.11 ^b	16.67	4.45 ^c	5.07	4.69 ^b	5.26
341~400만원	(388)	15.53 ^b	13.50	3.93 ^{bc}	4.08	4.32 ^b	4.37
401~530만원	(389)	15.17 ^b	12.68	3.51 ^b	3.57	4.28 ^b	4.34
531만원 이상	(386)	11.98 ^a	10.83	3.10 ^a	3.58	3.39 ^a	3.60
<i>F</i>		9.39***		9.24***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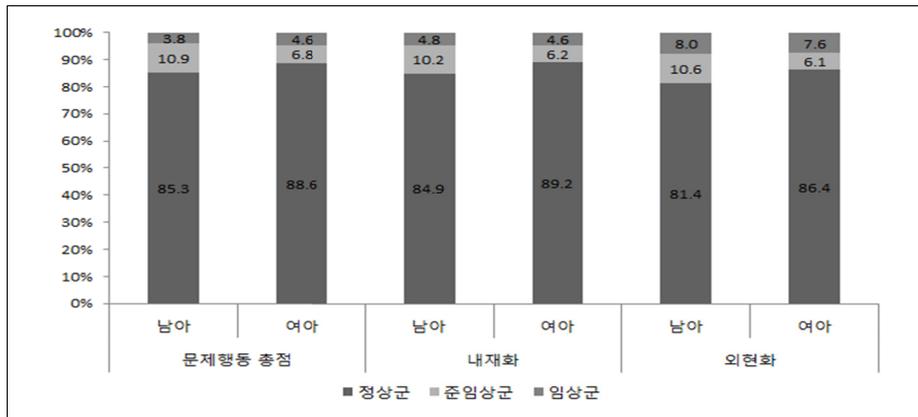
단위: 점(명)

(표 II-3-72 계속)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668)	14.91	13.57	3.76	4.13	3.95	4.22
중소도시	(646)	14.79	14.11	3.66	4.26	4.36	4.78
읍면지역	(263)	15.61	13.22	3.91	3.90	4.36	4.36
F		0.01		0.02		1.36	

* $p < .05$, ** $p < .01$, *** $p < .001$.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를 포함한다.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은 4.19점(SD=4.48)으로 내재화 문제행동(3.72점, SD=4.14)보다 다소 높았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 성별,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에 비해 남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다(표 II-3-72 참조).



[그림 II-3-9] 성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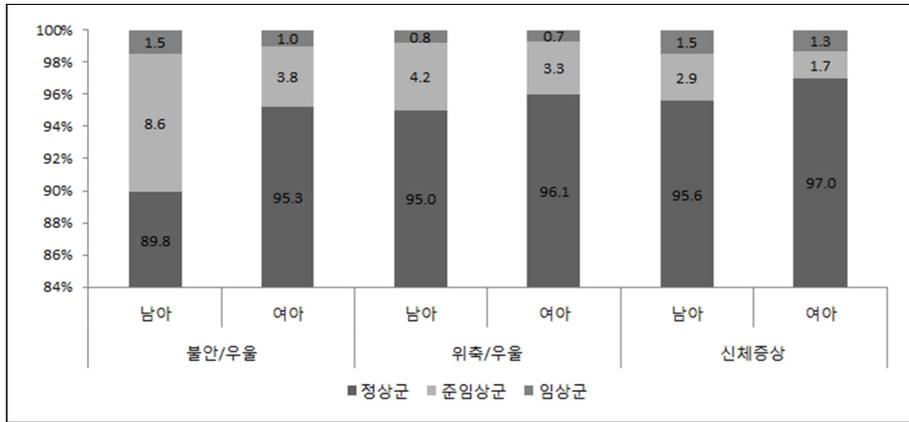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패널 아동 전체의 불안/우울 평균은 2.10점(SD=2.33), 위축/우울은 0.84점(SD=1.31), 신체증상은 0.80점(SD=1.41)으로 나타나, 위축/우울이나 신체증상보다 불안/우울의 문제 행동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불안/우울은 아동의 출생순위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첫째아가 외동아 혹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불안/우울이 높았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우울의 수준이

높았다. 위축/우울의 경우 아동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불안/우울과 마찬가지로 첫째들이 위축/우울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위축/우울의 수준이 높았다.

〈표 11-3-73〉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2.10	2.33	0.84	1.31	0.80	1.41
아동 성별							
남	(807)	2.16	2.43	0.89	1.41	0.76	1.42
여	(770)	2.04	2.22	0.79	1.20	0.84	1.40
<i>t</i>		0.19		1.35		-0.9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2.20 ^{ab}	2.52	0.89 ^{ab}	1.52	0.86	1.35
첫째	(553)	2.41 ^b	2.42	0.99 ^b	1.44	0.90	1.44
둘째 이상	(844)	1.86 ^a	2.19	0.72 ^a	1.14	0.71	1.40
<i>F</i>		8.53 ^{***}		5.68 ^{**}		1.83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2.01	2.17	0.76	1.21	0.77	1.31
미취업	(864)	2.17	2.45	0.91	1.39	0.83	1.50
<i>t</i>		-1.12		-1.39		-1.20	
모 학력							
고졸이하	(457)	2.18	2.47	0.93 ^b	1.40	0.97	1.73
전문대졸	(430)	2.09	2.23	0.90 ^a	1.40	0.72	1.25
대졸이상	(682)	2.08	2.31	0.75 ^a	1.20	0.74	1.28
<i>F</i>		0.93		5.84 ^{**}		2.0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2.45 ^c	2.65	1.09 ^c	1.60	0.91	1.66
341~400만원	(388)	2.22 ^{bc}	2.36	0.91 ^{bc}	1.43	0.80	1.25
401~530만원	(389)	2.01 ^b	2.20	0.78 ^b	1.02	0.72	1.38
531만원 이상	(386)	1.76 ^a	2.02	0.58 ^a	1.03	0.77	1.33
<i>F</i>		6.01 ^{***}		12.85 ^{***}		2.19	
지역 규모							
대도시	(668)	2.05	2.30	0.82	1.27	0.89	1.45
중소도시	(646)	2.11	2.37	0.80	1.30	0.76	1.47
읍면지역	(263)	2.23	2.31	1.00	1.45	0.68	1.14
<i>F</i>		0.22		0.69		1.5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1-3-10] 성별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외현화 문제행동을 하위요인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규칙위반의 총 평균점수는 1.09점(SD=1.46), 공격행동은 3.10점(SD=3.37)으로 규칙위반보다는 공격행동에서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위반은 아동 성별과 모 학력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 보다는 남아가, 어머니가 저학력일수록 규칙 위반 문제가 높았다. 공격 행동은 아동 성별,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공격성이 높았고,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아동이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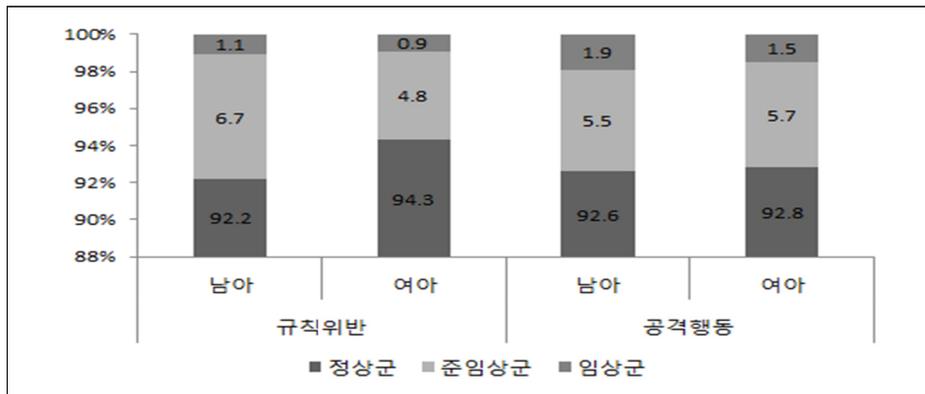
<표 11-3-74>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구분	(수)	단위: 점(명)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1.09	1.46	3.10	3.37
아동 성별					
남	(807)	1.29	1.65	3.45	3.61
여	(770)	0.88	1.18	2.72	3.06
<i>t</i>		4.43***		3.8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1.06	1.22	2.95	3.31
첫째	(553)	1.09	1.26	3.16	3.35
둘째 이상	(844)	1.09	1.64	3.09	3.40
<i>F</i>		0.22		1.32	

(표 II-3-74 계속)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1.18	1.38	3.14	3.42
미취업	(864)	1.02	1.52	3.08	3.35
<i>t</i>		1.54		0.52	
모 학력					
고졸이하	(457)	1.27 ^b	1.92	3.64 ^b	3.88
전문대졸	(430)	1.06 ^a	1.22	2.88 ^a	2.92
대졸이상	(682)	1.00 ^a	1.24	2.92 ^a	2.26
<i>F</i>		5.71 ^{**}		6.71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1.17	1.86	3.52 ^b	3.80
341~400만원	(388)	1.07	1.37	3.24 ^b	3.34
401~530만원	(389)	1.18	1.33	3.10 ^b	3.34
531만원 이상	(386)	0.92	1.15	2.47 ^a	2.78
<i>F</i>		1.56		6.00 ^{***}	
지역 규모					
대도시	(668)	1.02	1.27	2.94	3.27
중소도시	(646)	1.15	1.68	3.21	3.47
읍면지역	(263)	1.12	1.32	3.24	3.37
<i>F</i>		1.59		1.0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3-11] 성별에 따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기타 문제행동을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 기타 문제로 세

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적 미성숙 점수는 아동 출생순위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외동아가 사회적으로 가장 미성숙한 경향이 있었으며, 가구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고소득 가정의 아동에 비해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문제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가구 소득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남아, 첫째아,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가장 높은 사고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집중 문제도 비슷하게 남아,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문제행동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어 문제행동 전반에 걸쳐 뚜렷한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75〉 기타 문제행동 하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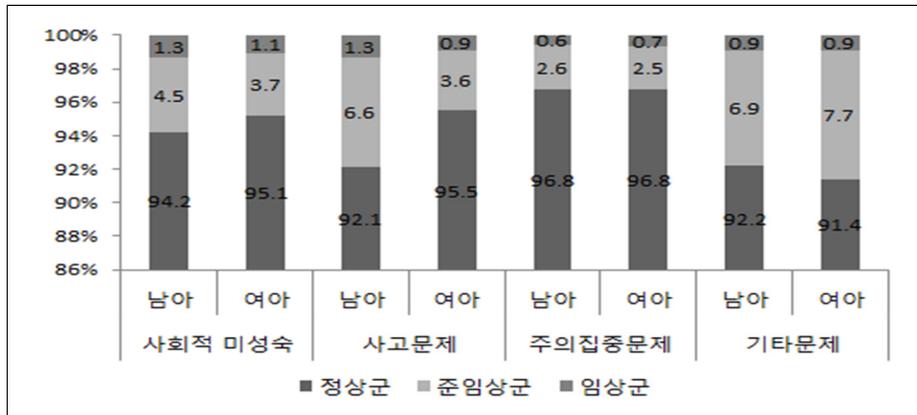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1.92	2.00	1.10	1.54	2.18	2.42	1.86	2.03
아동 성별									
남	(807)	1.98	2.11	1.28	1.73	2.58	2.61	2.04	2.20
여	(770)	1.85	1.85	0.90	1.27	1.75	2.12	1.68	1.81
<i>t</i>		0.73		4.33***		7.07***		3.5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2.10 ^b	2.15	1.23 ^b	1.52	2.20	2.57	1.95	1.91
첫째	(553)	1.97 ^{ab}	2.08	1.29 ^b	1.50	2.39	2.58	1.96	2.11
둘째 이상	(844)	1.83 ^a	1.87	0.92 ^a	1.54	2.01	2.25	1.77	2.00
<i>F</i>		4.03*		8.20***		2.96		2.70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1.91	1.92	1.02	1.29	2.13	2.22	1.92	2.01
미취업	(864)	1.92	2.03	1.15	1.70	2.21	2.56	1.82	2.05
<i>t</i>		0.09		-1.32		0.17		0.61	
모 학력									
고졸이하	(457)	2.05	2.08	1.11	1.93	2.56 ^c	2.62	2.10	2.38
전문대졸	(430)	1.83	1.83	1.03	1.30	2.22 ^b	2.23	1.79	1.87
대졸이상	(682)	1.90	2.03	1.14	1.40	1.93 ^a	2.37	1.77	1.89
<i>F</i>		2.81		0.36		16.71***		2.5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2.16 ^b	2.18	1.28 ^c	2.01	2.49 ^b	2.54	2.04	2.47
341~400만원	(388)	2.03 ^b	2.08	1.13 ^{bc}	1.42	2.26 ^b	2.44	1.86	1.90
401~530만원	(389)	1.98 ^b	1.96	1.09 ^{ab}	1.40	2.39 ^b	2.62	1.93	1.90
531만원 이상	(386)	1.49 ^a	1.65	0.88 ^a	1.17	1.52 ^a	1.89	1.60	1.79
<i>F</i>		7.82***		5.39**		12.84***		2.45	

단위: 점(명)

(표 II-3-75 계속)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668)	1.90	2.03	1.14	1.51	2.28	2.54	1.89	2.06
중소도시	(646)	1.88	1.92	1.04	1.61	2.05	2.31	1.80	2.00
읍면지역	(263)	2.06	2.02	1.13	1.41	2.21	2.35	1.94	2.01
F		0.04		0.66		0.85		0.6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3-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타 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패널 아동의 문제행동을 DSM 진단 기준에 따라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 문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문제(ADHD), 반항 행동 문제, 품행문제와 같은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 문제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높았고,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정서문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안 문제는 출생순서가 둘째 이상인 경우에, 가구 소득이 531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장 낮았다.

<표 II-3-76> DSM 진단척도 1

구분	(수)	단위: 점(명)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신체화 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1.26	1.62	1.10	1.46	0.47	0.99

(표 II-3-76 계속)

구분	(수)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신체화 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	(807)	1.39	1.71	1.14	1.49	0.44	1.01
여	(770)	1.19	1.50	1.06	1.42	0.51	0.97
<i>t</i>		1.97*		0.87		-1.0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1.26	1.55	1.22 ^b	1.66	0.56	1.13
첫째	(553)	1.41	1.67	1.29 ^b	1.54	0.51	0.99
둘째 이상	(844)	1.21	1.58	0.93 ^a	1.32	0.43	0.96
<i>F</i>		1.68		9.55***		0.62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1.26	1.52	1.04	1.36	0.47	0.93
미취업	(864)	1.33	1.70	1.15	1.52	0.47	1.04
<i>t</i>		-0.43		-1.17		-0.38	
모 학력							
고졸이하	(457)	1.53 ^b	1.95	1.08	1.39	0.55	1.16
전문대졸	(430)	1.22 ^a	1.45	1.11	1.48	0.45	0.93
대졸이상	(682)	1.20 ^a	1.47	1.12	1.49	0.44	0.91
<i>F</i>		6.69**		0.53		0.8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1.54 ^c	1.96	1.30 ^c	1.65	0.50	1.14
341~400만원	(388)	1.35 ^b	1.59	1.18 ^{bc}	1.49	0.47	0.86
401~530만원	(389)	1.29 ^b	1.47	1.02 ^{ab}	1.42	0.44	0.98
531만원 이상	(386)	0.99 ^a	1.36	0.92 ^a	1.22	0.50	0.99
<i>F</i>		8.96***		6.10***		0.80	
지역 규모							
대도시	(668)	1.32	1.62	1.08	1.47	0.51	1.00
중소도시	(646)	1.29	1.69	1.10	1.47	0.46	1.04
읍면지역	(263)	1.23	1.42	1.15	1.41	0.42	0.85
<i>F</i>		0.33		0.04		0.20	

* $p < .05$, ** $p < .01$, *** $p < .001$.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ADHD)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보다는 남아, 외동인 아동이나 둘째 이상인 아동보다는 첫째가 ADHD 점수가 높은 편이었으며, 어머니가 대졸 이상이거나 가구 소득이 531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가장 낮은 ADHD 점수를 보고하였다. 반항행동 문제도 아동 성별,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남아에게,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반항 행동의 경향이 높았고, 가구 소득이 531만원 이하인 가정의 아동이 가장 낮은 수준의 반항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남아와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품행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77〉 DSM 진단척도 2

구분	(수)	단위: 점(명)					
		ADHD		반항행동 문제		품행 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1.71	1.97	1.31	1.45	0.76	1.63
아동 성별							
남	(807)	2.01	2.08	1.46	1.52	1.00	1.88
여	(770)	1.38	1.78	1.14	1.34	0.51	1.26
<i>t</i>		6.91***		4.06***		4.9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1.77 ^b	2.11	1.17	1.42	0.68	1.38
첫째	(553)	1.93 ^b	2.08	1.28	1.40	0.72	1.51
둘째 이상	(844)	1.53 ^a	1.82	1.36	1.78	0.81	1.76
<i>F</i>		5.83**		0.06		0.10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1.69	1.90	1.32	1.45	0.83	1.60
미취업	(864)	1.72	2.00	1.30	1.44	0.71	1.66
<i>t</i>		0.29		0.36		1.47	
모 학력							
고졸이하	(457)	2.06 ^c	2.16	1.56 ^b	1.54	0.97 ^b	2.13
전문대졸	(430)	1.74 ^b	1.86	1.21 ^a	1.31	0.66 ^a	1.23
대졸이상	(682)	1.49 ^a	1.87	1.22 ^a	1.44	0.70 ^a	1.47
<i>F</i>		15.44***		7.67***		5.2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1.91 ^b	2.03	1.47 ^b	1.50	0.86 ^b	2.11
341~400만원	(388)	1.80 ^b	2.02	1.33 ^b	1.41	0.79 ^{ab}	1.58
401~530만원	(389)	1.85 ^b	2.03	1.35 ^b	1.52	0.79 ^{ab}	1.41
531만원 이상	(386)	1.25 ^a	1.65	1.04 ^a	1.28	0.57 ^a	1.21
<i>F</i>		9.95***		6.12***		1.84	
지역 규모							
대도시	(668)	1.77	2.04	1.28	1.48	0.70	1.46
중소도시	(646)	1.65	1.91	1.33	1.43	0.80	1.80
읍면지역	(263)	1.71	1.89	1.31	1.39	0.83	1.57
<i>F</i>		0.27		0.52		0.38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를 대상으로 강박증,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 속도 부진과 같은 특수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해 조사하였다. 여아보다는 남아의 외상 후 스트레

스 문제와 인지 속도 부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출생 순서가 둘째 이상인 경우 강박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 부진의 위험이 가장 낮은 경향이 있었다. 모 학력이 낮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의 위험이 높았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와 인지 속도 부진의 위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78〉 문제행동 특수척도

		단위: 점(명)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0.93	1.25	2.23	2.42	0.28	0.68
아동 성별							
남	(807)	1.00	1.34	2.38	2.55	0.34	0.78
여	(770)	0.85	1.13	2.07	2.26	0.21	0.55
<i>t</i>		1.94		2.30*		3.5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1.05 ^b	1.45	2.29 ^{ab}	2.55	0.33 ^b	0.73
첫째	(553)	1.10 ^b	1.24	2.46 ^b	2.56	0.37 ^b	0.80
둘째 이상	(844)	0.77 ^a	1.17	2.05 ^a	2.56	0.19 ^a	0.56
<i>F</i>		8.92***		5.26**		11.35***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0.86	1.12	2.14	2.24	0.26	0.63
미취업	(864)	0.97	1.33	2.30	2.55	0.29	0.73
<i>t</i>		-1.22		-0.74		-0.13	
모 학력							
고졸이하	(457)	0.86	1.31	2.50 ^b	2.67	0.28	0.70
전문대졸	(430)	0.86	1.10	2.14 ^a	2.21	0.27	0.61
대졸이상	(682)	1.01	1.29	2.14 ^a	2.36	0.28	0.72
<i>F</i>		1.54		6.27**		0.7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0.97	1.39	2.57 ^c	2.73	0.35 ^b	0.87
341~400만원	(388)	1.00	1.24	2.37 ^{bc}	2.45	0.27 ^{ab}	0.63
401~530만원	(389)	0.91	1.23	2.20 ^b	2.29	0.30 ^b	0.70
531만원 이상	(386)	0.83	1.11	1.75 ^a	2.01	0.18 ^a	0.47
<i>F</i>		1.95		10.40***		4.14**	
지역 규모							
대도시	(668)	0.91	1.22	2.20	2.42	0.30	0.68
중소도시	(646)	0.93	1.27	2.19	2.41	0.24	0.70
읍면지역	(263)	0.95	1.26	2.40	2.42	0.29	0.64
<i>F</i>		0.20		0.03		0.4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사회성과 학업수행 적응은 아동의 성별,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성이 좋고 학업 수행이 우수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 수행적응 점수가 높았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340만원 이하)은 고소득 집단의 아동에 비해 사회성과 학업수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업 수행 적응은 읍면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아동의 상호작용을 독려하고 학업적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 적응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79〉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 수행 적응

구분	(수)	사회성		학업수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7)	7.50	1.23	5.81	0.88
아동 성별					
남	(807)	7.43	1.24	5.73	0.92
여	(770)	7.58	1.21	5.90	0.82
<i>t</i>			-2.81**		-3.7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7.57	1.23	5.98	0.90
첫째	(553)	7.45	1.30	5.80	0.88
둘째 이상	(844)	7.53	1.18	5.78	0.87
<i>F</i>			0.32		1.25
모 취업 여부					
취업	(683)	7.49	1.23	5.83	0.86
미취업	(864)	7.51	1.23	5.80	0.89
<i>t</i>			-1.31		0.22
모 학력					
고졸이하	(457)	7.37 ^a	1.29	5.65 ^a	0.97
전문대졸	(430)	7.49 ^{ab}	1.16	5.85 ^b	0.80
대졸이상	(682)	7.59 ^b	1.24	5.89 ^b	0.85
<i>F</i>			4.52*		16.4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5)	7.30 ^a	1.31	5.65 ^a	0.98
341~400만원	(388)	7.60 ^b	1.17	5.76 ^b	0.84
401~530만원	(389)	7.46 ^b	1.30	5.82 ^b	0.84
531만원 이상	(386)	7.65 ^b	1.10	5.98 ^c	0.80
<i>F</i>			7.43***		9.98***
지역 규모					
대도시	(668)	7.49	1.27	5.86 ^b	0.91
중소도시	(646)	7.56	1.19	5.82 ^b	0.81
읍면지역	(263)	7.40	1.24	5.65 ^a	0.94
<i>F</i>			0.90		4.19*

* $p < .0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은 평균 5.24명의 남자 친구와 평균 5.09명의 여자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수는 성별과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와 여아의 총 친구 수는 비슷하였고(남아 10.15명, 여아 10.53명), 남아, 여아 모두 동성 친구가 이성 친구보다 많았다. 월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인 가정의 아이들이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보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가 적었다(여자 친구 수 4.24, 총 친구 수 8.87).

〈표 II-3-80〉 친구 수

		단위: 명(명)					
구분	(수)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총 친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59)	5.24	6.10	5.09	5.56	10.33	9.13
아동 성별							
남	(797)	7.38	6.96	2.77	4.72	10.15	10.18
여	(762)	2.96	3.88	7.57	5.32	10.53	7.85
<i>t</i>		15.24***		-19.03***		-1.1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7)	5.57	5.28	5.43	5.68	10.99	8.59
첫째	(548)	5.49	6.87	5.29	5.62	10.78	9.44
둘째 이상	(834)	4.98	5.64	4.87	5.48	9.84	8.99
<i>F</i>		1.34		1.71		2.51	
모 취업 여부							
취업	(677)	5.15	6.26	5.08	5.54	10.22	9.13
미취업	(853)	5.32	6.02	5.15	5.61	10.47	9.17
<i>t</i>		-0.79		-0.03		-0.55	
모 학력							
고졸이하	(453)	4.97	5.37	4.94	5.40	9.92	8.27
전문대졸	(427)	5.15	6.55	5.23	5.67	10.38	9.56
대졸이상	(671)	5.48	6.25	5.14	5.61	10.62	9.39
<i>F</i>		0.76		0.82		1.2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1)	4.64	6.33	4.24 ^a	4.97	8.87 ^a	8.70
341~400만원	(387)	5.48	5.56	5.62 ^b	5.42	11.10 ^b	8.59
401~530만원	(383)	5.36	5.35	5.23 ^{ab}	6.15	10.60 ^b	9.10
531만원 이상	(385)	5.66	7.06	5.30 ^{ab}	5.58	10.96 ^b	10.03
<i>F</i>		1.27		3.16 [*]		2.83 [*]	
지역 규모							
대도시	(657)	5.27	5.37	5.16	5.59	10.43	8.41
중소도시	(642)	5.38	6.25	5.02	5.71	10.40	9.57
읍면지역	(260)	4.82	7.31	5.11	5.11	9.93	9.77
<i>F</i>		0.10		0.04		0.10	

* $p < .05$, *** $p < .001$.

주말에 패널 아동이 친구와 놀이하지 않는 경우가 58.3%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거의 매 주말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경우가 19.5%에 달했다. 특히 주말 놀이 빈도의 양극화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고(놀러 나가지 않음 60.4%, 거의 매주 21.3%),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놀러 나가지 않음 60.9%, 거의매주 21.3%)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3-81〉 친구와의 주말 놀이 빈도

단위: %(명)						
구분	놀러 나가지 않음	몇 개월에 한번	한 달에 한번	거의 매주	계(수)	$\chi^2(df)$
전체	58.3	11.9	10.3	19.5	(1,551)	-
아동 성별						
남	54.1	13.5	11.7	20.7	(791)	5.79(3)
여	62.8	10.1	8.9	18.2	(76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3.3	13.2	9.6	23.9	(175)	10.46(6)
첫째	58.1	14.4	9.8	17.7	(548)	
둘째 이상	59.7	9.6	10.9	19.8	(828)	
모 취업 여부						
취업	57.1	12.0	10.8	20.1	(673)	1.31(3)
미취업	59.2	12.0	9.6	19.3	(849)	
모 학력						
고졸이하	60.4	9.0	9.3	21.3	(450)	14.48(6)*
전문대졸	56.5	16.6	9.6	17.3	(425)	
대졸이상	58.0	10.9	11.1	20.0	(66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6.6	12.5	8.4	22.5	(388)	8.70(9)
341~400만원	60.3	11.7	10.5	17.4	(385)	
401~530만원	60.7	12.7	10.7	15.8	(380)	
531만원 이상	56.0	11.1	10.3	22.6	(385)	
지역 규모						
대도시	60.9	9.5	8.3	21.3	(654)	15.43(6)*
중소도시	55.4	15.0	11.4	18.2	(639)	
읍면지역	59.0	10.2	12.7	18.1	(258)	

* $p < .05$.

패널 아동의 약 절반(51.3%)은 방과 후에 친구와 놀이 시간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되게 20.6%의 아동은 거의 매일 친구와 방과 후에 만나 놀이한다고 보고하여 방과 후 놀이 패턴이 양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보였다.

〈표 II-3-82〉 친구와의 방과 후 놀이 빈도

단위: %(명)

구분	놀러 나가지 않음	몇 개월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거의 매일	계(수)	$\chi^2(df)$
전체	51.3	8.2	7.6	12.3	20.6	(1,551)	-
아동 성별							
남	49.0	8.9	7.5	13.0	21.6	(791)	2.81(4)
여	53.7	7.6	7.7	11.5	19.5	(76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7.3	10.8	9.9	12.3	19.7	(175)	6.03(8)
첫째	53.6	8.1	7.9	11.4	19.0	(548)	
둘째 이상	50.5	7.7	6.9	12.9	22.0	(828)	
모 취업 여부							
취업	52.0	7.9	8.3	13.2	18.7	(673)	1.45(4)
미취업	50.8	8.5	6.7	11.7	22.3	(849)	
모 학력							
고졸이하	55.1	7.9	7.2	10.5	19.3	(450)	4.37(8)
전문대졸	50.8	8.8	7.8	11.2	21.5	(425)	
대졸이상	49.2	8.2	7.5	14.1	20.9	(66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3.4	6.2	7.3	9.7	23.4	(388)	14.44(12)
341~400만원	51.7	8.1	6.7	16.5	16.9	(385)	
401~530만원	52.1	9.1	7.6	10.5	20.6	(380)	
531만원 이상	47.6	10.0	7.6	13.0	21.8	(385)	
지역 규모							
대도시	53.0	7.8	4.6	11.4	23.3	(654)	18.06(8)*
중소도시	48.6	8.9	9.5	13.8	19.2	(639)	
읍면지역	53.3	7.8	10.7	11.0	17.2	(258)	

* $p < .05$.

전체 패널 아동의 36.2%는 친구와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뒤이어 몇 개월에 한번 싸운다는 응답이 26.4%였으며, 한 달에 한번 싸우는 경우가 17%, 일주일에 한번은 14.8%였다. 성별에 따라 싸움의 빈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더 빈번하게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은 외동아나 첫째아에 비해 친구와 더 자주 싸우는 경향이 있었다.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들은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친구들과 더 자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3〉 친구와의 싸움 빈도

단위: %(명)

구분	절대 싸우지 않음	몇 개월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거의 매일	계(수)	$\chi^2(df)$
전체	36.2	26.4	17.0	14.8	5.6	(1,551)	-
아동 성별							
남	32.6	27.0	18.0	15.8	6.6	(791)	16.22(4)**
여	40.1	25.7	16.0	13.7	4.6	(76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0.2	27.5	16.8	11.7	3.8	(175)	20.04(8)*
첫째	40.9	23.6	18.0	12.7	4.9	(548)	
둘째 이상	31.7	28.2	16.3	17.2	6.6	(828)	
모 취업 여부							
취업	33.8	28.1	17.4	14.4	6.3	(673)	3.74(4)
미취업	37.5	25.3	17.1	15.1	5.1	(849)	
모 학력							
고졸이하	34.6	20.6	20.5	16.5	7.8	(450)	25.98(8)**
전문대졸	34.1	31.3	15.1	12.4	7.1	(425)	
대졸이상	38.3	27.0	16.2	15.3	3.1	(66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5.5	23.4	18.3	15.7	7.1	(388)	14.57(12)
341~400만원	40.6	23.1	17.7	14.3	4.4	(385)	
401~530만원	29.8	32.4	16.4	14.8	6.5	(380)	
531만원 이상	38.7	27.3	15.4	14.6	4.0	(385)	
지역 규모							
대도시	35.1	28.6	16.9	14.7	4.7	(654)	7.46(8)
중소도시	38.2	24.9	17.0	14.0	5.9	(639)	
읍면지역	34.2	24.1	17.4	17.0	7.3	(258)	

* $p < .05$, ** $p < .01$, *** $p < .001$.

교사들은 남아보다는 여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수행에서 뛰어나며, 원만한 또래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동아들이 형제가 있는 아동보다 학업수행 면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들은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관계에서 적응력이 낮았다. 또한,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가정의 아동이 가구 소득 341만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보다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4〉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교 적응

단위: 점(명)

구분	(수)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31)	3.62	0.76	3.86	0.83	3.97	0.79	3.53	0.63
아동 성별									
남	(524)	3.43	0.75	3.73	0.83	3.81	0.82	3.51	0.53
여	(507)	3.81	0.71	4.00	0.81	4.15	0.73	3.55	0.72
<i>t</i>		-8.50***		-5.32***		-7.50***		-1.0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3)	3.52	0.75	3.96	0.91	3.88	0.90	3.52	0.56
첫째	(365)	3.60	0.77	3.93	0.84	3.97	0.79	3.54	0.66
둘째 이상	(563)	3.65	0.75	3.79	0.81	3.99	0.77	3.53	0.62
<i>F</i>		1.18		3.81*		0.73		0.26	
모 취업 여부									
취업	(466)	3.59	0.74	3.86	0.86	3.98	0.81	3.56	0.61
미취업	(548)	3.64	0.77	3.88	0.81	3.98	0.78	3.50	0.65
<i>t</i>		-1.69		-1.84		-1.09		0.77	
모 학력									
고졸이하	(315)	3.52 ^a	0.73	3.71 ^a	0.85	3.85 ^a	0.80	3.50	0.57
전문대졸	(312)	3.63 ^{ab}	0.80	3.92 ^b	0.81	4.03 ^b	0.76	3.50	0.67
대졸이상	(401)	3.69 ^b	0.73	3.94 ^b	0.83	4.03 ^b	0.79	3.57	0.64
<i>F</i>		4.55*		6.55**		5.05**		1.3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74)	3.54	0.80	3.75	0.90	3.85 ^a	0.83	3.42 ^a	0.70
341~400만원	(250)	3.66	0.78	3.88	0.80	4.05 ^b	0.76	3.57 ^b	0.57
401~530만원	(255)	3.68	0.69	3.90	0.81	4.01 ^{ab}	0.78	3.57 ^b	0.63
531만원 이상	(246)	3.62	0.73	3.94	0.80	4.00 ^{ab}	0.77	3.57 ^b	0.59
<i>F</i>		1.27		1.96		2.69*		4.14**	
지역 규모									
대도시	(437)	3.64	0.73	3.88	0.82	4.02	0.77	3.56	0.58
중소도시	(415)	3.57	0.80	3.83	0.86	3.93	0.82	3.53	0.61
읍면지역	(179)	3.69	0.71	3.89	0.81	3.96	0.78	3.48	0.78
<i>F</i>		0.43		0.25		0.89		0.27	

* $p < .05$, ** $p < .01$, *** $p < .001$.

사. 소결

초등학교 1학년 페널 아동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일

상생활을 살펴본 결과 식습관의 경우 과일과 단백질을 섭취는 높은 편이지만 우유/유제품 섭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은 평균 주중 1시간, 주말 2.19시간 가량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7%의 아동이 휴대폰(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동은 주중 21시 49분~7시 28분, 주말 22시 12분~8시 1분까지 평균 9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6.47세부터 혼자 잠을 자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의 평일 하루 활동 시간은 학교 활동이 5.57시간, 실내 활동이 5.01시간, 사교육 1.70시간, 기본생활 시간 1.31시간, 바깥놀이 및 외출이 1.06시간으로 비교적 실외 활동 시간이 짧았다.

패널 아동의 평균 신장은 123.51cm, 허리둘레는 평균 58.01cm, 체중은 25.28kg으로 나타났으며, 7.4%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아동의 3.5%는 만성 질환을 진단 받았으며,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62.8% 아동이 진단받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아동의 어휘력은 표현 어휘가 87.03점, 수용 어휘가 85.17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집행기능 대해서는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국어 및 수학 능력에 대한 점수는 4점대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희망에 대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21.6%,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23.0%,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15.9%로 응답되었다. 아동이 희망하는 최종 학력은 대학이 74.0%, 고등학교 14.7%, 초등학교 6.9%, 중학교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3.25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선호는 3.21점, 3.42점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행복감을 나타냈다. 패널 아동들은 학교 생활에 대해 수업 참여는 평균 3.20점, 즐거움은 3.19점, 기본이 좋아지는 정도는 3.2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다수인 85% 이상의 아동이 정상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는 외현화 문제가 4.19점, 내재화 문제가 3.74점으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보다 외현화 문제 점수가 더 높았다.

패널 아동은 평균 10.33명의 친구가 있었으며, 남·여 아동은 각각 평균 7.38명, 7.57명의 동성 친구와 2.77명, 2.96명의 이성 친구가 있었다.

4. 부모 특성

가. 부모 특성 관련 변인 구성

8차년도 조사의 부모 특성은 신체 및 건강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직업 특성, 양육 특성으로 구분되며, 해당 변인은 <표 II-4-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중 일부 변동이 없는 생년월일은 중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동의 폭이 적은 결혼 상태 및 기간, 아동과의 동거 여부 등은 중단 자료를 확인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특성 중 개인 내적 특성인 심리적 특성과 부부 특성, 양육 특성 중 일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이 모두 있다.

<표 II-4-1> 8차년도 부모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최종학력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심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부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상태, 결혼 기간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및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급 장애 유무, 알레르기질환 병력
	음주 및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흡연 여부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학업 상태 희망 근로 형태, 시간제 희망 이유
	미취/학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업 중단 이유
	취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일을 하는 이유,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직업 군, 종사상 지위 근무 일, 시간
양육 특성	부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미계획 사유, 계획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이상적 자녀의 성별 구성, 기대 자녀 수 및 성별

(표 II-4-2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양육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 부모 공동양육, 모-자녀 상호작용 ◦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친구 수,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부모 감독 ◦ 부모의 학업 관심도, 자녀 숙제 시 도움 제공자, 도움 정도
	지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원 인원, 지원 정도

나. 개인 및 부부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008년 태어난 패널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2015년 기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93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39세이다. 어머니는 30대가 68.2%, 40대가 30.7%이며, 아버지는 40대가 55.6%, 30대 42.1%로 분포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는 대졸 38.5%, 전문대졸 27.2%, 고졸 27.1%, 대학원졸 6.7%의 순으로 나타났고, 아버지는 대졸 42.8%, 고졸 25.9%, 전문대졸 17.9%, 대학원졸 13.0%의 순으로 부모 모두 대졸자가 가장 많다.

〈표 II-4-2〉 부모의 연령 및 학력

연령	어머니		아버지		단위: %(명), 세	
	어머니	아버지	학력	어머니	아버지	
20대	0.9	0.3	중졸 이하	0.4	0.6	
30대	68.2	42.1	고졸	27.1	25.9	
40대	30.7	55.6	전문대졸	27.2	17.9	
50대 이상	0.2	2.0	대졸	38.5	42.8	
계(수)	100.0(1,590)	100.0(1,568)	대학원졸	6.7	13.0	
평균	37.93	40.39				
표준편차	3.61	3.90	계(수)	100.0(1,570)	100.0(1,563)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가 어머니 99.7%, 아버지 95.8%로 대다수이지만, 어머니의 0.3%가 타지역 근무(학업), 국내외 유학 중, 기타 등의 이유로 비동거 중이고 아버지의 4.2%는 타지역 근무, 장기입원/요양 중, 기타 등의 사유로 따로 사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계(수)
	동거	비동거	계(수)	타 지역 근무(학업)	국내외 유학중	장기입원, 요양중	기타	
어머니	99.7	0.3	100.0(1,590)	75.6	12.5	-	11.9	100.0(5)
아버지	95.8	4.2	100.0(1,566)	95.3	-	1.5	3.3	100.0(60)

2) 심리학적 특성

부모의 우울 수준은 부모의 3/4 가량(어머니 75.7%, 아버지 74.6%)이 정상수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18.4%가 경도/중등도, 6.0%가 중도의 우울을, 아버지의 20.6%가 경도/중등도, 4.8%가 중도의 우울 수준을 보고하여 일부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 특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아버지는 가구소득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4-4〉 부모의 우울

단위: %(명),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 편차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전체	75.7	18.4	6.0	1000(1,533)	1.84	0.73	74.6	20.6	4.8	1000(1,441)	1.92	0.70
모 취업 여부												
취업	76.3	18.2	5.5	1000(677)	1.84	0.74	74.1	21.9	4.0	1000(632)	1.91	0.69
미취업	75.6	18.2	6.2	1000(856)	1.84	0.72	75.2	20.1	4.7	1000(809)	1.91	0.71
$\chi^2(df)/t$	0.83(2)				0.16		0.60(2)				0.08	
부모 학력												
고졸이하	68.9	22.2	8.9	1000(451)	1.94 ^b	0.85	71.7	22.7	5.6	1000(398)	1.34	0.58
전문대졸	78.7	16.0	5.3	1000(429)	1.85 ^a	0.68	73.3	23.5	3.2	1000(302)	1.30	0.52
대졸이상	77.9	17.4	4.6	1000(673)	1.79 ^a	0.68	76.3	18.7	5.0	1000(761)	1.29	0.55
$\chi^2(df)/F$	19.61(4) ^{***}				8.31 ^{***}		4.39(4)				1.2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71.4	19.3	9.3	1000(391)	1.94 ^b	0.78	72.9	20.5	6.6	1000(364)	1.97 ^b	0.78
341~400만원	75.4	18.7	5.8	1000(385)	1.86 ^b	0.72	73.9	21.9	4.2	1000(366)	1.94 ^b	0.65
401~530만원	76.4	17.9	5.7	1000(384)	1.84 ^b	0.74	73.6	22.8	3.7	1000(369)	1.91 ^{ab}	0.69
531만원 이상	80.7	16.9	2.4	1000(380)	1.71 ^a	0.64	79.0	16.8	4.2	1000(357)	1.84 ^a	0.66
$\chi^2(df)/F$	17.33(6) ^{**}				6.68 ^{**}		7.87(6)				3.27	

(표 II-44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상	경도/ 중등도	중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정상	경도/ 중등도	중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												
대도시	76.6	17.2	6.2	100.0(658)	1.81	0.72	74.5	19.2	6.4	100.0(611)	1.95	0.73
중소도시	74.9	18.9	6.2	100.0(643)	1.87	0.76	74.6	20.6	4.8	100.0(615)	1.87	0.68
읍면지역	75.2	20.0	4.8	100.0(255)	1.88	0.69	69.8	24.5	5.7	100.0(243)	1.94	0.69
$\chi^2(df)/F$	0.825(4)				0.97		6.32(4)				0.89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어머니는 평균 3.02점, 아버지는 3.80점으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별로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전문대졸 이하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면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 집단 간에, 소득은 340만원 이하 집단과 401만원 이상 530만원 이하, 531만원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4-5〉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02	0.28	(1,556)	-	3.80	0.56	(1,469)	-
모 취업 여부								
취업	3.03	0.25	(677)	-1.95	3.79	0.55	(632)	0.22
미취업	3.01	0.30	(856)		3.81	0.57	(809)	
부모 학력								
고졸이하	3.00 ^a	0.29	(451)	3.91 ^{**}	3.66 ^a	0.51	(398)	36.125 ^{***}
전문대졸	3.01 ^a	0.27	(429)		3.68 ^a	0.52	(302)	
대졸이상	3.04 ^b	0.28	(673)		3.91 ^b	0.57	(76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00	0.28	(391)	1.98	3.72 ^a	0.55	(364)	16.68 ^{***}
341~400만원	3.01	0.29	(385)		3.74 ^{ab}	0.55	(366)	
401~530만원	3.03	0.28	(384)		3.82 ^b	0.57	(369)	
531만원 이상	3.04	0.26	(380)		3.94 ^c	0.54	(357)	

** $p < .01$, *** $p < .001$.

부모의 행복감은 7점 만점 기준으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어머니 5.23점, 아버지 5.25점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는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아버지는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대졸 이상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고하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두 집단 모두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머니는 340만원 이하 집단과 341만원~400만원, 그리고 531만원 이상 집단 간에, 아버지는 400만원 이하 집단과 401만원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부모의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5.23	1.07	(1,556)	-	5.25	1.02	(1,469)	-
모 취업 여부								
취업	5.26	1.07	(677)	-1.11	5.22	1.05	(632)	0.61
미취업	5.19	1.06	(856)		5.28	1.00	(809)	
부모 학력								
고졸이하	5.00 ^a	1.19	(451)	15.54 ^{***}	5.01 ^a	0.97	(398)	17.24 ^{***}
전문대졸	5.31 ^b	0.99	(429)		5.19 ^a	1.02	(302)	
대졸이상	5.30 ^b	1.01	(673)		5.39 ^b	1.01	(76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97 ^a	1.09	(391)	16.02 ^{***}	5.15 ^a	1.04	(364)	8.65 ^{***}
341~400만원	5.19 ^b	1.04	(385)		5.09 ^a	0.99	(366)	
401~530만원	5.31 ^{bc}	1.08	(384)		5.37 ^b	1.01	(369)	
531만원 이상	5.43 ^c	1.00	(380)		5.41 ^b	1.02	(357)	

*** $p < .001$.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4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2.95점, 아버지는 3.03점이며, 어머니에게서 취업 여부,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 집단이 미취업 집단에 비해, 그리고 고졸 이하 집단이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340만원 이하 집단이 341만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5	0.61	(1,556)	3.03	0.63	(1,469)
모 취업 여부						
취업	2.99	0.63	(677)	3.03	0.67	(632)
미취업	2.93	0.60	(856)	3.04	0.60	(809)
<i>t</i>		-2.56*			-0.14	
부모 학력						
고졸이하	3.04 ^b	0.62	(451)	3.05	0.64	(398)
전문대졸	2.90 ^a	0.60	(429)	3.07	0.61	(302)
대졸이상	2.94 ^a	0.61	(673)	3.02	0.63	(761)
<i>F</i>		5.58**			1.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98 ^b	0.59	(391)	3.03	0.64	(364)
341~400만원	2.93 ^a	0.57	(385)	3.04	0.63	(366)
401~530만원	2.93 ^a	0.63	(384)	3.06	0.63	(369)
531만원 이상	2.95 ^a	0.64	(380)	2.99	0.63	(357)
<i>F</i>		3.05*			1.21	

* $p < .05$, ** $p < .01$.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55.5%가 만족하는 편이었고, 31.7%가 보통, 9.0%가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었으며 3.0%는 매우 만족, 0.8%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다.

〈표 II-4-8〉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0.8	9.0	31.7	55.5	3.0	100.0(1,533)	3.51
모 취업 여부							
취업	0.6	9.3	29.6	57.0	3.5	100.0(677)	3.53
미취업	0.8	8.8	33.7	54.0	2.8	100.0(856)	3.49
$\chi^2(df)/t$				2.84(4)			

(표 II-4-8 계속)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만족하지 못하는 편입	보통	만족하는 편입	매우 만족	계(수)	평균
모 학력							
고졸이하	2.3	10.7	39.2	44.8	3.0	100.0(451)	3.35
전문대졸	0.5	9.4	30.0	58.2	1.9	100.0(429)	3.52
대졸이상	0.0	7.7	28.2	60.3	3.8	100.0(673)	3.60
$\chi^2(df)/F$	52.34(8)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1	11.0	41.1	44.6	2.2	100.0(391)	3.36
341~400만원	1.4	6.7	32.2	57.3	2.4	100.0(385)	3.53
401~530만원	0.6	13.1	26.4	56.3	3.6	100.0(384)	3.49
531만원 이상	0.0	4.7	25.8	65.4	4.1	100.0(380)	3.69
$\chi^2(df)/F$	57.37(12) ^{***}						

*** $p < .001$.

취업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느끼는 이점과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중 이점이 3.71점, 갈등이 2.71점으로 이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좋은 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졸 이상 집단에서 전문대졸 이하 집단에 비해 더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점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340만원 이하 집단과 341만원 이상에서 530만원 이하, 531만원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 일-가정 이점과 갈등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71	0.63	(694)	-	2.71	0.72	(694)	-
모 학력								
고졸이하	3.64 ^a	0.63	(170)	9.56 ^{***}	2.51	0.61	(170)	0.96
전문대졸	3.68 ^a	0.66	(187)		2.44	0.59	(187)	
대졸이상	3.85 ^b	0.64	(337)		2.50	0.65	(33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71 ^a	0.66	(102)	17.11 ^{***}	2.52	0.65	(102)	1.55
341~400만원	3.64 ^b	0.68	(135)		2.45	0.60	(135)	
401~530만원	3.77 ^b	0.64	(202)		2.47	0.61	(202)	
531만원 이상	3.88 ^c	0.59	(252)		2.51	0.64	(252)	

*** $p < .001$.

일과 양육 간의 이점과 갈등에 대해서는 이점이 3.50점, 갈등이 2.79점으로 가정생활과의 이점, 갈등 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점에 대해 대체로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며, 341만원 이상 집단과 340만원 이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4-10〉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 일-양육 이점과 갈등

구분	일-가정 양립: 일-양육 이점				일-가정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50	0.63	(694)	-	2.79	0.70	(694)	-
모 학력								
고졸이하	3.46	0.66	(170)		2.86	0.74	(170)	
전문대졸	3.52	0.57	(187)	1.70	2.80	0.75	(187)	2.52
대졸이상	3.50	0.64	(337)		2.74	0.66	(33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34 ^a	0.67	(102)		2.82	0.74	(102)	
341~400만원	3.53 ^b	0.60	(135)	3.74*	2.71	0.76	(135)	1.44
401~530만원	3.53 ^b	0.57	(202)		2.82	0.68	(202)	
531만원 이상	3.51 ^b	0.66	(252)		2.79	0.67	(252)	

* $p < .05$

3) 부부 특성

부모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 초혼이 97.7%로 대다수였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131.13개월로 약 10.9년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4-11〉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구분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미혼	유배우 -초혼	유배우 -재혼	동거 (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0.2	97.7	0.6	0.0	0.3	1.1	0.1	100.0(1,568)	131.13	36.87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3.7점, 아버지 4.0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어머니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집단보다는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아버지는 전문대졸 이하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340만원

이하 집단과 401만원 이상 530만원 이하 집단, 531만원 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4-12〉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70	0.81	(1,548)	-	4.00	0.73	(1,467)	-
모 취업 여부								
취업	3.67	0.85	(671)	1.45	4.00	0.71	(632)	-0.08
미취업	3.72	0.78	(855)		4.00	0.75	(809)	
부모 학력								
고졸이하	3.56 ^a	0.82	(449)	10.14 ^{***}	3.87 ^a	0.75	(398)	16.26 ^{***}
전문대졸	3.71 ^b	0.78	(427)		3.93 ^a	0.72	(300)	
대졸이상	3.77 ^b	0.81	(670)		4.09 ^b	0.71	(76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57 ^a	0.84	(384)	9.93 ^{***}	3.90 ^a	0.79	(362)	7.31 ^{***}
341~400만원	3.62 ^{ab}	0.80	(385)		3.93 ^{ab}	0.69	(366)	
401~530만원	3.74 ^b	0.79	(383)		4.08 ^b	0.68	(369)	
531만원 이상	3.85 ^c	0.77	(380)		4.14 ^c	0.70	(357)	

*** $p < .001$.

부부갈등 역시 어머니 2.59점, 아버지 2.06점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갈등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부부갈등 수준이 적었으며, 아버지는 학력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졸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갈등 수준이 낮았다.

〈표 II-4-13〉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59	1.18	(1,545)	-	2.06	0.74	(1,467)	-
모 취업 여부								
취업	2.11	0.87	(669)	-1.58	2.07	0.75	(632)	-0.80
미취업	2.06	0.80	(854)		2.04	0.73	(809)	
부모 학력								
고졸이하	2.17 ^b	0.85	(448)	5.98 ^{**}	2.12 ^b	0.74	(398)	5.64 ^{**}
전문대졸	2.05 ^a	0.75	(425)		2.10 ^b	0.71	(300)	
대졸이상	2.05 ^a	0.86	(670)		2.01 ^a	0.74	(761)	

(표 II-4-13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12 ^a	0.82	(382)	2.78*	2.04	0.77	(362)	0.44
341~400만원	2.14 ^{ab}	0.86	(385)		0.10	0.72	(366)	
401~530만원	2.04 ^{ab}	0.80	(383)		2.05	0.68	(369)	
531만원 이상	2.02 ^a	0.83	(380)		2.05	0.79	(357)	

* $p < .05$, ** $p < .01$.

다.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부모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어머니 42.6%, 아버지 44.8%로 부모 모두 가장 많았으나,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도 어머니 41.4%, 아버지 41.7%로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표 II-4-14〉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단위: %(명)					계(수)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어머니	1.0	11.5	41.4	42.6	3.5	100.0(1,556)
아버지	0.7	9.3	41.7	44.8	3.4	100.0(1,469)

2) 질환 및 장애

부모의 1·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의 0.1%, 아버지의 0.6%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II-4-15〉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구분	단위: %(명)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0.1	99.9	100.0(1,590)
아버지	0.6	99.4	100.0(1,566)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 병력은 부모 모두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어머니의 35.9%, 아버지의 33.4%로 가장 많고, 어머니의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을 앓고 있는 비율도 15.2%로 상당수이다.

〈표 II-4-16〉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 병력(중복응답)

구분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 알레르기
어머니	3.4(1,495)	35.9(1,548)	4.1(1,495)	15.2(1,507)	3.7(1,494)
아버지	2.6(1,481)	33.4(1,528)	6.3(1,487)	5.0(1,577)	3.9(1,483)

주: ()의 숫자는 해당 문항 전체 응답 대상자 수를 의미함.

3) 음주 및 흡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음주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음주횟수를 보면 어머니는 월 1회 이하 술을 마셨다는 비율이 34.1%, 월 2~4회 29.3%,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다는 비율이 24.2%로, 주 2~3회는 10.2%, 주 4회 이상은 2.2%에 불과한 반면, 아버지는 월 2~4회가 34.2%로 가장 많고, 주 2~3회 29.1%, 월 1회 이하 15.2%, 주 4회 이상도 12.1%나 해당된다.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다는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음주량 역시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머니의 경우 1~2잔이 56.3%, 3~4잔이 28.5%로 양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5~6잔이 23.4%로 가장 많고 7~9잔 21.1%, 3~4잔 20.3%의 순이며 10잔 이상도 18.5%나 집계되었다.

과음 빈도를 보면 어머니는 전혀 없다는 비율이 42.6%이고 빈도가 늘어날수록 응답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아버지는 주1회 정도 과음한다는 비율이 32.4%로 가장 많고 월 1회 정도 28.3%, 월 1회 미만 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17〉 부모의 음주 실태

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마십	24.2	8.5	1~2잔	56.3	16.7	전혀 없음	42.6	12.3
월1회 이하	34.1	15.2	3~4잔	28.5	20.3	월1회 미만	31.1	20.2
월2~4회	29.3	34.2	5~6잔	9.5	23.4	월1회 정도	15.7	28.3
주2~3회	10.2	29.1	7~9잔	3.7	21.1	주1회 정도	9.5	32.4
주4회 이상	2.2	12.1	10잔 이상	2.1	18.5	거의 매일	1.1	6.8
계(수)	100.0 (1,556)	100.0 (1,469)	계(수)	100.0 (1,179)	100.0 (1,336)	계(수)	100.0 (1,179)	100.0 (1,336)

흡연은 아버지의 경우 45.0%가 흡연자이며, 어머니는 1%만이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8〉 부모의 흡연

구분	단위: %(명)		계(수)
	피움	피우지 않음	
어머니	1.0	99.0	100.0(1,556)
아버지	45.0	55.0	100.0(1,469)

라. 직업 특성

1) 일반적 특성

부모의 직업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취/학업 상태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전체의 92.9%가 취업(휴직 포함) 중이었고, 5.9%가 미취업 중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39.5%가 취업(휴직 포함) 중이었고, 56.6%가 미취/미학업 중이었다.

〈표 II-4-19〉 부모 취/학업 상태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 학업 병행	미취/ 미학업		
아버지	92.9	-	1.2	5.9	100.0(1,469)	-
어머니	39.5	0.3	3.6	56.6	100.0(1,568)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6.2	0.2	0.6	52.9	100.0(177)	
첫째	34.6	0.2	2.4	62.8	100.0(548)	13.85(6)*
둘째 이상	41.5	0.4	5.2	52.9	100.0(843)	
모 학력						
고졸이하	32.8	0.3	4.3	62.5	100.0(457)	
전문대졸	40.4	0.6	3.0	56.0	100.0(428)	20.51(6)**
대졸이상	43.0	0.1	3.5	53.4	100.0(68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2.5	0.2	1.7	75.6	100.0(393)	
341~400만원	29.3	0.8	5.0	65.0	100.0(388)	
401~530만원	46.7	0.2	3.9	49.1	100.0(387)	153.79(9)***
531만원 이상	61.8	0.0	3.8	34.4	100.0(383)	
지역						
대도시	39.9	0.4	3.3	56.5	100.0(672)	
중소도시	40.4	0.0	3.0	56.6	100.0(640)	9.35(6)
읍면지역	36.1	0.9	6.0	57.0	100.0(256)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취/학업 상태는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분포하는 나타났는데, 우선 패널 아동이 외동아인 경우 취업 중인 경우가 46.2%로 가장 많고, 둘째 이상인 경우가 41.5%, 첫째인 경우가 34.6%로 가장 적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 상태인 경우가 43.0%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40.4%, 고졸 이하에서는 32.8%로 가장 낮다. 가구 소득별로는 차이가 나타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취업상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맞벌이에게서 소득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희망 근로 시간 형태를 살펴 본 결과 일할 계획이 없음이 34.4%, 전일제가 33.7%, 시간제가 31.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가구 소득별로 원하는 근로 시간 형태에 대한 응답 경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전일제를 원하는 비율이 높고, 일할 계획이 없거나,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낮다. 아동 출생순위나 학력,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0〉 어머니의 희망 근로 시간 형태

단위: %(명)

구분	시간제	전일제	일할 계획 없음	계(수)	$\chi^2(df)$
전체	31.8	33.7	34.4	100.0(1,56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9.8	35.9	34.3	100.0(177)	
첫째	31.9	29.3	38.8	100.0(548)	7.82(4)
둘째 이상	32.2	36.6	31.2	100.0(843)	
모 학력					
고졸이하	27.9	32.2	39.9	100.0(457)	
전문대졸	35.2	34.8	30.0	100.0(428)	7.18(4)
대졸이상	32.2	34.0	33.8	100.0(68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5.7	22.8	41.5	100.0(393)	
341~400만원	33.6	26.0	40.4	100.0(388)	
401~530만원	31.6	36.7	31.7	100.0(387)	79.68(6)***
531만원 이상	25.5	51.4	23.1	100.0(383)	
지역					
대도시	31.8	33.2	35.0	100.0(672)	
중소도시	32.1	33.4	34.5	100.0(640)	2.93(4)
읍면지역	31.2	36.2	32.7	100.0(256)	

*** $p < .001$.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어머니의 희망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가 85.5%, 가사 때문에가 7.7%, 하루 종일 직장에 매어있는 것이 싫어서가 3.4%순이었다. 그 외 다른 일과 병행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미취업 집단(91.4%)에서 자녀양육을 이유로 드는 비율이 집중된 것에 비해, 취업 집단은 가사 때문에(11.0%), 그리고 하루종일 직장에 매어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5.9%), 다른 일과 병행하기 위함(2.6%)이라는 이유로 다소 분산되어 있다.

〈표 II-4-21〉 어머니의 시간제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전체	85.5	7.7	1.8	0.4	0.0	3.4	1.2	100.0(496)	-
모 취업 여부									
취업	77.8	11.0	2.6	0.5	0.0	5.9	2.2	100.0(224)	14.97(5)*
미취업	91.4	5.2	1.2	0.3	0.0	1.4	0.5	100.0(272)	
모 학력									
고졸이하	86.4	8.6	1.9	0.7	0.0	1.8	0.6	100.0(137)	7.45(10)
전문대졸	84.6	9.5	2.5	0.0	0.0	2.5	0.9	100.0(144)	
대졸이상	85.6	6.1	1.3	0.5	0.0	4.8	1.8	100.0(21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81.7	10.0	4.0	0.6	0.0	3.0	0.6	100.0(145)	22.92(15)
341~400만원	87.4	9.6	0.6	0.0	0.0	0.7	1.8	100.0(126)	
401~530만원	87.0	5.2	2.1	0.0	0.0	4.0	1.8	100.0(115)	
531만원 이상	86.2	4.8	0.0	1.1	0.0	7.1	0.7	100.0(104)	

주: ① 아이를 돌보기 위해 ② 가사 때문에 ③ 다른 일과 병행하기 위해 ④ 건강상의 이유로
 ⑤ 유학, 시험, 개인 사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⑥ 하루 종일 직장에 매어있는 것이 싫어서
 ⑦ 기타

* $p < .05$.

2) 미취/미학업 특성

어머니가 일/학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학교 생활과 아이 양육 병행이 힘들어서(5.7%), 임신 또는 출산(3.3%)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으로 일/학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일자리/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건강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가족이나 지인이 원치 않음, 일의 보수가 넉넉하지 않음 순이었다.

〈표 II-4-22〉 어머니의 일/학업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chi^2(df)$
전체	2.9	1.6	3.3	80.7	5.7	0.5	1.6	1.4	0.9	1.4	100.0(868)	-
모 학력												
고졸이하	3.2	3.3	3.9	75.9	6.7	0.9	1.3	2.1	0.3	2.4	100.0(286)	27.10
전문대졸	1.0	0.9	3.4	82.9	4.8	0.3	1.4	1.7	1.9	1.7	100.0(238)	(18)
대졸이상	3.8	0.9	2.8	82.9	5.5	0.2	1.9	0.8	0.8	0.5	100.0(34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6	2.4	3.3	78.5	6.6	0.8	1.2	2.4	0.6	1.7	100.0(290)	23.76
341~400만원	3.1	1.0	4.6	81.0	4.1	0.4	2.6	1.3	0.8	1.3	100.0(250)	(27)
401~530만원	1.2	0.7	2.3	85.0	5.5	0.5	1.8	0.5	1.3	1.3	100.0(184)	
531만원 이상	3.4	1.1	2.6	83.1	6.0	0.0	0.6	0.6	1.3	1.3	100.0(131)	
지역												
대도시	2.4	2.3	1.7	82.7	5.2	0.4	1.7	1.1	1.0	1.5	100.0(368)	20.80
중소도시	2.7	1.2	5.7	77.0	7.1	0.7	2.0	1.3	1.1	1.3	100.0(356)	(18)
읍면지역	4.4	0.9	1.4	84.7	3.6	0.0	0.5	2.6	0.5	1.4	100.0(144)	

주: ①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건강상의 이유로 ③ 임신 또는 출산으로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⑤ 직장/학교 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⑥ 일의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⑦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⑧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⑨ 가족이나 지인이 원하지 않아서 ⑩ 기타

3) 취업 특성

취업 중인 어머니의 4.4%는 휴직 상태이며, 작년과 비교해 직장/직위가 변동이 없는 경우가 72.1%로 대다수이다.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던 지난 해와 비교하여 무직 상태였다가 새로이 취업한 비율이 어머니에게서 18.8% 집계되었다. 8.2%는 이직했으며 1%는 직위가 변경되었다. 아버지는 84.9%가 작년도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직장 또는 직위가 바뀐 경우가 9.8% 정도이다.

〈표 II-4-23〉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단위: %(명)

구분	재직 상태			직장/직위 변동 여부					
	재직	휴직	계(수)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뀜	직위가 바뀜	지난 조사시 미취/미학	2014 조사 불참	계(수)
어머니	95.6	4.4	100.0(694)	72.1	8.2	1.0	18.8	-	100.0(694)
아버지	-	-	-	84.9	9.8	-	-	5.3	100.0(1,389)

주: 7차년도 조사 시 미취업이었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는 제외함.

어머니가 일을 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가 30.3%,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가 25.1%, 생계를 위해가 23.9%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의견으로 돈을 모아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이 원해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타 의견 순이었다.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머니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에서 생계를 위해 혹은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금전적 이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득별로는 340만원 이하 집단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341만원에서 400만원, 401만원에서 530만원 이하 집단은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531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차이도 나타났는데, 대도시에서는 자아실현(30.2%),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27.5%), 생계를 위해(20.7%)의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중소도시는 자아실현을 위해(34.4%), 생계를 위해(24.7%),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20.7%), 읍면지역은 생계를 위해(30.5%),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29.6%), 자아실현을 위해(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일자리의 질과 물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II-4-24〉 어머니의 일을 하는 이유

구분									단위: %(명)	$\chi^2(df)$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30.0	23.9	25.1	16.0	0.9	2.6	1.1	0.4	100.0(694)	-
모 학력										
고졸이하	12.0	32.0	32.0	20.1	1.2	2.0	0.4	0.2	100.0(170)	75.82(14)***
전문대졸	22.4	31.3	29.6	10.9	1.3	2.9	0.5	1.1	100.0(187)	
대졸이상	43.1	15.7	19.1	16.9	0.5	2.6	1.9	0.2	100.0(33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1.9	45.5	26.4	13.2	0.0	2.7	0.0	0.4	100.0(102)	112.18(21)***
341~400만원	22.4	27.2	31.7	11.3	0.6	5.5	1.3	0.0	100.0(135)	
401~530만원	25.4	22.4	31.3	17.1	1.8	0.7	1.3	0.0	100.0(202)	
531만원 이상	44.9	14.6	16.3	18.7	0.6	2.5	1.4	1.1	100.0(252)	
지역										
대도시	30.2	20.7	27.5	17.6	0.4	2.5	0.5	0.7	100.0(300)	25.58(14)*
중소도시	34.4	24.7	20.7	14.3	1.4	2.9	1.7	0.0	100.0(284)	
읍면지역	18.3	30.5	29.6	16.3	0.9	1.9	1.5	0.9	100.0(110)	

주: ①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② 생계를 위해 ③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
 ④ 돈을 모아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⑤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⑥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⑦ 가족이나 지인이 원해서 ⑧ 기타

* $p < .05$, *** $p < .001$.

취업모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65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54.4%, 보통이 25.4%, 매우 만족이 11.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인 경우가 가장 높고, 둘째 이상, 외동아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아졌으며,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

〈표 II-4-25〉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 편차	F
전체	2.9	6.0	25.4	54.4	11.3	100.0(694)	3.65	0.86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6.1	12.6	17.1	52.8	11.4	100.0(84)	3.51	1.05	
첫째	1.7	2.5	25.5	57.2	13.1	100.0(220)	3.78	0.77	3.27*
둘째 이상	2.9	6.5	27.3	53.1	10.2	100.0(390)	3.61	0.86	
모 학력									
고졸이하	2.7	9.9	32.7	42.5	12.3	100.0(170)	3.52	0.92	
전문대졸	1.8	4.5	30.2	54.7	8.8	100.0(187)	3.64	0.78	3.88*
대졸이상	3.7	4.9	19.2	60.0	12.2	100.0(337)	3.72	0.8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3	6.5	43.1	43.2	3.9	100.0(102)	3.38	0.80	
341~400만원	2.9	7.2	32.1	47.7	10.2	100.0(135)	3.55	0.88	
401~530만원	3.7	7.6	21.1	58.7	9.0	100.0(202)	3.62	0.89	11.78***
531만원 이상	2.2	3.7	18.5	59.0	16.6	100.0(252)	3.84	0.82	
지역									
대도시	2.1	5.5	22.8	60.8	8.7	100.0(300)	3.68	0.79	
중소도시	4.0	6.9	23.2	49.4	16.5	100.0(284)	3.68	0.96	1.32
읍면지역	2.4	4.9	38.2	49.5	5.0	100.0(110)	3.50	0.77	

* $p < .05$, *** $p < .001$.

부모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 종사자 27.3%, 판매 종사자 11.6%, 서비스 종사자 10.1%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사무 종사자가 2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0%,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12.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6%, 판매종사자 7.8% 순이었다.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 대부분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6〉 부모의 직업군

단위: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미 분류	계 (수)
어머니	1.1	42.7	27.3	10.1	11.6	0.4	0.5	2.7	3.5	0.0	-	100.0 (688)
아버지	3.0	20.0	23.0	4.6	7.8	1.2	9.6	12.4	1.9	1.8	0.6	100.0 (1,387)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의 경우 상용직이 64.9%, 사업자가 17.9%(자영업 11.9%, 고용주 6.0%), 임시직 10.6%, 무급가족 종사자 5.0%, 일용직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시 상용직이 75.9%로 가장 높고, 사업자가 18.7%(자영업 10.5%, 고용주 8.2%), 임시직 3.1%, 일용직 1.6%, 무급가족 종사자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27〉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어머니	64.9	10.6	1.7	6.0	11.9	5.0	100.0(694)
아버지	75.9	3.1	1.6	8.2	10.5	0.7	100.0(1,246)

어머니 근무일과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평균 7.43시간, 주말에는 1.7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1주일 전체로 보면 5.03일, 평균 37.79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근무일, 근로시간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근무일수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순으로 근무일이 많았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근무일수가 많았다. 근로시간은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대졸이상이 가장 근로시간이 짧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8〉 어머니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명)

구분	근무일			근로 시간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주중 평균	4.77	0.73	-	7.43	2.18	-
주말 평균	0.27	0.52	-	1.71	3.25	-
1주일 전체	5.03	0.87	-	37.79	13.70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04	0.72		37.46	11.78	
첫째	4.97	0.75	1.84	36.82	13.57	2.27
둘째 이상	5.07	0.95		38.42	14.14	
모 학력						
고졸이하	5.37 ^c	0.63		41.31 ^b	13.38	
전문대졸	5.15 ^b	0.77	31.59 ^{***}	38.55 ^b	13.77	10.78 ^{***}
대졸이상	4.79 ^a	0.94		35.55 ^a	13.3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17	0.90		37.43	13.97	
341~400만원	5.00	1.00	1.84	36.18	15.21	0.81
401~530만원	4.98	0.86		36.45	14.23	
531만원 이상	5.04	0.77		39.91	11.95	
지역						
대도시	4.99 ^a	0.98		37.10	13.79	
중소도시	4.98 ^b	0.78	4.79 [*]	37.35	13.55	2.34
읍면지역	5.28 ^c	0.70		40.73	13.45	

주: 근무일이 '0'일 경우는 제외함. 평균비교는 '1주일 전체'로 진행

* $p < .05$, *** $p < .001$.

마. 양육 특성

1) 부모됨

가) 후속출산 계획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92.1%로 대다수이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7% 나왔으며, 후속 출산을 하겠다는 응답이 1.7%, 현재 임신 중인 경우는 1.5% 집계되었다. 후속 출산 계획 여부는 아동의 출생 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비슷하게 분포되었는데, 우선 패널 아동이 외동아인 경우 낳지 않겠다는 경우가 74.6%로 가장 적고, 첫째인 경우 92.2% 둘째 이상인 경우가 96.2%로 가장 많았다.

〈표 II-4-29〉 후속출산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임신중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1.5	1.7	92.1	4.7	100.0(1,554)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4	8.5	74.6	13.5	100.0(178)	
첫째	1.3	1.1	92.2	5.4	100.0(547)	104.46(6)***
둘째 이상	1.1	0.6	96.2	2.1	100.0(829)	
모 취업 여부						
취업	1.8	2.2	91.5	4.5	100.0(676)	
미취업	1.3	1.3	92.7	4.8	100.0(856)	2.60(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4	0.8	90.2	6.6	100.0(390)	
341~400만원	1.1	2.1	92.1	4.7	100.0(385)	
401~530만원	1.9	3.1	90.8	4.3	100.0(383)	11.01(9)
531만원 이상	0.5	1.0	95.0	3.5	100.0(380)	

*** $p < .001$.

어머니가 더 이상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38.5%가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18.9%가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 비용 등), 13.6%가 나이가 많아서, 9.2%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9.0%가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순이었다. 그 외 의견으로 자녀 양육비용,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취업 중인 어머니와 미취업 어머니 모두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이나, 취업 중인 집단은 직장/학업과 육아 병행이 어려워, 자녀교육비용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 집단은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30〉 후속출산 미계획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chi^2(df)$
전체	6.8	18.9	9.0	2.6	38.5	13.6	9.2	0.7	0.9	100.0(1,502)	-
모 취업 여부											
취업	6.9	15.4	18.1	1.6	35.1	11.7	9.2	0.8	1.1	100.0(649)	118.20(8)***
미취업	6.8	21.4	2.2	3.3	40.9	15.1	9.1	0.7	0.7	100.0(832)	

(표 II-4-30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chi^2(df)$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8.9	20.9	6.2	2.7	36.1	13.4	9.5	0.4	1.9	100.0(377)	82.86(24)***
341~400만원	7.7	23.4	4.1	2.7	37.3	12.9	11.2	0.5	0.2	100.0(371)	
401~530만원	5.1	18.5	9.3	2.1	42.8	12.8	8.6	0.2	0.6	100.0(366)	
531만원 이상	4.8	12.3	16.8	2.0	39.4	15.6	7.4	1.7	0.0	100.0(372)	
지역											
대도시	7.6	19.9	10.6	2.8	36.4	12.5	8.4	1.1	0.7	100.0(636)	24.017(16)
중소도시	7.5	17.0	7.4	2.8	41.6	14.7	8.1	0.3	0.6	100.0(618)	
읍면지역	2.7	20.6	8.9	1.2	36.4	13.6	13.9	0.6	2.1	100.0(248)	

주: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 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 $p < .001$.

후속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된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1명이 89.5%, 3명이 5.7%, 2명이 4.7%로 나타났다.

〈표 II-4-31〉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1명	2명	3명	4명		
전체	89.5	4.7	5.7	0.0	100.0(52)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94.7	5.3	0.0	0.0	100.0(22)	7.25(4)
첫째	71.9	8.2	19.9	0.0	100.0(16)	
둘째 이상	100.0	0.0	0.0	0.0	100.0(14)	

나) 이상 자녀수와 기대 성별

이상적인 자녀수는 어머니의 경우 2명이 60.1%, 3명이 24.9%, 4명이 9.3%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고, 아버지의 경우 2명이 58.5%, 3명이 30.5%, 4명이 4.7% 순으로 순위는 동일하게 응답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취업여부, 학력, 가구 소득, 지역규모 간에도 차이 없이 2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 비율이 가장 많다.

〈표 II-4-32〉 이상 자녀수

단위: %(명)

구분	무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잘모름	계(수)	$\chi^2(df)$
어머니	0.3	3.7	60.1	24.9	9.3	0.2	1.5	100.0(1,554)	-
모 취업 여부									
취업	0.6	2.9	60.0	24.9	9.5	0.4	1.8	100.0(676)	6.32(6)
미취업	0.2	4.5	60.0	25.0	9.1	0.1	1.2	100.0(856)	
모 학력									
고졸이하	0.8	3.6	57.1	27.2	9.8	0.3	1.2	100.0(450)	17.60(12)
전문대졸	0.4	4.4	56.4	29.1	8.4	0.5	0.8	100.0(429)	
대졸이상	0.0	3.5	64.2	20.8	9.5	0.0	2.1	100.0(67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1	2.8	55.0	28.4	12.5	0.4	0.9	100.0(390)	23.54(18)
341~400만원	0.4	3.7	63.1	21.2	8.8	0.0	2.8	100.0(385)	
401~530만원	0.8	5.3	61.5	24.5	6.1	0.3	1.5	100.0(383)	
531만원 이상	0.0	2.6	61.7	25.0	9.7	0.2	0.9	100.0(380)	
지역									
대도시	0.5	3.8	62.8	23.9	7.2	0.1	1.6	100.0(657)	13.54(12)
읍면지역	0.6	4.2	55.9	26.7	11.2	0.3	1.1	100.0(254)	
중소도시	0.0	3.4	59.0	25.1	10.6	0.3	1.6	100.0(643)	
아버지	0.3	4.1	58.5	30.5	4.7	0.7	1.2	100.0(1,469)	-
모 취업 여부									
취업	0.3	2.8	58.8	31.6	5.1	0.7	0.8	100.0(632)	6.64(6)
미취업	0.3	5.1	57.8	30.1	4.5	0.7	1.6	100.0(809)	
부 학력									
고졸이하	0.1	4.7	57.4	29.6	4.3	1.5	2.5	100.0(398)	14.06(12)
전문대졸	0.6	5.3	53.9	35.4	4.3	0.2	0.4	100.0(302)	
대졸이상	0.2	3.0	62.1	28.1	5.2	0.6	0.9	100.0(76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1	5.8	50.6	34.2	6.6	1.0	1.6	100.0(364)	21.74(18)
341~400만원	0.7	4.5	62.1	25.6	3.9	1.4	1.8	100.0(366)	
401~530만원	0.3	2.9	61.3	30.9	3.5	0.4	0.7	100.0(369)	
531만원 이상	0.0	2.6	59.6	32.3	4.6	0.2	0.7	100.0(357)	
지역									
대도시	0.3	4.1	60.3	30.7	3.4	0.7	0.5	100.0(611)	7.54(12)
중소도시	0.0	3.8	55.3	33.5	5.5	0.3	1.6	100.0(243)	
읍면지역	0.4	4.2	58.0	29.1	5.6	1.0	1.7	100.0(615)	

이상 자녀 수 외에 실제로 기대하는 자녀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4-33〉 기대 자녀수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1.9	0.82	(498)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54 ^a	0.69	(44)	5.14**
첫째	1.84 ^b	0.84	(164)	
둘째 이상	1.99 ^b	0.80	(290)	
모 취업 여부				
취업	1.93	0.82	(228)	-1.03
미취업	1.87	0.81	(265)	
모 학력				
고졸이하	1.94	0.79	(174)	1.38
전문대졸	1.81	0.81	(147)	
대졸이상	1.93	0.83	(17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98	0.82	(142)	2.52
341~400만원	1.79	0.84	(121)	
401~530만원	1.82	0.79	(109)	
531만원 이상	1.97	0.80	(121)	
지역				
대도시	1.83	0.81	(181)	0.31
읍면지역	1.95	0.82	(97)	
중소도시	1.93	0.82	(220)	

** $p < .01$.

기대성별에 대해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어머니 65.0%, 아버지 61.1%로 부모 모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성별을 구분해서 원한다는 응답은 어머니의 경우 31.6%, 아버지의 경우 36.7%로 나타났다.

〈표 II-4-34〉 자녀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동성으로/잘 모름	계(수)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동성으로/잘 모름	계(수)
전체	65.0	31.6	3.3	100.0(1,523)	61.1	36.7	2.1	100.0(1,450)

2) 양육실제

패널 어머니가 패널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행동의 온정성은 5점 만점

에 3.70점이며 통제성은 3.58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온정성 3.60점, 통제성 3.41점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온정성이 높고, 어머니에게서 온정성과 통제성 모두 다소 높게 응답되었다. 자녀 특성별로 보면, 어머니의 경우 남아를 조금 더 통제적으로, 그리고 외동아를 첫째나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더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온정성이 높았으며,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이하 집단 간 차이가, 또한 340만원 이하, 341만원에서 530만원, 531만원 이상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딸보다 통제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며, 온정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온정성은 외동에게서 가장 높고 첫째, 둘째 이상의 순이나, 외동과 둘째 이상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통제성은 첫째, 둘째이상, 외동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와 외동아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과 가구 소득별로 온정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온정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간 차이가, 가구 소득별로는 530만원 이하와 531만원 이상 집단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II-4-35〉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온정적		통제적		(수)	온정적		통제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0	0.57	3.58	0.51	(1,556)	3.60	0.61	3.41	0.57	(1,469)
아동 성별										
남	3.70	0.58	3.62	0.52	(792)	3.58	0.61	3.45	0.57	(752)
여	3.71	0.56	3.53	0.49	(764)	3.62	0.62	3.37	0.58	(717)
<i>t</i>	-0.16		2.12*			-0.70		2.35*		
아동 출생순위										
외동	3.86 ^b	0.60	3.54	0.54	(178)	3.69 ^b	0.57	3.34 ^a	0.52	(163)
첫째	3.66 ^a	0.57	3.60	0.50	(547)	3.62 ^{ab}	0.60	3.44 ^b	0.57	(520)
둘째 이상	3.70 ^a	0.55	3.57	0.51	(831)	3.57 ^a	0.63	3.41 ^{ab}	0.59	(786)
<i>F</i>	7.58*		2.52			3.82*		3.55*		
모 취업 여부										
취업	3.71	0.56	3.54	0.50	(677)	3.61	0.61	3.40	0.57	(632)
미취업	3.70	0.57	3.60	0.51	(856)	3.59	0.62	3.41	0.58	(809)
<i>t</i>	-1.10		1.92			0.34		0.04		

(표 II-4-35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온정적		통제적		(수)	온정적		통제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 학력										
고졸이하	3.60 ^a	0.61	3.54	0.51	(451)	3.42 ^a	0.63	3.37	0.58	(398)
전문대졸	3.70 ^b	0.56	3.53	0.50	(429)	3.54 ^b	0.58	3.41	0.57	(302)
대졸이상	3.76 ^c	0.53	3.63	0.51	(673)	3.71 ^c	0.59	3.43	0.57	(761)
F	14.77 ^{***}		2.20			30.82 ^{***}		2.0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64 ^a	0.55	3.56	0.49	(391)	3.56 ^a	0.63	3.43	0.59	(364)
341~400만원	3.68 ^b	0.55	3.58	0.47	(385)	3.53 ^a	0.62	3.41	0.57	(366)
401~530만원	3.71 ^b	0.60	3.56	0.54	(384)	3.58 ^a	0.55	3.39	0.53	(369)
531만원 이상	3.79 ^c	0.56	3.60	0.54	(380)	3.76 ^b	0.62	3.42	0.60	(357)
F	6.54 ^{***}		0.72			13.28 ^{***}		0.63		

* $p < .05$, *** $p < .001$.

부모 양육스트레스는 5점 만점 기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어머니 2.42점, 아버지 2.21점으로 어머니가 다소 더 높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첫째 어머니가 가장 높고, 둘째 이상과 외동의 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첫째와의 차이만 유의미하다. 또한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간, 가구 소득별로는 531만원 이상 집단과 401만원에서 530만원 이하 집단, 340만원 이하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출생순위에 따라 외동을 키울 경우 가장 낮고, 둘째 이상과 첫째아의 경우 이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학력과 가구 소득별로는 어머니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 어머니 취업여부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4-3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42	0.68	(1,556)	-	2.21	0.63	(1,469)	-
아동 성별								
남	2.44	0.69	(792)	0.39	2.24	0.63	(752)	1.61
여	2.40	0.67	(764)		2.17	0.63	(717)	

(표 II-4-36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아동 출생순위								
외동	2.30 ^a	0.69	(178)		2.07 ^a	0.65	(163)	
첫째	2.51 ^b	0.68	(547)	8.24 ^{***}	2.24 ^b	0.62	(520)	3.47 [*]
둘째 이상	2.38 ^a	0.68	(831)		2.21 ^b	0.63	(786)	
모 취업 여부								
취업	2.40	0.68	(677)	0.92	2.20	0.63	(632)	0.37
미취업	2.44	0.69	(856)		2.20	0.63	(809)	
부모 학력								
고졸이하	2.55 ^b	0.74	(451)		2.35 ^c	0.64	(398)	
전문대졸	2.40 ^a	0.65	(429)	14.16 ^{***}	2.23 ^b	0.62	(302)	18.32 ^{***}
대졸이상	2.36 ^a	0.66	(673)		2.13 ^a	0.62	(76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52 ^c	0.71	(391)		2.29 ^c	0.61	(364)	
341~400만원	2.46 ^{bc}	0.66	(385)	9.62 ^{***}	2.27 ^{bc}	0.65	(366)	14.29 ^{***}
401~530만원	2.42 ^b	0.70	(384)		2.19 ^b	0.59	(369)	
531만원 이상	2.29 ^a	0.66	(380)		2.07 ^a	0.64	(357)	
지역								
대도시	2.44	0.70	(658)		2.25	0.62	(611)	
중소도시	2.41	0.69	(643)	0.23	2.15	0.64	(615)	2.42
읍면지역	2.41	0.64	(255)		2.22	0.64	(243)	

* $p < .05$, *** $p < .001$.

다음으로는 부부가 함께 아이와 있거나 배우자 부재 시에 가족통합, 훈육, 비난, 갈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공동 양육에 대해 조사하였다.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 가족통합과 관련한 양육행동(예. 아이에게 신체적 애정표현을 한다)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5.34점, 아버지는 5.14점으로 응답하였으며, 훈육(예.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남편(또는 아내)보다는 내가 한다)은 어머니 4.85점, 아버지는 4.49점으로 나타났다. 가족통합과 훈육 각각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이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통합은 부모 자신의 학력과 소득, 훈육은 가구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통합과 관련해서 어머니는 전문대졸,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 보다 높았으며,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이 큰 가운데 340만원 이하 집단, 401만원 이상 530만원 이하, 531만원 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역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통합과 관련된 점수가 높았으며, 학력별로 전문대졸,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 보다 점수가 높았고, 소득별로 530만원 이하 집단에 비해 531만원 이상 집단에서 가족통합에 대한 역할 점수가 높았다. 훈육은 어머니 집단에서만 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340만원 이하 집단에 비해 341만원 이상 집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4-37〉 부모의 공동 양육: 가족통합, 훈육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가족통합		훈육		(수)	가족통합		훈육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34	0.93	4.85	0.77	(1,553)	5.14	1.03	4.49	0.77	(1,468)
아동 성별										
남	5.36	0.94	4.86	0.77	(788)	5.11	1.04	4.51	0.75	(752)
여	5.32	0.91	4.84	0.77	(764)	5.17	1.02	4.46	0.79	(716)
<i>t</i>	0.75		0.56			-0.85		0.70		
아동 출생순위										
외동	5.42	0.86	4.81	0.72	(178)	5.17	1.01	4.48	0.76	(163)
첫째	5.31	0.94	4.85	0.77	(546)	5.16	1.01	4.47	0.79	(520)
둘째 이상	5.35	0.93	4.86	0.79	(829)	5.12	1.05	4.50	0.75	(785)
<i>F</i>	0.89		0.11			0.57		0.13		
모 취업 여부										
취업	5.33	0.96	4.87	0.80	(670)	5.14	1.03	4.52	0.78	(632)
미취업	5.34	0.90	4.83	0.75	(854)	5.14	1.03	4.47	0.77	(809)
<i>t</i>	0.52		0.12			-0.20		-1.22		
부모 학력										
고졸이하	5.18 ^a	1.01	4.81	0.87	(450)	4.90 ^a	1.04	4.44	0.81	(398)
전문대졸	5.38 ^b	0.86	4.88	0.74	(428)	5.10 ^b	0.99	4.52	0.75	(301)
대졸이상	5.41 ^b	0.90	4.85	0.72	(673)	5.27 ^c	1.01	4.50	0.75	(761)
<i>F</i>	9.25 ^{***}		1.70			13.03 ^{***}		1.1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23 ^a	0.94	4.77 ^a	0.81	(388)	5.01 ^a	1.05	4.48	0.84	(363)
341~400만원	5.31 ^{ab}	0.88	4.87 ^b	0.77	(385)	5.01 ^a	1.04	4.46	0.76	(366)
401~530만원	5.35 ^b	0.91	4.87 ^b	0.76	(384)	5.15 ^a	0.97	4.45	0.72	(369)
531만원 이상	5.50 ^c	0.94	4.87 ^b	0.73	(380)	5.40 ^b	0.10	4.57	0.75	(357)
<i>F</i>	8.69 ^{***}		3.06 [*]			13.53 ^{***}		1.08		

* $p < .05$, *** $p < .001$.

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비난(예. 아이가 남편(또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한다)과 관련한 양육에 대해서는 어머니 3.04점, 아버지 3.08점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예. 남편(또는 아내)과 언쟁(말싸움)

을 한다)은 어머니 2.76점, 아버지 2.80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비난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 어머니보다 점수가 낮았고, 가구 소득별로도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여 401만원 이상 집단이 340만원 이하 집단에 비해 비난 관련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자녀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패널 자녀가 첫째인 경우 둘째에 비해 비난 점수가 낮았고,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난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여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이하 아버지에 비해 비난 관련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관련해서 아버지 집단에서만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비난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여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이하 아버지에 비해 갈등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8〉 부모의 공동 양육: 비난,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비난		갈등		(수)	비난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4	1.08	2.76	1.41	(1,553)	3.08	0.94	2.80	1.31	(1,468)
아동 성별										
남	3.05	1.09	2.73	1.40	(788)	3.04	0.95	2.80	1.31	(752)
여	3.03	1.07	2.79	1.41	(764)	3.11	0.92	2.80	1.30	(716)
<i>t</i>	0.27		-1.57			-1.37		0.03		
아동 출생순위										
외동	3.00	1.11	2.86	1.49	(178)	3.19 ^{ab}	0.89	2.81	1.38	(163)
첫째	3.02	1.09	2.75	1.40	(546)	2.98 ^a	0.94	2.79	1.30	(520)
둘째 이상	3.06	1.06	2.75	1.40	(829)	3.12 ^b	0.94	2.81	1.30	(785)
<i>F</i>	1.82		0.44			4.39 [*]		0.24		
모 취업 여부										
취업	3.07	1.07	2.86	1.46	(670)	3.10	0.98	2.85	1.32	(632)
미취업	3.02	1.07	2.69	1.36	(854)	3.05	0.91	2.76	1.29	(809)
<i>t</i>	-0.87		-1.80			-0.94		-0.95		
부모 학력										
고졸이하	3.17 ^b	1.09	2.83	1.41	(450)	3.18 ^b	0.86	2.91 ^b	1.31	(398)
전문대졸	3.00 ^a	1.04	2.65	1.31	(428)	3.13 ^a	0.93	2.89 ^{ab}	1.32	(301)
대졸이상	2.99 ^a	1.09	2.79	1.46	(673)	3.01 ^a	0.97	2.72 ^a	1.30	(761)
<i>F</i>	6.80 ^{**}		2.32			5.84 ^{**}		4.38 [*]		

(표 II-4-38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비난		갈등		(수)	비난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21 ^b	1.10	2.83	1.40	(388)	3.08	0.95	2.78	1.33	(363)
341~400만원	3.04 ^{ab}	1.02	2.79	1.30	(385)	3.16	0.98	2.89	1.31	(366)
401~530만원	2.97 ^a	1.01	2.60	1.36	(384)	2.96	0.82	2.76	1.21	(369)
531만원 이상	2.93 ^a	1.15	2.81	1.51	(380)	3.09	0.99	2.76	1.36	(357)
F	4.91 ^{**}		1.78			2.38		1.01		

* $p < .05$, ** $p < .01$.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종류별로 1주일에 얼마나 하는지 빈도로 조사하였다. 우선 이야기해주는 주 1~2번이 36.3%, 주 3~6번이 31.8%, 매일은 27.2%,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4.8%로 집계됐으며, 아동 출생순위와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차이를 보였다. 출생순위별로는 외동에게서는 주 3~6번이 36.4%로 가장 많은 반면, 첫째와 둘째 이상은 주 1~2번이 36.5%, 38.6%로 가장 많고, 매일 한다는 응답이 외동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둘째 이상에게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로 외동 2.9%, 첫째 2.5%에 비해 높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매일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 보다 높다. 함께 노래부르는 주 1~2번이 50.9%, 주 3~6번이 25.0%, 전혀 안함 16.7%, 매일함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출생 순위,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아인 경우 남아에 비해 조금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이며,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1~2번이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이거나, 둘째 이상에서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동에게서 매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미취업모의 경우 매일 한다는 응답이 취업모보다 높았으며 전혀 안한다는 비율도 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4-39〉 모-자녀 상호작용 1: 이야기 해주기 및 함께 노래 부르기

단위: %(명)

구분	이야기 해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4.8	36.3	31.8	27.2	16.7	50.9	25.0	7.4	100.0(1,556)
아동 성별									
남	4.7	36.3	31.6	27.5	19.5	50.5	23.1	7.0	100.0(792)
여	4.9	36.2	32.0	26.8	13.8	51.3	27.1	7.8	100.0(764)
$\chi^2(df)$	0.12(3)				9.99(3)*				

(표 II-4-39 계속)

구분	이야기 해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아동 출생순위									
외동	2.9	25.7	36.4	35.1	14.8	39.3	33.2	12.7	100.0(178)
첫째	2.5	36.5	33.4	27.6	11.6	52.3	27.6	8.5	100.0(547)
둘째 이상	7.0	38.6	29.5	25.0	21.0	52.6	21.2	5.3	100.0(831)
$\chi^2(df)$	22.80(6)**				38.19(6)***				
모 취업 여부									
취업	6.4	34.6	32.9	26.1	20.3	46.8	26.0	6.9	100.0(677)
미취업	3.7	37.9	30.6	27.8	14.1	54.0	24.3	7.6	100.0(856)
$\chi^2(df)$	5.58(3)				11.03(3)*				
모 학력									
고졸이하	4.3	43.0	31.6	21.1	17.6	52.0	23.0	7.3	100.0(451)
전문대졸	4.9	39.2	29.2	26.7	17.8	49.2	27.4	5.6	100.0(429)
대졸이상	5.0	30.4	33.5	31.1	15.5	51.2	24.8	8.5	100.0(673)
$\chi^2(df)$	22.13(6)**				9.39(6)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4	44.2	26.8	22.6	14.3	56.5	22.6	6.6	100.0(391)
341~400만원	4.0	36.9	32.8	26.3	15.3	52.4	25.2	7.0	100.0(385)
401~530만원	5.3	32.9	32.0	29.9	18.4	50.2	22.9	8.5	100.0(384)
531만원 이상	3.6	32.0	34.8	29.6	18.9	45.9	28.1	7.1	100.0(380)
$\chi^2(df)$	23.69(9)**				10.51(9)				
지역									
대도시	5.9	35.2	31.8	27.1	5.9	35.2	31.8	27.1	100.0(658)
읍면지역	3.3	40.4	32.8	23.5	3.3	40.4	32.8	23.5	100.0(255)
중소도시	4.2	35.7	31.4	28.7	4.2	35.7	31.4	28.7	100.0(643)
$\chi^2(df)$	4.90(6)				6.67(6)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미술 만들기/도와주기는 주 1~2번이 59.4%로 가장 많았고, 전혀안함 19.0%, 주 3~6번 18.2%, 매일함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보다 여아와 미술 만들기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1~2번이 가장 많은 것이 공통적이거나, 둘째 이상에서 활동을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동에게서 매일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해당 활동을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함께하는 주 1~2번이 55.1%로 가장 많고 주 3~6번은 27.7%, 매일함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여아와 해당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4-40〉 모-자녀 상호작용 2: 미술/만들기 도와주기 및 집안일 함께하기

단위: %(명)

구분	미술/만들기 도와주기				집안일 함께하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19.0	59.4	18.2	3.5	8.4	55.1	27.7	8.8	100.0(1,556)
아동 성별									
남	22.9	58.4	16.2	2.5	10.0	58.2	23.9	7.9	100.0(792)
여	14.8	60.4	20.3	4.5	6.7	51.9	31.7	9.8	100.0(764)
$\chi^2(df)$	16.59(3)**				10.13(3)*				
아동 출생순위									
외동	16.2	60.8	16.9	6.2	11.2	56.0	25.4	7.3	100.0(178)
첫째	14.5	62.9	20.1	2.4	7.1	57.7	27.3	7.9	100.0(547)
둘째 이상	23.0	56.3	17.1	3.6	8.6	53.0	28.6	9.8	100.0(831)
$\chi^2(df)$	24.10(6)**				7.37(6)				
모 취업 여부									
취업	22.1	55.3	18.9	3.7	9.6	54.1	27.7	8.7	100.0(677)
미취업	16.7	62.1	17.9	3.4	7.5	55.5	27.8	9.1	100.0(856)
$\chi^2(df)$	4.35(3)				0.66(3)				
모 학력									
고졸이하	25.6	55.1	15.3	3.9	6.2	55.5	28.0	10.2	100.0(451)
전문대졸	15.6	61.0	20.6	2.7	9.4	51.8	31.2	7.6	100.0(429)
대졸이상	16.9	61.0	18.4	3.7	9.1	56.8	25.4	8.7	100.0(673)
$\chi^2(df)$	15.20(6)*				8.78(6)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8.7	64.1	14.2	3.1	5.8	55.3	29.4	9.5	100.0(391)
341~400만원	20.6	57.6	19.3	2.4	8.6	51.0	30.5	9.9	100.0(385)
401~530만원	19.9	55.4	20.3	4.4	8.1	59.4	24.5	8.0	100.0(384)
531만원 이상	17.1	60.5	19.2	3.2	11.4	54.9	26.3	7.4	100.0(380)
$\chi^2(df)$	8.57(9)				10.54(9)				
지역									
대도시	18.3	60.2	18.0	3.4	8.4	52.2	29.8	9.7	100.0(658)
읍면지역	14.8	64.8	17.2	3.2	6.7	56.4	28.5	8.4	100.0(255)
중소도시	21.3	56.3	18.8	3.7	9.0	57.6	25.3	8.0	100.0(643)
$\chi^2(df)$	3.98(6)				4.61(6)				

* $p < .05$, ** $p < .01$, *** $p < .001$.

퍼즐이나 게임하기는 주 1~2번이 56.4%, 전혀 안함이 27%, 주 3~6번이 14.5%, 매일함이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 응답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주 1~2번 응답비율이 다른 빈도에 비해 높은 것은 공통적이나, 첫째에게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나며, 다른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둘째

이상에서 전혀 안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 3~6회 한다는 응답은 낮다는 것, 그리고 매일 한다는 응답은 외동에게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연 이야기 및 과학놀이하기의 경우도 주 1~2번이 5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고 전혀 안한다는 응답은 25.8%, 3~6번 14.5%, 매일함 2.3% 순이었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에게서 매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5.9%) 둘째 이상에게서는 전혀 안한다는 비율(31.0%)이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첫째에게서 주 1~2번(61.7%), 주 3~6번 한다는 비율(16.2%)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4-41〉 모-자녀 상호작용 3: 퍼즐·게임 및 자연에 대한 이야기, 과학 놀이하기

단위: %(명)

구분	함께 퍼즐·게임하기				자연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27.0	56.4	14.5	2.1	25.8	57.3	14.5	2.3	100.0(1,556)
아동 성별									
남	27.0	54.7	16.2	2.1	26.2	55.2	15.9	2.7	100.0(792)
여	27.1	58.1	12.7	2.2	25.5	59.5	13.1	1.9	100.0(764)
$\chi^2(df)$	5.53(3)				6.15(3)				
아동 출생순위									
외동	21.3	54.7	20.5	3.4	21.0	57.4	15.8	5.9	100.0(178)
첫째	20.4	61.9	15.9	1.9	20.5	61.7	16.2	1.6	100.0(547)
둘째 이상	33.4	52.6	12.0	2.0	31.0	54.0	13.0	2.0	100.0(831)
$\chi^2(df)$	31.97(6) ^{***}				30.41(6) ^{***}				
모 취업 여부									
취업	29.9	52.9	15.1	2.1	28.2	54.9	14.2	2.7	100.0(677)
미취업	25.0	58.6	14.3	2.2	23.9	59.0	15.0	2.1	100.0(856)
$\chi^2(df)$	3.04(3)				0.71(3)				
모 학력									
고졸이하	30.0	56.0	11.7	2.4	29.4	54.8	13.5	2.3	100.0(451)
전문대졸	24.7	56.4	17.0	1.9	24.2	61.6	12.8	1.4	100.0(429)
대졸이상	26.6	56.5	14.7	2.1	24.5	56.3	16.3	2.9	100.0(673)
$\chi^2(df)$	7.12(6)				12.40(6)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7.5	56.0	14.6	1.9	27.1	55.2	16.2	1.5	100.0(391)
341~400만원	25.7	56.7	15.3	2.3	24.2	59.9	13.0	2.9	100.0(385)
401~530만원	28.0	56.0	13.4	2.7	27.1	54.0	16.7	2.2	100.0(384)
531만원 이상	26.0	58.9	14.0	1.0	25.1	60.6	12.4	1.9	100.0(380)
$\chi^2(df)$	3.07(9)				6.97(9)				

(표 II-4-41 계속)

구분	함께 퍼즐·게임하기				자연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지역									
대도시	25.7	56.9	14.9	2.5	24.3	58.9	14.7	2.2	100.0(658)
읍면지역	30.1	52.9	15.2	1.8	28.3	54.3	14.1	3.4	100.0(255)
중소도시	27.2	57.2	13.7	1.9	26.5	56.9	14.6	2.0	100.0(643)
$\chi^2(df)$	6.67(6)				3.75(6)				

*** $p < .001$.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는 주 1~2번이 48.6%, 전혀 안함이 37.9%, 주 3~6번 11.5%, 매일 한다는 응답이 2.0%였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다. 첫째에게 주 1~2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둘째 이상에게 전혀 안함의 비율이 높고, 주 3~6회 한다는 비율이 낮으며, 외동에게서 매일한다는 응답이 높다.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는 주에 1~2번이 50.6%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고 전혀 안한다는 응답은 29.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동 출생순위와 어머니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외동에게서 매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둘째 이상에게서는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첫째에게서 주 1~2번, 주 3~6번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에서 주 1~2번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주 3~6회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4-42〉 모-자녀 상호작용 4: 조립용완구 및 운동하기

단위: %(명)

구분	함께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37.9	48.6	11.5	2.0	29.6	50.6	16.8	3.0	100.0(1,556)
아동 성별									
남	37.6	47.0	13.6	1.8	29.8	50.6	16.6	3.0	100.0(792)
여	38.3	50.2	9.3	2.2	29.4	50.5	17.1	3.0	100.0(764)
$\chi^2(df)$	5.67(3)				0.48(3)				
아동 출생순위									
외동	31.8	46.8	16.2	5.2	21.2	55.0	17.0	6.8	100.0(178)
첫째	32.3	52.3	13.8	1.6	23.3	55.9	18.5	2.3	100.0(547)
둘째 이상	43.6	46.2	8.7	1.5	36.4	45.5	15.5	2.5	100.0(831)
$\chi^2(df)$	37.24(6)***				34.83(6)***				

(표 II-4-42 계속)

구분	함께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모 취업 여부									
취업	38.5	47.7	10.7	3.2	31.9	48.0	16.8	3.3	100.0(677)
미취업	37.4	49.4	12.1	1.2	27.9	52.0	17.3	2.8	100.0(856)
$\chi^2(df)$	3.03(3)				1.91(3)				
모 학력									
고졸이하	38.1	46.4	14.1	1.3	33.4	42.1	21.2	3.3	100.0(451)
전문대졸	35.8	51.7	10.2	2.3	30.5	48.6	18.9	2.0	100.0(429)
대졸이상	38.9	48.1	10.7	2.3	26.8	56.8	13.0	3.4	100.0(673)
$\chi^2(df)$	6.27(6)				17.66(6)**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9.9	46.1	12.7	1.3	29.6	49.7	17.2	3.5	100.0(391)
341~400만원	34.6	52.5	10.9	2.0	30.3	46.2	19.8	3.6	100.0(385)
401~530만원	39.6	46.7	11.3	2.4	30.7	51.3	15.5	2.6	100.0(384)
531만원 이상	37.3	50.6	9.7	2.4	28.3	55.8	13.8	2.1	100.0(380)
$\chi^2(df)$	7.01(9)				6.31(9)				
지역									
대도시	35.4	50.0	12.7	1.9	29.5	49.2	17.7	3.5	100.0(658)
읍면지역	39.5	48.8	10.6	1.1	32.3	51.9	14.0	1.8	100.0(255)
중소도시	39.9	47.0	10.6	2.4	28.6	51.5	17.0	2.9	100.0(643)
$\chi^2(df)$	5.27(6)				4.04(6)				

** $p < .01$, *** $p < .001$.

아이와 읽기, 쓰기, 숫자를 익힘의 경우 주 1~2번이 40.0%, 주 3~6번은 35.3% 순이었다. 아동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와 해당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며, 외동에게서 주 3~6회, 매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둘째 이상에게서 주 1~2번, 전혀 안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해당 활동을 더 자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책 읽어주기는 주 1~2번이 45.7%, 3~6번이 22.1%, 전혀 안함이 18.5%, 매일 책 읽어주는 비율은 13.7%순이었다.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 1~2번이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이거나, 외동이나 첫째는 주 3~6회 책 읽어주는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반면 둘째에게서 전혀 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비율이 24.6%로 2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요 차이로 보인다. 매일 책 읽어주는 비율도 둘째는 8.3%로 차이가 크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전혀 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반대로 주 3~6회, 매일 책 읽어준다는 비율은 낮다.

〈표 II-4-43〉 모-자녀 상호작용 5: 아이와 읽기, 쓰기, 숫자를 익힘 및 책 읽어주기

단위: %(명)

구분	아이와 읽기, 쓰기, 숫자를 익힘				책 읽어주기				계(수)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6.8	40.0	35.3	17.9	18.5	45.7	22.1	13.7	100.0(1,556)
아동 성별									
남	6.0	37.4	36.2	20.4	17.4	43.9	24.1	14.6	100.0(792)
여	7.7	42.8	34.2	15.2	19.7	47.5	20.1	12.8	100.0(764)
$\chi^2(df)$	10.39(3)*				7.82(3)				
아동 출생순위									
외동	5.6	27.3	42.2	24.9	13.3	42.6	24.1	20.0	100.0(178)
첫째	4.7	37.8	37.9	19.6	12.0	45.8	23.2	18.9	100.0(547)
둘째 이상	8.7	44.7	31.6	15.0	24.6	46.3	20.9	8.3	100.0(831)
$\chi^2(df)$	30.97(6)**				63.54(6)**				
모 취업 여부									
취업	7.9	41.4	35.0	15.7	21.2	44.9	21.3	12.6	100.0(677)
미취업	5.9	39.0	35.4	19.6	16.5	46.3	22.8	14.5	100.0(856)
$\chi^2(df)$	2.20(3)				1.60(3)				
모 학력									
고졸이하	9.3	44.7	33.1	12.9	24.5	49.2	18.1	8.1	100.0(451)
전문대졸	6.9	41.5	34.4	17.2	18.9	46.8	23.3	11.1	100.0(429)
대졸이상	5.2	36.3	37.1	21.4	14.4	42.9	24.0	18.8	100.0(673)
$\chi^2(df)$	16.63(6)*				43.68(6)**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8.4	40.8	35.0	15.9	20.6	47.5	19.6	12.2	100.0(391)
341~400만원	6.4	38.5	35.1	20.1	16.4	49.0	19.5	15.1	100.0(385)
401~530만원	5.5	39.5	36.6	18.5	16.6	44.3	25.5	13.6	100.0(384)
531만원 이상	6.5	41.3	35.3	17.0	19.3	42.0	24.2	14.5	100.0(380)
$\chi^2(df)$	8.49(9)				14.81(9)				
지역									
대도시	7.0	37.2	37.1	18.7	15.0	47.8	24.0	13.2	100.0(658)
읍면지역	7.7	45.2	32.4	14.6	24.6	43.6	19.3	12.5	100.0(255)
중소도시	6.3	40.9	34.5	18.3	19.6	44.3	21.2	14.8	100.0(643)
$\chi^2(df)$	6.48(6)				10.63(6)				

* $p < .05$, ** $p < .001$.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머니 취업 여부와 지역규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보호자로서의 관리, 감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선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를 조사하였다. 우선 보호자는 평균 8.12명의 친구를 알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취업여부,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를 보인다. 출생순위별로는 외동이나 첫째인 경우 각각 10.12명, 9.1명으로 둘째 이상인 경우 6.92명을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학력 별로는 대졸이상 어머니가 전문대졸 어머니보다, 그리고 전문대졸 어머니는 고졸 이하 어머니보다 아동의 친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친구를 더 많이 아는 경향을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340만원 이하 집단과, 401만원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많이 알고 있다.

〈표 II-4-44〉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단위: 명
전체	8.12	6.55	(1,598)	-	
아동 성별					
남	8.03	6.51	(817)		
여	8.22	6.59	(781)	-0.83	
아동 출생순위					
외동	10.12 ^b	7.93	(183)		
첫째	9.10 ^b	7.23	(560)	24.00***	
둘째 이상	6.92 ^a	5.29	(855)		
모 취업 여부					
취업	7.51	6.13	(694)		
미취업	8.71	6.84	(874)	3.27**	
모 학력					
고졸이하	6.87 ^a	4.82	(463)		
전문대졸	7.66 ^b	6.21	(435)	19.65***	
대졸이상	9.22 ^c	7.45	(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7.21 ^a	5.83	(399)		
341~400만원	8.12 ^{ab}	6.28	(393)		
401~530만원	8.52 ^b	7.04	(395)	4.36**	
531만원 이상	8.65 ^b	6.84	(392)		
지역					
대도시	8.64 ^b	6.82	(678)		
중소도시	8.17 ^b	6.77	(655)	5.57**	
읍면지역	6.68 ^a	4.90	(265)		

** $p < .01$, *** $p < .001$.

하루 중 어른 없이 있는 시간은 평균 1.63시간이며,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

업여부, 소득,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자녀가 외동이거나 첫째인 경우 1.28시간, 1.43시간으로 둘째 이상 1.87시간에 비해 적었으며,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경우 1.82시간, 미취업의 경우 1.49시간으로 취업모 자녀가 어른 없이 있는 시간이 더 길다. 소득별로는 531만원 이상 집단과 341만원~400만원 집단이 적고 340만원 이하 집단에서 더 길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각각 1.71시간, 1.76시간으로 대도시가 1.51시간에 비해 길다.

〈표 II-4-45〉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1.63	0.89	(1,598)	-
아동 성별				
남	1.64	0.88	(817)	1.35
여	1.63	0.91	(781)	
아동 출생순위				
외동	1.28 ^a	0.60	(183)	62.93 ^{***}
첫째	1.43 ^a	0.67	(560)	
둘째 이상	1.87 ^b	1.03	(855)	
모 취업 여부				
취업	1.82	1.02	(694)	-6.92 ^{***}
미취업	1.49	0.76	(87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71 ^b	0.91	(399)	2.93 [*]
341~400만원	1.62 ^a	0.92	(393)	
401~530만원	1.65 ^{ab}	0.91	(395)	
531만원 이상	1.55 ^a	0.84	(392)	
지역				
대도시	1.51 ^a	0.80	(678)	12.80 ^{***}
중소도시	1.71 ^b	0.93	(655)	
읍면지역	1.76 ^b	0.98	(265)	

* $p < .05$, *** $p < .001$.

부모 감독에 관한 것으로 아동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여부와 연락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항상 알고 있거나 항상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응답이 83.1~90.3%로 대부분 감독이 되고 있으며, 보통이나 부정적인 응답은 2%보다 적다. 항목별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항목과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감독 수준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II-4-46〉 부모 감독

단위: %(명)

구분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항상	계(수)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려함	
	않음	않음		편입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0.1	0.2	0.5	8.8	90.3	100.0(1,564)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0.0	0.0	0.2	9.9	89.8	100.0(1,552)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0.0	0.3	1.1	15.5	83.1	100.0(1,454)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다	0.4	0.8	0.8	9.6	88.3	100.0(1,442)

각 항목별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어머니 취업 여부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그리고 읍면지역 거주자가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항상 그렇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II-4-47〉 부모 감독1: 아동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음

단위: %(명)

구분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항상	계(수)	$\chi^2(df)$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려함		
	않음	않음		편입			
전체	0.1	0.2	0.5	8.8	90.3	100.0(1,564)	-
아동 출생순위							
외동	0.0	0.0	1.0	6.9	92.1	100.0(176)	
첫째	0.4	0.0	0.2	7.4	92.0	100.0(548)	12.45(8)
둘째 이상	0.0	0.4	0.6	10.3	88.6	100.0(840)	
모 취업 여부							
취업	0.0	0.4	0.8	11.7	87.0	100.0(678)	17.55(4)**
미취업	0.3	0.1	0.1	6.7	92.9	100.0(85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0	0.3	0.6	9.3	89.7	100.0(392)	
341~400만원	0.6	0.6	0.2	7.6	91.1	100.0(384)	
401~530만원	0.0	0.0	1.1	9.3	89.6	100.0(385)	11.30(12)
531만원 이상	0.0	0.0	0.2	9.5	90.3	100.0(384)	
지역							
대도시	0.0	0.1	0.0	8.0	91.9	100.0(675)	
중소도시	0.4	0.3	0.8	8.2	90.3	100.0(632)	17.58(8)*
읍면지역	0.0	0.5	1.2	12.2	86.2	100.0(257)	

* $p < .05$, ** $p < .01$.

아동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는지 여부도 취업여부, 지역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취업모와 지역규모가 작은 지역 거주자가 감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 II-4-48〉 부모 감독2: 아동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음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런 편임	항상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0.0	0.0	0.2	9.9	89.8	100.0(1,552)	-
아동 출생순위							
외동	0.0	0.0	0.0	8.0	92.0	100.0(175)	8.34(6)
첫째	0.0	0.0	0.4	7.9	91.7	100.0(543)	
둘째 이상	0.0	0.1	0.2	11.8	87.9	100.0(834)	
모 취업 여부							
취업	0.0	0.0	0.3	13.1	86.6	100.0(669)	18.22(3) ^{***}
미취업	0.0	0.1	0.2	7.4	92.3	100.0(85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0	0.2	0.2	11.9	87.8	100.0(388)	6.86(9)
341~400만원	0.0	0.0	0.5	9.0	90.5	100.0(383)	
401~530만원	0.0	0.0	0.3	9.6	90.1	100.0(383)	
531만원 이상	0.0	0.0	0.0	9.6	90.4	100.0(379)	
지역							
대도시	0.0	0.1	0.0	8.3	91.6	100.0(675)	14.62(6) [*]
중소도시	0.0	0.0	0.5	10.3	89.2	100.0(624)	
읍면지역	0.0	0.0	0.3	13.2	86.5	100.0(253)	

* $p < .05$, *** $p < .001$.

무엇을 하는지 아는지 여부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또 중소도시 거주자는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항상 알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다.

〈표 II-4-49〉 부모 감독3: 아동이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런 편임	항상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0.0	0.3	1.1	15.5	83.1	100.0(1,454)	-

(표 II-4-49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런 편임	항상 그러함	계(수)	$\chi^2(df)$
아동 출생순위							
외동	0.0	0.0	1.7	13.6	84.7	100.0(161)	6.20(6)
첫째	0.0	0.4	0.8	13.3	85.4	100.0(491)	
둘째 이상	0.0	0.3	1.2	17.4	81.1	100.0(802)	
모 취업 여부							
취업	0.0	0.6	1.6	16.3	81.6	100.0(627)	7.67(3)
미취업	0.0	0.1	0.7	14.9	84.3	100.0(79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0	0.2	1.6	17.8	80.5	100.0(366)	9.49(9)
341~400만원	0.0	0.6	1.3	13.0	85.1	100.0(361)	
401~530만원	0.0	0.4	0.9	14.7	84.0	100.0(358)	
531만원 이상	0.0	0.0	0.8	17.3	81.8	100.0(352)	
지역							
대도시	0.0	0.4	1.0	13.6	85.0	100.0(621)	15.64(6)*
중소도시	0.0	0.2	0.9	15.1	83.7	100.0(593)	
읍면지역	0.0	0.0	1.8	21.3	76.9	100.0(240)	

* $p < .05$.

어른 없이 있을 때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든 아동 출생순위와 지역규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출생순위별로 항상 주고받는다든 응답이 첫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4-50〉 부모 감독4: 아동이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음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런 편임	항상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0.4	0.8	0.8	9.6	88.3	100.0(1,442)	-
아동 출생순위							
외동	0.0	0.6	0.8	10.1	88.5	100.0(158)	18.85(8)*
첫째	1.2	1.2	1.0	7.3	89.3	100.0(485)	
둘째 이상	0.0	0.5	0.8	11.2	87.6	100.0(799)	
모 취업 여부							
취업	0.2	0.9	1.1	10.3	87.4	100.0(617)	9.38(4)
미취업	0.7	0.6	0.6	8.8	89.3	100.0(797)	

(표 II-4-50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런 편임	항상 그러함	계(수)	$\chi^2(df)$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4	0.7	1.7	9.4	87.8	100.0(358)	9.37(12)
341~400만원	0.8	1.4	0.6	10.7	86.4	100.0(364)	
401~530만원	0.3	0.6	0.9	10.6	87.6	100.0(358)	
531만원 이상	0.2	0.3	0.2	8.2	91.0	100.0(347)	
지역							
대도시	0.1	0.7	0.8	7.0	91.4	100.0(619)	23.37(8)**
중소도시	0.2	1.0	1.0	10.8	87.0	100.0(589)	
읍면지역	2.0	0.3	0.7	13.8	83.3	100.0(234)	

* $p < .05$, ** $p < .01$.

부모가 아동의 학교 공부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냐는 질문에 항상 관심을 보임이 48.7%, 자주 관심을 보임이 26.5%, 가끔 관심을 보임이 20.4%,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이 4.5%라고 응답되었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아의 경우 부모의 전반적인 학업 관심도가 남아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4-51〉 부모의 학업관심도

구분	전혀	가끔	자주	항상	계(수)	$\chi^2(df)$
	관심을 보이지 않음	관심을 보임	관심을 보임	관심을 보임		
전체	4.5	20.4	26.5	48.7	100.0(1,545)	-
아동 성별						
남	6.5	19.9	25.3	48.3	100.0(791)	18.85(3)***
여	2.3	20.9	27.7	49.0	100.0(754)	
아동 출생순위						
외동	3.0	16.3	26.1	54.7	100.0(172)	4.28(6)
첫째	4.2	21.8	27.3	46.8	100.0(544)	
둘째 이상	5.1	20.3	26.0	48.6	100.0(82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2	23.0	22.7	50.1	100.0(387)	6.56(9)
341~400만원	4.9	20.6	29.4	45.1	100.0(385)	
401~530만원	5.3	17.6	26.7	50.4	100.0(380)	
531만원 이상	3.8	19.6	27.7	48.9	100.0(380)	

단위: 점(%)

(표 II-4-51 계속)

구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	가끔 관심을 보임	자주 관심을 보임	항상 관심을 보임	계(수)	$\chi^2(df)$
지역						
대도시	3.5	18.8	26.8	50.9	100.0(652)	8.75(6)
중소도시	5.8	20.0	24.7	49.5	100.0(257)	
읍면지역	5.0	22.2	26.8	46.0	100.0(636)	

*** $p < .001$.

패널 아동이 숙제를 할 때 타인의 도움 또는 감독을 받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끔 도움 받음이 49.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자주 도움 받음이 27.5%, 항상 도움 받음이 13.7%, 전혀 도움 받지 않음이 9.0%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52〉 자녀 숙제 시 타인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 받지 않음	가끔 도움 받음	자주 도움 받음	항상 도움 받음	계(수)	$\chi^2(df)$
전체	9.0	49.8	27.5	13.7	100.0(1,598)	-
모 취업 여부						
취업	10.8	50.0	25.3	13.9	100.0(694)	1.30(3)
미취업	7.7	49.7	29.3	13.4	100.0(874)	
모 학력						
고졸이하	8.6	49.2	27.6	14.6	100.0(463)	2.27(6)
전문대졸	9.0	50.4	27.3	13.3	100.0(435)	
대졸이상	9.1	49.7	27.9	13.2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3	50.1	29.7	14.9	100.0(399)	7.98(9)
341~400만원	10.4	46.2	28.4	14.9	100.0(393)	
401~530만원	11.2	49.2	25.4	14.2	100.0(395)	
531만원 이상	9.7	51.4	27.7	11.2	100.0(392)	

자녀 숙제 시 도움 제공자를 묻는 질문에 엄마가 90.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형제자매 4.4%, 아빠 3.3%, 교사 1.0%, 조부모 0.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어머니 취업여부와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취업모의 경우 엄마가 도와준다는 비율이 93.5%로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취업모의 경우 엄마가 돕는다는 비율이 87.2%로 여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지만, 아빠나, 형제자매, 조부모, 교사 등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가족이나 교사 등과 나눠 분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 집단에서 어머니 비율이 높고, 531만원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340만원 이하 집단에서 조부모나 형제자매, 교사 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4-53〉 자녀 숙제 시 도움 제공자

단위: %(명)

구분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조부모	교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3	90.3	4.4	0.9	1.0	0.2	100.0(1,439)	-
모 취업 여부								
취업	4.6	87.2	4.8	1.6	1.4	0.3	100.0(634)	21.21(5)**
미취업	1.8	93.5	3.8	0.2	0.6	0.1	100.0(805)	
모 학력								
고졸이하	3.7	86.3	7.2	1.2	1.6	0.0	100.0(424)	17.71(10)
전문대졸	1.9	93.2	3.8	0.2	0.9	0.0	100.0(401)	
대졸이상	3.4	92.1	2.8	0.9	0.5	0.4	100.0(63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9	88.9	5.3	0.9	1.9	0.0	100.0(376)	30.88(15)**
341~400만원	1.2	92.4	5.9	0.2	0.2	0.0	100.0(354)	
401~530만원	3.4	91.3	3.0	1.8	0.0	0.6	100.0(359)	
531만원 이상	5.0	89.4	3.5	0.6	1.3	0.2	100.0(359)	

** $p < .01$.

3)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과 관련해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별로 도움 받는 인원과의 지원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외가 3.01명, 친구 및 동료 2.97명, 이웃 2.31명, 친가 2.05명으로 도움 받는 인원은 외가에서 가장 많고, 친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친가로부터 받는 인원내 있어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나 둘째 이상인 경우가 외동인 경우보다 지원 가능한 친가 인원이 더 많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더 많다.

이웃에 있어서는 어머니 취업 상태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데, 미취업모는 2.59명의 지원 인원을 보고한 반면, 취업모는 1.96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II-4-54〉 사회적 지원 인원

단위: 명

구분	○○(이)의 친가		○○(이)의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5	1.75	3.01	2.07	2.97	2.13	2.31	2.09	(1,594)
아동 출생순위									
외동	1.82 ^a	1.58	2.84	2.19	2.99	2.32	2.25	2.17	(183)
첫째	2.05 ^b	1.76	2.94	1.81	2.82	1.96	2.25	2.10	(558)
둘째 이상	2.11 ^b	1.78	3.10	2.22	3.07	2.19	2.37	2.06	(853)
F	3.11 [*]		1.67		1.66		0.87		
모 취업 여부									
취업	2.05	1.70	3.07	2.07	3.00	2.18	1.96	1.98	(694)
미취업	2.03	1.77	2.98	2.05	2.93	2.04	2.59	2.13	(874)
t	-0.30		-1.16		-0.41		6.93 ^{***}		
모 학력									
고졸이하	1.87 ^a	1.70	2.91	2.17	2.98	1.96	2.27	2.00	(463)
전문대졸	2.13 ^b	1.71	3.03	1.99	2.96	2.24	2.30	1.99	(435)
대졸이상	2.10 ^b	1.78	3.07	2.05	2.95	2.12	2.35	2.19	(692)
F	3.43 [*]		1.35		0.39		0.7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99	1.73	2.87	2.13	2.86	1.97	2.30	2.14	(398)
341~400만원	2.04	1.56	3.07	2.04	2.85	1.81	2.48	1.97	(393)
401~530만원	2.14	1.89	3.05	2.04	3.02	2.25	2.27	2.12	(393)
531만원 이상	2.07	1.82	3.08	2.10	3.18	2.41	2.24	2.12	(391)
F	1.26		2.11		2.21		0.46		
지역									
대도시	2.07	1.86	3.04	2.04	3.11	2.05	2.39	2.20	(676)
중소도시	2.00	1.68	2.94	2.07	2.90	2.30	2.27	2.06	(654)
읍면지역	2.12	1.61	3.09	2.16	2.76	1.82	2.17	1.84	(264)
F	0.19		0.59		0.93		0.50		

* $p < .05$, *** $p < .001$

어머니가 이용 가능한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정보적, 사교적, 도구적 지원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5점 만점 기준 정서적 지원이 3.92점으로 가장 많고, 도구적 지원 3.89점, 사교적 지원 3.86점, 정보적 지원 3.8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첫째나 둘째 이상인 경우 외동아보다, 그리고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도 정서적 지원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동 출생순위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

는데 첫째아의 경우가 외동인 경우에 비해, 그리고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적 지원은 어머니 취업 여부별 특성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사교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구적 지원은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업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나 둘째 이상인 경우가 외동인 경우에 비해, 그리고 취업중인 어머니가 미취업 어머니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도구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55〉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정보적		사교적		도구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2	0.68	3.84	0.66	3.86	0.67	3.89	0.67	(1,594)
아동 출생순위									
외동	3.76 ^a	0.70	3.71 ^a	0.73	3.65	0.77	3.73 ^a	0.75	(183)
첫째	3.95 ^b	0.66	3.89 ^b	0.65	3.93	0.63	3.95 ^b	0.65	(558)
둘째 이상	3.93 ^b	0.68	3.83 ^{ab}	0.66	3.86	0.66	3.89 ^b	0.66	(853)
F	4.80*		3.54*		9.20		0.69*		
모 취업 여부									
취업	3.96	0.66	3.85	0.65	3.90	0.65	3.94	0.63	(694)
미취업	3.90	0.69	3.84	0.67	3.84	0.68	3.86	0.69	(874)
t	-2.45*		-1.03		-2.19*		-2.68**		
모 학력									
고졸이하	3.95	0.69	3.86	0.67	3.87	0.68	3.90	0.66	(463)
전문대졸	3.96	0.63	3.86	0.62	3.90	0.64	3.92	0.63	(435)
대졸이상	3.87	0.69	3.81	0.68	3.83	0.68	3.87	0.70	(692)
F	1.08		0.49		0.39		0.1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87	0.72	3.84	0.68	3.85	0.70	3.85	0.68	(398)
341~400만원	3.94	0.64	3.83	0.61	3.85	0.62	3.87	0.65	(393)
401~530만원	3.94	0.66	3.85	0.65	3.86	0.68	3.94	0.65	(393)
531만원 이상	3.91	0.69	3.82	0.70	3.90	0.67	3.90	0.69	(391)
F	2.44		0.22		0.81		2.08		
지역									
대도시	3.97 ^b	0.64	3.90 ^b	0.63	3.90	0.63	3.93 ^b	0.63	(676)
중소도시	3.86 ^a	0.72	3.79 ^a	0.71	3.83	0.72	3.86 ^a	0.73	(654)
읍면지역	3.92 ^{ab}	0.64	3.79 ^a	0.61	3.81	0.66	3.87 ^{ab}	0.64	(264)
F	3.98*		4.25*		2.65		3.76*		

* $p < .05$, ** $p < .01$.

바. 소결

패널 부모를 통해 본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균연령은 어머니 37.93세, 아버지 40.39세이며, 대졸자가 어머니 38.5%, 아버지 42.8%로 가장 많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어머니 0.3%, 아버지 4.2%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심리적 특성은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로 조사하였으며, 일과 가정 양립 시 겪게 되는 이점과 갈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우울은 어머니의 6%, 아버지의 4.8%가 중도 수준의 우울을 겪고 있으며, 경도/중등도는 어머니 18.4%, 아버지 20.6%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정상에 해당한다. 자아존중감은 5점 기준 어머니 3.02점, 아버지 3.8점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7점 기준 어머니 5.23점, 아버지 5.25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일상적 스트레스는 5점 기준 어머니 2.95점, 아버지 3.03점,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만 응답하였으며 3.5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응답자 특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학력과 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집단의 심리적 특성이 양호한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일상적 스트레스에서만 취업 중인 어머니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시 일과 가정, 일과 양육 병행의 이점과 갈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점을 갈등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가정 이점에 대해 학력과 가구소득별, 일-양육 이점에 대해 가구소득별 차이를 보여,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이점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부부의 결혼상태나 만족도, 갈등 등 부부특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7.7%가 초혼 상태로 평균 결혼기간은 131.13개월, 즉 10년 9개월 정도로 집계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갈등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게 답하였다. 아버지의 부부갈등을 제외하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고, 갈등은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건강특성을 보면 대체로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음주 실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술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음 횟수도 잦았다. 흡연 역시 아버지는 45.0%가 흡연자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작년도 흡연자

47.5%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직업 특성과 관련해 취업이나 학업상태가 아닌 전업주부는 56.6%로 전년도 55.4%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외동인 경우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첫째인 경우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낮다. 학력은 높을수록 취업 비율이 높고, 소득은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더 많은 특성에 따라 높은 집단에서 취업한 비율이 더 높다. 어머니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일할 계획이 없다는 34.4% 외에 전일제가 33.7%로 시간제가 31.8%로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이유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85.5%로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일 문항을 어머니 실제 취업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양육 병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적이거나,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취업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실제 일-가정 병행시 가사 노동 역시 부담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업주부가 일 또는 학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80.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양육에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모가 일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가 30.3%,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가 25.1%, 생계를 위해가 23.9%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소득, 지역규모 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고, 낮은 집단은 생계의 이유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직무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부모의 직업군은 어머니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나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아버지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아버지는 직종간 편차가 어머니에 비해 적어 여성 근로자가 양육과 병행하며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직업 특성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취업 중인 어머니는 평균 5.03일, 37.79시간 일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근무일수와 시간이 길어진다.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은 대체로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 자신의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경우 첫째를 대할 때 외동에 비해 통제적으로 양육하는 특성을 보이고 부모 모두 외동에게 보다 더 온정적으로 대하는 특징이 있다. 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둘째 이상인 경우 가사일 함께하기를 제외한 대다수의 활동을 외동이나 첫째 자녀에 비해 적게 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특성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

스도 낮고 긍정적인 양육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자녀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취업 중인 어머니가 미취업 어머니에 비해 조금씩 떨어지는 특징을 보였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자녀 양육시 어머니가 이용가능한 사회적 지원 규모는 외가가 가장 크고 친구 및 동료, 이웃, 친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외동에 비해 첫째이거나 둘째 이상인 경우에 더 많고,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에 고졸 이하인 어머니보다 많았다. 이웃에 대해서는 취업에 따른 차이만 나타나 미취업 어머니에게서 취업 어머니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나 미취업 중인 어머니의 경우 이웃과의 교류도 많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어 필요시 이웃의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가구 특성

가. 가구 특성 관련 변인 구성

8차년도 조사의 가구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가계 경제 요소, 가정환경 특성으로 구분되며, 해당 변인은 <표 II-5-1>과 같다. 가구 특성 중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가구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는 종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재검토 하는 방식을 취해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가정환경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MC-HOME을 통해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관찰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II-5-1> 8차년도 가구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 거주 주택 유형 ◦ 습기 여부, 장소별 습기 정도, 곰팡이 여부 ◦ 집의 연식, 바닥재, 난방 형태, 주방 유형, 리모델링 여부 및 종류 ◦ 패널 아동의 개별 방 여부

(표 II-5-1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리적 특성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 수 ◦ 가습기 사용 여부, 살균제 사용 여부·기간 ◦ 방향제 또는 디퓨저 사용 여부 및 횟수 ◦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및 사용 형태, 따뜻한 음식 및 음료의 플라스틱 용기 보관 여부, 음료수 용기 ◦ 간접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득, 취업 모 근로 소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가계 경제 요소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의 소비성·비소비성 지출 ◦ 자녀에 대한 소비성·비소비성 지출 ◦ 패널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금융자산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가정환경 특성	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가족 통합, 가족 공동체, 강화, 학습자료와 기회, 정서적 환경, 성숙 장려, 반응성
	가정환경의 질	

나.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89.6%로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하며,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확대가족 형태는 6.8%, 여기에 친척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3.0%, 그리고 조부모가 아닌 다른 친척이 동거하는 형태가 0.5%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패널 아동을 포함하여 평균 4.14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II-5-2〉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가구 구성						단위: %(가구), 명 가구원 수	
부모+자녀	조부모+부모+자녀	부모+자녀+친척	조부모+부모+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89.6	6.8	0.5	3.0	0.1	100.0(1,598)	4.14	0.71

다. 물리적 특성

1) 주거환경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6.7%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12.6%, 단독주택 7.8%, 기타 2.9%의 순이다. 가구 소득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적이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고, 낮을수록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대도시에서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읍면지역에서 단독주택 거주자가 다른 지역규모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표 II-5-3〉 거주 주택 유형

단위: %(가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타	계(수)	$\chi^2(df)$
전체	7.8	12.6	76.7	2.9	100.0(1,57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4.7	15.7	63.9	5.7	100.0(394)	87.40(9)***
341~400만원	7.7	15.6	74.1	2.6	100.0(386)	
401~530만원	3.2	13.6	81.4	1.7	100.0(389)	
531만원 이상	5.7	5.2	87.6	1.5	100.0(383)	
지역						
대도시	5.8	17.1	74.6	2.5	100.0(666)	76.55(6)***
중소도시	4.7	9.6	81.6	4.1	100.0(643)	
읍면지역	20.4	8.4	70.3	0.9	100.0(261)	

주: 기타 주거 공간으로 빌라, 상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있음.

*** $p < .001$.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 환경의 물리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장소별 습기 정도 및 곰팡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벽이나 천장에 습기로 얼룩진 모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72.7%, 있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습기 얼룩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4〉 습기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27.3	72.7	100.0(1,573)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6.4	63.6	100.0(394)	29.25(3)***
341~400만원	28.8	71.2	100.0(387)	
401~530만원	25.2	74.8	100.0(390)	
531만원 이상	19.0	81.0	100.0(383)	

(표 II-5-4 계속)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지역				
대도시	27.6	72.4	100.0(669)	
중소도시	24.4	75.6	100.0(642)	7.14(2)*
읍면지역	33.5	66.5	100.0(261)	

* $p < .05$, *** $p < .001$.

습기 얼룩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침실 및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장소별로 얼룩 여부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얼룩이 없다고 답한 비율로 보면 주방이 가장 많고, 침실 및 거실, 욕실, 다용도실 의 순서로 나와 다용도실 습기 비율이 가장 높다. 각 장소별로 습기 얼룩 정도는 5% 미만이 가장 많다.

〈표 II-5-5〉 장소별 습기로 인한 얼룩진 모양 여부 및 정도

구분	단위: %(가구)				계(수)
	보이지 않았다	5% 미만	5-30% 미만	30% 이상	
침실 및 거실	57.5	34.8	7.4	0.4	100.0(544)
주방	76.9	18.2	4.5	0.4	100.0(527)
욕실	47.0	40.4	10.4	2.1	100.0(536)
다용도실	37.3	43.8	16.8	2.1	100.0(546)

눈에 보이는 곰팡이 여부를 보면 전체의 32.1%는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 역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곰팡이가 있다는 비율이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II-5-6〉 눈에 보이는 곰팡이 여부

구분	단위: %(가구)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32.1	67.9	100.0(1,560)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0.3	59.7	100.0(393)	
341~400만원	33.9	66.1	100.0(381)	
401~530만원	31.4	68.6	100.0(385)	26.16(3)***
531만원 이상	22.7	77.3	100.0(381)	

*** $p < .001$.

10년 이상된 집에 사는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고, 6~10년이 24.4%, 2~5년

이 20.8%, 1년 이하가 5.0%, 기타 의견이 0.4%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10년 이상 연식의 집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이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10년 이상된 집에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5-7〉 집의 연식

							단위: %(가구)	
구분	1년 이하	2~5년	6~10년	10년 이상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0	20.8	24.4	49.4	0.4	100.0(1,566)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8	14.7	20.9	59.0	0.5	100.0(392)	34.81(12)*	
341~400만원	5.8	21.9	24.2	48.2	0.0	100.0(385)		
401~530만원	4.5	22.1	26.9	46.2	0.3	100.0(388)		
531만원 이상	5.4	23.9	25.8	44.2	0.7	100.0(381)		

** $p < .01$.

바닥재는 장판이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나무가 44.3%, 대리석 또는 돌이 2.8%, 세라믹 또는 점토 타일과 리놀륨이 각각 0.5%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나무 바닥재가, 낮을수록 장판 바닥재 비율이 높아진다.

〈표 II-5-8〉 바닥재

							단위: %(가구)	
구분	나무	장판	대리석 또는 돌	세라믹 또는 점토 타일	리놀륨	계(수)	$\chi^2(df)$	
전체	44.3	51.9	2.8	0.5	0.5	100.0(1,522)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6.7	68.7	3.4	0.3	0.9	100.0(385)	107.32(12)**	
341~400만원	41.9	55.4	2.5	0.0	0.2	100.0(373)		
401~530만원	51.9	44.8	2.2	0.6	0.5	100.0(371)		
531만원 이상	56.0	38.9	3.2	1.3	0.5	100.0(373)		

*** $p < .001$.

난방형태는 개별난방-가스보일러가 7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앙집중식 온돌난방이 15.1%, 개별난방-기름보일러가 5.1%, 기타 난방(개별지역 난방, 개별난방-열병합, 열병합, 지역 난방, 지역난방-열병합 등)이 3.3%, 중앙집중식 냉난방장치(환풍형)이 2.2%, 개별난방-전기보일러 또는 태양열이 2.0%, 개별난방-연탄보일러가 0.1% 순이다. 소득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개별난방-가스보일러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이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중앙집중식 온

돌난방이 증가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개별난방-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5-9〉 난방형태

단위: %(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전체	15.1	2.2	72.2	5.1	0.1	2.0	3.3	100.0(1,558)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0.0	1.9	73.1	8.7	0.4	2.9	3.0	100.0(393)	
341~400만원	13.0	1.9	74.4	5.9	0.0	2.3	2.6	100.0(381)	60.47(18)***
401~530만원	12.8	2.2	76.5	3.4	0.0	1.1	3.9	100.0(386)	
531만원 이상	23.8	2.9	65.2	2.6	0.2	1.4	3.9	100.0(379)	

주: ① 중앙집중식 온돌난방 ② 중앙집중식 냉난방장치(환풍형) ③ 개별난방-가스보일러
 ④ 개별난방-기름보일러 ⑤ 개별난방-연탄보일러 ⑥ 개별난방-전기보일러 또는 태양열
 ⑦ 기타(기타 난방 형태로 개별지역 난방, 개별난방-열병합, 열병합, 지역 난방, 지역난방-열병합 등이 있었음)

*** $p < .001$.

가구의 주방유형은 실내에 거실과 비분리 형태가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실내에 거실과 분리가 44.1%로 많았다. 소득에 따른 주방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5-10〉 주방 유형

단위: %(가구)

구분	같은 실내에 거실과 분리	같은 실내에 거실과 비분리	다른 공간에 거실과 분리	계(수)	$\chi^2(df)$
전체	44.1	53.2	2.7	100.0(1,573)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4.6	51.0	4.3	100.0(394)	
341~400만원	44.7	53.6	1.7	100.0(386)	9.05(6)
401~530만원	41.3	56.1	2.7	100.0(390)	
531만원 이상	46.0	52.0	2.0	100.0(383)	

최근 12개월 동안 집을 리모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13.4%의 패널 가구는 리모델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리모델링 종류로는 페인트칠(6.3%), 도배(10.2%), 바닥재 교체(8.4%), 새로운 구획 분할(2.1%) 등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II-5-11〉 리모델링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3.4	86.6	100.0(1,561)	-

아동의 개별 방이 있는 경우는 56.1%, 없는 경우는 43.9%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34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개별방이 없는 비율이 높으나, 그 이상부터는 개별 방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

〈표 II-5-12〉 패널 아동의 개별 방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56.1	43.9	100.0(1,598)	-
아동 성별				
남	56.9	43.1	100.0(817)	1.01(1)
여	55.2	44.8	100.0(78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7.0	53.0	100.0(399)	32.66(3) ***
341~400만원	55.6	44.4	100.0(393)	
401~530만원	60.9	39.1	100.0(395)	
531만원 이상	62.4	37.6	100.0(392)	

*** $p < .001$.

2) 생활환경

가구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여부와 마리수를 살펴보았다.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경우가 93.2%,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경우가 97.7%로 다수의 가구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여부는 자녀의 성별이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애완견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는 1마리가 각각 4.9%, 1.9%로 가장 많았다.

〈표 II-5-13〉 애완견 수

											단위: %(명)	
구분	애완견					계(수)	애완묘					계(수)
	없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상		없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상	
전체	93.2	4.9	1.0	0.4	0.5	100(1,563)	97.7	1.9	0.1	0.0	0.2	100(1,577)

(표 II-5-13 계속)

구분	애완견						애완묘					
	없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상	계(수)	없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상	계(수)
아동 성별												
남	92.6	5.2	1.1	0.6	0.5	100(80)	97.3	1.9	0.1	0.0	0.6	100(80)
여	93.9	4.6	0.9	0.2	0.4	100(76)	98.1	1.5	0.3	0.0	0.0	100(76)
$\chi^2(df)$	0.91(4)						5.67(4)					
모 취업 여부												
취업	92.6	5.8	0.8	0.5	0.4	100(68)	97.8	1.1	0.4	0.0	0.8	100(68)
미취업	93.9	4.1	1.0	0.3	0.6	100(85)	97.6	2.3	0.1	0.0	0.0	100(85)
$\chi^2(df)$	3.90(4)						7.17(4)					

패널 대상 아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6.4%의 패널 가구에서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1.1%의 패널 가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용 기간은 3개월 미만인 60.3%로 가장 많았고, 4~6개월 미만이 17.0%, 6~9개월 미만과 12개월 이상이 각각 7.6%, 9~12개월 미만이 7.5%로 나타났다.

〈표 II-5-14〉 가습기 사용 및 살균제 사용 여부

단위: %(가구)

가습기 사용여부			살균제 사용 여부			살균제 사용 기간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3개월 미만	4~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 이상	계(수)
76.4	23.6	100(1,572)	31.1	68.9	100(1,313)	60.3	17.0	7.6	7.5	7.6	100(40)

페브리즈와 같은 방향제 또는 디퓨저 사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32.9%가 사용한 경험이 있고, 67.1%가 사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용한 횟수는 주 1~2회 사용이 5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25.2%, 주 3~4회 사용이 9.8%, 주 5~7회 사용이 4.9%, 주 8회 이상이 0.4%로 나타났다.

〈표 II-5-17〉 방향제 또는 디퓨저 사용 여부 및 사용 횟수

단위: %(가구)

사용 여부			사용 횟수					
있음	없음	계(수)	주 1~2회	주 3~4회	주 5~7회	주 8회 이상	항상	계(수)
32.9	67.1	100(1,572)	59.6	9.8	4.9	0.4	25.2	100.0(520)

실내환경 노출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음식물 보관 및 조리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마시는 음료수 용기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62.4%,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6%였다. 어머니 취업여부와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모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5-16〉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62.4	37.6	100.0(1,575)	-
모 취업 여부				
취업	67.2	32.8	100.0(683)	9.14(1)**
미취업	59.0	41.0	100.0(861)	
모 학력				
고졸이하	60.7	39.3	100.0(457)	4.30(2)
전문대졸	60.6	39.4	100.0(430)	
대졸이상	64.1	35.9	100.0(67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6.4	33.6	100.0(395)	5.62(3)
341~400만원	59.2	40.8	100.0(387)	
401~530만원	60.4	39.6	100.0(390)	
531만원 이상	62.4	37.6	100.0(383)	

** $p < .01$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 용도를 전자레인지 용기, 조리도구, 아동 숟가락, 아동 젓가락, 아동 식기, 음식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자레인지 용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14.5%, 조리도구는 9.6%, 아동용 숟가락은 1.6%, 아동용 젓가락은 3.7%, 아동용 식기는 12.8%, 음식 보관용기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57.1%로 나타나, 음식 보관용기와 전자레인지 용기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5-17〉 플라스틱 용기 사용 형태

							단위: %(가구)						
구분	전자레인지 용기		조리도구		아동 숟가락		아동 젓가락		아동 식기		음식 보관용기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4.5	85.5	9.6	90.4	1.6	98.4	3.7	96.3	12.8	87.2	57.1	42.9	100.0(1,577)

플라스틱 용기 사용 시 조리 후 음식이 식기 전에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넣는지 물었다. 음식의 경우 14.2%가, 음료의 경우 2.6%가 뜨거운 때 넣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음식 사용은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음료는 학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학력과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사용 비율이 높고, 고졸이하 집단, 대졸이상 집단, 전문대졸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5-18〉 뜨거운 음식 및 음료의 플라스틱 용기 보관 여부

단위: %(가구)

구분	따뜻한 음식(조리 후 음식이 식기 전)				따뜻한 음료(뜨거운 물이나 국)			
	예	아니요	계(수)	$\chi^2(df)$	예	아니요	계(수)	$\chi^2(df)$
전체	14.2	85.8	100.0(1,026)		2.6	97.4	100.0(1,033)	
모 학력								
고졸이하	18.1	81.9	100.0(292)		4.6	95.4	100.0(292)	
전문대졸	14.0	86.0	100.0(273)	8.47(2)*	1.4	98.6	100.0(273)	7.10(2)*
대졸이상	12.3	87.7	100.0(455)		2.2	97.8	100.0(45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2.6	77.4	100.0(271)		3.0	97.0	100.0(271)	
341~400만원	12.8	87.2	100.0(249)	25.22(3)**	4.2	95.8	100.0(250)	5.09(3)
401~530만원	11.1	88.9	100.0(243)		1.2	98.8	100.0(242)	
531만원 이상	9.2	90.8	100.0(249)		2.1	97.9	100.0(255)	

* $p < .05$, ** $p < .001$.

패널 아동이 음용하는 음료수 용기를 질문한 결과, 페트병이 70.8%, 그 다음으로 캔이 11.0%, 유리병이 8.5%, 팩(종이류)이 8.0%, 비닐용기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19〉 음료수 용기

단위: %(가구)

캔	페트병	팩(종이류)	유리병	비닐용기	계(수)
11.0	70.8	8.0	8.5	1.7	100.0(1,246)

패널 아동이 최근 12개월 동안 담배 냄새를 맡는 등 간접흡연에 노출된 정도를 물었다. 1주일을 기준으로 38.0%만이 간접흡연에 노출된 적이 없고 나머지는 주 2~3회 노출됐다는 응답은 26.2%, 주 1회는 21.7%, 주 6~7회는 7.4%, 주 4~5회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20〉 간접 흡연

단위: %(명)

구분	없었음	1회	2~3회	4~5회	6~7회	계(수)	$\chi^2(df)$
전체	38.0	21.7	26.2	6.8	7.4	100.0(1,575)	
모 학력							
고졸이하	32.9	21.9	25.3	7.4	12.5	100.0(457)	36.20(8)***
전문대졸	36.4	24.3	28.4	5.1	5.9	100.0(430)	
대졸이상	41.9	19.8	25.6	7.5	5.1	100.0(67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3.2	19.9	31.7	6.9	8.2	100.0(395)	28.68(12)**
341~400만원	35.4	22.0	27.4	5.8	9.4	100.0(387)	
401~530만원	38.8	24.9	24.5	4.1	7.7	100.0(390)	
531만원 이상	45.5	19.9	20.6	9.4	4.6	100.0(383)	

** $p < .01$, *** $p < .001$.

라. 가계 경제 요소

1) 소득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은 약 464만원, 취업모의 근로소득은 약 18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5-21〉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 근로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가구 소득	464.11	202.60	420	28	2,000	(1,579)
어머니 근로소득	185.03	118.49	180	0	700	(693)

보호자가 인지하는 자신의 대한민국 내,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 친인척, 친구, 동호회 등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 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4.86단계 정도로,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그리고 대도시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는 5.20단계로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할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어머니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위치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II-5-2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단계(수)

구분	지위 : 대한민국				지위 : 지역 사회 및 공동체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86	1.36	(1,598)	-	5.20	1.40	(1,597)	-
모 취업 여부								
취업	4.91	1.40	(694)	-1.46	5.23	1.45	(694)	-1.18
미취업	4.84	1.34	(874)		5.18	1.36	(873)	
모 학력								
고졸이하	4.35 ^a	1.36	(463)	69.34***	4.75 ^a	1.40	(463)	46.77***
전문대졸	4.76 ^b	1.34	(435)		5.13 ^b	1.36	(435)	
대졸이상	5.25 ^c	1.26	(692)		5.52 ^c	1.33	(69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17 ^a	1.31	(399)	94.32***	4.61 ^a	1.42	(399)	62.66***
341~400만원	4.70 ^b	1.38	(393)		5.06 ^b	1.38	(393)	
401~530만원	5.02 ^c	1.13	(395)		5.35 ^c	1.22	(395)	
531만원 이상	5.59 ^d	1.21	(392)		5.81 ^d	1.30	(392)	
지역								
대도시	4.95 ^b	1.44	(678)	3.90*	5.29	1.46	(677)	3.29
중소도시	4.86 ^{ab}	1.28	(655)		5.16	1.33	(655)	
읍면지역	4.66 ^a	1.33	(265)		5.06	1.40	(265)	

* $p < .05$, *** $p < .001$.

2) 지출

가구의 지출은 식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등의 소비성 지출에서 월 평균 약 252만원, 세금, 적금, 보험, 용돈, 월 상환금 등의 비소비성 지출은 약 173만원 이었다. 이 중 자녀에 대한 지출은 소비성 지출의 경우 월 평균 약 106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약 35만원 수준이었다.

〈표 II-5-23〉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구분	가구 전체					전체 자녀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소비성 지출	251.90	121.18	240	10	1,500	106.01	63.90	100	8	500
비소비성 지출	172.68	144.14	150	5	3,000	35.31	31.11	30	2	360

패널 아동에게 용돈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3.5%만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있고, 60.0%는 주지 않고, 26.6%가 필요할 때마다 준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고 아동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외동일 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첫째, 둘째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지역규모가 큰 집단에서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필요시마다 주는 경우,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용돈 지급 시 평균 금액은 1주일 기준 3,300원 수준이다. 용돈 지급액은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업여부 및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5-24〉 패널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단위: %(가구), 만원(명)

구분	용돈 지급 여부				$\chi^2(df)$	일주일 용돈 지급액			t/F
	주지 않음	필요시 지급	정기 지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0.0	26.6	13.5	100.0(1,598)		0.33	0.43	(636)	
아동 출생순위									
외동	65.5	24.9	9.7	100.0(183)	13.33(4)*	0.34	0.28	(68)	0.39
첫째	64.0	24.9	11.1	100.0(560)		0.31	0.36	(196)	
둘째 이상	55.6	28.3	16.1	100.0(855)		0.35	0.49	(372)	
모 취업 여부									
취업	56.6	27.5	15.9	100.0(694)	3.97(2)	0.37	0.54	(291)	-1.86
미취업	62.2	26.1	11.7	100.0(874)		0.29	0.30	(335)	
모 학력									
고졸이하	60.9	23.9	15.2	100.0(463)	2.30(4)	0.37	0.44	(188)	2.06
전문대졸	56.9	29.1	14.0	100.0(435)		0.35	0.56	(181)	
대졸이상	61.1	26.9	12.0	100.0(692)		0.30	0.30	(26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7.5	27.6	14.9	100.0(399)	3.72(6)	0.31	0.35	(167)	0.26
341~400만원	55.8	28.4	15.9	100.0(393)		0.34	0.48	(169)	
401~530만원	61.7	26.6	11.7	100.0(395)		0.31	0.33	(148)	
531만원 이상	63.1	24.6	12.4	100.0(392)		0.36	0.54	(150)	
지역									
대도시	67.7	23.0	9.3	100.0(678)	33.57(4)***	0.37	0.52	(219)	0.44
중소도시	55.7	28.8	15.4	100.0(655)		0.32	0.35	(129)	
읍면지역	50.2	30.4	19.4	100.0(265)		0.31	0.38	(288)	

* $p < .05$, *** $p < .001$.

3) 자산 및 부채

부동산 자산은 평균 2억 7천 225만원 정도, 금융 자산 평균은 6천 207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표 II-5-25〉 가구 자산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부동산	27,225.45	86,106.60	20,000	0	3,300,000
금융 자산	6,206.61	13,204.51	3,000	0	330,000

또한 전체 가구의 63.4%에서 부채를 갖고 있고, 36.6%는 가계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나 학력,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 지역 거주자 중 부채가 있다는 비율이 62.4%, 중소도시 거주자 66.0%, 읍면지역 거주자 59.7%로 규모가 큰 지역 거주자에게서 부채 비율이 높았다.

〈표 II-5-26〉 부채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63.4	36.6	100.0(1,596)	-
모 취업 여부				
취업	66.7	33.3	100.0(693)	3.46(1)
미취업	60.9	39.1	100.0(873)	
모 학력				
고졸이하	65.1	34.9	100.0(463)	2.56(2)
전문대졸	66.1	33.9	100.0(434)	
대졸이상	60.7	39.3	100.0(69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2.1	37.9	100.0(399)	4.15(3)
341~400만원	66.1	33.9	100.0(392)	
401~530만원	64.6	35.4	100.0(395)	
531만원 이상	61.1	38.9	100.0(391)	
지역				
대도시	62.4	37.6	100.0(678)	7.62(2)*
중소도시	66.0	34.0	100.0(653)	
읍면지역	59.7	40.3	100.0(265)	

* $p < .05$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평균 액수는 약 9천 236만원, 월상환금 평균은 5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5-27〉 가구 부채액 및 월상환금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부채액	9,235.50	10,790.01	6,500	30	100,000
월상환금	52.58	67.97	40	0	1,000

마. 가정환경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용 가정환경 검사를 활용해 질을 측정하였다. 가정환경은 물리적 환경, 가족 통합, 가족 공동체, 강화, 학습자료와 기회, 정서적 분위기, 성숙함 장려, 반응성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59점이며 하위항목별 총점은 <표 II-5-28>과 같다.

〈표 II-5-28〉 HOME: 영역별 비교

단위: 점, %						
구분	총점(문항수)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일반집단	의심집단
물리적 환경	8	8.00	8.62	1.55	97.8	2.2
가족 통합	4	4.00	4.66	0.90	100.0	0.0
가족 공동체	6	7.00	7.06	1.20	100.0	0.0
강화	8	10.00	10.01	1.76	74.6	25.4
학습자료와 기회	8	11.00	10.94	1.55	82.3	17.7
정서적 분위기	8	10.00	10.32	1.72	82.1	17.9
성숙함 장려	7	7.00	7.66	1.12	98.6	1.4
반응성	10	10.00	10.43	1.50	97.8	2.2

가정환경 검사의 전체 평균은 59점 만점에 47.55점으로 나타났다.

중위점을 기준으로 7점 낮은 경우를 위험집단으로 분류할 시, 위험집단은 20.4% 정도였다. 가정환경은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 지역이 읍면지역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준의 가정환경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29〉 HOME: 총점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47.55	7.27	-	79.6	20.4	100.0(1,598)	-
모 학력							
고졸이하	45.19 ^a	8.29	47.65***	67.7	32.3	100.0(463)	71.15(2)***
전문대졸	47.74 ^b	6.42		82.1	17.9	100.0(435)	
대졸이상	48.93 ^c	6.69		85.4	14.6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5.84 ^a	8.02	16.52***	72.0	28.0	100.0(399)	24.63(3)***
341~400만원	47.94 ^b	6.68		83.8	16.2	100.0(393)	
401~530만원	47.64 ^b	7.19		79.0	21.0	100.0(395)	
531만원 이상	49.24 ^c	6.28		85.1	14.9	100.0(392)	
지역							
대도시	47.79 ^a	7.29	3.57*	82.5	17.5	100.0(678)	13.14(2)**
읍면지역	47.06 ^{ab}	7.70		76.6	23.4	100.0(265)	
중소도시	47.50 ^b	7.05		77.5	22.5	100.0(655)	

* $p < .05$, ** $p < .01$, *** $p < .0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총점 8점 만점에 평균 7.08점으로, 8.8%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1개의 면접 또는 관찰 질문과 7개의 관찰 문항으로 구성되며, 자택과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 등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자택 환경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5-30〉 HOME: 물리적 환경

단위: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7.08	1.46	-	91.2	8.8	100.0(1,598)	-
모 학력							
고졸이하	6.75 ^a	1.70	25.82***	85.6	14.4	100.0(463)	33.45(2)***
전문대졸	7.24 ^b	1.22		94.3	5.7	100.0(435)	
대졸이상	7.20 ^b	1.39		93.2	6.8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77 ^a	1.65	15.63***	85.3	14.7	100.0(399)	33.97(3)***
341~400만원	7.21 ^b	1.26		93.4	6.6	100.0(393)	
401~530만원	7.06 ^b	1.52		91.6	8.4	100.0(395)	
531만원 이상	7.40 ^c	1.00		91.6	8.4	100.0(392)	

(표 II-5-30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지역							
대도시	7.16	1.49		93.4	6.6	100.0(678)	
읍면지역	6.98	1.51	2.23	87.4	12.6	100.0(265)	5.16(2)
중소도시	7.04	1.39		90.5	9.5	100.0(655)	

*** $p < .0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가족 통합'을 살펴보면, 4점 만점에 평균 3.34점으로, 17.9%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4개의 면접 문항으로 이루어진 가족 통합 영역은 자녀가 필요로 할 경우 아버지(혹은 아버지 역할 수행자)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가족 통합은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 지역이 읍면지역인 경우,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같은 가족 통합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5-31> HOME: 가족 통합

단위: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3.34	0.90	-	82.1	17.9	100.0(1,598)	
모 학력							
고졸이하	3.23 ^a	0.94		78.4	21.6	100.0(463)	
전문대졸	3.30 ^b	0.94	8.26***	80.4	19.6	100.0(435)	9.59(2)**
대졸이상	3.43 ^b	0.84		85.6	14.4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17 ^a	1.00		76.7	23.3	100.0(399)	
341~400만원	3.38 ^b	0.87		82.7	17.3	100.0(393)	
401~530만원	3.36 ^b	0.88	7.58***	83.0	17.0	100.0(395)	11.79(3)**
531만원 이상	3.44 ^b	0.81		85.9	14.1	100.0(392)	
지역							
대도시	3.31 ^{ab}	0.94		82.0	18.0	100.0(678)	
읍면지역	3.27 ^a	0.91	3.29*	76.7	23.3	100.0(265)	5.89(2)
중소도시	3.40 ^b	0.85		84.3	15.7	100.0(655)	

* $p < .05$, ** $p < .01$ *** $p < .0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가족 공동체'를 살펴보면, 6점 만점에 평균 4.94점으로, 12.6%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6문항의 면

집 질문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 영역은 가족 사이의 상호 즐거움과 동지애를 제공하는 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 특성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5-32〉 HOME: 가족 공동체

단위: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4.94	1.20	-	87.4	12.6	100.0(1,598)	-
모 학력							
고졸이하	4.61 ^a	1.40	27.87 ^{**}	79.8	20.2	100.0(463)	36.85(2) ^{**}
전문대졸	4.97 ^b	1.14		88.1	11.9	100.0(435)	
대졸이상	5.16 ^c	1.04		92.3	7.7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66 ^a	1.41	12.06 ^{***}	81.1	18.9	100.0(399)	20.74(3) ^{**}
341~400만원	4.96 ^b	1.16		88.1	11.9	100.0(393)	
401~530만원	5.07 ^b	1.06		92.3	7.7	100.0(395)	
531만원 이상	5.12 ^b	1.08		89.3	10.7	100.0(392)	
지역							
대도시	4.88	1.26	0.19	85.5	14.5	100.0(678)	0.42(2)
읍면지역	4.94	1.19		87.3	12.7	100.0(265)	
중소도시	5.01	1.14		89.4	10.6	100.0(655)	

*** $p < .0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강화'를 살펴보면, 8점 만점에 평균 5.99점으로, 19.3%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8문항의 면접 질문으로 구성된 강화는 자녀의 발달을 위한 가족 및 지역 공동체 자원의 의식적 이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강화는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 지역이 읍면지역인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의 발달을 위한 가족 및 지역 공동체 자원의 의식적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33〉 HOME: 강화

단위: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5.99	1.76	-	80.7	19.3	100.0(1,598)	-

(표 II-5-33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모 학력							
고졸이하	5.49 ^a	1.91	52.26 ^{***}	70.2	29.8	100.0(463)	68.58(2) ^{***}
전문대졸	5.83 ^b	1.68		79.5	20.5	100.0(435)	
대졸이상	6.42 ^c	1.59		88.2	11.8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57 ^a	1.98	18.36 ^{***}	73.9	26.1	100.0(399)	29.15(3) ^{***}
341~400만원	6.04 ^b	1.67		82.6	17.4	100.0(393)	
401~530만원	5.96 ^b	1.72		79.1	20.9	100.0(395)	
531만원 이상	6.45 ^c	1.56		87.4	12.6	100.0(392)	
지역							
대도시	6.11 ^b	1.68	10.33 ^{***}	82.5	17.5	100.0(678)	8.51(2) [*]
읍면지역	5.53 ^a	1.93		72.9	27.1	100.0(265)	
중소도시	6.05 ^b	1.75		82.0	18.0	100.0(655)	

* $p < .05$, *** $p < .0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학습자료와 기회'를 살펴보면, 8점 만점에 평균 5.01점으로, 16.9%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학습자료와 기회제공 환경은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학습을 지지하는 환경 조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5-34〉 HOME: 학습자료와 기회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5.01	1.54	-	83.1	16.9	100.0(1,598)	-
모 학력							
고졸이하	4.67 ^a	1.63	25.76 ^{***}	74.9	25.1	100.0(463)	52.43(2) ^{***}
전문대졸	4.93 ^b	1.50		81.7	18.3	100.0(435)	
대졸이상	5.28 ^c	1.47		89.0	11.0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67 ^a	1.63	13.78 ^{***}	74.7	25.3	100.0(399)	36.13(3) ^{***}
341~400만원	4.98 ^b	1.53		83.2	16.8	100.0(393)	
401~530만원	5.10 ^b	1.51		86.0	14.0	100.0(395)	
531만원 이상	5.30 ^c	1.45		88.3	11.7	100.0(392)	

단위: %(가구)

(표 II-5-34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지역							
대도시	4.99	1.50		84.3	15.7	100.0(678)	
읍면지역	5.03	1.62	1.50	81.8	18.2	100.0(265)	5.32(2)
중소도시	5.03	1.55		82.4	17.6	100.0(655)	

*** $p < .0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정서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8점 만점에 평균 5.55점으로, 27.7%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인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5-35〉 HOME: 정서적 분위기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5.55	1.69	-	72.3	27.7	100.0(1,598)	-
모 학력							
고졸이하	5.36 ^a	1.78		67.2	32.8	100.0(463)	
전문대졸	5.53 ^b	1.61	7.14 ^{**}	72.5	27.5	100.0(435)	10.29(2) ^{**}
대졸이상	5.69 ^b	1.67		75.5	24.5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45	1.72		69.8	30.2	100.0(399)	
341~400만원	5.62	1.65	1.82	74.4	25.6	100.0(393)	
401~530만원	5.49	1.68		71.9	28.1	100.0(395)	
531만원 이상	5.73	1.68		74.6	25.4	100.0(392)	
지역							
대도시	5.54	1.69		72.3	27.7	100.0(678)	
읍면지역	5.73	1.75	2.21	75.5	24.5	100.0(265)	3.12(2)
중소도시	5.49	1.65		71.0	29.0	100.0(655)	

** $p < .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성숙 장려'를 살펴보면, 7점 만점에 평균 6.25점으로, 18.3%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5개의 면접 질문과 2개의 관찰 문항으로 구성된 성숙 장려는 자녀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 가족 내 규칙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자녀의 성숙 장려는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성숙한 행동,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어머

니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 가구의 거주지역이 중소도시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5-36〉 HOME: 성숙함 장려

단위: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6.25	1.11	-	81.7	18.3	100.0(1,598)	-
모 학력							
고졸이하	6.03 ^a	1.25	18.95 ^{***}	73.8	26.2	100.0(463)	30.75(2) ^{***}
전문대졸	6.37 ^b	0.98		85.2	14.8	100.0(435)	
대졸이상	6.32 ^b	1.07		84.2	15.8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6.20	1.11	0.82	81.0	19.0	100.0(399)	2.25(3)
341~400만원	6.32	1.05		84.5	15.5	100.0(393)	
401~530만원	6.25	1.13		811.1	18.9	100.0(395)	
531만원 이상	6.28	1.12		83.0	17.0	100.0(392)	
지역							
대도시	6.32 ^b	1.08	4.62 [*]	84.4	15.6	100.0(678)	10.30(2) ^{**}
읍면지역	6.23 ^{ab}	1.12		80.9	19.1	100.0(265)	
중소도시	6.20 ^a	1.13		79.2	20.8	100.0(655)	

* $p < .05$, ** $p < .01$, *** $p < .001$.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 척도 중 '반응성'을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평균 9.31점으로, 15.6%가 중위수보다 2점이 낮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4개의 면접 질문과 6개의 관찰 문항으로 구성된 반응성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반응성은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응성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 가구의 거주지역이 읍면지역이거나, 중소도시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37〉 HOME: 반응성

단위: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전체	9.31	1.41	-	84.4	15.6	100.0(1,598)	-
모 학력							
고졸이하	9.00 ^a	1.63	19.84 ^{***}	76.1	23.9	100.0(463)	35.21(2) ^{***}
전문대졸	9.49 ^b	1.22		89.9	10.1	100.0(435)	
대졸이상	9.38 ^b	1.34		85.8	14.2	100.0(692)	

(표 II-5-37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일반 집단	위험집단	계(수)	$\chi^2(df)$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9.29	1.38	2.16	84.1	15.9	100.0(399)	3.47(3)
341~400만원	9.37	1.32		86.3	13.7	100.0(393)	
401~530만원	9.25	1.52		82.4	17.6	100.0(395)	
531만원 이상	9.45	1.09		86.7	13.3	100.0(392)	
지역							
대도시	9.41 ^b	1.35	6.28 ^{**}	87.9	12.1	100.0(678)	17.55(2) ^{***}
읍면지역	9.28 ^a	1.40		81.8	18.2	100.0(265)	
중소도시	9.21 ^a	1.46		81.7	18.3	100.0(655)	

** $p < .01$, *** $p < .001$.

바. 소결

패널 가구를 통해 본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89.6%로 대다수가 해당하며, 평균 가구원 수는 4.14명으로 집계되었다.

주거환경을 보면 아파트 거주자가 76.7%로 가장 많고, 다세대 주택이 12.6%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자는 7.8%에 불과하다. 주거 환경의 습기 여부 및 정도, 곰팡이 여부, 냄새 정도, 집의 연식, 바닥재, 난방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열악하거나 불편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6.1%의 아동이 개별 방을 갖고 있으나 이 역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개별 방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

가구소득은 평균 464만원 수준으로 2014년 451만원보다 약 13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국 4인 가구 평균 소득 519만원³⁾에 비해 약 55만원 정도 적다. 동일한 4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 조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므로 연령이 비교적 적고, 세금,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근로소득은 185만원 정로 195만원 정도였던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가 인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 시 중간 단계보다 낮은 4.86단계이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비교할 때는 5.20 단계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입(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I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16.11.02. 인출)

6. 학교 특성

가. 학교 특성 관련 변인 구성

8차년도 조사의 학교 특성은 크게 공교육, 돌봄 서비스, 사교육으로 구분되며, 그 중 공교육은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 교사 특성, 연계 특성 등을 포함한다(표 II-6-1 참조). 특히 8차년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진학 시기라는 점에 맞추어 초등학교 여러 가지 특성과 함께 유-초 연계와 관련된 문항을 조사했으며, 해당 시점의 정책을 반영하여 9시 등교, 초등돌봄교실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표 II-6-1〉 8차년도 학교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교육	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 기관 ◦ 결석 여부, 결석일, 결석 이유 ◦ 이용 만족도, 월평균 교육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학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지역, 소속 교육청, 설립 유형 ◦ 1학년 등교 시간, 무상 급식 여부 및 장소 ◦ 특색사업 해당 여부, 아동 발달에 도움 정도 ◦ 동료 교사 태도 인식, 학교장의 지도성
	물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교사 대 아동 비율 인식 ◦ 교실 크기 적절성, 학교 환경 ◦ 특별실 및 기타 시설 구비 여부, 환경 인식 ◦ (학교 및 학원) 리모델링 여부, 리모델링 종류
	교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최종학력, 경력, 해당 학년 담임 경력, 직위 ◦ 근무 시간, 근무 일 ◦ 교직 동기, 만족도, 교수 효능감, 업무 스트레스
	학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교실 참여 정도, 통합학급 학생 여부 ◦ 과제 부과 정도, 소요 예상 시간, 과제량 적절성 ◦ 수업활동 방식
공교육	유-초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 ◦ 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 필요성 ◦ 생활기록부 연계의 도움 정도 ◦ 유-초 연계 관련 연수 여부
	가정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하교길 동반 빈도 ◦ 행사 참여 여부, 참여 빈도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돌봄 서비스	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유형, 시간, 빈도, 비용, 만족도
사교육	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과목, 시간, 기관,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이용/미이용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영어 사교육 이유

나. 공교육

1) 이용 특성

학교 이용 특성으로는 학교 진학, 출결, 비용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가) 학교 진학 및 출결

8차년도 조사시점인 2015년도에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99.4%이다. 입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명(0.3%)의 미진학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없어서이며 대체 이용 기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었다.

〈표 II-6-2〉 학교 진학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올해 입학함	작년에 입학함	입학하지 않음	
전체	99.4	0.4	0.3	100.0(1,598)

지난 한 학기동안 결석한 적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23.7%이며, 성별이나 모 취업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결석률이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6-3〉 아동의 학교 결석 여부

구분	단위: %(명)			$\chi^2(df)$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3.7	76.3	100.0(1,595)	
성별				
남아	24.8	75.2	100.0(816)	2.17(1)
여아	22.5	77.5	100.0(77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1.8	78.2	100.0(183)	7.27(2)*
첫째	27.6	72.4	100.0(559)	
둘째 이상	21.2	78.8	100.0(853)	
모 취업 여부				
취업	23.9	76.1	100.0(873)	0.03(1)
미취업	24.1	75.9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3.6	76.4	100.0(399)	0.83(3)
341~400만원	26.2	73.8	100.0(392)	
401~530만원	22.7	77.3	100.0(393)	
531만원 이상	22.4	77.6	100.0(392)	

(표 II-6-3 계속)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지역 규모				
대도시	25.2	74.8	100.0(676)	
중소도시	24.1	75.9	100.0(654)	3.62(2)
읍면지역	18.9	81.1	100.0(265)	

* $p < .05$.

결석한 적이 있는 아동의 결석 이유로는 질병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14.5%), 가족행사 및 여행으로 인한 결석도 8.7%이었다. 0.4%의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사고로 인한 경우 평균 8.37일을 결석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긴 기간 동안 결석하는 이유로 꼽혔다.

〈표 II-6-4〉 결석 이유 및 일 수(중복응답)

단위: 일(명)									
구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구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사고	0.4	8.37	9.70	(7)	가족행사 및	8.7	3.83	5.38	(121)
질병	14.5	2.97	3.08	(230)	여행				
기타	1.0	1.88	1.54	(18)	이유 없음	0.6	1.41	1.21	(9)

나) 이용 만족도 및 비용

국·공립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형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가정에서 교육비용으로 월평균 부담하는 비용은 54만 8천원이었다.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3.53점으로 적당하거나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소득에 따라서는 401만원에서 530만원대의 집단에서 월평균 교육비용이 가장 큰 822,600원으로 나타났으며, 34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105,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읍면지역보다 11배 정도 많이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대한 부모(주양육자)의 이용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9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소득이 34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표 II-6-5〉 초등학교 비용, 부담 정도 및 만족도

단위: 만원, 점(명)

구분	월 평균 교육비용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4.80	55.07	(42)	3.53	0.90	(34)	3.94	0.64	(1,595)
소득									
340이하	10.56 ^a	20.42	(4)	3.00	0.00	(1)	3.83 ^a	0.72	(399)
341~400	12.24 ^a	19.78	(8)	2.54	0.72	(6)	3.97 ^b	0.57	(392)
401~530	82.26 ^b	73.32	(11)	4.09	0.46	(9)	3.96 ^b	0.64	(393)
531이상	56.09 ^b	32.89	(17)	3.54	0.87	(16)	4.02 ^b	0.62	(392)
F	3.33*			2.40			2.82*		
지역규모									
대도시	93.14 ^a	63.89	(16)	3.92 ^a	0.44	(15)	3.89	0.68	(676)
중소도시	37.62 ^a	31.61	(21)	3.39 ^b	1.02	(16)	4	0.6	(654)
읍면	8.52 ^b	14.65	(5)	2.19 ^b	0.39	(3)	3.94	0.61	(265)
F	7.18**			5.50**			1.63		

주: 1) 월 평균 교육비용과 비용 부담 정도는 패널 아동이 국·공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한 값이며, 만족도는 모든 초등학교 유형을 포함하여 산출된 값임.

2) 비용 부담 정도와 만족도는 5점 척도임.

3) 소득별로 나타난 표에서는 무응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사례수가 달라짐.

* $p < .05$, ** $p < .01$.

2) 학교 특성

학교 특성으로는 초등학교의 소재지, 설립 유형, 등교시간, 무상 급식 여부, 특색사업 해당 여부, 동료교사 태도 및 학교장의 지도성 등을 조사하였다.

가) 소재지

조사에 응답한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즉, 패널 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대도시 42.6%, 중소도시 39.9%, 읍·면지역 17.5%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II-6-6〉 학교 소재지

단위: %(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계(수)
42.6(435)	39.9(414)	17.5(178)	100.0(1,027)

나) 설립유형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국·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으며(96.9%),

2.3%는 사립초등학교, 0.6%는 초등대안학교, 0.1%는 국제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타도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7〉 학교 설립 유형

					단위: %(명)	
국·공립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국제초등학교	초등대안학교	기타	계(수)	
96.9(1,553)	2.3(29)	0.1(3)	0.6(9)	0.1(1)	100.0(1,595)	

다) 등교시간, 무상급식 및 특색사업

8차년도 조사 시점에 실시 학교 정책인 9시 등교, 무상 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인지에 대해 교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등교시간이 9시 이전인 경우가 66.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33.6%이었다. 대도시 지역은 9시 이전에 등교하는 비율이 79.4%로 9시에 등교하는 학교보다 훨씬 많았으며 읍면지역도 유사하였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9시에 등교하는 학교가 48.1%로 비교적 많았다.

〈표 II-6-8〉 1학년 등교시간

구분				단위: %(명)	
	9시 이전 등교	9시 등교	계(수)	$\chi^2(df)$	
전체	66.4	33.6	100.0(1,031)	-	
지역 규모					
대도시	79.4	20.6	100.0(437)		
중소도시	51.9	48.1	100.0(415)	111.81(2)***	
읍면지역	67.7	32.3	100.0(179)		

*** $p < .001$.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약 80% 이상이였으며, 식당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과반수 이상(62.2%)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안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20.3%),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학교들은 식당을 마련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9〉 무상급식 여부 및 급식 제공 장소

단위: %(명)

구분	무상급식 아님	식당에서 무상급식	교실에서 무상급식	계(수)	$\chi^2(df)$
전체	17.3	62.2	20.4	100.0(1,031)	-
지역 규모					
대도시	20.3	57.0	22.7	100.0(437)	69.53(4) ***
중소도시	14.9	60.5	24.5	100.0(415)	
읍면지역	15.6	78.8	5.6	100.0(179)	

*** $p < .001$.

아동이 어떠한 교육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학교의 중점 특색사업 실시 여부를 교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중점 특색사업으로는 혁신학교(혁신준비학교, 혁신공감학교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과중심(교과교실제 및 교육과정, 교과연구학교, 교육특화 등), 인성중심, 예술체육중심, 환경중심, 독서중심 등이 있다. 사업 중에서 인성중심과 독서중심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각각 68.6%, 61.4%로 다른 사업에 비해 시행 비율이 높았다. 혁신학교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인성중심은 대도시에서, 독서중심은 중소도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표 II-6-10〉 중점 특색사업 해당여부

단위: %(명)

구분	혁신 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교과 중심	인성 중심	예술 체육 중심	환경 중심	독서 중심	기타	계(수)
전체	25.7	28.5	39.7	68.6	42.5	17.2	61.4	21.7	100.0(1,031)
지역 규모									
대도시	8.3	40.7	38.2	70.8	38.8	15.4	61.8	20.8	100.0(437)
중소도시	42.3	21.4	41.9	69.1	44.7	18.4	65.5	21.7	100.0(415)
읍면지역	30.4	14.9	38.4	62.3	46.4	19.1	51.5	23.8	100.0(179)
$\chi^2(df)$	149.05(2)***	38.83(2)***	0.50(2)	7.96(2)*	4.65(2)	1.75(2)	9.30(2)*	0.60(2)	-

주: 비율은 특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시함.

* $p < .05$, *** $p < .001$.

교사들은 이러한 중점 특색사업이 아동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평균 3.8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독서중심(4.49점), 예술체육중심(4.39점), 환경중심(4.28점)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환경중심 특색사업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중소

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도움 정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표 II-6-11〉 아동발달에 대한 특색사업의 도움 정도-1

단위: %(점)

구분	혁신학교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과중심			인성중심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83	1.05	(272)	3.83	1.05	(269)	3.83	1.05	(432)	3.83	1.05	(731)
지역 규모												
대도시	3.68	1.06	(33)	3.68	1.06	(155)	3.68	1.06	(178)	3.68	1.06	(328)
중소도시	3.83	1.06	(183)	3.83	1.06	(87)	3.83	1.06	(179)	3.83	1.06	(288)
읍면지역	3.93	1.01	(56)	3.93	1.01	(27)	3.93	1.01	(75)	3.93	1.01	(115)
F		1.01			1.86			0.46			0.43	

〈표 II-6-12〉 아동발달에 대한 특색사업의 도움 정도-2

단위: %(점)

구분	예술체육중심			환경중심			독서중심			기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39	0.69	(452)	4.28	0.72	(183)	4.49	0.68	(644)	4.20	0.88	(226)
지역 규모												
대도시	4.32	0.70	(175)	4.03 ^a	0.75	(71)	4.49	0.69	(274)	4.12	0.91	(92)
중소도시	4.44	0.67	(191)	4.37 ^b	0.64	(75)	4.46	0.71	(275)	4.15	0.89	(96)
읍면지역	4.45	0.69	(86)	4.55 ^b	0.67	(37)	4.57	0.57	(95)	4.44	0.75	(38)
F		0.52			3.48 [*]			1.22			0.96	

* $p < .05$.

라) 동료 교사 및 학교장

아동이 어떠한 분위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에게 동료 교사 및 학교장의 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동료 교사들의 태도로서 교사의 사기와 열의, 학업 성취, 인성, 창의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료 교사들의 사기와 열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4.15점), 학업 성취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평균 3.85점, 인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4.67점, 창의성을 중요시한다는 응답은 4.31점으로 학업성취보다는 인성교육이나 창의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표 II-6-13〉 동료 교사 태도

단위: 점(명)

구분	사기와 열의		학업 성취		인성		창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5	0.69	3.85	0.81	4.67	0.53	4.31	0.71	(1,031)
지역 규모									
대도시	4.16	0.67	3.86	0.79	4.68	0.50	4.33	0.67	(437)
중소도시	4.12	0.70	3.80	0.78	4.64	0.58	4.26	0.76	(415)
읍면지역	4.22	0.69	3.95	0.92	4.71	0.47	4.42	0.63	(179)

학교장의 인화 중심 지도성은 평균 3.87점, 과업 중심 지도성은 평균 3.97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중소도시인 경우, 과업 중심 지도성 점수가 도시지역 또는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6-14〉 학교장 지도성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점(명)

구분	인화 중심		과업 중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7	0.81	3.97	0.61	(1,031)
지역 규모					
대도시	3.88	0.80	4.03	0.60	(437)
중소도시	3.83	0.82	3.90	0.60	(415)
읍면지역	3.96	0.82	4.02	0.66	(179)
F	0.90		4.16*		

* $p < .05$.

3) 물리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학급 및 학생 수, 시설 구비 등의 학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학급 및 학생 수

교사 대상 조사 결과, 해당 학년 학급 수는 평균 5.39학급이며,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 학교에서 평균 학급 수가 적었다. 아동이 속한 학급의 학생 수는 평균 24.79명이며,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평균 학생 수가 많았다.

〈표 II-6-15〉 전체 학급 수 및 해당학급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39	2.63	24.79	5.35	(1,031)
지역 규모					
대도시	5.74 ^a	2.73	23.82 ^a	4.85	(437)
중소도시	5.38 ^a	2.39	26.59 ^b	4.58	(415)
읍면지역	4.59 ^b	2.76	23.05 ^a	6.66	(179)
F	10.52 ^{***}		53.97 ^{***}		

*** $p < .001$.

이러한 학급 아동 수에 대해 교사들의 절반 이상(59.0%)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역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은 50.4%이고 적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나 중소도시의 경우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평균 26.59명) 적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5.9%이었다.

〈표 II-6-16〉 학급 아동 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단위: %(명)

구분	많다고 생각함	적당하다고 생각함	적다고 생각함	계(수)	$\chi^2(df)$
전체	59.0	38.2	2.9	100.0(1,031)	-
지역 규모					
대도시	47.5	50.4	2.0	100.0(437)	
중소도시	49.1	27.5	15.9	100.0(415)	79.63(4) ^{***}
읍면지역	55.9	35.2	8.9	100.0(179)	

*** $p < .001$.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비율에 있어서도 중소도시의 경우 19.62명으로 다른 지역 교사들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교사 1인당 적합한 평균 아동 수는 18.71명이었다. 또한 교실 크기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3.2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2.92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다.

〈표 II-6-17〉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비율 및 교실 크기 적절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명)

구분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수			교실 크기 적절성			(수)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18.71	3.88	-	3.23	1.18	--	(1,031)

(표 II-6-17 계속)

구분	교사 1인당 적합한 아동 수			교실 크기 적절성			(수)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지역 규모							
대도시	18.07 ^a	3.81	26.32 ^{***}	3.48 ^a	1.17	25.90 ^{***}	(437)
중소도시	19.62 ^b	3.72		2.92 ^b	1.11		(415)
읍면지역	18.18 ^a	3.99		3.33 ^a	1.19		(179)

*** $p < .001$.

나) 학교 시설

학교 시설은 도서실, 영어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강당/체육관, 놀이터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의 환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도서실의 경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모든 학교에는 도서실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99.8%의 응답을 보였다. 도서실 환경에 대해서는 평균 3.89점으로 대체로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6-18〉 도서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99.9	0.1	1000(1,031)	-	3.89	0.87	(1,030)	-
지역 규모								
대도시	99.8	0.2	1000(437)	1.36(2)	3.96	0.86	(436)	2.30
중소도시	100.0	0.0	1000(415)		3.81	0.88	(415)	
읍면지역	100.0	0.0	1000(179)		3.92	0.86	(179)	

둘째, 90.0%의 학교에 영어교실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서실과 달리 영어교실은 중소도시(41.1%)보다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두 배 가량 더 많이 구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3.89점으로 대체로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6-19〉 영어교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90.0	10.0	1000(1,031)	-	3.89	0.81	(944)	-

(표 II-6-9 계속)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F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규모								
대도시	88.3	11.7	100(437)		3.95 ^a	0.77	(402)	
중소도시	41.1	29.4	100(415)	4.33(2)	3.80 ^a	0.83	(385)	4.82 ^{**}
읍면지역	88.1	11.9	100(179)		3.97 ^a	0.82	(157)	

** $p < .01$

셋째, 과학실이 있는 학교는 전체의 99.4%이며 지역별로 유사하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3.82점이었다.

〈표 II-6-20〉 과학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F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9.4	0.6	100(1,031)	-	3.82	0.82	(1,025)	-
지역 규모								
대도시	99.3	0.7	100(437)		3.84	0.80	(434)	
중소도시	99.5	0.5	100(415)	1.80(2)	3.83	0.82	(414)	1.61
읍면지역	99.2	0.8	100(179)		3.76	0.86	(177)	

넷째, 컴퓨터실이 구비되어 있는 학교는 99.0%로 도서실, 과학실 및 컴퓨터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실 환경에 대해서는 평균 3.74점으로 응답하였는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낮게 평가하였다.

〈표 II-6-21〉 컴퓨터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F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9.0	1.0	100(1,031)	-	3.74	0.89	(1,022)	-
지역 규모								
대도시	99.3	0.7	100(437)		3.85 ^a	0.83	(434)	
중소도시	99.3	0.7	100(415)	4.74(2)	3.64 ^b	0.93	(413)	8.41 ^{***}
읍면지역	97.4	2.6	100(179)		3.69 ^b	0.91	(175)	

*** $p < .001$.

다섯째, 음악실을 구비한 학교는 전체의 70.9%이나, 읍면지역의 경우 59.8%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3.59점이었다.

〈표 II-6-22〉 음악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70.9	29.1	1000(1,031)	-	3.59	0.92	(748)	-
지역 규모								
대도시	74.6	25.4	1000(437)		3.63	0.88	(337)	
중소도시	71.9	28.1	1000(415)	19.35(2) ^{***}	3.55	0.92	(304)	0.06
읍면지역	59.8	40.2	1000(179)		3.58	1.01	(107)	

*** $p < .001$.

여섯째, 강당이나 체육관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88.5%이며, 대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약 90% 이상의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38.4%로 낮은 편이어서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3.98점으로 대체로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6-23〉 강당/체육관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88.5	11.5	1000(1,031)	-	3.98	0.90	(923)	-
지역 규모								
대도시	91.1	8.9	1000(437)		3.91	0.90	(404)	
중소도시	38.4	51.7	1000(415)	8.72(2) [*]	4.00	0.94	(358)	2.38
읍면지역	90.0	10.0	1000(179)		4.11	0.81	(161)	

* $p < .05$.

일곱째, 전체의 93.5%의 학교가 놀이터를 구비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39.5%로 낮았다. 환경에 대해서는 평균 3.52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I-6-24〉 놀이터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93.5	6.5	1000(1,031)	-	3.52	0.87	(974)	-

(표 II-6-24 계속)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F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규모								
대도시	93.3	6.7	100(437)	2.28(2)	3.51	0.82	(415)	0.23
중소도시	39.5	45.2	100(415)		3.52	0.89	(387)	
읍면지역	96.0	4.0	100(179)		3.50	0.93	(172)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 구비 여부에 대해 가사실, 각종 방과 후 교실, Wee클래스, 시청각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기타 시설이 있는 학교는 전체의 73.2%로 나타났다. 기타 시설 또한 중소도시(41.2%)보다는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타 시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3.83점이었다.

〈표 II-6-25〉 기타 시설 구비 여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구비 여부				환경 인식			F
	있다	없다	계(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3.2	26.8	100(1,031)	-	3.83	0.78	(742)	-
지역 규모								
대도시	71.6	28.4	100(437)	2.64(2)	3.84	0.79	(309)	0.16
중소도시	41.2	36.3	100(415)		3.81	0.74	(313)	
읍면지역	71.8	28.2	100(179)		3.83	0.84	(120)	

다) 건물 및 주변 환경

교사들은 학교의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 환경, 통학 조건 등 학교 환경에 대한 문항에 모두 평균 3.60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학교 환경을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통 편의성 등의 통학 조건에 대해서는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의 통학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좋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표 II-6-26〉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명)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 환경		통학 조건 (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1	0.97	3.60	0.89	3.71	0.95	3.75	1.06	100.0(1,031)

(표 II-6-26 계속)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 환경		통학 조건 (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3.58	0.99	3.58	0.89	3.73	0.90	3.64 ^a	1.06	100.0(437)
중소도시	3.63	0.94	3.59	0.90	3.71	0.95	3.93 ^b	1.02	100.0(415)
읍면지역	3.63	0.95	3.68	0.90	3.76	0.95	3.62 ^a	1.11	100.0(179)
F	0.20		0.13		2.16		8.38 ^{***}		-

*** $p < .001$.

라) 학교의 리모델링

학교(학원 포함)의 리모델링 여부와 리모델링을 한 종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부모들의 17.6%가 최근 1년 이내에 학교(학원 포함)가 리모델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리모델링 종류에 대해서는 페인트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45.8%), 바닥재 교체, 새로운 구획분할, 기타, 도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27〉 학교의 리모델링 여부 및 종류

단위: %(명)

리모델링 여부				리모델링 종류(중복응답)					(수)
있다	없다	잘모름	계(수)	페인트칠	도배	바닥재 교체	새로운 구획 분할	기타	
17.6	62.4	20.0	100.0(1,577)	45.8	23.7	39.1	27.7	28.5	(261)

4) 교사 특성

패널 아동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과 과 근무 시간 등의 근무 여건, 그리고 교직 동기, 교수 효능감 등을 살펴보았다.

가) 교사의 일반적 특성

먼저, 담임교사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교사가 95.3%, 남자 교사는 4.7%로 나타나 비록 읍면지역에는 남자 교사의 비율이 8.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여자 교사의 비율이 모두 90%를 넘어 여자 교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평균연령은 41.95세로 나타났다.

〈표 II-6-28〉 교사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성별				연령			
	여	남	계(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95.3	4.7	1000(1,031)	-	41.95	9.44	(1,031)	-
지역 규모								
대도시	95.4	4.6	1000(437)		41.72	9.16	(437)	
중소도시	96.9	3.1	1000(415)	11.0(2)**	42.66	9.59	(415)	2.93
읍면지역	91.5	8.5	1000(179)		40.92	9.61	(179)	

** $p < .01$.

교사의 총 경력은 평균 17.58년이며, 1학년 담임 경력은 평균 4.31년이었다.

〈표 II-6-29〉 교사경력 및 1학년 담임경력

단위: 년(명)

구분	교사 경력				1학년 담임 경력			
	평균	표준편차	(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17.58	9.94	(1,031)	-	4.31	3.72	(1,031)	-
지역 규모								
대도시	17.55	9.75	(437)		4.26	3.95	(437)	
중소도시	17.86	10.19	(415)	1.11	4.34	3.36	(415)	0.66
읍면지역	17.02	9.79	(179)		4.36	3.89	(179)	

교사의 최종학력은 대졸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60.4%), 석사과정이거나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도 약 30% 이상이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석사 혹은 박사학위소지자가 비교적 많았다.

〈표 II-6-30〉 교사의 최종학력 및 직위

단위: %(명)

구분	최종 학력							직위			(수)
	초대졸	대졸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일반교사	부장교사	기타		
전체	5.3	60.4	9.6	22.8	1.0	0.9	72.9	26.7	0.4	(1,031)	
지역 규모											
대도시	5.1	57.2	7.6	26.5	2.1	1.4	73.3	26.3	0.4	(437)	
중소도시	6.1	66.3	9.9	17.5	0.2	0.0	70.8	28.7	0.4	(415)	
읍면지역	3.8	55.0	13.6	25.9	0.0	1.7	76.5	23.0	0.5	(179)	
$\chi^2(df)$	30.84(10)**							0.77(4)			

** $p < .01$.

나) 근무 여건

교사의 근무 여건으로 근무시간과 주말 근무 일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은 510.02분(시간 환산 8시간 30분)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주말 근무일은 0.44일이며, 주말 1일 평균 근무시간은 262.27분(시간 환산 약 4시간 22분)이었다.

〈표 II-6-31〉 교사 근무시간

구분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주말 근무 일			주말 1일 평균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10.02	58.39	(1,031)	0.44	0.87	(1,031)	262.27	100.59	(308)
지역 규모									
대도시	512.87	67.36	(437)	0.42	0.78	(437)	252.19	90.87	(147)
중소도시	510.54	54.14	(415)	0.37	0.87	(415)	259.78	94.22	(101)
읍면지역	503.78	47.79	(179)	0.43	0.76	(179)	269.14	100.16	(60)
F		0.75			0.19			1.33	

단위: 분, 일(명)

다) 교직 동기, 교수 효능감 등

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교사가 되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응답이 20.8%, 아이들을 좋아함이 17.0%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교사들의 경우에 가르치는 일이 좋다는 응답이 1순위(25.3%)이었지만, 직업의 안정성(22.2%)과 아이들을 좋아한다(22.1%)는 응답 또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주변의 권고(19.6%)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대 이상의 교사들의 응답 패턴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표 II-6-32〉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단일 선택)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9	20.8	3.0	43.5	10.8	17.0	1.0	100.0(1,031)	-	
교사연령										
20대	2.0	22.2	8.1	25.3	19.6	22.1	0.7	100.0(110)		
30대	1.9	20.6	2.7	44.0	11.7	17.7	1.5	100.0(311)		
40대	5.3	19.1	2.5	47.5	9.5	15.5	0.5	100.0(326)	40.50(18)**	
50대 이상	5.3	22.5	1.7	45.8	7.8	15.7	1.2	100.0(284)		

(표 II-6-32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교사경력									
10년차 이하	1.9	21.8	5.0	39.6	13.6	17.2	0.9	100.0(286)	27.77(18)
11~20년	3.8	17.9	2.1	46.7	9.0	19.4	1.1	100.0(367)	
21~30년	5.6	22.1	3.2	40.8	12.6	14.8	1.0	100.0(241)	
31년차 이상	5.7	24.0	0.6	47.7	7.0	13.9	1.2	100.0(137)	

주: ①사회적 인정, ②직업의 안정성, ③시간적인 여유(방학 등), ④가르치는 일이 좋음, ⑤주변의 권고, ⑥아이들을 좋아함, ⑦기타.

** $p < .01$.

교사들이 보고한 자신의 교수 효능감은 교수에 관해서는 4.38점, 생활지도에 관해서는 4.26점으로 모두 5점에 가까워서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직 만족도는 평균 4.02점으로 교사들은 교직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경력이 증가할수록 교수효능감 및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33〉 교수 효능감 및 교직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교수 효능감				교직 만족도		(수)
	교수 관련		생활지도 관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8	0.46	4.26	0.56	4.02	0.72	(1,031)
교사 연령							
20대	4.12 ^a	0.51	3.94 ^a	0.65	3.74 ^a	0.80	(110)
30대	4.37 ^b	0.46	4.19 ^b	0.57	3.96 ^b	0.73	(311)
40대	4.40 ^b	0.44	4.31 ^b	0.50	4.06 ^c	0.71	(326)
50대 이상	4.49 ^c	0.42	4.43 ^c	0.51	4.17 ^c	0.67	(284)
F	22.01 ^{***}		29.72 ^{***}		12.62 ^{***}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4.23 ^a	0.48	4.06 ^a	0.61	3.93 ^a	0.78	(286)
11~20년	4.42 ^b	0.46	4.28 ^b	0.54	3.99 ^a	0.72	(367)
21~30년	4.46 ^b	0.40	4.37 ^c	0.48	4.09 ^b	0.67	(241)
31년차 이상	4.48 ^c	0.45	4.47 ^c	0.49	4.19 ^c	0.66	(137)
F	18.97 ^{***}		25.18 ^{***}		7.27 ^{***}		

*** $p < .001$.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및 행정업무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학부모와의 관계와 수업지도는

2.5~3.0점 사이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지도 및 행정업무는 3.0점 이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학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교사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업무 관련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교사 경력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6-35〉 업무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5	1.11	3.49	1.14	2.57	1.03	3.33	1.17	(1,031)
교사연령									
20대	2.88 ^b	1.13	3.59	1.02	2.80	0.97	3.53 ^b	1.14	110
30대	3.19 ^c	1.09	3.49	1.15	2.56	1.01	3.55 ^b	1.12	311
40대	2.93 ^b	1.10	3.43	1.16	2.54	1.03	3.34 ^b	1.16	326
50대이상	2.73 ^a	1.11	3.49	1.15	2.52	1.06	2.97 ^a	1.18	284
F	7.75 ^{***}		0.30		1.57		17.32 ^{***}		
교사경력									
10년차이하	2.94 ^b	1.13	3.55	1.08	2.65	1.03	3.56 ^c	1.13	286
11~20년	3.12 ^c	1.12	3.40	1.17	2.52	0.97	3.44 ^c	1.14	367
21~30년	2.80 ^b	1.07	3.53	1.14	2.61	1.07	3.15 ^b	1.20	241
31년차이상	2.76 ^a	1.09	3.51	1.16	2.47	1.06	2.84 ^a	1.13	137
F	4.09 ^{**}		0.77		1.20		16.86 ^{***}		

*** $p < .001$, ** $p < .01$.

5) 학급 운영

패널 아동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 시간 등의 근무 여건, 그리고 교직 동기, 교수 효능감 등을 살펴보았다.

가) 학생 특성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을 때 평균 3.66점으로 보통 이상의 약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읍면지역의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참여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교사들이 아동에게 부과한 과제의 예상 소요시간은 15~30분 미만이 58.7%이며, 30분~1시간 21.0%, 15분 미만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6-38〉 학교 과제 예상 소요시간

단위: %(명), 점

구분	15분 미만	15-30분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계(수)	$\chi^2(df)$
전체	19.6	58.7	21.0	0.7	100.0(995)	-
지역 규모						
대도시	20.0	56.7	22.6	0.7	100.0(422)	
중소도시	18.5	60.6	19.9	1.0	100.0(399)	2.58(6)
읍면지역	21.0	59.4	19.6	0.0	100.0(174)	

다) 수업활동 방식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활동 방식에 대해 평가하였을 때, 교수자 중심 수업 방식은 평균 3.85점,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은 평균 4.00점으로 큰 차이 없이 보고되었다. 교사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수업 스타일이 학습자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교사의 경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II-6-39〉 수업방식에 대한 지각

단위: 점(명)

구분	교수자 중심			학습자 중심			(수)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3.85	0.42		4.00	0.53		(1,031)
교사 연령							
20대	3.83	0.37	1.27	3.73 ^a	0.49	18.18 ^{***}	110
30대	3.86	0.38		3.97 ^b	0.50		311
40대	3.84	0.43		4.02 ^b	0.56		326
50대이상	3.86	0.46		4.12 ^c	0.49		284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84	0.38	2.59	3.85 ^a	0.51	17.86 ^{***}	286
11~20년	3.88	0.42		4.01 ^b	0.54		367
21~30년	3.80	0.43		4.07 ^b	0.52		241
31년차 이상	3.89	0.47		4.15 ^c	0.47		137

*** $p < .001$.

6) 유아-초등교육 연계

아동이 1학년이 된 시점이므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들이 유아기 발달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유아-초등 연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들이 응답한 유아기 발달 특성 인지 정도는 평균 4.31점으로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대도시의 교사들이 좀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초등교육 연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4.48점).

〈표 II-6-40〉 유아기 발달 특성 유아-초등교육 연계에 대한 지각

구분	유아기 발달 특성 인지 정도			유아-초등교육 연계 필요성			(수)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4.31	0.85	-	4.48	0.70	-	(1,031)
지역 규모							
대도시	4.40 ^a	0.80	3.67*	4.48	0.72	0.06	(437)
중소도시	4.19 ^a	0.91		4.47	0.70		(415)
읍면지역	4.38 ^b	0.79		4.53	0.63		(179)

* $p < .05$.

유아-초등교육 연계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4.11점), 특히 읍면지역의 교사들은 4.29점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에 실시되는 적응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도움 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4.48점).

〈표 II-6-41〉 생활기록부 연계 및 적응활동 도움정도에 대한 지각

구분	생활기록부 연계			1학년 적응활동			(수)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4.11	0.92	-	4.48	0.72	-	(1,031)
지역 규모							
대도시	4.06 ^a	0.98	5.45**	4.49	0.69	0.71	(437)
중소도시	4.08 ^a	0.91		4.44	0.79		(415)
읍면지역	4.29 ^b	0.78		4.52	0.64		(179)

** $p < .01$.

한편 유아-초등교육 연계와 관련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23.9%였으며, 특히 읍면지역의 교사 연수 이수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II-6-42〉 유아-초등교육 연계 관련 연수 여부

구분	단위: %(명)			$\chi^2(df)$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계(수)	
전체	23.9	76.1	100.0(1,031)	-
지역 규모				
대도시	27.7	72.3	100.0(437)	7.68(2)*
중소도시	22.6	77.4	100.0(415)	
읍면지역	17.8	82.2	100.0(179)	

* $p < .05$.

7) 가정 협력

학교와 가정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등/하교길 동반, 학교 행사 참여 및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등을 조사하였다.

가) 등/하교길 동반

어머니가 아동의 등/하교길을 동반하는지에 대해 33.2%가 거의 매일 함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동반하는 빈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및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외동이거나 첫째아, 미취업 모, 그리고 어머니가 대졸이상의 학력인 경우 동반하는 빈도가 다소 높았다.

〈표 II-6-43〉 모의 아동 등/하교길 동반 빈도

구분	단위: %(명)								계(수)
	간 적 없음	6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23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거의 매일	
전체	5.5	5.1	11.7	8.8	12.7	7.2	15.9	33.2	100.0(1,556)
성별									
남아	4.9	5.9	11.2	8.5	14.1	7.8	15.9	31.7	100.0(792)
여아	6.1	4.3	12.2	9.2	11.2	6.5	15.9	34.7	100.0(764)
$\chi^2(df)$					9.83(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	3.4	12.4	5.6	11.2	9.6	19.1	37.1	100.0(178)
첫째	4.9	5.1	10.6	8.8	12.2	7.3	15.4	35.6	100.0(547)
둘째 이상	7.6	5.9	14.3	10.0	13.1	8.2	15.5	25.4	100.0(831)
$\chi^2(df)$					35.80(14)**				

(표 II-6-43 계속)

구분	간 적 없음	6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2-3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거의 매일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9.2	7.4	12.1	8.7	10.8	5.4	13.0	33.5	100.0(677)
미취업	2.7	3.5	10.7	9.1	14.2	8.7	18.1	33.0	100.0(856)
$\chi^2(df)$					50.02(7)***				
모 학력									
고졸이하	6.2	6.4	14.6	10.6	11.3	7.3	14.6	29.1	100.0(451)
전문대졸	4.3	4.4	12.4	7.9	14.1	6.2	19.6	31.0	100.0(429)
대졸이상	5.6	4.7	9.5	8.4	12.5	7.7	14.6	37.0	100.0(673)
$\chi^2(df)$					21.46(14)*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의 경우, 아동의 등/하교길을 동반하는지에 대해 31.9%는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에 1회(16.6%) 또는 6개월에 2~3회(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부 취업 여부 및 학력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동반하는 빈도가 다소 높았다.

<표 II-6-44> 부의 아동 등/하교길 동반 빈도

구분	간 적 없음	6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2-3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거의 매일	단위: %(명)
									계(수)
전체	31.9	16.6	17.0	9.4	8.6	4.4	5.4	6.8	100.0(1469)
성별									
남아	29.2	18.6	18.1	9.0	8.0	5.3	4.9	7.0	100.0(752)
여아	34.7	14.5	15.9	9.7	9.3	3.4	5.9	6.6	100.0(717)
$\chi^2(df)$					8.8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3.2	12.5	16.4	10.0	10.1	3.6	6.4	7.7	100.0(163)
첫째	29.7	16.6	20.5	8.1	7.7	5.0	5.6	6.8	100.0(520)
둘째 이상	33.2	17.6	14.5	10.1	8.9	4.1	4.9	6.6	100.0(786)
$\chi^2(df)$					18.19				
부 취업 여부									
취업	32.2	16.8	17.1	9.1	8.7	4.5	5.3	6.2	100.0(1389)
미취업	25.9	13.9	15.9	14.0	6.6	2.3	5.5	16.0	100.0(80)
$\chi^2(df)$					7.51				
부 학력									
고졸이하	43.6	11.9	14.3	8.8	7.2	4.7	4.0	5.5	100.0(398)
전문대졸	32.0	15.3	17.7	9.9	9.0	4.1	7.4	4.6	100.0(302)
대졸이상	25.9	19.6	18.2	9.5	9.2	4.2	5.3	8.1	100.0(761)
$\chi^2(df)$					25.41*				

* $p < .05$.

나) 학교 행사 참여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입학식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어머니는 92.8%, 아버지는 17.0%이며, 그 외 행사들에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대부분의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러 행사들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어머니 29.0%, 아버지 2.2%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6-45〉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입학식	행사 (운동회 등)	자원봉사	학부모 공개 수업	부모교육 프로그램	담임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학부모회	(수)
어머니	92.8 (1,444)	71.4 (1,111)	50.4 (785)	79.2 (1,233)	29.0 (451)	79.7 (1,240)	31.8 (495)	(1,556)
아버지	17.0 (252)	16.1 (237)	3.3 (46)	8.8 (144)	2.2 (31)	5.0 (72)	1.4 (22)	(1,469)

행사 참여빈도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6개월에 2~3회(44.0%) 혹은 월 1회 정도(26.2%)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나 아버지의 경우 79.1%가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 학력이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참여빈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모 가정에서는 미취업모에 비해 어머니의 참여빈도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거나 아버지는 참여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표 II-6-46〉 어머니의 학교 행사 참여빈도

단위: %(명)

구분	참여한 적 없음	6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2~3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거의 매일	계(수)
전체	1.5	13.4	44.0	26.2	9.4	2.5	1.0	2.0	100.0(1,556)
모 취업 여부									
취업	2.8	18.1	50.0	19.7	5.7	0.9	0.7	2.1	100.0(677)
미취업	0.5	9.8	39.4	31.3	12.0	3.9	1.2	1.9	100.0(856)
$\chi^2(df)$					92.30(7) ^{***}				
모 학력									
고졸이하	1.9	16.5	48.1	18.7	8.3	2.2	0.9	3.3	100.0(451)
전문대졸	1.7	13.1	44.6	24.7	9.0	3.8	1.4	1.8	100.0(429)
대졸이상	1.2	11.9	41.1	31.7	10.0	2.0	0.8	1.3	100.0(673)
$\chi^2(df)$					28.21(14) [*]				

(표 II-6-46 계속)

구분	참여한 적 없음	6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23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거의 매일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1.4	11.9	42.5	30.1	8.6	3.3	0.7	1.6	100(658)
중소도시	2.2	14.1	43.8	25.2	9.4	2.5	1.0	2.0	100(643)
읍면지역	0.4	15.5	48.0	18.6	11.3	1.0	2.5	2.8	100(255)
$\chi^2(df)$					35.97(14)**				

* $p < .05$, ** $p < .01$, *** $p < .001$.

〈표 II-6-47〉 부의 학교 행사 참여빈도

단위: %(명)									
구분	참여한 적 없음	6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23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거의 매일	계(수)
전체	79.1	16.5	3.2	0.6	0.2	-	0.3	-	1000(1469)
모 취업 여부									
취업	76.1	19.7	3.4	0.3	0.0	-	0.4	-	100(632)
미취업	82.0	13.5	3.0	0.8	0.4	-	0.3	-	100(809)
$\chi^2(df)$					15.37(5)**				
모 학력									
고졸이하	80.0	15.3	2.5	1.0	0.7	-	0.4	-	100(434)
전문대졸	79.6	16.8	2.5	1.1	0.0	-	0.0	-	100(409)
대졸이상	78.9	16.5	4.1	0.0	0.0	-	0.5	-	100(620)
$\chi^2(df)$					19.89(10)*				
지역 규모									
대도시	80.6	15.9	3.2	0.1	0.2	-	0.1	-	100(611)
중소도시	76.6	18.3	3.5	1.0	0.0	-	0.6	-	100(615)
읍면지역	81.9	14.0	2.3	0.9	0.7	-	0.3	-	100(243)
$\chi^2(df)$					11.49(10)				

* $p < .05$, ** $p < .01$.

한편 교사가 인식한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는 평균 4.14점으로 교사들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아동의 출생순위, 모의 취업 여부, 모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외동이거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에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수준이 높으며, 취업모인 경우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48〉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에 대한 교사지각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chi^2(df)$
전체	4.14	0.83	(1,031)	
아동 성별				
남	4.11	0.87	(524)	-1.00
여	4.17	0.79	(50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44 ^a	0.68	(103)	25.29 ^{***}
첫째	4.30 ^a	0.73	(365)	
둘째 이상	3.96 ^b	0.83	(563)	
모 취업 여부				
취업	4.22	0.80	(548)	3.31 ^{**}
미취업	4.06	0.86	(466)	
모 학력				
고졸이하	3.91 ^a	0.92	(315)	17.76 ^{***}
전문대졸	4.22 ^b	0.77	(312)	
대졸이상	4.25 ^b	0.77	(401)	

** $p < .01$, *** $p < .001$.

또한 교사가 인식한 학부모 행사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입학식에 참여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4.77 점), 담임상담, 학부모 공개수업, 행사 등에도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6-49〉 학부모 행사 참여 필요성에 대한 교사 지각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입학식(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포함)	4.77	0.51	
행사(운동회 등)	4.31	0.83	
자원봉사(급식검수, 어머니폴리스회/안전등지회, 녹색어머니회, 야외활동, 수업보조, 학부모 재능기부, 청소 등)	3.87	0.92	
학부모 공개수업	4.47	0.71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4.18	0.81	
담임상담	4.63	0.61	
학교운영위원회/어머니회/학부모회(학부모총회)	3.36	0.98	
(수)	(1,031)		

다. 돌봄 서비스

교육이 아닌 아동의 돌봄이나 양육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는 학기 중에 이러한 목적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69.7%), 그 외에는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이 돌봐주거나(17.4%)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12.5%)가 많았다. 방학 중에는 초등돌봄교실 비용 비율이 약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II-6-50〉 학기 중 이용하는 돌봄 및 양육 서비스(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학기 중	방학 중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17.4(281)	17.1(277)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1.0(18)	0.9(16)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0.5(7)	0.6(8)
초등돌봄교실	12.5(202)	9.2(147)
지역아동센터	1.3(23)	1.5(25)
기타	0.8(11)	0.8(13)
이용하지 않음	69.7(1,111)	72.9(1,163)

이용하고 있는 돌봄 및 양육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주간 이용 일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평균 5.1일로 평일 동안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평균 4일 이상을 이용하고 있었다. 학기 중 하루 이용시간은 비혈연 대리양육자 5.90시간,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이 5.22시간으로 비교적 길고 나머지 서비스는 대략 2.5~3.7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용 일은 방학이 되어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으나 하루 이용 시간은 방학이 되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6-51〉 돌봄 및 양육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구분	단위: 일, 시간(명)											
	주간 이용 일					하루 이용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학기 중		방학 중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4.23	2.24	(281)	4.24	2.18	(277)	5.22	5.41	(281)	6.52	5.86	(277)
비혈연 대리양육자	4.6	1.43	(18)	3.99	1.84	(16)	5.90	6.37	(18)	6.23	4.87	(16)
아이돌보미	4.81	0.53	(7)	3.75	1.53	(8)	2.56	0.50	(7)	2.49	1.06	(8)
초등돌봄교실	4.83	0.69	(202)	4.72	0.95	(147)	2.96	1.34	(202)	4.59	1.97	(147)
지역아동센터	5.1	0.70	(23)	5	0.86	(25)	3.41	1.75	(23)	4.73	1.75	(25)
기타	4.28	1.31	(11)	4.5	1.15	(13)	3.67	1.27	(11)	4.05	1.92	(13)

월 평균 돌봄 및 양육 서비스 이용 비용은 평균 10,500원에서 612,000원이며, 비혈연 대리양육자 비용이 가장 높고(61만2천원),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평균 비용이 2만5천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방학이 되면 하루 이용 시간이 늘어나듯 돌봄 및 양육 서비스 비용에 있어서도 대다수 증가한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에 돌봄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으며(4.21점, 4.27점), 그 외에는 기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비혈연 대리양육자,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의 순이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3.67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나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표 II-6-52〉 돌봄 및 양육 서비스 이용 비용 및 만족도

단위: 만원, 점(명)

구분	월 평균 이용 비용						이용 만족도					
	학기 중			방학 중			학기 중			방학 중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26.95	36.77	281	27.55	37.65	277	4.21	0.77	(281)	4.27	0.75	(277)
비혈연 대리양육자	61.20	49.12	18	67.03	54.61	16	4.17	0.74	(18)	4.05	0.72	(16)
아이돌보미	12.54	15.15	7	8.64	10.19	8	3.67	1.27	(7)	3.41	1.47	(8)
초등돌봄교실	2.43	2.73	202	2.91	3.41	147	3.97	0.81	(202)	3.92	0.89	(147)
지역아동센터	1.05	2.26	23	1.20	2.22	25	4.09	0.47	(23)	4.15	0.51	(25)
기타	18.99	17.84	11	19.85	18.21	13	4.13	0.34	(11)	4.16	0.46	(13)

라. 사교육 이용

사교육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 중인 사교육 형태 및 교과목, 시간, 비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용 혹은 미이용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가) 이용 특성

조사 결과, 패널 아동 중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이용하고 있는 교과목으로는 체육이 59.6%로 절반 정도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음악 48.6%, 수학 45.9%, 한글(국어) 40.1% 등의 순이었다.

〈표 II-6-53〉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단위: %(명)

구분	이용 안함	이용 종류(중복응답)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비율(%)	4.1	39.9	48.6	59.6	12.9	45.9	40.1	9.6	15.1	39.2	1.3	9.4	8.1	(1598)
비율(수)	(63)	(628)	(768)	(947)	(216)	(736)	(654)	(155)	(237)	(619)	(24)	(156)	(129)	

주: ①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②음악, ③체육, ④과학, ⑤수학, ⑥한글(국어), ⑦컴퓨터, ⑧한자, ⑨영어, ⑩, 기타 외국어, ⑪창의성, ⑫기타, ⑬아무것도 이용 안함.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형태에 대한 주당 총 이용시간은 학원의 경우 평균 6.9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 방과 후 교실은 3.60시간, 사설기관 3.83시간 등이었다.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이나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가 각각 4점 이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고, 교내 방과 후 교실 또한 3.98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6-54〉 사교육 이용 시간 및 만족도

단위: 시간, 점(명)

구분	일주일 총 이용시간			이용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6.98	3.88	(1,236)	3.97	0.53	(1,237)
가정 내 개인/ 그룹지도	3.03	2.46	(245)	4.05	0.59	(246)
학습지	1.38	0.96	(630)	3.86	0.58	(633)
인터넷.화상 강의	2.86	1.51	(18)	3.53	0.63	(18)
교내 방과 후 교실	3.60	2.73	(761)	3.98	0.59	(761)
사설기관에서 하는 교육	3.83	4.22	(110)	4.09	0.57	(110)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2.99	2.63	(70)	3.90	0.61	(70)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의 월평균 비용은 학원이 223,800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가 152,400원으로 다른 형태에 비해서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편으로 나타났다. 교내 방과 후 교실은 6만원대, 공공기관에서의 교육은 4만원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학원과 인터넷/화상 강의 이용 시 부담 정도가 각각 3.38점, 3.36점으로 교내 방과 후 교실이나 사설 기관 교육, 공공기관 교육 등 다른 형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표 II-6-55〉 월평균 사교육비용 및 부담 정도

단위: 만원, 점(명)

구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22.38	15.55	(1,237)	3.38	0.79	(1,237)
가정 내 개인/ 그룹지도	15.24	11.46	(246)	3.27	0.78	(245)
학습지	9.71	5.67	(633)	3.25	0.70	(633)
인터넷.화상 강의	8.61	4.90	(18)	3.36	0.60	(18)
교내 방과 후 교실	6.55	4.80	(761)	2.92	0.76	(706)
사설기관에서 하는 교육	8.69	8.47	(110)	2.78	0.93	(103)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4.55	4.90	(70)	2.68	0.80	(57)

나) 이용/미이용 이유

사교육 이용/미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유와 영어 교과목에 대한 이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아동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으며,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방과후 돌봄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도 2.0%로 나타났다.

〈표 II-6-56〉 사교육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이)가 원해서	61.2	9.7
○○(이)가 재능을 보여서	3.1	10.7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17.1	36.7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5.7	10.0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7.8	15.7
어머니의 시간 활용을 위해서	0.6	3.3
방과후 ○○(이)를 돌봐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2.0	3.9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0.5	2.5
또래(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1.3	5.8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0.3	0.2
기타	0.5	1.5
계(수)	100.0(1,524)	100.0(1,524)

특히 영어 사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아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8.4%이며,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혹은 국제화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 또한 약 34% 이상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므로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응답도 11.9%이었다.

〈표 II-6-57〉 영어 사교육 주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계(수)	
○○(이)가 국제화된 인재가 되길 위해서	12.0	
○○(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8.4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므로	22.4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10.5	
유학 준비를 위해	0.2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므로	11.9	
기타	4.5	
계(수)	100.0(1,531)	

한편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고, 필요 없어서 22.1%, 비용 부담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6-58〉 사교육 미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이)가 원하지 않아서	36.7	9.9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6.5	6.9	
필요 없어서	22.1	22.2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15.4	27.6	
비용이 부담되어서	15.6	5.5	
마땅한 사교육 서비스(교사/학원 등)를 찾지 못해서	2.5	18.2	
기타	1.2	9.6	
계(수)	100.0(63)	100.0(63)	

마. 소결

패널 아동의 99.8%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있었으나 0.3%의 소수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미진학 상태였다. 대다수의 아동은 국·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국·공립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형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가정에서는 월평균 54만 8천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재학 중인 학교의 등교시간이 9시 이전인 경우는 66.4%, 9시는 33.6%였으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9시 이전에 등교하는 비율이 79.4%로 비교적 높았다. 패널 아동의 담임교사는 95.3%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17.58년의 경력자로서 1학년 담임 경력은 평균 4.31이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 과제를 부과하는지 살펴보면 주 3~4회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58.7%의 교사가 아동에게 부과된 과제는 15~30분 미만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초등교육 연계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학기 중에 교육이 아닌 아동의 돌봄이나 양육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69.7%였으며,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17.4%)이 돌봐주거나 초등돌봄교실(12.5%)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패널 아동 중에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4.1%에 불과하였으며, 이용하고 있는 과목은 체육 59.6%, 음악 48.6%, 수학 45.9%, 국어 40.1%의 순이었다.

7. 지역사회 특성

가. 지역사회 특성 관련 변인 구성

8차년도 조사의 지역사회 특성은 일반적 특성,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해당 변인은 <표 II-7-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는 가구의 거주 지역 규모 및 권역, 가구의 거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사 횟수가 있다. 물리적 특성에는 가구 주변의 교통과 산업 특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인프라 관련 문항을 통해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하였다.

<표 II-7-1> 8차년도 지역사회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횟수 ◦ 거주 지역 유형, 규모, 권역 구분, 시/도 구분, 시/군/구
	교통과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거리, 도로의 차선, 통행량
양육환경	공공 여가 공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표 II-7-1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양육환경	문화시설	◦ 시설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교육·복지·의료	◦ 시설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사회 안전	◦ 양육환경 적절성

나. 일반적 특성

1) 가구 특성

패널 대상 아동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형태를 보면 아파트 지역이 73.5%로 가장 많고 주택지가 19.9%, 그 외 상가나 회사지역, 공장, 농산어촌 등이 6.7%로 대부분이 주거지역 특히 아파트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보다는 도시에서 아파트 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7-2〉 거주지 유형

구분	단위: %(명)							$\chi^2(df)$
	주택	아파트	상가/회사	공장(단)	농산어촌	기타	계(수)	
전체	19.9	73.5	1.9	0.7	3.7	0.4	100.0(1556)	-
아동 성별								
남	20.0	72.6	1.7	0.8	4.5	0.5	100.0(792)	3.46(5)
여	19.8	74.4	2.1	0.5	2.9	0.3	100.0(76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1.4	73.9	1.1	1.3	2.3	0.0	100.0(178)	13.44(10)
첫째	15.7	76.5	1.9	1.0	4.5	0.4	100.0(547)	
둘째 이상	22.7	71.1	2.0	0.2	3.4	0.6	100.0(831)	
모 취업 여부								
취업	21.2	71.7	2.2	0.7	3.6	0.6	100.0(677)	0.67(5)
미취업	18.7	75.1	1.7	0.6	2.6	0.3	100.0(856)	
모 학력								
고졸이하	29.6	61.0	3.3	1.3	4.7	0.0	100.0(451)	53.14(10)***
전문대졸	19.9	72.9	1.7	0.7	4.3	0.5	100.0(429)	
대졸이상	13.8	81.5	1.1	0.2	2.7	0.6	100.0(67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8.6	60.0	3.0	0.4	7.5	0.5	100.0(391)	72.54(15)***
341~400만원	19.5	74.7	2.1	1.6	2.0	0.1	100.0(385)	
401~530만원	18.9	76.4	1.4	0.3	2.5	0.5	100.0(384)	
531만원 이상	11.6	83.5	1.0	0.4	2.9	0.5	100.0(380)	

(표 II-7-2 계속)

구분	주택	아파트	상가/회사	공장(단)	농어촌	기타	계(수)	$\chi^2(df)$
지역 규모								
대도시	26.2	70.0	1.4	0.6	1.2	0.7	100.0(658)	
중소도시	14.8	81.4	2.1	0.2	1.2	0.3	100.0(643)	168.48(10)**
읍면지역	16.2	63.1	2.6	1.7	16.4	0.0	100.0(255)	

*** $p < .001$.

조사가 실시된 2015년과 이전 2014년 조사 시기 간 약 1년 동안 이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사하지 않은 가구가 과반수 이상(75.2%)였다. 또한 응답한 1,574가구의 23.2%인 365가구가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2.3%인 36가구는 이사 횟수가 2번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7-3〉 지난 조사 이후 이사 횟수

				단위: %(명), 번
0	1	2	계(수)	평균
75.2	20.9	23	100.0(1,574)	0.26

한편 패널 아동 출산 이후 이사 횟수를 보면 평균 1.92회로,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정이 18.6%에 불과하고 1~2회 이사한 가정이 과반수인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4〉 패널 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단위: %(명), 번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평균
18.6	31.3	21.0	12.8	8.6	3.8	2.1	1.2	0.6	0.1	0.0	100.0(1,598)	1.92

패널 가정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광역시 이상 대도시 지역이 43%, 중소도시 40.3%, 읍/면 등 농어촌 지역이 16.7%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83.3%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도시 거주 비율이 높았고 농어촌 가구의 경우는 많은 수의 영유아 모가 전문대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5〉 지역 규모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43.0	40.3	16.7	100.0(1,598)	-
아동 성별					
남	42.2	41.0	16.8	100.0(817)	2.37(2)
여	43.8	39.7	16.5	100.0(78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6.7	39.4	40.9	100.0(183)	2.07(4)
첫째	44.6	38.7	41.8	100.0(560)	
둘째 이상	40.9	16.7	17.3	100.0(855)	
모 취업 여부					
취업	43.5	40.6	15.9	100.0(694)	0.21(2)
미취업	43.3	40.1	16.6	100.0(874)	
모 학력					
고졸이하	43.0	37.0	19.9	100.0(463)	17.81(4)**
전문대졸	42.6	36.7	20.8	100.0(465)	
대졸이상	43.2	45.0	11.8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4.8	35.2	20.0	100.0(399)	16.41(6)*
341~400만원	39.8	42.1	18.2	100.0(393)	
401~530만원	43.7	38.6	17.7	100.0(395)	
531만원 이상	41.9	47.0	11.1	100.0(392)	

* $p < .05$, ** $p < .01$.

패널 아동 가정이 위치한 지역을 시·도 구분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인권이 33.5%로 가장 높고 서울 16.7%, 부산울산 및 경남권역이 15%로 세 번째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전·충청 및 강원권과 광주·전라권 지역 가구에서 비교적 취업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모의 학력은 서울지역에서 분포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졸이상 학력 비율에서 서울은 패널 분포가 전국대비 16.7%인데 비해 대졸이 20.5%를 차지하여 비교적 학력이 높고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권이 대졸 비율이 비교적 낮다. 소득 또한 서울권과 경인권에서 531만원 이상 고소득가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분포에 비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 가구에서 고소득 가구 비율이 낮았다. 34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경인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낮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 또한 낮은 편이었다.

〈표 II-7-6〉 6개 권역 구분

단위: %(명)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계(수)	$\chi^2(df)$
전체	16.7	33.5	13.9	9.3	15.0	11.6	100.0(1,598)	-
아동 성별								
남	16.7	33.4	14.0	9.4	15.0	11.5	100.0(817)	6.44(5)
여	16.7	33.6	13.9	9.2	15.1	11.5	100.0(78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2.0	30.7	8.2	8.1	23.6	7.4	100.0(183)	13.8(10)
첫째	17.2	30.8	13.6	9.6	15.2	13.5	100.0(560)	
둘째 이상	15.1	36.1	15.6	9.3	12.8	11.1	100.0(855)	
모 취업 여부								
취업	15.9	31.3	17.2	7.4	14.1	14.2	100.0(694)	25.42(5)***
미취업	17.4	34.8	11.4	10.7	16.1	9.7	100.0(874)	
모 학력								
고졸이하	13.3	35.5	14.8	11.7	15.4	9.3	100.0(463)	57.79(10)***
전문대졸	13.2	29.0	13.2	11.4	17.6	15.7	100.0(435)	
대졸이상	20.5	35.2	13.8	6.7	13.4	10.4	100.0(69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4.7	26.9	14.4	12.4	19.9	11.7	100.0(399)	48.32(15)***
341~400만원	10.4	36.5	14.8	10.8	18.0	9.5	100.0(393)	
401~530만원	20.9	34.4	13.6	8.5	9.9	12.8	100.0(395)	
531만원 이상	19.5	36.9	13.6	6.0	12.7	11.2	100.0(392)	

*** $p < .001$.

2) 교통과 산업

패널 가정의 주거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66%의 가구가 100m 이내에 도로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서 교통 접근성이 대체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들의 안전문제 또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7-7〉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의 거리

단위: %(명)

구분	바로인접	50m이내	100m이내	500m이내	500m이상	계(수)	$\chi^2(df)$
전체	20.4	16.6	29.0	27.2	6.7	100.0(1,571)	-
아동 성별							
남	20.5	17.1	29.3	27.5	5.6	100.0(804)	2.28(4)
여	20.4	16.1	28.7	26.9	7.9	100.0(767)	

(표 II-7-7 계속)

구분	바로인접	50m이내	100m이내	500m이내	500m이상	계(수)	$\chi^2(df)$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7.4	24.0	34.1	19.0	5.5	100.0(181)	13.01(8)
첫째	21.0	14.3	28.6	29.0	7.2	100.0(550)	
둘째 이상	20.8	16.5	28.1	27.9	6.7	100.0(840)	
모 취업 여부							
취업	19.6	18.0	27.8	29.2	5.3	100.0(682)	10.10(4)*
미취업	21.2	15.1	29.9	26.1	7.7	100.0(859)	
모 학력							
고졸이하	21.9	14.4	30.0	24.8	8.9	100.0(455)	14.30(8)
전문대졸	20.8	16.4	32.7	25.3	4.9	100.0(430)	
대졸이상	19.6	17.5	26.3	30.2	6.5	100.0(67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9.5	17.1	28.0	26.8	8.6	100.0(393)	13.32(12)
341~400만원	23.2	14.4	25.0	30.6	6.7	100.0(386)	
401~530만원	22.6	16.7	27.5	26.5	6.9	100.0(390)	
531만원 이상	17.0	18.3	33.6	2.3	4.7	100.0(383)	
지역 규모							
대도시	20.1	16.3	30.0	27.4	6.2	100.0(668)	11.36(8)
중소도시	20.9	17.9	30.2	24.9	6.1	100.0(643)	
읍면지역	20.2	14.0	23.6	32.5	9.6	100.0(260)	

* $p < .05$.

가구 가까이에 위치한 도로의 폭에 대해 37.8%가 왕복2차선, 43.3%가 왕복4차선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가구가 4차선 이하의 도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학력이나 가구소득, 지역규모와 도로 규모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들 변인에 따라 가구의 주거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II-7-8〉 가까운 도로의 규모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왕복2차선	왕복4차선	왕복6차선	왕복8차선이상		
전체	37.8	43.3	12.9	6.1	100.0(1,570)	-
아동 성별						
남	39.2	41.8	13.0	6.1	100.0(806)	0.19(3)
여	3.3	44.8	12.7	6.1	100.0(76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2.8	47.1	13.8	6.3	100.0(181)	4.45(6)
첫째	36.9	45.4	12.9	4.8	100.0(551)	
둘째 이상	39.7	40.7	12.6	7.0	100.0(838)	

(표 II-7-8 계속)

구분	왕복2차선	왕복4차선	왕복6차선	왕복8차선이상	계(수)	$\chi^2(df)$
모 취업 여부						
취업	38.8	43.1	12.5	5.6	100.0(682)	0.61(3)
미취업	37.0	43.1	13.2	6.6	100.0(858)	
모 학력						
고졸이하	41.9	45.7	8.3	4.0	100.0(453)	30.76(6)***
전문대졸	44.0	38.4	11.9	5.7	100.0(430)	
대졸이상	31.5	44.4	16.4	7.6	100.0(67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46.2	38.3	8.6	6.8	100.0(393)	32.66(9)***
341~400만원	41.2	42.2	12.5	4.1	100.0(386)	
401~530만원	36.7	46.3	10.4	7.6	100.0(390)	
531만원 이상	29.0	46.1	19.8	5.1	100.0(383)	
지역 규모						
대도시	33.0	43.6	15.9	7.5	100.0(666)	57.43(6)***
중소도시	36.5	44.3	13.3	6.0	100.0(643)	
읍면지역	53.4	39.9	4.0	2.7	100.0(261)	

*** $p < .001$.

거주지와 가깝게 위치한 도로의 통행량을 질문한 결과 38.4%는 많은 편, 23.7%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패널 아동의 가정이 위치한 환경은 과반수 이상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통량이 매우 적다는 응답도 5.4%가 있었으며, 통행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주관에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표 II-7-9〉 가까운 도로의 통행량

구분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매우 적다	계(수)	$\chi^2(df)$
전체	12.7	38.6	43.3	5.4	100.0(1,571)	
아동 성별						
남	14.3	38.1	41.9	5.8	100.0(804)	1.25(3)
여	11.0	39.2	44.9	5.0	100.0(76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9.4	41.3	43.4	5.9	100.0(180)	3.77(6)
첫째	13.4	36.7	43.9	6.0	100.0(551)	
둘째 이상	12.9	39.4	42.9	4.8	100.0(840)	
모 취업 여부						
취업	13.4	37.1	44.5	5.0	100.0(681)	1.86(3)
미취업	12.0	39.8	42.7	5.5	100.0(861)	

단위: %(명)

(표 II-7-9 계속)

구분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매우 적다	계(수)	$\chi^2(df)$
모 학력						
고졸이하	16.3	43.7	35.7	5.9	100.0(457)	16.52(6)*
전문대졸	11.8	38.2	44.2	5.8	100.0(430)	
대졸이상	11.1	35.5	47.6	4.3	100.0(67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3.4	43.8	37.6	5.2	100.0(394)	11.87(9)
341~400만원	11.8	37.9	44.7	5.6	100.0(387)	
401~530만원	13.8	35.7	45.9	4.6	100.0(389)	
531만원 이상	11.8	36.5	45.2	6.6	100.0(382)	
지역 규모						
대도시	15.0	40.7	40.5	3.9	100.0(668)	23.27(6)**
중소도시	10.3	39.2	45.3	5.2	100.0(643)	
읍면지역	12.5	31.9	45.9	9.8	100.0(260)	

* $p < .05$, ** $p < .01$.

다. 양육환경

1) 시설 이용 편리성

양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여가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나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질문하였다. 놀이터, 공원, 산책로에 대해서는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내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0~40% 정도의 응답자가 편리하다고 하였다. 특히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18.5%에 지나지 않았다.

〈표 II-7-10〉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구분	단위: %(명)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놀이터	6.7	7.0	16.9	28.9	40.6	100.0(1,556)	3.90	1.20
공원	8.6	15.2	23.5	32.0	20.6	100.0(1,556)	3.41	1.22
산책로	8.5	12.7	23.4	32.2	23.2	100.0(1,556)	3.49	1.22
놀이공원	28.6	28.3	24.5	15.0	3.5	100.0(1,556)	2.37	1.15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11.4	20.1	28.3	29.3	11.0	100.0(1,556)	3.08	1.18
실외 체육시설	13.1	22.2	32.5	23.9	8.4	100.0(1,556)	2.92	1.15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편리하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도서관이 54.4%로 가장 이용 편리성이 높았고 영화관은 43.3%였다. 그러나 관람 및 체험 시설은 23.3%만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공연 시설에 대해서는 22.1%로 가장 낮은 편리성을 보였다.

〈표 II-7-11〉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화관	13.5	17.0	26.5	29.9	13.4	100.0(1,556)	3.13	1.23
관람 및 체험시설	19.1	27.9	39.7	18.6	4.7	100.0(1,556)	2.62	1.13
공연시설	19.2	29.2	29.6	16.5	5.6	100.0(1,556)	2.60	1.14
도서관	5.7	8.8	31.2	38.3	16.1	100.0(1,554)	3.50	1.04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49%가 편리하다는 데 동의하였고 학원이나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36.8%, 복지관 등 공공복지 시설은 25.8%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12〉 교육, 의료, 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의료기관	5.1	8.2	37.7	37.2	11.8	100.0(1,555)	3.42	0.98
교육기관	8.9	13.4	41.0	27.8	9.0	100.0(1,555)	3.15	1.05
공공복지시설	11.5	20.6	42.0	19.9	5.9	100.0(1,556)	2.88	1.04

가) 여가 공간 유형별 편리성 인식

놀이터 이용이 편리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거의 70%정도가 편리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놀이터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변인이 거주지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표 II-7-13〉 놀이터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2015)	6.7	7.0	16.9	28.9	40.6	100.0(1,556)	3.90	1.20	
2014년 결과	9.4	13.5	26.3	35.5	15.4	100.0(1,565)	3.34	1.17	
모 취업 여부									
취업	7.8	7.2	15.0	29.9	40.2	100.0(677)	3.88	1.23	0.02
미취업	5.8	6.7	18.5	28.6	40.4	100.0(856)	3.91	1.17	
모 학력									
고졸이하	12.3	10.7	22.9	25.2	28.9	100.0(451)	3.48 ^a	1.33	45.06 ^{***}
전문대졸	6.7	5.7	17.1	32.8	37.8	100.0(429)	3.89 ^b	1.17	
대졸이상	3.1	5.4	13.1	29.0	49.3	100.0(673)	4.16 ^c	1.0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9.6	10.5	22.0	27.6	30.2	100.0(391)	3.58 ^a	1.28	20.94 ^{***}
341~400만원	8.1	6.6	18.8	29.5	37.0	100.0(385)	3.81 ^b	1.23	
401~530만원	6.3	5.5	13.2	30.5	44.4	100.0(384)	4.01 ^c	1.17	
531만원 이상	2.8	5.0	12.6	28.2	51.3	100.0(380)	4.20 ^d	1.03	
지역 규모									
대도시	5.1	8.0	18.3	27.4	41.3	100.0(658)	3.92 ^b	1.17	18.81 ^{***}
중소도시	3.9	5.7	15.8	31.4	43.2	100.0(643)	3.49 ^a	1.44	
읍면지역	17.4	7.6	15.8	27.1	32.1	100.0(255)	4.04 ^b	1.08	

*** $p < .001$.

주거지 근처 공원을 이용하기 편리한지를 살펴보면 52.6%가 편리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23.8%는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다수가 근린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2014년 패널 조사에서의 응답과 비교하면 조금 긍정적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5점 척도에서 0.29 정도가 높아졌다. 공원 이용 편리성 인식은 거주지 환경과 관련성이 있어보이므로 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II-7-14〉 공원 이용 편리성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2015년)	8.6	15.2	23.5	32.0	20.6	100.0(1,556)	3.41	1.22	-
전체(2014년)	11.4	18.7	28.1	30.0	11.8	100.0(1,565)	3.12	1.18	-
모 취업 여부									
취업	8.6	15.8	20.3	33.0	22.3	100.0(677)	3.45	1.24	1.39
미취업	8.7	14.9	25.8	31.5	19.2	100.0(856)	3.38	1.20	

(표 II-7-14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모 학력									
고졸이하	13.4	18.0	25.5	29.2	13.9	100.0(451)	3.12 ^a	1.25	29.30 ^{***}
전문대졸	10.2	14.6	25.4	33.1	16.7	100.0(429)	3.31 ^b	1.21	
대졸이상	4.8	13.7	21.2	33.2	27.1	100.0(673)	3.64 ^c	1.1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2.8	21.5	26.4	25.8	13.5	100.0(391)	3.06 ^a	1.23	21.36 ^{***}
341~400만원	10.3	15.1	25.2	32.6	16.8	100.0(385)	3.31 ^b	1.21	
401~530만원	5.3	15.8	24.6	33.7	20.7	100.0(384)	3.49 ^b	1.14	
531만원 이상	6.7	7.8	18.3	35.2	32.0	100.0(380)	3.78 ^c	1.17	
지역 규모									
대도시	9.2	14.1	25.0	31.7	20.0	100.0(658)	3.39 ^b	1.21	23.00 ^{***}
중소도시	4.9	13.7	22.3	35.9	23.1	100.0(643)	3.59 ^c	1.13	
읍면지역	16.3	21.6	22.5	23.4	16.2	100.0(255)	3.02 ^a	1.32	

*** $p < .001$.

거주지 주변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편리하냐고 보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55.4%가 편리한 편 또는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21.2%는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산책로의 편리성에 대한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0.32점, 12%가 높아져서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7-15〉 산책로 이용 편의성

구분	단위: %(명)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2015년)	8.5	12.7	23.4	32.2	23.2	100.0(1,556)	3.49	1.22	-
전체(2014년)	10.0	18.0	28.6	31.8	11.5	100.0(1,565)	3.17	1.16	-
모 취업 여부									
취업	7.2	13.9	22.9	30.4	25.6	100.0(677)	3.53	1.21	1.98 [*]
미취업	9.6	12.0	23.7	33.4	21.2	100.0(856)	3.45	1.22	
모 학력									
고졸이하	12.7	19.9	26.6	23.9	16.8	100.0(451)	3.12 ^a	1.27	44.27 ^{***}
전문대졸	11.3	11.5	23.3	35.7	18.2	100.0(429)	3.38 ^b	1.23	
대졸이상	4.1	9.1	21.5	35.2	30.1	100.0(673)	3.78 ^c	1.1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3.3	17.6	27.0	27.7	14.4	100.0(391)	3.12 ^a	1.24	22.65 ^{***}
341~400만원	9.0	13.1	25.0	34.7	18.2	100.0(385)	3.40 ^b	1.19	
401~530만원	6.3	13.3	21.4	34.0	25.0	100.0(384)	3.58 ^b	1.18	
531만원 이상	5.8	6.7	19.3	32.3	36.0	100.0(380)	3.86 ^c	1.15	

(표 II-7-15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모 학력									
고졸이하	12.7	19.9	26.6	23.9	16.8	100.0(451)	3.12 ^a	1.27	44.27***
전문대졸	11.3	11.5	23.3	35.7	18.2	100.0(429)	3.38 ^b	1.23	
대졸이상	4.1	9.1	21.5	35.2	30.1	100.0(673)	3.78 ^c	1.10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3.3	17.6	27.0	27.7	14.4	100.0(391)	3.12 ^a	1.24	22.65***
341~400만원	9.0	13.1	25.0	34.7	18.2	100.0(385)	3.40 ^b	1.19	
401~530만원	6.3	13.3	21.4	34.0	25.0	100.0(384)	3.58 ^b	1.18	
531만원 이상	5.8	6.7	19.3	32.3	36.0	100.0(380)	3.86 ^c	1.15	
지역 규모									
대도시	9.31	12.9	22.8	31.7	23.5	100.0(658)	3.48 ^b	1.23	9.82***
중소도시	6.3	11.1	22.8	34.3	25.6	100.0(643)	3.62 ^b	1.16	
읍면지역	12.4	16.0	26.4	28.6	16.7	100.0(255)	3.21 ^a	1.25	

* $p < .05$, *** $p < .001$.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것의 편리함 정도에 대해서는 56.9%가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8.5% 정도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놀이공원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농어촌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편의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7-16> 놀이공원 이용 편의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8.6	28.3	24.5	15.0	3.5	100.0(1,556)	2.37	1.15	-
모 취업 여부									
취업	27.2	27.3	26.2	15.2	4.2	100.0(677)	2.42	1.16	1.37
미취업	29.4	29.2	23.3	15.2	3.0	100.0(856)	2.33	1.14	
모 학력									
고졸이하	36.1	28.4	22.0	9.5	4.0	100.0(451)	2.17 ^a	1.14	18.38***
전문대졸	32.1	27.8	23.3	14.9	1.9	100.0(429)	2.27 ^b	1.12	
대졸이상	21.8	28.7	26.8	18.5	4.2	100.0(673)	2.55 ^c	1.14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6.0	26.3	23.8	11.9	2.0	100.0(391)	2.18 ^a	1.11	8.48***
341~400만원	28.5	31.2	26.6	11.3	2.4	100.0(385)	2.28 ^{ab}	1.07	
401~530만원	27.0	30.3	21.2	15.9	5.6	100.0(384)	2.43 ^{bc}	1.20	
531만원 이상	23.5	23.5	27.4	21.3	4.2	100.0(380)	2.59 ^c	1.18	

(표 II-7-16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지역 규모									
대도시	21.5	26.7	28.3	18.9	4.6	100.0(658)	2.58 ^c	1.15	
중소도시	26.0	28.4	27.3	14.7	3.5	100.0(643)	2.41 ^b	1.13	66.79 ^{***}
읍면지역	53.2	32.4	8.2	5.5	0.8	100.0(255)	1.68 ^a	0.90	

*** $p < .001$.

실내 체육이나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물어본 결과,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5% 정도였고 40% 정도는 편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실내 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모의 학력, 소득수준, 지역규모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7-17〉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1.4	20.1	28.3	29.3	11.0	100.0(1,556)	3.08	1.18	-
모 취업 여부									
취업	9.9	21.2	29.6	27.7	11.6	100.0(677)	3.10	1.16	
미취업	12.5	19.3	27.7	30.5	10.0	100.0(856)	3.06	1.18	1.52
모 학력									
고졸이하	16.0	24.9	29.1	20.7	9.2	100.0(451)	2.82 ^a	1.20	
전문대졸	12.4	20.8	29.4	28.4	9.0	100.0(429)	3.01 ^b	1.16	28.58 ^{***}
대졸이상	7.9	16.7	27.1	35.1	13.2	100.0(673)	3.29 ^c	1.1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6.1	26.9	28.1	23.0	6.0	100.0(391)	2.76 ^a	1.15	
341~400만원	10.5	22.1	28.9	30.2	8.3	100.0(385)	3.04 ^b	1.13	
401~530만원	10.0	16.5	30.5	30.4	12.5	100.0(384)	3.19 ^b	1.16	17.50 ^{***}
531만원 이상	8.2	15.2	26.3	33.6	16.6	100.0(380)	3.35 ^c	1.17	
지역 규모									
대도시	8.9	18.2	28.5	33.7	10.6	100.0(658)	3.19 ^b	1.13	
중소도시	9.1	19.4	29.8	29.7	11.9	100.0(643)	3.16 ^b	1.14	21.83 ^{***}
읍면지역	23.2	26.6	23.9	16.9	9.4	100.0(255)	2.63 ^a	1.27	

*** $p < .001$.

실외 체육시설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편리하다는 인식은 32.3% 정도였고 이중 8.4%는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5.3%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식하

였다. 최근 근린 체육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접근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용 불편함은 모의 학력이 낮고 가구 소득이 낮고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크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18〉 실외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3.1	22.2	32.5	23.9	8.4	100.0(1,556)	2.92	1.15	
모 취업 여부									
취업	12.5	22.5	33.4	22.5	9.1	100.0(677)	2.93	1.14	1.03
미취업	13.6	22.0	31.9	25.1	7.4	100.0(856)	2.91	1.14	
모 학력									
고졸이하	19.1	25.3	33.7	16.5	5.4	100.0(451)	2.64 ^a	1.13	27.97 ^{***}
전문대졸	13.4	22.3	36.0	21.0	7.3	100.0(429)	2.86 ^b	1.12	
대졸이상	9.1	20.1	29.6	30.3	10.8	100.0(673)	3.14 ^c	1.1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6.6	30.9	30.0	17.4	5.0	100.0(391)	2.63 ^a	1.10	15.88 ^{***}
341~400만원	12.9	21.0	39.4	21.5	5.1	100.0(385)	2.85 ^b	1.06	
401~530만원	12.5	21.1	26.7	29.8	9.8	100.0(384)	3.03 ^b	1.19	
531만원 이상	9.2	15.9	34.1	26.4	14.2	100.0(380)	3.20 ^c	1.15	
지역 규모									
대도시	12.3	23.5	32.6	24.0	7.5	100.0(658)	2.91 ^b	1.12	17.16 ^{***}
중소도시	9.5	18.4	36.1	26.4	9.7	100.0(643)	3.08 ^b	1.10	
읍면지역	23.8	28.0	23.2	17.6	7.4	100.0(255)	2.57 ^a	1.23	

*** $p < .001$.

문화시설 중 영화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패널 가정의 43.3%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26.5%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2014년의 응답과 비교가 가능한데 '매우 편리하다'는 인식의 비율이 2015년에 4.5%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7-19〉 영화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2015년)	13.5	17.0	26.5	29.9	13.4	100.0(1,556)	3.13	1.23	
전체(2014년)	13.9	16.8	30.0	30.4	8.9	100.0(1,565)	3.04	1.18	

(표 II-7-19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모 취업 여부									
취업	13.2	15.8	24.9	30.3	15.9	100.0(677)	3.20	1.26	2.03*
미취업	13.2	18.0	27.9	29.4	11.6	100.0(856)	3.08	1.21	
모 학력									
고졸이하	19.9	23.3	27.9	20.4	8.5	100.0(451)	2.74 ^a	1.23	40.88***
전문대졸	13.5	17.4	24.1	33.7	11.3	100.0(429)	3.12 ^b	1.22	
대졸이상	8.9	13.0	26.9	33.5	17.7	100.0(673)	3.38 ^c	1.1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8.8	21.3	26.3	26.5	7.1	100.0(391)	2.82 ^a	1.22	17.59***
341~400만원	13.9	17.0	29.7	30.8	8.7	100.0(385)	3.03 ^b	1.17	
401~530만원	13.0	17.1	25.6	27.4	16.9	100.0(384)	3.18 ^b	1.27	
531만원 이상	7.8	13.1	24.8	32.8	21.3	100.0(380)	3.47 ^c	1.19	
지역 규모									
대도시	9.7	15.2	26.3	34.2	14.6	100.0(658)	3.29 ^b	1.18	57.44***
중소도시	8.4	14.5	31.4	31.7	14.0	100.0(643)	3.28 ^b	1.13	
읍면지역	34.2	27.7	14.8	14.4	9.0	100.0(255)	2.36 ^a	1.32	

* $p < .05$, *** $p < .001$.

체육 관람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패널 가정의 23.3%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39.7%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47%는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도시 지역에서 편리함에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II-7-20〉 체육 관람 및 운동 시설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9.1	27.9	39.7	18.6	4.7	100.0(1,556)	2.62	1.13	
모 취업 여부									
취업	20.0	25.7	30.5	17.8	6.0	100.0(677)	2.64	1.16	2.18
미취업	18.3	29.4	29.4	19.1	3.8	100.0(856)	2.61	1.10	
모 학력									
고졸이하	28.1	27.9	27.6	12.6	3.8	100.0(451)	2.36 ^z	1.13	37.58***
전문대졸	22.2	31.3	27.9	17.0	1.6	100.0(429)	2.45 ^b	1.06	
대졸이상	11.6	26.0	32.0	23.3	7.1	100.0(673)	2.88 ^c	1.11	

(표 II-7-20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4.7	32.4	26.3	14.9	1.8	100.0(391)	2.37 ^a	1.06	12.86 ^{***}
341~400만원	19.7	26.5	31.8	19.5	2.4	100.0(385)	2.58 ^b	1.08	
401~530만원	19.4	29.5	26.9	17.3	6.8	100.0(384)	2.63 ^b	1.17	
531만원 이상	13.1	23.2	33.2	22.5	8.1	100.0(380)	2.89 ^c	1.14	
지역 규모									
대도시	13.7	25.9	34.4	21.3	4.6	100.0(658)	2.77 ^b	1.07	50.56 ^{***}
중소도시	17.0	27.5	29.1	20.2	6.2	100.0(643)	2.71 ^b	1.15	
읍면지역	38.2	33.9	18.9	7.8	1.2	100.0(255)	2.00 ^a	1.00	

*** $p < .001$.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패널 가정의 22.1%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29.6%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48.4%는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다른 시설보다 상당히 많았다.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도시 지역에서 편리함에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II-7-21〉 공연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2015년)	19.2	29.2	29.6	16.5	5.6	100.0(1,556)	2.60	1.14	-
전체(2014년)	26.6	30.3	27.0	13.6	2.4	100.0(1,565)	2.35	1.08	-
모 취업 여부									
취업	18.4	27.8	29.3	18.0	6.5	100.0(677)	2.67	1.16	2.18 [*]
미취업	19.7	30.2	29.9	15.3	4.9	100.0(856)	2.56	1.11	
모 학력									
고졸이하	25.3	32.1	26.0	11.9	4.7	100.0(451)	2.39	1.12	31.46 ^{***}
전문대졸	23.7	28.3	30.9	14.1	3.0	100.0(429)	2.44	1.09	
대졸이상	12.6	28.0	31.1	20.6	7.7	100.0(673)	2.83	1.1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3.4	33.8	27.4	13.3	2.1	100.0(391)	2.37 ^a	1.05	16.37 ^{***}
341~400만원	22.8	30.4	28.9	14.9	2.9	100.0(385)	2.45 ^a	1.09	
401~530만원	18.4	28.4	30.0	14.5	8.6	100.0(384)	2.67 ^b	1.18	
531만원 이상	12.7	23.6	32.4	23.4	7.9	100.0(380)	2.90 ^c	1.13	

(표 II-7-21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지역 규모									
대도시	14.5	30.4	31.9	17.1	6.1	100.0(658)	2.70 ^b	1.10	
중소도시	16.7	25.4	31.3	19.7	6.9	100.0(643)	2.75 ^b	1.15	38.80 ^{***}
읍면지역	37.3	35.2	19.4	6.8	1.3	100.0(255)	2.00 ^a	0.98	

* $p < .05$, *** $p < .001$.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패널 가정의 54.5%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도서관이용은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17.6%만이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여 공공시설 중 편리하게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표 II-7-22〉 도서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2015년)	5.7	11.9	27.9	36.2	18.3	100.0(1,556)	3.49	1.09	-
전체(2014년)	10.2	15.1	30.7	32.4	11.6	100.0(1,565)	3.20	1.14	-
모 취업 여부									
취업	5.3	10.6	30.7	36.0	17.4	100.0(677)	3.50	1.06	
미취업	6.1	12.7	25.8	37.1	18.2	100.0(856)	3.49	1.11	0.19
모 학력									
고졸이하	8.1	12.8	36.3	31.7	11.0	100.0(451)	3.25 ^a	1.07	
전문대졸	7.2	12.9	23.7	38.6	17.5	100.0(429)	3.46 ^b	1.14	21.90 ^{***}
대졸이상	3.2	10.6	25.3	37.6	23.2	100.0(673)	3.67 ^c	1.05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7.6	15.2	29.9	37.1	10.3	100.0(391)	3.27 ^z	1.08	
341~400만원	6.3	12.6	29.2	34.8	17.1	100.0(385)	3.44 ^b	1.10	
401~530만원	4.6	9.1	28.1	38.9	19.3	100.0(384)	3.59 ^{bc}	1.04	
531만원 이상	3.7	11.1	24.6	35.0	25.7	100.0(380)	3.68 ^c	1.08	10.38 ^{***}
지역 규모									
대도시	6.3	11.0	27.6	36.4	18.8	100.0(658)	3.50 ^b	1.11	
중소도시	3.2	11.0	27.8	39.3	18.7	100.0(643)	3.59 ^b	1.01	11.98 ^{***}
읍면지역	10.4	16.3	29.1	28.1	16.0	100.0(255)	3.23 ^a	1.20	

*** $p < .001$.

의료기관 이용이 편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패널 가정의 54.8%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31.1%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다.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 가량이었다. 의료기관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도시 지역에서 편리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II-7-23〉 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9	10.1	31.1	38.8	16.0	100.0(1,556)	3.53	1.00	-
모 취업 여부									
취업	3.8	8.6	29.2	40.5	18.0	100.0(677)	3.60	1.00	2.75**
미취업	4.2	11.3	32.2	37.9	14.5	100.0(856)	3.47	1.01	
모 학력									
고졸이하	6.8	9.1	34.9	35.4	13.8	100.0(451)	3.40 ^a	1.05	12.80***
전문대졸	2.7	10.9	37.1	35.7	13.6	100.0(429)	3.47 ^a	0.95	
대졸이상	3.0	10.2	25.0	43.0	18.8	100.0(673)	3.64 ^b	0.9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4	13.1	35.9	36.4	9.1	100.0(391)	3.31 ^a	0.99	12.33***
341~400만원	4.1	11.3	32.6	38.5	13.5	100.0(385)	3.46 ^b	1.00	
401~530만원	3.0	8.9	32.4	37.8	17.8	100.0(384)	3.59 ^{bc}	0.98	
531만원 이상	3.4	7.0	23.9	42.4	23.3	100.0(380)	3.75 ^c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0	9.1	29.0	40.1	18.9	100.0(658)	3.63 ^b	0.99	31.02***
중소도시	2.7	8.0	29.3	44.7	15.2	100.0(643)	3.62 ^b	0.93	
읍면지역	9.4	18.0	40.8	21.1	10.8	100.0(255)	3.06 ^a	1.09	

** $p < .01$, *** $p < .001$.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교육시설 이용이 편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2.4%가 편리하거나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32.8%는 보통 수준, 24.8%는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시설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도시 지역에서 편리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II-7-24〉 교육 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9.0	15.8	32.8	30.7	11.7	100.0(1,556)	3.20	1.12	
아동 성별									
남	9.3	15.8	31.5	31.8	11.7	100.0(792)	3.21	1.13	-0.34
여	8.7	15.9	34.2	29.5	11.7	100.0(764)	3.20	1.11	

(표 II-7-24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5	11.5	31.8	38.4	9.8	100.0(178)	3.29	1.07	
첫째	9.2	18.3	30.2	30.1	12.2	100.0(547)	3.18	1.14	0.66
둘째 이상	9.0	14.9	35.0	29.3	11.7	100.0(831)	3.20	1.11	
모 취업 여부									
취업	8.5	14.1	34.0	33.3	10.2	100.0(677)	3.23	1.08	
미취업	9.3	17.0	32.0	29.2	12.5	100.0(856)	3.19	1.14	1.87
모 학력									
고졸이하	13.7	17.1	34.7	25.6	8.9	100.0(451)	2.99 ^a	1.15	
전문대졸	9.1	15.5	35.3	28.2	12.0	100.0(429)	3.19 ^b	1.12	17.99 ^{***}
대졸이상	6.0	15.1	30.3	35.4	13.1	100.0(673)	3.34 ^c	1.07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0.2	19.5	36.5	28.9	4.9	100.0(391)	2.99 ^a	1.04	
341~400만원	11.4	13.2	35.2	30.6	9.6	100.0(385)	3.14 ^a	1.12	
401~530만원	8.4	16.3	28.7	30.4	16.1	100.0(384)	3.30 ^b	1.17	8.94 ^{***}
531만원 이상	6.3	13.8	31.2	33.3	15.5	100.0(380)	3.38 ^b	1.09	
지역 규모									
대도시	7.3	15.6	31.1	32.9	13.2	100.0(658)	3.29 ^b	1.11	
중소도시	6.4	12.4	33.9	34.6	12.7	100.0(643)	3.35 ^b	1.05	44.54 ^{***}
읍면지역	19.8	24.8	34.6	15.4	5.3	100.0(255)	2.62 ^a	1.12	

*** $p < .001$.

공공복지시설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 24.8%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42%는 보통 수준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32.1%는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도시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보다 이용이 불편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25〉 공공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1.5	20.6	42.0	19.9	5.9	100.0(1,556)	2.88	1.04	
아동 성별									
남	11.9	20.3	41.5	20.8	5.5	100.0(792)	2.88	1.05	
여	11.1	21.0	42.6	19.0	6.3	100.0(764)	2.89	1.04	-0.7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1.8	12.5	45.9	24.6	5.2	100.0(178)	2.99	1.03	1.42
첫째	11.5	25.3	40.0	15.8	7.2	100.0(547)	2.82	1.06	
둘째 이상	11.4	19.0	42.6	21.9	5.1	100.0(831)	2.90	1.03	

(표 II-7-25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모 취업 여부									
취업	9.0	20.2	46.2	19.5	5.1	100.0(677)	2.91	0.98	1.91
미취업	13.3	21.2	38.7	20.5	6.3	100.0(856)	2.85	1.09	
모 학력									
고졸이하	15.2	20.1	45.4	15.1	4.2	100.0(451)	2.73 ^a	1.03	16.97 ^{***}
전문대졸	13.4	24.1	39.8	18.0	4.7	100.0(429)	2.77 ^a	1.05	
대졸이상	8.0	18.9	41.3	24.1	7.7	100.0(673)	3.05 ^b	1.0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6.2	24.2	37.8	19.4	2.5	100.0(391)	2.68 ^a	1.04	9.90 ^{***}
341~400만원	11.8	21.4	44.5	17.7	4.7	100.0(385)	2.82 ^a	1.01	
401~530만원	10.2	19.2	40.9	21.7	8.0	100.0(384)	2.98 ^b	1.07	
531만원 이상	7.3	18.9	44.0	21.4	8.4	100.0(380)	3.05 ^b	1.02	
지역 규모									
대도시	9.9	18.8	44.2	20.6	6.6	100.0(658)	2.95 ^b	1.02	28.19 ^{***}
중소도시	9.0	18.7	43.6	23.0	5.8	100.0(643)	2.98 ^b	1.00	
읍면지역	22.0	30.2	32.5	10.6	4.7	100.0(255)	2.46 ^a	1.09	

*** $p < .001$.

2) 시설 이용 만족도

여가 시설로 구분한 공공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5점 척도에서 놀이터가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산책로, 공원, 실내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의 순이었다. 이들의 만족도는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이공원, 실외 체육시설의 만족도는 2점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표 II-7-26〉 공공 여가 시설 이용 만족도

구분						단위: %(명)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놀이터	8.6	9.5	29.5	36.5	16.0	100.0(1,556)	3.42	1.13	
공원	9.3	11.2	29.3	34.3	15.9	100.0(1,556)	3.36	1.15	
산책로	9.7	9.7	28.8	35.7	16.2	100.0(1,556)	3.39	1.16	
놀이공원	20.5	18.3	34.7	21.4	5.1	100.0(1,556)	2.72	1.16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11.1	15.0	38.9	27.0	8.0	100.0(1,555)	3.06	1.09	
실외 체육시설	12.2	16.6	42.8	22.5	6.0	100.0(1,556)	2.93	1.06	

문화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보면 5점 척도 기준 도서관이 3.50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영화관이 3.28로 다음 순이었다. 관람 및 체험시설이나 공연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I-7-27〉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화관	10.6	9.8	33.8	31.9	13.8	100.0(1,556)	3.28	1.15
관람 및 체험시설	16.2	17.6	38.0	23.2	5.0	100.0(1,556)	2.83	1.11
공연시설	15.7	20.5	39.5	19.6	4.7	100.0(1,556)	2.77	1.10
도서관	5.7	8.8	31.2	38.3	16.1	100.0(1,554)	3.50	1.04

병원 등 지역사회 내 접근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3.4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학원을 포함하는 교육기관은 3.15,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은 2.91로 보통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I-7-28〉 교육, 의료,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의료기관	5.1	8.2	37.7	37.2	11.8	100.0(1,555)	3.42	0.98
교육기관	8.9	13.4	41.0	27.8	9.0	100.0(1,555)	3.15	1.05
공공복지시설	11.7	14.1	50.5	18.8	4.8	100.0(1,555)	2.91	0.99

3) 사회 안전(양육환경의 적절성)

양육환경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취객이나 싸움을 자주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평균 1.99를 나타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많고 가장 긍정적인 점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나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성, 정기순찰 실시도 각각 3.36과 3.92, 3.30 정도로 나타났고, 이웃간에 협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3.28을 나타내었다. 아이의 행동을 동네 사람들이 바로 잡아준다는 부문에 대한 긍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7-29〉 양육환경의 적절성 1

단위: 점(명)

구분	①취객, 싸움이 혼합		②범죄로부터 안전		③유해시설로 부터의 안전성		④정기순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99	0.85	3.36	0.97	3.92	0.97	3.30	0.95	100.0(1,542)
모 취업 여부									
취업	1.97	0.84	3.42	0.93	3.90	0.96	3.27	0.89	100.0(676)
미취업	2.01	0.86	3.31	0.99	3.93	0.98	3.28	0.83	100.0(853)
<i>t</i>	-1.02		1.85		-1.17		0.78		
모 학력									
고졸이하	2.26 ^c	0.94	3.09 ^a	1.05	3.83	0.99	3.19 ^a	1.01	100.0(444)
전문대졸	2.01 ^b	0.83	3.33 ^b	0.901	3.90	0.99	3.25 ^a	0.91	100.0(423)
대졸이상	1.82 ^a	0.77	3.54 ^c	0.92	3.99	0.94	3.40 ^b	0.92	100.0(672)
<i>F</i>	38.45 ^{***}		25.65 ^{***}		2.83		6.66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2.11 ^c	0.95	3.17 ^a	0.93	3.17	0.96	3.17 ^a	0.88	100.0(390)
341~400만원	2.04 ^{bc}	0.82	3.32 ^b	0.96	3.32	0.96	3.28 ^b	0.87	100.0(383)
401~530만원	1.99 ^b	0.83	3.37 ^b	0.99	3.27	0.91	3.29 ^b	0.80	100.0(383)
531만원 이상	1.80 ^a	0.75	3.61 ^c	0.93	3.47	0.91	3.38 ^c	0.86	100.0(380)
<i>F</i>	10.03 ^{***}		11.43 ^{***}		0.83		8.02 ^{***}		
지역 규모									
대도시	2.05	0.90	3.35 ^b	1.00	3.85	0.99	3.38 ^b	0.95	100.0(652)
중소도시	1.94	0.82	3.43 ^b	0.92	3.96	0.94	3.32 ^b	0.93	100.0(638)
읍면지역	1.99	0.82	3.25 ^a	0.98	4.00	1.00	3.05 ^a	0.91	100.0(252)
<i>F</i>	2.27		4.73 ^{**}		2.69		13.58 ^{***}		

- 주: ① 슬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②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③ 유해시설(유흥가, 윤락가 등)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
 ④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 $p < .01$, *** $p < .001$.

〈표 II-7-30〉 양육환경의 적절성 2

단위: 점(명)

구분	⑤협조분위기		⑥행동 바로 잡아 주기		⑦시설물 설치		⑧안전설비 구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28	0.86	2.84	0.83	3.21	0.85	3.10	0.88	100.0(1,542)
아동 성별									
남	3.27	0.90	2.88	0.82	3.22	0.87	3.09	0.91	100.0(782)
여	3.29	0.81	2.81	0.83	3.21	0.83	3.12	0.85	100.0(760)
<i>t</i>	0.44		1.56		0.10		-0.1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12 ^a	0.88	2.76	0.81	3.22	0.81	3.09	0.87	100.0(177)
첫째	3.32 ^b	0.83	2.85	0.86	3.21	0.84	3.11	0.88	100.0(541)
둘째 이상	3.28 ^b	0.87	2.86	0.80	3.21	0.87	3.10	0.88	100.0(824)
<i>F</i>	4.19 [*]		1.89		0.12		0.31		
모 취업 여부									
취업	3.27	0.89	2.82	0.81	3.25	0.85	3.14	0.87	100.0(676)
미취업	3.28	0.83	2.86	0.83	3.18	0.85	3.07	0.88	100.0(853)
<i>t</i>	-0.51		-0.91		1.84		1.88		
모 학력									
고졸이하	3.19	0.90	2.71 ^a	0.89	3.00 ^a	0.91	2.80 ^a	0.92	100.0(444)
전문대졸	3.29	0.85	2.89 ^b	0.84	3.11 ^b	0.85	3.08 ^b	0.89	100.0(423)
대졸이상	3.32	0.83	2.89 ^b	0.77	3.40 ^c	0.77	3.30 ^c	0.80	100.0(672)
<i>F</i>	1.91		5.13 ^{**}		34.67 ^{***}		37.27 ^{***}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17 ^a	0.88	2.74 ^a	0.85	2.98 ^a	0.86	2.82 ^a	0.87	100.0(390)
341~400만원	3.28 ^{ab}	0.87	2.89 ^b	0.86	3.19 ^b	0.84	3.05 ^b	0.89	100.0(383)
401~530만원	3.29 ^{ab}	0.80	2.87 ^b	0.80	3.22 ^b	0.86	3.14 ^b	0.91	100.0(383)
531만원 이상	3.38 ^b	0.85	2.88 ^b	0.80	3.48 ^c	0.76	3.41 ^c	0.74	100.0(380)
<i>F</i>	3.03 [*]		3.32 [*]		21.89 ^{***}		25.43 ^{***}		
지역 규모									
대도시	3.20 ^a	0.86	2.85	0.84	3.21 ^b	0.88	3.11 ^b	0.92	100.0(652)
중소도시	3.33 ^{ab}	0.85	2.82	0.82	3.31 ^b	0.82	3.18 ^b	0.83	100.0(638)
읍면지역	3.36 ^b	0.85	2.86	0.81	2.98 ^a	0.82	2.88 ^a	0.86	100.0(252)
<i>F</i>	3.74 [*]		0.13		10.45 ^{***}		9.71 ^{***}		

주: 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⑥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⑦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⑧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라. 소결

패널 가구는 2014년에서 2015년 조사 사이에 약 23.2%가 거주지를 옮긴 경향이 있었다. 패널 아동이 위치한 지역의 양육환경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놀이터, 공원, 산책로,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편리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놀이공원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미만으로 인식하였다. 여가 공간 유형별로 지역 규모에 따라 접근의 편리성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소도시의 경우 놀이터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읍면 지역의 경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실외 체육시설, 영화관, 체육 관람 및 운동 시설, 공연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복지시설이 접근하기 불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양육환경이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범죄나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성, 정기순찰 실시 및 이웃간의 협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아이의 행동을 동네 사람들이 바로 잡아준다는 부문에 대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8. 정책 특성

가. 정책 특성 관련 변인 구성

8차년도 조사의 정책 특성은 국가지원, 직장에서의 지원과 이외의 기타 지원으로 구분되며, 해당 변인은 <표 II-8-1>과 같다. 직장에서의 지원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게 질문하였다.

<표 II-8-1> 8차년도 정책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지원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양육지원 정책 수혜 여부, 도움 정도
직장에서 의 지원	시행 및 이용 지원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시행·이용률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우선순위, 도움 정도
기타 지원	시행 및 이용 지원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국가 및 직장 지원이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미치는 영향

나. 국가 지원

아동 패널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0.6%, 차상위계층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널 아동이 둘째 이상의 출생순위를 차지하는 경우 즉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모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구분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0.6	2.4	97.0	100.0(1,598)	
아동 성별					
남	0.1	2.6	97.3	100.0(817)	5.79(2)
여	1.2	2.2	96.6	100.0(78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0.5	0.7	98.8	100.0(183)	10.77(4)*
첫째	0.0	1.6	98.3	100.0(560)	
둘째 이상	1.1	3.4	95.5	100.0(855)	
모 취업 여부					
취업	0.1	1.4	98.5	100.0(694)	7.11(2)*
미취업	0.8	3.2	96.0	100.0(874)	
모 학력					
고졸이하	2.0	5.6	92.4	100.0(463)	39.40(4)***
전문대졸	0.3	0.9	98.8	100.0(435)	
대졸이상	0.0	1.4	98.6	100.0(686)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1.6	5.6	92.9	100.0(399)	54.52(6)***
341~400만원	0.2	2.5	97.3	100.0(393)	
401~530만원	0.0	1.6	98.4	100.0(395)	
531만원 이상	0.0	0.0	100.0	100.0(392)	
지역 규모					
대도시	0.8	0.5	96.8	100.0(678)	3.55(4)
중소도시	96.8	98.2	96.7	100.0(655)	
읍면지역	2.4	1.3	98.2	100.0(265)	

* $p < .05$, *** $p < .001$.

다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양육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의 혜택을 패널 가구가 얼마나 수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56%, 자녀세액공

제는 37.9%의 부모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돌봄서비스 중 아이돌봄은 1.0%, 초등돌봄교실 17.1%, 방과후 돌봄 2.5%로 응답되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이용에서 꽤널 아동이 둘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고 특히 취업모 가정이 31.5%로 미취업모 가정 5.8%보다 6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비율에 있어 소득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이용 형태를 보이지는 않고 읍면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았다.

〈표 II-8-3〉 양육지원정책 수혜율

구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녀세액공제	아이돌봄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전체	56.0	37.9	1.0	17.1	2.5
아동 성별					
남	57.7	39.4	0.6	17.6	1.9
여	54.2	36.4	1.4	16.4	3.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0.0	25.6	1.3	12.5	1.6
첫째	56.9	38.6	0.7	16.1	2.5
둘째 이상	56.8	40.4	1.2	18.9	2.6
모 취업 여부					
취업	57.9	43.0	1.7	31.5	3.5
미취업	55.3	34.5	0.6	5.8	1.7
모 학력					
고졸이하	56.2	33.8	0.9	20.2	4.6
전문대졸	58.6	39.0	0.8	19.1	2.8
대졸이상	54.6	40.2	1.3	13.5	0.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1.3	27.6	1.7	17.6	4.3
341~400만원	58.9	40.9	1.1	12.4	2.6
401~530만원	57.6	41.6	0.6	18.8	0.9
531만원 이상	58.8	43.9	0.7	19.4	1.6
지역 규모					
대도시	55.8	39.5	1.1	15.3	2.3
중소도시	53.8	35.7	1.1	16.2	2.0
읍면지역	61.8	39.1	0.6	23.7	4.0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지원 정책은 이용 경험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읍면지역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이 유일하게 1%를 넘

었다. 그 외에 저소득 가구와 고졸이하 모학력 가구에서 WEE클래스 상담지원 서비스를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4〉 정신건강지원정책 수혜율

단위: %

구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보건센터 운영	WEE클래스 상담 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전체	0.4	0.0	0.3	0.1	0.1
아동 성별					
남	0.6	0.0	0.1	0.1	0.0
여	0.2	0.1	0.5	0.1	0.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0.0	0.0	0.0	0.0	0.0
첫째	0.6	0.0	0.7	0.1	0.0
둘째 이상	0.4	0.1	0.1	0.1	0.3
모 취업 여부					
취업	0.2	0.1	0.1	0.1	0.1
미취업	0.6	0.0	0.5	0.0	0.2
모 학력					
고졸이하	0.1	0.0	0.8	0.0	0.3
전문대졸	0.4	0.0	0.0	0.0	0.0
대졸이상	0.6	0.1	0.2	0.2	0.1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0.9	0.0	0.9	0.0	0.0
341~400만원	0.9	0.2	0.4	0.4	0.6
401~530만원	0.0	0.0	0.0	0.0	0.0
531만원 이상	0.0	0.0	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0.0	0.0	0.4	0.0	0.0
중소도시	0.5	0.0	0.1	0.0	0.0
읍면지역	1.4	0.3	0.6	0.6	0.8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중에는 패널 가구 중 2.8%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혜택을 받고 있고 2.7%가 '저소득층 급식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이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우유급식지원, 긴급복지교육지원, 교육급여 등 그 이외 지원에 대해서는 수혜율이 낮다.

〈표 II-8-5〉 저소득지원정책 수혜율

단위: %

구분	저소득층 급식지원	학교 우유 급식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교육급여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학생교육 정보화 지원	문화통합 이용권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전체	2.7	1.3	0.2	0.6	2.8	0.2	0.7	0.2
아동 성별								
남	2.5	1.1	0.0	0.3	3.0	0.0	0.0	0.3
여	2.9	1.5	0.4	0.9	2.6	0.4	0.9	0.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5	0.8	0.0	0.0	0.4	0.0	0.0	0.0
첫째	1.4	0.9	0.0	0.5	3.2	0.0	0.9	0.0
둘째 이상	3.7	1.7	0.4	0.8	3.0	0.4	0.8	0.5
모 취업 여부								
취업	2.3	0.9	0.2	0.5	2.1	0.2	0.6	0.2
미취업	3.0	1.5	0.0	0.6	3.4	0.2	0.8	0.3
모 학력								
고졸이하	5.3	2.7	0.0	1.8	5.1	0.6	2.3	0.6
전문대졸	3.0	1.0	0.5	0.3	2.0	0.0	0.0	0.0
대졸이상	0.9	0.5	0.1	0.0	1.9	0.1	0.2	0.2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5.9	3.1	0.2	0.7	7.1	0.7	1.2	0.6
341~400만원	2.3	1.6	0.2	0.9	2.4	0.2	0.9	0.3
401~530만원	1.4	0.2	0.0	0.6	0.9	0.0	0.6	0.0
531만원 이상	1.2	0.3	0.0	0.0	1.0	0.0	0.2	0.0
지역 규모								
대도시	4.1	0.8	0.0	0.4	2.8	0.2	1.0	0.4
중소도시	1.3	1.3	0.4	0.5	2.8	0.0	0.5	0.0
읍면지역	2.6	2.4	0.3	1.1	2.8	0.8	0.5	0.3

지원 정책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가정에서 각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도움됨 39.7%, 매우 도움됨 12%로 51.7%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0.7%였으나 17.5%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표 11-8-6〉 정책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8	14.7	30.7	39.7	12.0	100.0(1,165)	3.43	0.97	-
아동 성별									
남	3.9	14.1	29.5	40.1	12.3	100.0(610)	3.43	1.00	
여	1.6	15.4	32.1	39.2	11.8	100.0(555)	3.44	0.94	-0.4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3	12.7	36.7	36.7	10.2	100.0(115)	3.44	0.88	
첫째	2.3	14.0	32.2	32.2	13.6	100.0(405)	3.47	0.97	0.35
둘째 이상	3.4	15.6	15.6	28.6	11.4	100.0(645)	3.41	0.99	
모 취업 여부									
취업	1.4	13.9	34.0	38.0	12.7	100.0(554)	3.47	0.93	
미취업	4.1	15.4	28.1	40.9	11.5	100.0(592)	3.40	1.01	1.47
모 학력									
고졸이하	2.4	14.8	26.2	45.2	11.5	100.0(340)	3.48	0.96	
전문대졸	2.4	17.5	31.9	36.7	11.4	100.0(326)	3.37	0.98	2.83
대졸이상	3.3	12.9	33.3	37.7	12.8	100.0(493)	3.44	0.98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2	14.0	27.2	42.5	13.2	100.0(286)	3.49	1.00	
341~400만원	3.7	17.0	28.2	40.6	10.4	100.0(287)	3.37	1.00	1.40
401~530만원	2.6	14.7	33.7	38.8	10.2	100.0(291)	3.39	0.94	
531만원 이상	1.6	12.6	34.5	37.2	14.0	100.0(291)	3.50	0.94	
지역 규모									
대도시	3.2	17.8	33.8	37.1	8.1	100.0(514)	3.29 ^a	0.96	
중소도시	2.9	11.4	30.4	39.5	15.8	100.0(442)	3.54 ^b	0.98	12.77 ^{***}
읍면지역	1.6	13.7	23.7	46.8	14.2	100.0(209)	3.58 ^b	0.95	

*** $p < .001$.

다. 직장에서의 지원

1) 시행 및 이용

직장에서 제공하는 각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시행하는 비율과 이를 이용한 경험의 비율을 보면, 여성의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비율은 51.9~58.5%이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33.0~36.3%정도이다. 유연근무제는 25~30% 가량의 직장이 시행하고 있고 그 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15.9~18.6%정도이다. 이용률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은

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 중 57.7%가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아버지는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직장 근로자 중 11.3%만이 남성 육아휴직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 패널 중 4.7%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나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7〉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시행률과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시행률	이용률	시행률	이용률
여성의 육아휴직	58.5(802)	-	51.9(356)	57.7(206)
남성의 육아휴직	36.3(502)	11.3(65)	33.0(229)	-
가족돌봄휴직	21.9(293)	14.2(39)	18.7(128)	24.1(31)
유연근무제	25.3(337)	21.5(67)	30.6(208)	42.8(93)
대체인력풀	18.9(262)	11.7(32)	26.5(184)	39.7(76)
가족친화 관련프로그램	18.6(255)	21.1(53)	15.9(113)	36.8(39)

2) 지원에 대한 의견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직장 내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수의 어머니(제도별로 최소 80.4~96.1%)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이지만 비교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고(59.4~79.3%)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표 II-8-8〉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단위: %(명),점

구분	전혀		보통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어머니							
여성의 육아휴직	0.2	1.9	4.6	46.7	46.2	100(206)	4.37
가족돌봄휴직	1.4	-	2.5	47.6	48.5	100(31)	4.42
유연근무제	0.5	-	8.8	49.5	44.1	100(93)	4.31
대체인력풀	0.6	1.9	5.7	40.6	46.4	100(76)	4.39
가족친화 관련프로그램	1.1	1.5	17.6	59.5	20.9	100(39)	3.96

(표 II-8-8 계속)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아버지							
남성의 육아휴직	5.8	2.2	20.5	47.2	24.4	100(65)	3.82
가족돌봄휴직	9.1	1.4	30.1	33.4	26.0	100(39)	3.66
유연근무제	1.1	4.2	15.4	48.3	31.0	100(67)	4.04
대체인력풀	-	1.5	26.6	41.9	30.0	100(32)	4.00
가족친화 관련프로그램	-	2.3	33.7	40.6	23.3	100(53)	3.85

직장의 육아지원 제도로써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남성의 출산휴가를 들었다. 2순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인 것으로 나타났고 3순위로 가장 높은 요구는 보육료 지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나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어머니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훨씬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보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8-9〉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필요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성의 출산휴가	29.5	54.6	5.5	8.0	4.7	5.1
남성의 육아휴직	8.4	18.3	20.9	45.1	5.6	8.3
여성의 출산휴가	18.3	1.1	6.7	4.8	6.4	5.9
여성의 육아휴직	6.0	1.2	16.3	4.1	6.9	6.7
직장 어린이집	5.8	3.9	11.1	6.4	9.8	9.5
보육비 지원	23.7	14.3	17.8	13.1	23.4	26.6
수유실 설치	0.1	0.2	0.5	0.3	0.7	0.4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0.3	0.2	0.5	0.5	0.7	1.0
시차 출근제	4.7	3.9	8.6	11.2	14.5	18.5
대체인력풀 운영	0.6	0.8	3.1	2.0	5.9	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	0.7	5.0	3.4	9.0	9.5
가족돌봄휴직	1.3	0.9	3.9	1.0	12.4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69)	(1,568)	(1,469)	(1,568)	(1,469)	(1,568)

단위: %(명)

라. 기타지원

1) 시행 및 이용

패널 아동 가구 중 생활비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6.1%만 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 지원에 대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미취업 모의 경우 지원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율이 취업모에 비해 3%가량 높았고 소득이 낮은 가구, 대도시 지역에서 생활비 지원 수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원을 제공한 대상은 정부보조금과 친지 등, 직장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8-10〉 지난 1년간 생활비 지원 유무 및 지원 제공자

단위: %(명)

구분	생활비 지원			지원처(중복응답)			
	받은적 있음	받은적 없음	계(수)	정부보조금	친척, 친지, 친구,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 단체	직장
전체	6.1	93.9	100(1,598)	2.6	2.5	0.2	1.5
모 취업 여부							
취업	4.8	95.2	100(694)	2.2	1.3	0.3	1.3
미취업	7.4	92.6	100(874)	2.9	3.4	0.1	1.6
모 학력							
고졸이하	8.7	91.3	100(493)	4.8	2.7	0.0	1.1
전문대졸	4.5	65.5	100(435)	1.8	1.9	0.4	0.9
대졸이상	5.9	94.1	100(692)	1.9	2.7	0.1	1.9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9.3	90.7	100(399)	4.0	5.1	0.3	0.7
341~400만원	4.8	95.2	100(393)	2.5	2.3	0.0	0.7
401~530만원	6.6	93.4	100(395)	2.3	1.5	0.0	3.1
531만원 이상	3.5	96.5	100(392)	0.9	0.9	0.4	1.3
지역 규모							
대도시	7.9	92.1	100(678)	4.6	2.5	0.0	1.1
중소도시	5.2	94.8	100(655)	1.8	2.3	0.8	0.8
읍면지역	5.4	94.6	100(265)	1.0	2.8	0.1	2.1

주: 지원처는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 있음에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였음

2) 지원에 대한 의견

정부나 직장에서 육아 및 출산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이것이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 질문에 보면, 5점 척도에서 아버지는 3.39, 어머니는 3.80 정도 수준으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즉 도움을 주는 편에 가깝지만 보통수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지원제도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경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력 인식도가 높았고 어머니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혜의 정도가 다르므로 영향력 인식도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에서 지원 제도의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표 11-8-11〉 정부 및 직장 지원 제도의 의 출산/양육 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력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계(수)	t/F	평균	표준편차	계(수)	t/F
전체	3.39	1.11	100.0(1,469)		3.80	1.00	100.0(1,568)	-
모 취업 여부								
취업	3.44	1.12	100.0(632)	1.12	3.89	1.00	100.0(694)	2.76**
미취업	3.36	1.10	100.0(809)		3.73	1.00	100.0(874)	
모 학력								
고졸이하	3.29 ^a	1.13	100.0(434)	5.67**	3.69	1.07	100.0(457)	2.17
전문대졸	3.35 ^a	1.10	100.0(409)		3.83	1.00	100.0(428)	
대졸이상	3.48 ^b	1.10	100.0(620)		3.85	0.96	100.0(683)	
가구 소득								
340만원 이하	3.35 ^a	1.14	100.0(364)	4.55**	3.72	1.00	100.0(393)	1.22
341~400만원	3.32 ^a	1.07	100.0(366)		3.77	1.08	100.0(388)	
401~530만원	3.34 ^a	1.11	100.0(369)		3.85	0.94	100.0(384)	
531만원 이상	3.56 ^b	1.11	100.0(357)		3.89	0.98	100.0(383)	
지역 규모								
대도시	3.43	1.10	100.0(611)	1.35	3.60 ^a	1.00	100.0(672)	26.56***
중소도시	3.39	1.12	100.0(615)		4.01 ^c	0.94	100.0(640)	
읍면지역	3.32	1.12	100.0(243)		3.81 ^b	1.05	100.0(256)	

* $p < .05$, *** $p < .001$.

마. 소결

패널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6%, 차상위계층은 2.4%로 조사되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정책에 따른 혜택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56.0%, 자녀 세액 공제는 37.9%, 초등돌봄 교실 17.1%, 방과후 돌봄 2.5%가 수

혜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각 육아지원제도 중 여성의 육아휴직 항목에서만 과반 수 이상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57.7%는 근로 장소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한 반면,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은 11.3%에 그쳤다. 직장이 제공하는 육아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경우 제도별로 최소 80.4%~96.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 조금 낮은 비율이지만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중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남성의 출산휴가를 들었으며, 2순위는 남성의 육아휴직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을 제공한 주체는 정부보조금 2.6%, 친척·친지·친구·이웃의 지원이 2.5%, 직장이 1.5%, 복지관·종교·사회 단체는 0.2%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직장 지원 제도의 출산/양육 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력은 어머니 3.80점, 아버지 3.39점으로 도움을 주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가 지원제도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Ⅲ. 1~8차년도 주요 변인 추이 분석

4장은 한국아동패널의 1~8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367가구를 기반으로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모수 추정을 위하여 비율(%)과 평균값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가독성을 고려하여 사례수(명)는 가중치를 미적용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1. 아동 특성

아동이 하루 동안 하는 활동별로 평균 소요 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1>과 <표 Ⅲ-1-2>를 살펴보면,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던 7차년도까지 기관에서 보내던 시간이 평균 7시간 정도였던 데 비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차년도에는 5.54시간으로 1시간 이상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균질화되어 표준편차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타 학원 및 돌봄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간은 8차년도에 매우 큰 폭으로 늘어 이전에는 30분 내지 50분 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초등 1학년인 8차년에는 2시간 30분정도까지 늘어났다. 그 외 실내외 활동, 기본 생활 등의 소요 시간은 연차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수면 시간과 미디어 이용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1>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1

단위: 시간(명)

구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기타 학원 및 돌봄		실내/외 활동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세(5차)	6.73	1.85	0.48	0.63	3.31	1.50	(1,334)
5세(6차)	7.07	1.43	0.46	0.52	3.24	1.38	(1,367)
6세(7차)	7.08	1.30	0.85	0.74	2.99	1.24	(1,367)
7세(8차)	5.54	1.13	2.51	1.26	3.35	1.28	(1,367)

〈표 III-1-2〉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2

단위: 시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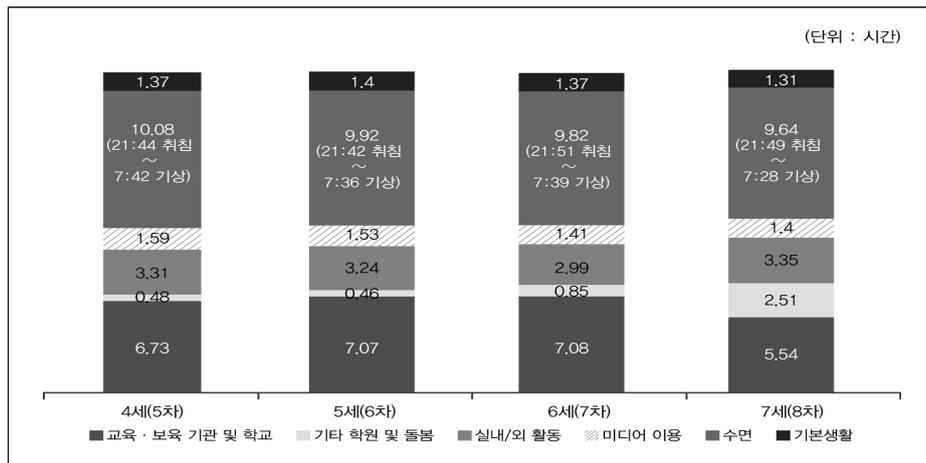
구분	수면		미디어 이용		기본생활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세(5차)	10.08	0.86	1.59	0.95	1.37	0.61	(1,367)
5세(6차)	9.92	0.76	1.53	0.92	1.40	0.59	(1,367)
6세(7차)	9.82	0.70	1.41	0.79	1.37	0.57	(1,367)
7세(8차)	9.64	0.64	1.40	0.97	1.31	0.50	(1,367)

아동의 평균 취침시간은 연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기상 시간은 차츰 일러져 8차년도는 7차년도보다 11분 더 먼저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세 연령이었던 3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7분 기상 시간이 당겨졌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경우의 비율은 유아기인 7차년도에 비해 초등학교 시기인 8차년도에 현저하게 줄어 6.8%가 잠을 자다 밤에 깬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1-3〉 아동의 수면 습관

단위: 시:분, %(명)

구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	숙면 여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깨지 않음	자다가 깬	계
2세(3차)	21:57	1:56	7:55	0:52	(1,347)	66.1	33.9	100.0(1,346)
3세(4차)	21:55	0:56	7:48	0:44	(1,367)	87.7	12.3	100.0(1,367)
4세(5차)	21:44	0:59	7:42	0:37	(1,366)	87.5	12.5	100.0(1,367)
5세(6차)	21:42	0:55	7:36	0:39	(1,367)	87.1	12.9	100.0(1,367)
6세(7차)	21:51	0:58	7:39	0:34	(1,367)	88.9	11.1	100.0(1,367)
7세(8차)	21:49	0:42	7:28	0:26	(1,367)	93.2	6.8	100.0(1,367)



〔그림 III-1-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및 수면 시각

7세인 8차년도에 아동의 체중은 남아 평균 25.76kg, 여아 24.68kg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3.32kg, 3.14kg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표준편차 또한 커져서 최대값은 각각 48kg을 초과하고 있었다. 몸무게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남녀 간 차이도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1-4〉 아동의 체중

단위: kg(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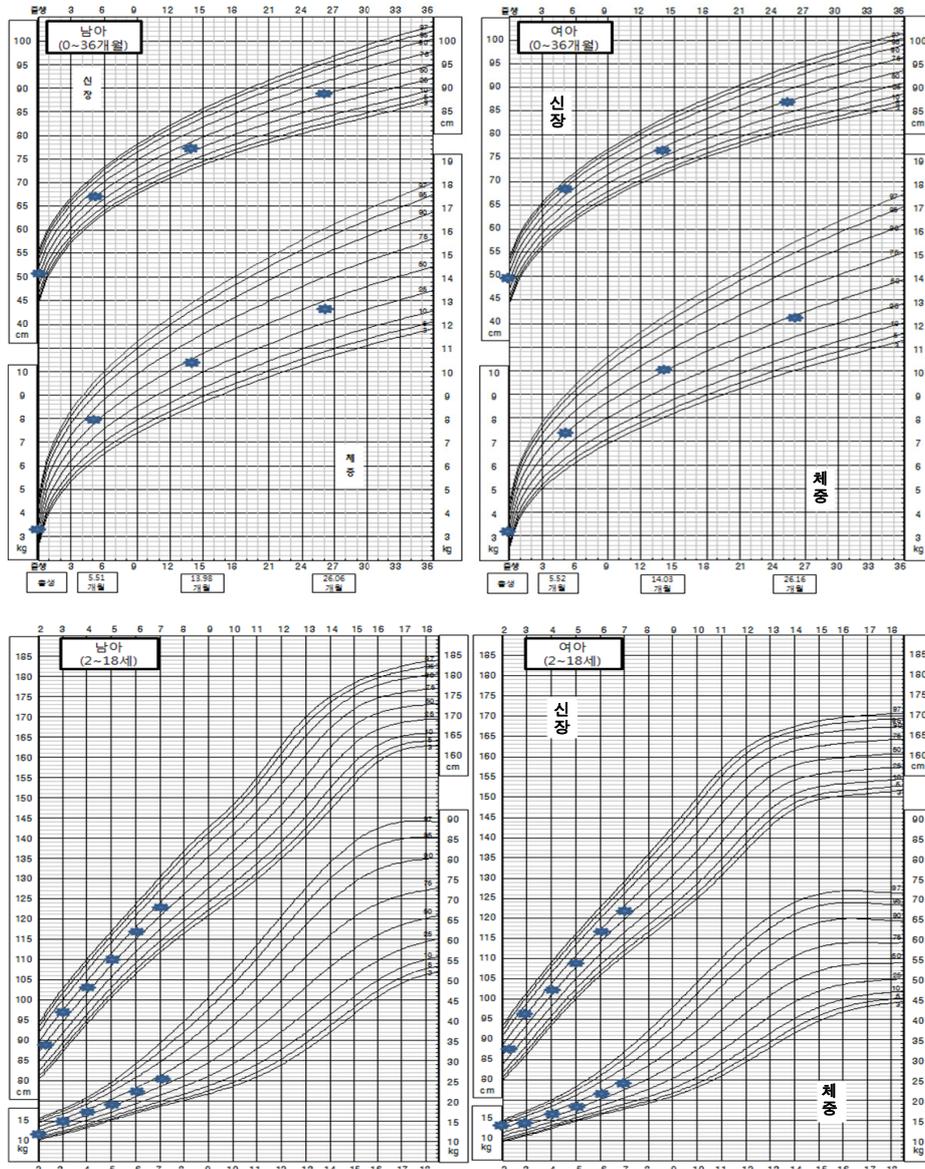
구분	남아					여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출생(1차)	3.30	0.42	1.50	4.70	(698)	3.21	0.42	1.20	4.90	(667)
0세(1차)	7.96	0.99	5.30	11.00	(504)	7.25	0.88	4.10	10.00	(491)
1세(2차)	10.38	1.10	5.70	13.50	(622)	9.78	1.07	7.00	13.00	(609)
2세(3차)	12.74	1.42	7.00	21.00	(678)	12.17	1.39	8.60	20.00	(647)
3세(4차)	14.93	1.66	11.00	21.00	(699)	14.49	1.71	10.00	21.00	(668)
4세(5차)	17.10	2.11	11.00	25.00	(699)	16.74	2.16	11.60	29.60	(668)
5세(6차)	19.46	2.70	13.00	33.00	(697)	18.90	2.71	11.00	34.50	(666)
6세(7차)	22.48	3.75	15.40	38.80	(672)	21.73	3.51	14.70	38.60	(644)
7세(8차)	25.76	4.69	17.30	48.20	(693)	24.68	4.44	17.00	48.70	(659)

신장 또한 체중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3세까지는 매년 10cm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거나 4세부터는 꾸준히 평균 6~7cm씩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표준편차도 해마다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남아의 경우 최대와 최소 간 35c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1-5〉 아동의 신장

단위: cm(명)

구분	남아					여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출생(1차)	50.64	2.37	36.50	60.00	(698)	49.86	2.69	35.00	58.00	(599)
0세(1차)	66.59	3.36	53.00	90.00	(392)	64.81	3.18	43.00	80.00	(393)
1세(2차)	77.59	3.62	60.00	94.00	(401)	76.56	4.05	60.00	90.00	(414)
2세(3차)	89.05	3.96	68.00	110.00	(551)	87.92	3.80	69.00	100.00	(532)
3세(4차)	97.04	3.83	85.00	111.00	(699)	96.06	3.55	85.00	110.00	(667)
4세(5차)	103.93	4.50	85.00	125.00	(699)	103.21	3.95	91.20	116.00	(668)
5세(6차)	110.41	4.73	97.00	130.00	(695)	109.57	4.28	98.00	125.00	(665)
6세(7차)	117.39	4.79	103.00	132.00	(669)	116.75	4.70	104.00	130.50	(643)
7세(8차)	123.95	5.23	109.00	144.00	(694)	122.82	4.99	107.20	140.50	(660)



[그림 III-1-2] 표준 성장지표 대비 아동의 체중 및 신장

6차년도부터 조사되기 시작했던 시력교정도구 사용 여부를 보면 안경을 착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6차년도와 7차년도 간보다 7차년도와 8차년도 간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6〉 아동의 안경 및 시력교정도구 사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착용 함	착용 안함	계(수)
5세(6차)	2.2	97.8	100.0(1,367)
6세(7차)	4.4	95.6	100.0(1,367)
7세(8차)	7.2	92.8	100.0(1,367)

아동의 우세손을 조사해 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관점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5세에 비해 8차년도 7세의 결과는 필기류 사용 시 양손을 사용하는 비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 한 손 사용이 확고히 자리 잡아감을 알 수 있다.

〈표 III-1-7〉 아동의 우세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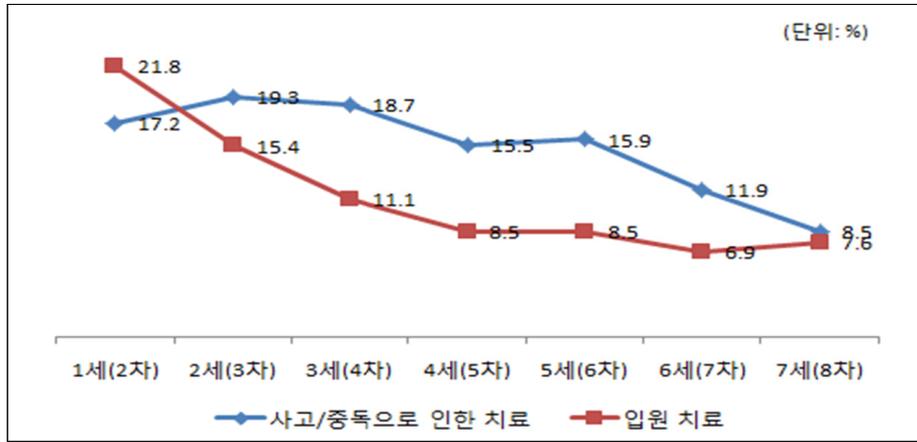
구분	필기류 사용			식사			물건 집기			계(수)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	왼손	양손	
5세(6차)	88.2	7.2	4.6	88.9	6.6	4.5	82.4	6.9	10.7	100.0(1,367)
6세(7차)	90.2	6.4	3.4	88.5	6.4	5.1	84.2	5.5	10.3	100.0(1,367)
7세(8차)	90.6	6.5	2.9	89.4	6.3	4.3	84.5	5.6	9.9	100.0(1,367)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의 발생이나 입원 치료 상황은 연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연령 시기와 비교하면 입원의 경우 35%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표 III-1-8〉 지난 1년간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입원 치료 여부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1세(2차)	17.2	82.8	100.0(1,353)	21.8	78.2	100.0(1,355)
2세(3차)	19.3	80.7	100.0(1,346)	15.4	84.6	100.0(1,345)
3세(4차)	18.7	81.3	100.0(1,366)	11.1	88.9	100.0(1,366)
4세(5차)	15.5	84.5	100.0(1,367)	8.5	91.5	100.0(1,367)
5세(6차)	15.9	84.1	100.0(1,367)	8.5	91.5	100.0(1,367)
6세(7차)	11.9	88.1	100.0(1,367)	6.9	93.1	100.0(1,367)
7세(8차)	8.5	91.5	100.0(1,367)	7.6	92.4	100.0(1,367)



[그림 III-1-3] 사고/중독 및 입원 치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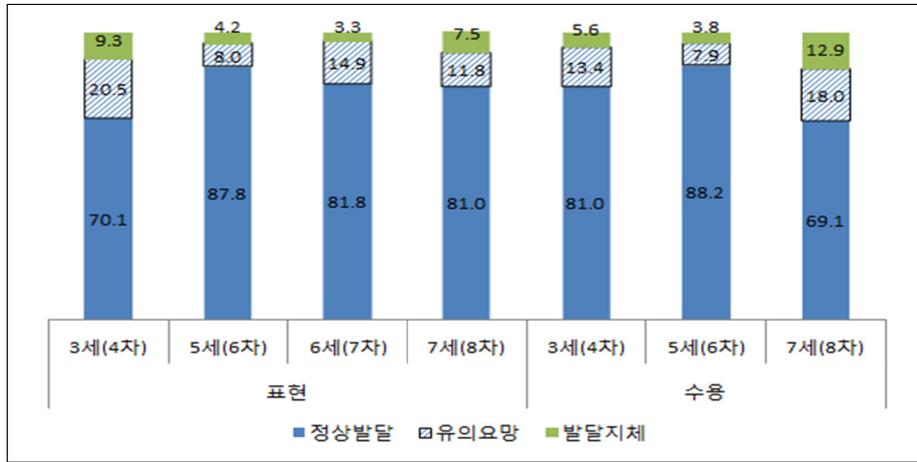
아동의 어휘력 발달 측정 결과에 의하면, 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수용 어휘력에 있어 2015년 실시된 8차년도 결과에서 정상발달에 속하는 비율이 69.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어휘력과 수용 어휘력에 있어 발달지체 비율은 각각 7.5%와 12.0%로 이전 연도들에 비해 비정상상으로 판단되는 아동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조사원들에 의해 실시된 이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되 개개인 아동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1-9> 아동의 어휘력 발달

단위: %(명)

구분	표현 어휘력				수용 어휘력			
	정상발달	유의요망	발달지체	계	정상발달	유의요망	발달지체	계
3세(4차)	70.1	20.5	9.3	100.0(1,353)	81.0	13.4	5.6	100.0(1,348)
5세(6차)	87.8	8.0	4.2	100.0(377)	88.2	7.9	3.8	100.0(1,360)
6세(7차)	81.8	14.9	3.3	100.0(752)	-	-	-	-
7세(8차)	81.0	11.8	7.5	100.0(1,257)	69.1	18.0	12.9	100.0(1,323)

주: 6차년도 표현 어휘력 검사는 심층 조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됨.



[그림 III-1-4] 아동의 어휘력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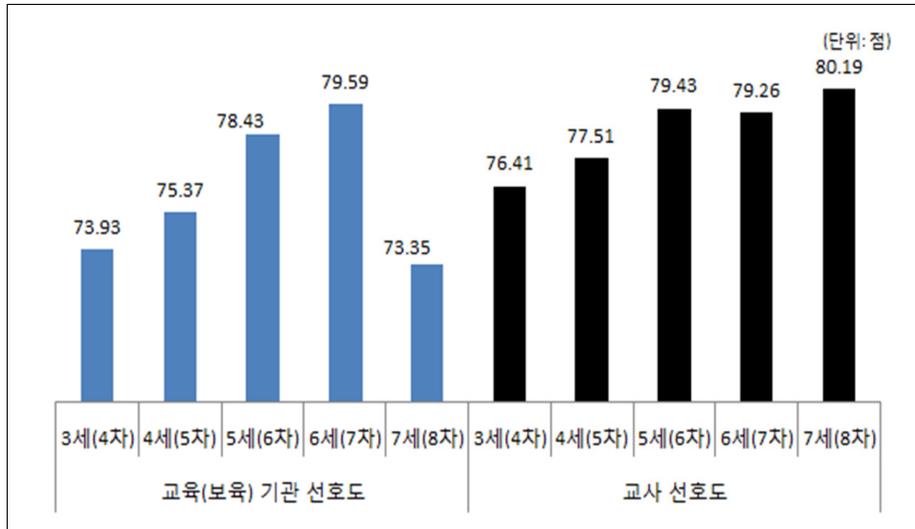
100점 만점 기준에서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 또는 학교(8차년도)를 좋아하는 정도를 측정한 연도별 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아갈수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간 7세의 경우는 이전년도에 비해 선호도가 6.24 만큼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차년도 결과는 이전의 영유아기 교육·보육 기관의 교사보다 학교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짐을 보여주나, 편차가 매우 커서 아동 개개인간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0〉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및 교사 선호도

단위: 점(명)

구분	교육(보육) 기관 선호도			교사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3세(4차)	73.93	17.12	(1,082)	76.41	16.57	(1,081)
4세(5차)	75.37	17.51	(1,312)	77.51	17.82	(1,316)
5세(6차)	78.43	16.82	(1,333)	79.43	17.07	(1,333)
6세(7차)	79.59	16.52	(1,322)	79.26	16.40	(1,322)
7세(8차)	73.35	30.41	(1,353)	80.19	25.99	(1,350)

주: 4차~7차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8차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이 직접 응답함. 점수 비교를 위하여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제시함.



[그림 III-1-5] 아동의 교육(보육) 기관 및 교사 선호도

아동의 문제행동 임상 수준 정도를 파악하는 측정에서 임상치에 속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8차년도 결과는 임상 집단 비율은 줄었으나 준임상에 속하는 비율이 이전 연도들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상 집단의 비율 또한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III-1-11> 아동의 문제행동 임상 집단 구분

단위: %(명)

구분	문제행동 총집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수)
	정상	준임상	임상	정상	준임상	임상	정상	준임상	임상	
4세(5차)	84.2	6.9	9.0	82.2	9.1	8.7	83.5	8.3	8.2	(1,363)
5세(6차)	88.8	5.3	5.9	86.4	7.4	6.2	90.1	5.4	4.5	(1,358)
6세(7차)	91.2	4.1	4.7	88.1	6.7	5.3	92.0	4.5	3.5	(1,356)
7세(8차)	87.4	8.3	4.3	87.2	8.0	4.9	84.8	7.5	7.7	(1,355)



[그림 III-1-6] 아동의 문제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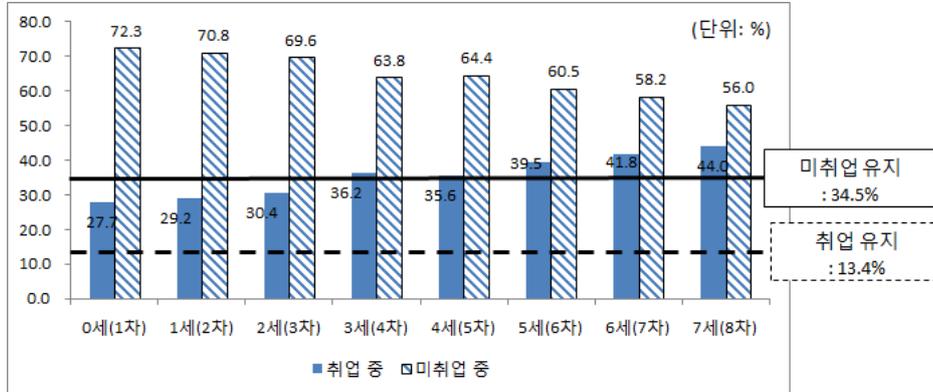
2. 부모 특성

매년 조사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률(학업 중 포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1세 이하이던 시기에는 20%대의 비율로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었으나 6세가 되던 해에는 40%를 넘겼고 초등학교 1학년인 8차년도 조사에서는 44%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률에 있어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준다.

<표 III-2-1> 어머니의 취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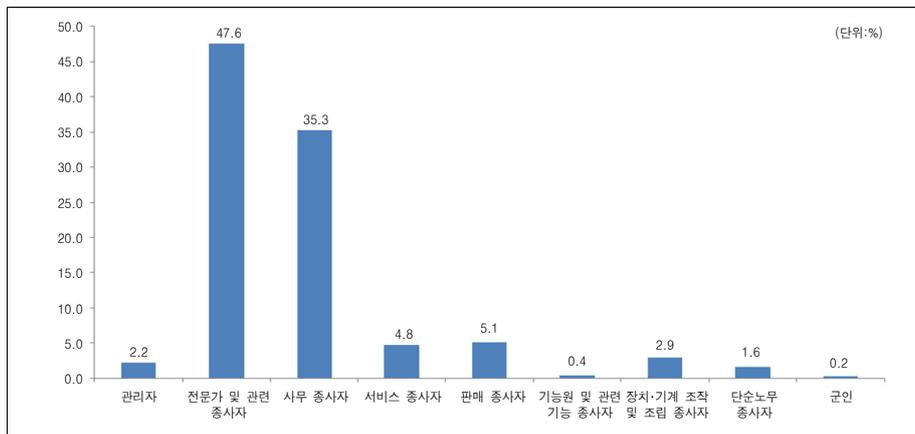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계(수)
	취업	미취업	
0세(1차)	27.7	72.3	100.0(977)
1세(2차)	29.2	70.8	100.0(1,357)
2세(3차)	30.4	69.6	100.0(923)
3세(4차)	36.2	63.8	100.0(1,361)
4세(5차)	35.6	64.4	100.0(1,354)
5세(6차)	39.5	60.5	100.0(1,352)
6세(7차)	41.8	58.2	100.0(1,346)
7세(8차)	44.0	56.0	100.0(1,347)

주: 취업과 미취업에는 학업 중인 경우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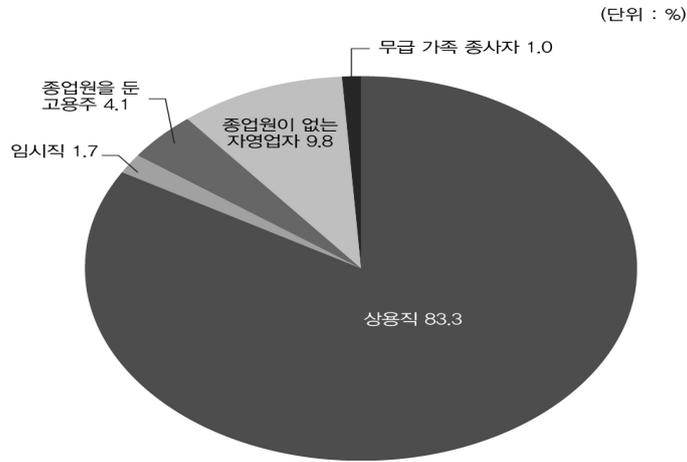


[그림 III-2-1] 어머니의 취업 여부

연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47.6%가 전문직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35.3%는 사무종사자였다. 즉 약 83%가량의 취업 유지하는 어머니는 전문적이거나 사무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직업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또한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 종사자의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83.3%를 차지하여 전문직 및 사무직 직종 종사자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림 III-2-2] 취업 유지 집단 어머니의 직업군



[그림 III-2-3] 취업 유지 집단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어머니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응답한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만족도 점수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취업률 40%를 넘었던 자녀 6세 7차년도 조사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0.18점 상승되었으나 7세에는 다시 동일한 양만큼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매우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9.2%를 보여 어느 해보다 불만족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학교 입학 등 환경적 변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표 III-2-2> 일자리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0.4	2.1	31.1	61.2	5.2	100.0(387)	3.69	0.62
1세(2차)	0.0	3.7	32.4	59.7	4.2	100.0(419)	3.65	0.62
2세(3차)	0.0	1.8	33.5	59.2	5.4	100.0(431)	3.68	0.60
3세(4차)	0.1	2.9	35.3	57.6	4.2	100.0(531)	3.63	0.61
6세(7차)	1.0	2.2	25.7	57.2	13.9	100.0(588)	3.81	0.73
7세(8차)	3.1	6.1	26.0	54.1	10.8	100.0(588)	3.63	0.87

부모의 우울 정도를 연도별 비교로 보면 평균 점수나 정상 집단 소속 비율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8차년도가 7차년도보다는 어머니의 우울 수치에서 0.1점 정도 떨어져서 자녀 영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우울도가 1.9 수준에 머물던 것이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 어머니의 우울도가 1.8점대로 조금 좋

아지고 있는 것은 미미하나마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겠다.

〈표 III-2-3〉 부모의 우울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출산전(1차)	1.88	0.64	74.7	20.8	4.5	1000(1,365)						
1개월(1차)	1.52	0.61	88.3	9.4	2.2	1000(1,095)						
0세(1차)	1.93	0.71	71.2	22.7	6.1	1000(1,260)						
1세(2차)	1.89	0.69	73.5	21.4	5.1	1000(1,361)						
2세(3차)	1.95	0.69	71.7	22.2	6.1	1000(1,350)						
3세(4차)	1.97	0.75	69.1	22.9	8.0	1000(1,332)	1.88	0.70	77.7	16.3	6.0	1000(1,274)
4세(5차)	1.93	0.74	71.3	22.0	6.7	1000(1,348)	1.89	0.64	77.4	18.5	4.1	1000(1,303)
5세(6차)	1.93	0.74	72.9	20.4	6.6	1000(1,338)	1.83	0.64	80.4	16.3	3.3	1000(1,292)
6세(7차)	1.93	0.75	71.7	20.8	7.4	1000(1,324)	1.90	0.75	77.2	16.2	6.6	1000(1,266)
7세(8차)	1.83	0.73	76.2	17.8	6.0	1000(1,336)	1.92	0.71	74.7	20.5	4.8	1000(1,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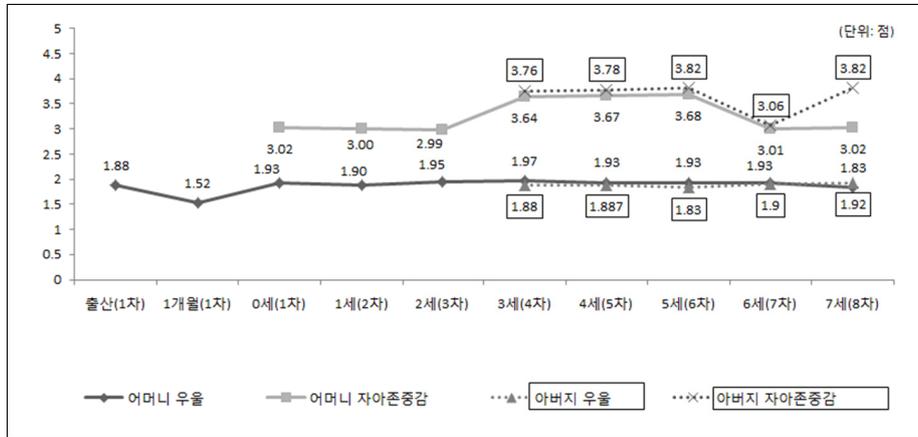
주: 1) 어머니의 우울은 1차년도 조사에서 분만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병원 조사), 출산 1개월 후(전화 조사), 1차 조사 시점으로 총 3회 조사되었음.
 2) 우울 점수의 분류는 총점이 6~13점일 경우 정상수준, 14~18점일 경우 경도/중등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분류됨.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존감은 연도별 비교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6세인 7차년도 조사에서 이전 3개 연도보다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태는 8차년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편이고 이는 연도별 비교에서도 변화가 없는 현상이다.

〈표 III-2-4〉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02	0.41	(1,264)			
1세(2차)	3.01	0.41	(1,361)			
2세(3차)	2.99	0.41	(1,353)			
3세(4차)	3.64	0.59	(1,333)	3.76	0.53	(1,273)
4세(5차)	3.67	0.56	(1,341)	3.78	0.54	(1,298)
5세(6차)	3.68	0.58	(1,332)	3.82	0.52	(1,283)
6세(7차)	3.01	0.28	(1,324)	3.06	0.27	(1,266)
7세(8차)	3.02	0.27	(1,336)	3.82	0.55	(1,275)



[그림 III-2-4] 부모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해마다 조사되어 온 부모의 결혼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만족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가 학교 취학하기 직전 연도인 6세에서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녀 초등학교 입학이후인 7세에서 만족도가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보인다. 8차년도 결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는 비교적 불규칙적이다.

<표 III-2-5> 부모의 결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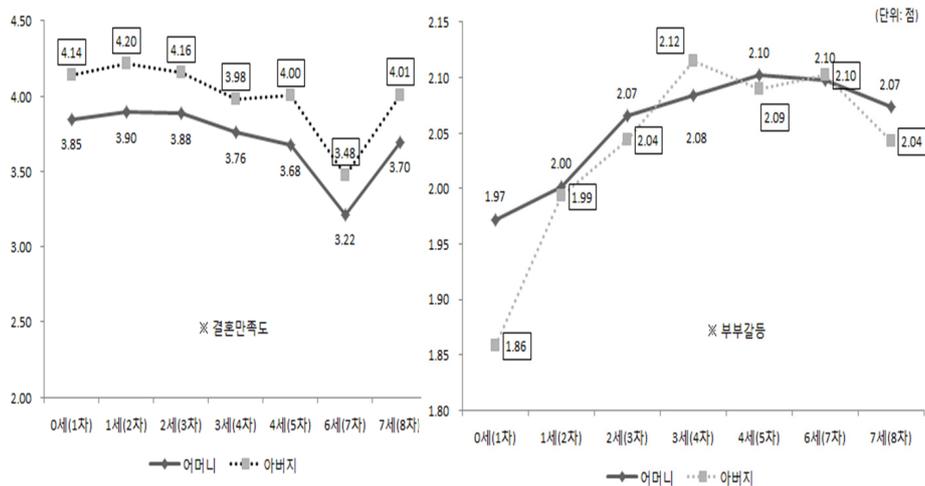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85	0.74	(1,265)	4.14	0.66	(1,267)
1세(2차)	3.90	0.79	(1,361)	4.21	0.64	(1,365)
2세(3차)	3.88	0.76	(1,349)	4.16	0.64	(1,352)
3세(4차)	3.76	0.72	(1,332)	3.98	0.60	(1,333)
4세(5차)	3.68	0.78	(1,346)	4.00	0.67	(1,306)
6세(7차)	3.22	0.66	(1,324)	3.48	0.54	(1,264)
7세(8차)	3.70	0.83	(1,330)	4.01	0.74	(1,273)

부모의 부부 갈등 인식 정도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자녀가 2세 미만 영아기인 경우에 가장 갈등 정도가 낮다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점수가 높아진다.

〈표 III-2-6〉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1.97	0.76	(1,266)	1.86	0.68	(1,134)
1세(2차)	2.00	0.76	(1,357)	1.99	0.70	(1,310)
2세(3차)	2.07	0.77	(1,348)	2.04	0.74	(1,290)
3세(4차)	2.08	0.76	(1,331)	2.12	0.73	(1,274)
4세(5차)	2.10	0.78	(1,346)	2.09	0.72	(1,304)
6세(7차)	2.10	0.84	(1,323)	2.10	0.77	(1,264)
7세(8차)	2.07	0.84	(1,328)	2.04	0.74	(1,273)



[그림 III-2-5]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 점수의 연도별 비교에서는 큰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생아기부터의 측정되었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학교 취학 년도에는 온정적 양육 점수와 통제적 양육 점수가 이전 연도보다 0.1점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회적(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			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0세(1차)	4.03	0.49	(1,267)									
1세(2차)	3.90	0.48	(1,366)									
2세(3차)	3.79	0.50	(1,353)									
3세(4차)	3.79	0.49	(1,334)	3.48	0.45	(1,334)	3.63	0.58	(1,275)	3.46	0.52	(1,275)
4세(5차)	3.66	0.53	(1,350)	3.37	0.51	(1,348)	3.55	0.59	(1,308)	3.25	0.59	(1,304)
5세(6차)	3.69	0.53	(1,336)	3.51	0.49	(1,337)	3.62	0.61	(1,292)	3.42	0.60	(1,293)
6세(7차)	3.65	0.54	(1,324)	3.47	0.48	(1,324)	3.54	0.57	(1,266)	3.30	0.55	(1,266)
7세(8차)	3.71	0.55	(1,336)	3.59	0.50	(1,336)	3.62	0.61	(1,275)	3.41	0.57	(1,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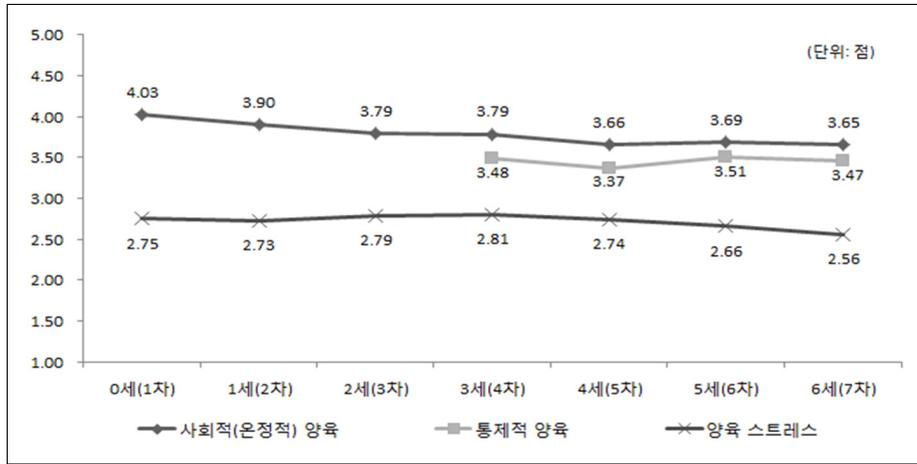
주: 4차년도 아버지 조사와 5차년도 어머니 조사부터 온정적 양육행동을 질문함.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자녀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어 8차년도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양육 스트레스 점수를 보여 양육 스트레스에 자녀의 상황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II-2-8〉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2.75	0.62	(1,267)			
1세(2차)	2.73	0.65	(1,366)			
2세(3차)	2.79	0.63	(1,353)			
3세(4차)	2.81	0.64	(1,335)	2.46	0.59	(1,275)
4세(5차)	2.74	0.65	(1,350)	2.39	0.60	(1,307)
5세(6차)	2.66	0.62	(1,338)	2.43	0.58	(1,293)
6세(7차)	2.56	0.63	(1,324)	2.38	0.60	(1,266)
7세(8차)	2.41	0.68	(1,336)	2.20	0.63	(1,275)



[그림 III-2-6]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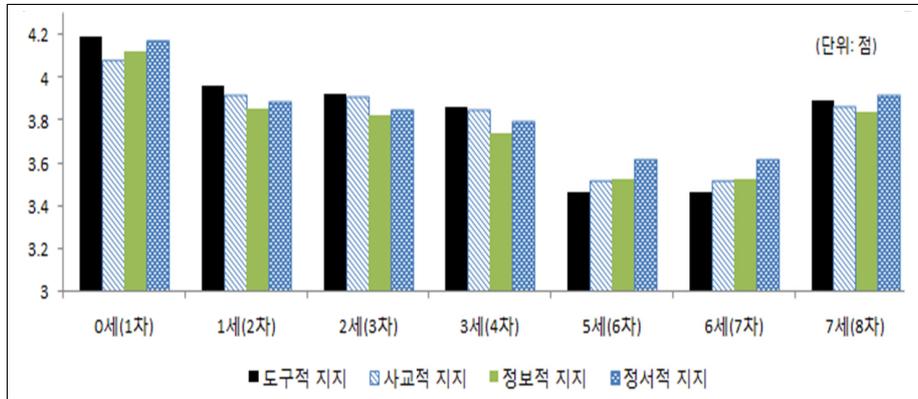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3세 이하 시기였을 때와 4세 이상 시기 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4세 이후가 되면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인식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1학년이 된 8차년도 조사에서는 다시 지지에 대한 인식 점수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특이한 결과로 보이며, 특히 정서적 지지는 자녀 0세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2-9> 사회적 지지

단위: 점(명)

구분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4.19	0.64	4.08	0.67	4.12	0.68	4.17	0.69	(1,367)
1세(2차)	3.96	0.70	3.92	0.70	3.85	0.75	3.89	0.77	(1,360)
2세(3차)	3.92	0.68	3.91	0.67	3.82	0.72	3.85	0.75	(1,353)
3세(4차)	3.86	0.70	3.85	0.67	3.74	0.72	3.80	0.74	(1,334)
5세(6차)	3.46	0.62	3.52	0.53	3.52	0.59	3.62	0.55	(1,364)
6세(7차)	3.46	0.62	3.52	0.53	3.52	0.59	3.62	0.55	(1,364)
7세(8차)	3.89	0.68	3.87	0.67	3.84	0.67	3.92	0.69	(1,365)

주: 6, 7차 조사에서는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으로 부터의 지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본 표에는 전체 집단의 평균을 제시함.



[그림 III-2-7] 사회적지지

3. 가구 특성

월평균 가구 소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3년의 경우를 보면 월 20만원 정도씩의 소득액 증가가 연간 비교에서 나타나고 표준편차 또한 이전 연도들에 비해 크지 않아서 수입 수준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가구 평균 지출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2세대와 3세대 사이에서 큰 폭으로 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후에는 증가폭이 8~9만원 선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III-3-1>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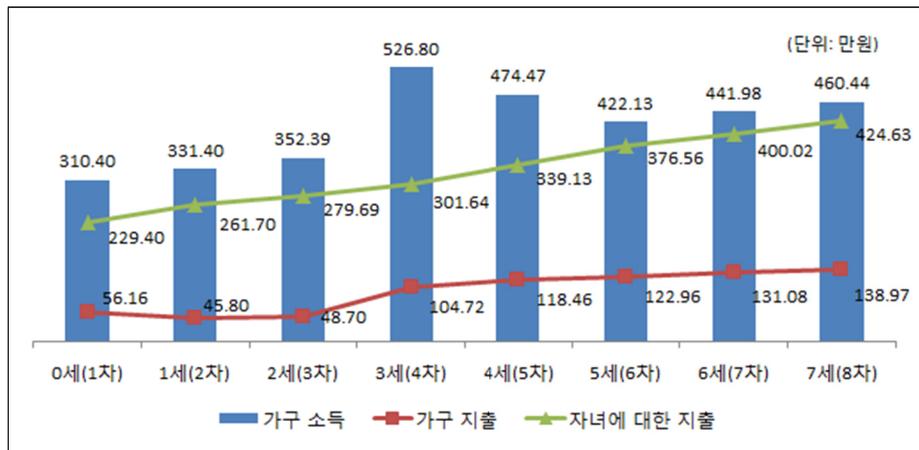
구분	0세대(1차)	1세대(2차)	2세대(3차)	3세대(4차)	4세대(5차)	5세대(6차)	6세대(7차)	7세대(8차)
월 평균 가구 소득								
평균	310.40	331.40	352.39	526.80	474.47	422.13	441.98	460.44
표준편차	138.33	222.54	257.81	857.67	470.66	187.42	184.94	191.44
중위값	300.00	300.00	300.00	380.00	400.00	400.00	400.00	400.00
최솟값	0.00	60.00	0.00	0.00	0.00	0.00	0.00	28.00
최댓값	950.50	3500.00	6000.00	21400.00	7600.00	2000.00	2000.00	2000.00
(수)	(1,363)	(1,359)	(1,367)	(1,367)	(1,367)	(1,361)	(1,365)	(1,354)

단위: 만원

(표 III-3-1 계속)

구분	0세(1차)	1세(2차)	2세(3차)	3세(4차)	4세(5차)	5세(6차)	6세(7차)	7세(8차)
가구 총 지출								
평균	229.40	261.70	279.69	301.64	339.13	376.56	400.02	424.63
표준편차	108.69	213.20	217.06	128.78	149.80	163.68	197.79	226.34
중위값	210.00	230.00	250.00	280.00	300.00	350.00	370.00	400.00
최솟값	0.00	44.00	40.00	50.00	20.00	60.00	60.00	10.00
최댓값	1200.00	4000.00	3600.00	1800.00	2100.00	2000.00	3600.00	4000.00
(수)	(1,293)	(1,366)	(1,365)	(1,366)	(1,366)	(1,367)	(1,367)	(1,366)
자녀에 대한 총 지출								
평균	56.16	45.80	48.70	104.72	118.46	122.96	131.08	138.97
표준편차	65.10	55.41	61.36	60.29	62.56	68.40	79.02	77.09
중위값	35.00	34.00	35.00	90.00	110.00	110.00	115.00	120.00
최솟값	0.00	4.00	3.00	7.00	13.00	2.00	15.00	0.00
최댓값	720.00	1220.00	2010.00	600.00	606.00	1100.00	1440.00	760.00
(수)	(1,284)	(1,337)	(1,365)	(1,355)	(1,362)	(1,358)	(1,367)	(1,365)

주: 1) 4차는 근로(사업)소득, 5차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을 질문한 값이며 세전 소득을 제시한 5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수령 금액을 의미함.
 2) 자녀에 대한 총 지출은 1-3차년도 패널 아동, 4-8차년도 전체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 소비성 지출의 합을 의미함.



[그림 III-3-1] 월 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

4. 지역사회 특성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한 정도를

표하라는 질문을 자녀가 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를 보면 연도별 비교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고 문화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8차년도에 이용 편리성 인식이 이전 년도보다 0.44점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1〉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점(명)

구분	여가 시설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23	1.10	(1,268)	2.58	1.10	(1,261)
1세(2차)	3.16	1.07	(1,361)	2.49	1.05	(1,363)
2세(3차)	3.21	1.04	(1,354)	2.51	1.02	(1,354)
3세(4차)	3.10	1.03	(1,330)	2.48	1.00	(1,331)
4세(5차)	3.13	1.04	(1,350)	2.42	0.87	(1,349)
5세(6차)	3.13	1.04	(1,337)	2.44	0.86	(1,337)
6세(7차)	3.23	1.02	(1,324)	2.51	0.84	(1,324)
7세(8차)	3.20	0.87	(1,336)	2.95	0.92	(1,336)

- 주: 1) 5차 조사부터는 각 항목을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따라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의 이용 편리성을, '문화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의 이용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 2) 8차 조사에서는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실내 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의 이용 편리성 평균값을, '문화시설'은 영화관, 관람 및 체육시설, 공연시설, 도서관의 이용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IV. 9차년도(2016) 패널 연구 사업 보고

한국아동패널 2016 연구에서는 9차년도 패널 조사의 진행, 자료 보급 및 확산, 연구 보고서 발간이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아동패널 조사의 문항 개발 원리로 작용하는 조사 모형, 조사 절차 등 아동패널 조사 이해를 위한 사항을 먼저 간략히 소개하고 2016년 패널 연구에 대해 사업 보고 내용을 신고자 한다.

1.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개요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모형과 내용을 조직화하여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가. 한국아동패널 조사 모형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아의 성장·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모형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이론과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다. 주요 조사 대상인 아동은 물론 아동에게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그리고 유아기 이후부터는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및 학교의 담임교사를 조사하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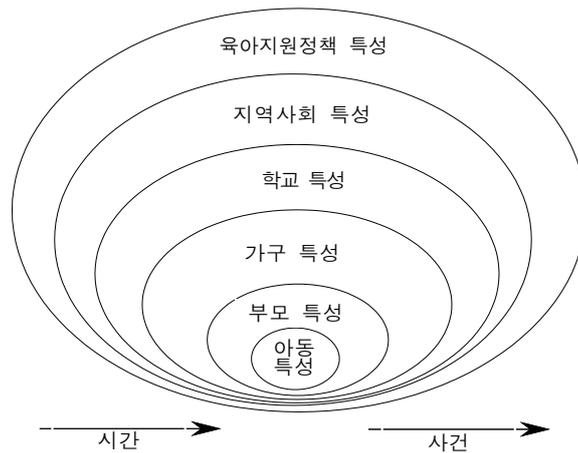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대상은 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아동 총 2,150명과 그들의 부모, 담임교사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 다단계 추출법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먼저 예비조사에서 확정된 표본 추출틀을 활용하여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추출하였다(신나리·안재진·이정림·송신영·김영원, 2008). 최종적으로 1~3차년도 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총 2,150가구의 패널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초기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모형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2~3년 주기로 진행하고,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전인 2020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

되었었다. 하지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패널 조사의 연계성, 대상자 관리의 어려움, 아동·청소년기 발달 특성의 고유성 등을 고려하여 매해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생애 초기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2027년까지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 2016년도에는 8차년도(2015년)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과 9차 패널 조사, 제7회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나. 한국아동패널 조사 내용

한국아동패널은 종단 조사의 연계성이 지속되도록 조사 모형을 중심으로 기존의 변인과 항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되, 한국아동패널의 주 대상자인 성장기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관련 변인을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의 구성은 아동패널 모형개발 연구(장명림 외, 2006)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여 조사영역을 조직하였다. 조사 내용은 [그림 IV-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부모 및 가구, 학교 특성을 각각 조사하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가구가 속한 지역사회와 거시적 체계인 육아지원정책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수집 변인의 조사 차수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그림 IV-1-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1) 아동 특성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의 성별 및 월령, 출생순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일어나는 광범위한 변화를 신체 및 건강 특성, 인지 및 언어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과 같은 주요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아동의 식생활, 미디어, 수면 등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특성은 물론 돌봄 및 양육에 따른 특성, 학교 및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생활, 사교육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 영역에 포함하여 초기 발달의 어떠한 특성이 이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 특성의 대략적 분류는 <표 IV-1-1>와 같다.

아동의 연령이 영아기 및 유아기 초반에 해당하는 1~5차년도 조사에서는 주로 부모에 의한 평가와 아동의 발달 검사 내용이 아동 특성의 주를 이루었다. 아동의 자기보고가 가능해지는 유아기 후반부터는 아동대상 질문지를 추가하여 아동의 조사 참여 폭을 늘렸으며, 아동의 성장에 따라 자기 보고식 아동 응답 문항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표 IV-1-1> 아동 특성 주요 변인

대분류	중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출생순위
일상생활 특성	수유 및 이유식, 식생활, 미디어, 배변 및 청결, 수면
신체 및 건강 특성	실내/외 활동, 신체 특성, 운동 능력, 장애, 예방접종, 질환 및 치료, 유해 환경 노출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지능, 학습준비도, 학업 능력, 전반적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	성격 발달, 애착, 자아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문제 행동
학교 및 육아지원기관 생활	진학 및 출석, 학교생활 인식, 학업 수행, 학교 적응
돌봄 및 양육	이용 특성, 부모 감독
사교육	이용 특성, 이용/미이용 이유

2) 부모 특성

아동의 성장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는 아동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등 개인적 특성, 아동과의 동거 여부와 같은 가족 특성을 인구학적 배경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표 IV-1-2>와 같이 신체 및 건강 특성, 하루 일과, 우울

등 개인 특성과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등의 부부 특성, 취·학업에 관련된 직업 특성, 그리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양육 특성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부모 특성은 부부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부 간 편차가 적은 항목은 어머니에게 조사하고 있다. 단 어머니용 질문지의 경우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어머니가 응답할 수 없다면, 아버지나 다른 가구원 등이 대리 응답할 수 있다. 부모 특성은 부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조사 내용이 동일한 항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표 IV-1-2〉 부모 특성 주요 변인

대분류	중분류
인구학적 특성	개인 특성, 가족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장애 및 질환, 음주, 흡연
개인 및 부부 특성	일상생활, 심리적 특성, 부부 특성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미취업/미학업 특성, 학업 특성, 취업 특성
양육 특성	임신/출산, 부모됨(후속출산), 양육관, 양육 실제, 지원 특성

3) 가구 특성

가족 구조 및 주거 환경이 다양해지고,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차가 커지면서 가구 특성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가구 구성 인원 및 형태, 가족 질환력 등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생활하는 주거 및 실내 환경, 가계 경제 소를 조사 내용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구 내 물리적·인적 환경 자극과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가족생활사건 등의 가정환경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가정환경의 질은 응답자의 자기보고와 더불어 가구에 방문한 조사원의 관찰을 통한 조사가 병행된다.

〈표 IV-1-3〉 가구 특성 주요 변인

대분류	중분류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구성원 특성, 위탁
물리적 특성	주거 환경, 실내 환경
가계 경제 요소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가정환경 특성	가정환경의 질, 가족생활

4) 학교 및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 밀접한 환경 중 하나인 교육 서비스는 영유아기(1~7차)에는 육아지원 서비스 항목으로, 학령기 이후부터는 학교 특성으로 조사되고 있다. 영유아기에는 주로 육아지원 서비스의 이용 유형 및 이유, 대신 서비스인 대리양육자와 비급여 양육 도우미,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 및 특별활동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은 영아기인 1~3차년도 조사에서 아동 보호자(주로 어머니)의 응답으로 수집된 반면, 4차년도 조사부터는 web을 통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의 담당 교사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아동이 학령기로 진입하는 8차년도 조사부터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아동이 진학한 학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조사는 물리적 환경 및 운영과 같은 학교 특성, 교사의 업무 및 학급 운영에 관한 교사 특성, 그리고 유-초, 가정 연계와 관련한 연계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한다. 학교 특성은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과 마찬가지로 아동 보호자(주로 어머니)의 응답과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한 자기보고식 web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표 IV-1-4〉 학교 및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주요 변인

시기	대분류	중분류
영유아기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이용 종류, 이용/미이용 이유, 이용 특성
	돌봄 및 양육 관련 서비스	대리양육자 이용 특성, 대리양육자 인구학적 특성, 비급여 양육 도우미 특성
	보육/교육 기관 관련	기관 특성, 이용 특성, 가정 협력, 물리적 환경, 학급 특성, 교사 특성, 보육/교육 기관 내 특별활동, 보육/교육 기관 외 특별활동
학령기	학교 특성	학교 정보, 물리적 특성, 운영 특성
	교사 특성	교사 특성, 업무 특성, 학급 운영
	연계 관련	유아-초등 연계, 가정 협력, 부모의 학교 참여

5) 지역사회 특성

아동의 성장과 관련된 가족의 적극적 참여와 요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다양화되며, 결과적으로 상이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은 해당 아동이 생활하는 지역권과 지역의 교통 및 산업 특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며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로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육아지원 및 교육 기관의 이용만족도와 편리성, 사회의 치안 및 안전사고 등의 안전성, 양육 적절성 등을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IV-1-5〉 지역사회 특성 주요 변인

대분류	중분류
일반적 특성	권역, 이사, 교통과 산업 가구 특성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사회안전

6) 육아 정책 특성

국가수준의 패널 구축은 아동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장기적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직장에서의 지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이용 여부와 만족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지원에 대한 의견 및 공공 부조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표 IV-1-6〉 육아 정책 특성 주요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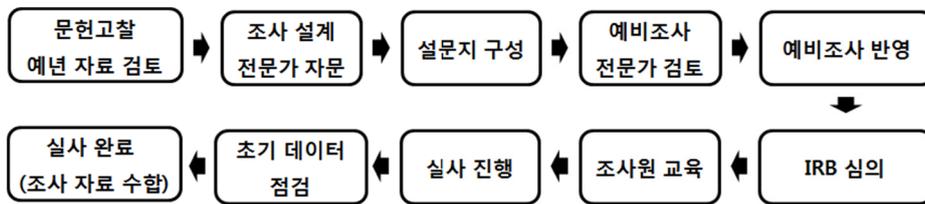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국가 지원	가족친화 정책, 공공부조, 지원에 대한 의견
보육/교육 지원	지원 수혜, 지원에 대한 의견
직장에서의 지원	가족친화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
기타 지원	정책 지원, 공공 부조

다. 패널 연구의 절차

1) 질문지 개발 및 실시 진행

한국아동패널의 자료 수집 진행 절차는 [그림 IV-1-2]과 같다. 먼저 질문지 작성의 첫 단계로 전년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외 연구 경향을 탐색하여 패널 연령에 적합한 연구 변인 및 도구를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및 서면 검토를 통해 조사 변인을 구성하고, 선별된 조사 도구의 적용 방법

을 조율한다. 또한 조사의 적절성 및 문항의 타당성, 실제 조사에서 고려할 점을 확인하고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검토 및 예비조사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질문지의 문항 내용 및 순서를 조정한 후, 조사 안내문 및 조사 참여 동의서 등과 함께 IRB 위원회의 심사 후 최종 확정된다. 완성된 질문지는 CAPI 개발, 조사원 교육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실제 조사에 사용된다. 실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초기 데이터 점검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수합된다.



[그림 IV-1-2] 한국아동패널 자료 수집 절차

2) 조사 대상 및 실사 관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패널 대상자의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안부 문자 발송, 홈페이지상 육아 관련 정보 제공, 패널 데이터가 활용된 연구관련 기사의 문자 알림 등 일상적 관리와 조사 결과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전문적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패널 유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는 조사 차수가 누적될수록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략은 추가/보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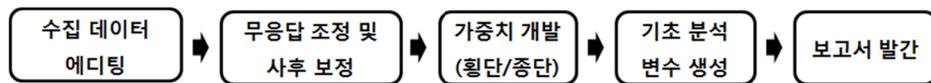
실사 관리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원 간 실시 방법의 편차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실사 초반에는 일부 데이터를 검토해 조사원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간 검토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슈퍼바이저를 통한 실사 모니터링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진행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조사원 간 노하우를 공유하며, 이후 조사를 위한 정보가 양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라. 연구 및 자료 개발

한국아동패널의 실사는 통상적으로 7월~11월에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당

해 연도 후반부터 이후 년도 초반까지 데이터 에디팅 작업을 통해 이상치 및 논리적 오류를 검토·조정하고 연구에 활용된다. 자료의 이상치 및 오류는 종단 축적 자료와의 비교, 담당 조사원의 확인, 2차 자료와의 대조 등을 통해 조정되며, 필요시 해당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 조사를 통해 보완한다. 확인이 어려운 자료의 경우 연구진 논의를 거쳐 무응답으로 조정되며, 추후 조사를 통해 수정된 값으로 재공개 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통해 1차 검토가 완료된 자료는 무응답 조정 및 사후 보정 단계를 거쳐서 2차 검토가 진행되며, 횡단 및 종단 가중치 개발에 사용된다. 이후에 한국아동패널 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초 분석 및 심층 연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3차 검토가 이루어진다. 3차 검토 작업에서는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변수의 생성, 비공개 변수 선별 등이 병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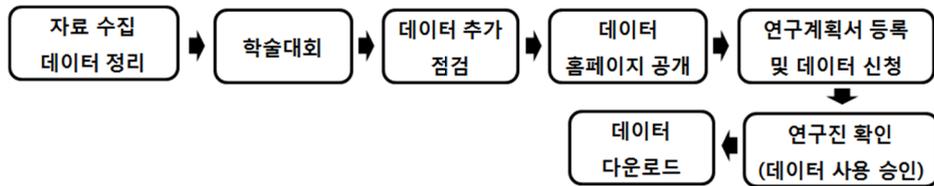


[그림 IV-1-3] 한국아동패널 자료 개발 절차

마. 자료 보급 및 확산

한국아동패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일반 연구자가 하기 어려운 국가 수준의 대규모 종단 조사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수집된 자료를 일부 연구자들에게 먼저 공개함으로써 연구진 검토를 거친 데이터를 최종 점검하고, 연구논문 공모를 통해 질 높은 연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적인 점검을 거쳐 수정된 자료는 대중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개된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연구계획서 등록 및 연구진 확인 등의 데이터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시기적으로 조사가 수행된 2년 후에 대중에게 공개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종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목록과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발간된 연구물의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1-4] 한국아동패널 자료 확산

2. 9차년도 조사 진행

가. 질문지 작성

9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선행된 작업은 질문지 작성이다. 2016년 조사의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일부 미진학자 및 조기 진학자 제외). 이들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도록 질문지를 조정하기 위하여 예년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국내·외 연구를 참고하여 변인 및 세분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인 및 질문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확정하였으며, 변인별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한국아동패널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IRB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⁴⁾. 확정된 질문지 중 CAPI(보호자용, 아동용), CAWI(학교용)는 조사업체인 미디어리서치 전산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연구진이 이를 검토하였다.

나. 조사원 교육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특성상 아동, 부모, 교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수행검사 및 웹 조사 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다. 각 조사방법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엄격한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조사원 교육에서는 첫째, 각 질문지별 문항 구성과 자료 수집 시의 특이점, CAPI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아동 신체 측정용 도구(줄자, 체중계)와 수행검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4) 2016년 조사 실행의 IRB 승인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함.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각 패널 가구의 조사를 독려하고 컨택할 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셋째, 각 조사별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였다. 넷째, 조사 관련 윤리교육과 조사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교육은 강의식 설명과 조사원간 모의 실습 및 질의응답을 고루 섞어서 지역별로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의 지역별 교육 일정은 <표 IV-2-1>, <표 IV-2-2>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IV-2-1〉 9차년도 조사원 교육 일정

일시	장소	참석 대상자
6. 27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조사원 20명
6. 28	광주	대전, 광주, 충청, 강원, 전라 지역 조사원 9명
6. 29	대구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조사원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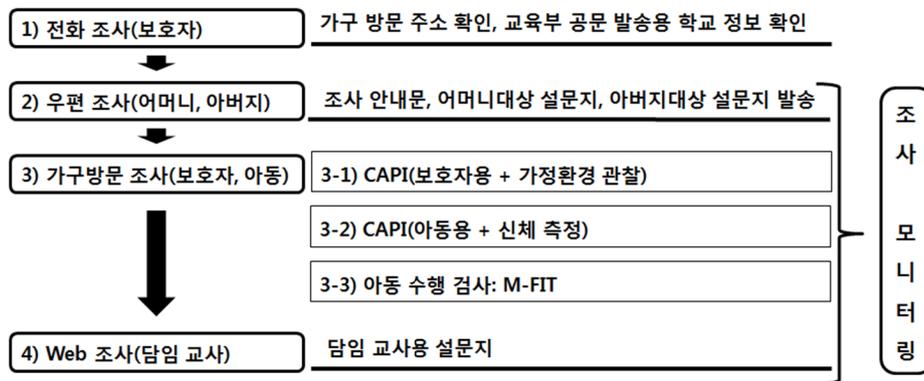
〈표 IV-2-2〉 9차년도 조사원 교육 내용

시간	내용
10:00~10:30	· 연구진 소개 및 인사 · 9차년도 조사 소개(조사 수행 순서) · 우편용 질문지 수거 시 중점 체크 사항 교육
10:30~11:10	· CAPI(보호자) 질문지 서면 교육
11:10~11:20	· 휴식
11:20~12:00	· HOME, 건강관련 질문지 서면 교육
12:00~13:20	· 점심식사 · 노트북 사용 교육
13:20~14:00	· CAPI(보호자) 사용 실습 · HOME 관찰질문 조사 실습
14:00~14:30	· CAPI(아동용) 질문지 서면 교육 · 아동 신체 계측 방법 · 수행검사(M-FIT) 서면 교육
14:30~14:50	· 휴식
14:50~15:20	· CAPI(아동용), 수행검사 조사 실습
15:20~15:40	· 조사원 윤리교육
15:40~16:00	· 교육 전반 종합 및 마무리 질의 응답

다. 조사의 구성 및 일정

2016년에 진행되는 9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크게 전화 조사, 우편식 지필 조사, 가구 방문 조사(CAPI 면접 조사, 지필 조사, 수행 검사), Web 조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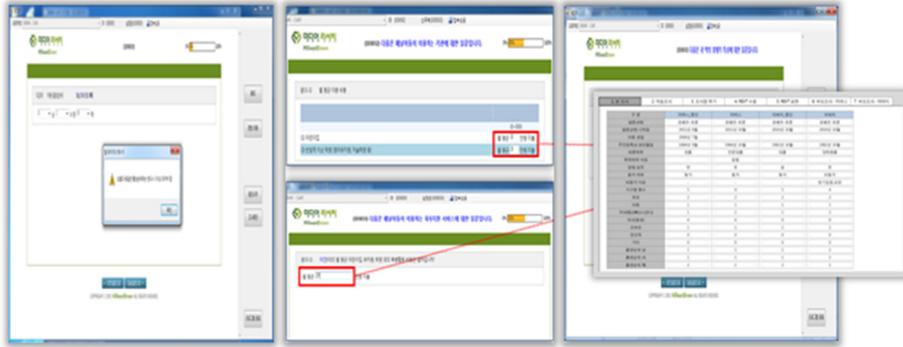
구성되었다. 9차년도 조사 구성에 따른 진행은 [그림 IV-2-1]과 같은 흐름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화 조사가 완료된 가구에 조사 안내문과 부모 대상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가구 방문 시 수거하였다. 가구 방문 조사에서는 CAPI 보호자용과 아동용을 차례로 진행하였고, 아동의 컨디션, 조사 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보호자 면접과 아동의 면접 및 수행 검사의 순서는 변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Web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IV-2-1]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조사 흐름도

9차년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데이터 질 관리를 위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실사가 전체 사례수의 10%에 도달한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중간 점검한 후, 조사원별 피드백을 각 지역별 슈퍼바이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9차 조사에서는 자료 수집의 효율성을 고려해 부모 대상 질문지와 건강관련 질문지는 매주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CAPI와 온라인 업로드를 통하여 매주 업로드 된 자료는 중간 점검에서 확인된 오류, 소득이나 지출 등 오류 발생 확률이 높고 추후 확인이 어려운 항목 등을 중심으로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검독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IV-2-2]와 같은 SEP(Supervisor Editing Program)로 슈퍼바이저가 주요 문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웹 에디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확인된 오류는 전화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림 IV-2-2] CAPI 진행 데이터 관리

질문지별 9차년도 조사 일정은 <표 IV-2-3>과 같다. 가구 방문 조사의 일정은 가구별로 이전 조사의 참여 시기와 각 가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표 IV-2-3> 9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일정

질문지	조사 방법	조사 시작일	조사 완료일(예정)
어머니, 아버지 대상	우편 전달 및 방문 수거 (지필식 기입)	6월 17일	11월 31일
CAPI(보호자용, 아동용) 아동 수행검사(M-FIT)	가정 방문 (면접 및 관찰)	6월 30일	11월 31일
건강관련 질문지	가정 방문 전달 및 수거 (지필식 기입)		11월 31일
교사대상 질문지	웹 기반 설문조사	7월 15일	12월 15일

라. 조사 종류별 내용 및 방법

1) 전화 조사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앞서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 조사에서는 개괄적으로 조사를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질문하며 가구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의 담임교사 조사 협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육부 공문 작성에 필요한 학교 정보(학교명, 반, 소재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전화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가구 방문 조사 시 CAPI(보호자용)에 입력시켜 응답자가 응답내용을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2) 우편 조사(부모 대상 질문지)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 2~4주 전 어머니 대상 질문지와 아버지 대상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가구 방문 조사 시 회수하였다. 가구 방문일에 미완된 질문지는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이후에 수거하였으며, 동일 질문지를 웹으로 구성하여 희망자에 한해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2-4> 9차년도 부모 대상 질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 집행기능
	사회 및 정서 발달	정서 발달	◦ 주관적 행복감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및 흡연	◦ 음주 여부 및 양, 과음 횟수, 음주 시 흥조 여부 ◦ 흡연 여부
	개인 및 부부 특성	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부부 특성	◦ 부부 갈등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 취/학업 상태
		취업 특성	◦ 직장 변동 여부, 직장명, 업종,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 직위,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양육 특성	양육 실제	◦ 양육 효능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 부모 공동양육
양육관		◦ 교육열	
가구	가정환경 특성	가족생활	◦ 가족 상호작용

주: (괄호) 항목은 아버지 대상 질문지, 밑줄 항목은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만 포함됨.

부모 대상 질문지는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지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가구 방문 전 작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 변인이 방대한 패널 조사의 특성과 응답자의 응답 피로도를 고려하여 사전 설문으로 실행하였으며, 응답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은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대상 질문지와 아버지 대상 질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IV-2-4>와 같다. 부모 대상 질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지만, 아동의 집행기능, 가족의 상호작용과 같은 일부 항목은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만 포함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적 특성 및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에 대한 내용은

조사 대상이 취업모로 한정되므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가구 방문 시 CAPI에서 조사하였다. 부모 설문에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질문과 부모의 신체 및 건강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양육 특성이 주요 내용이다.

3) 가구 방문 조사(보호자 대상 조사)

가) CAPI(보호자용) 면접 조사

조사원과 아동의 주양육자가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의 보호자용 질문지를 면대 면 조사로 실시하였다⁵⁾. 주로 지필식으로 조사하기 까다로운 문항, 조건에 따라 응답 대상자가 달라지는 문항,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문항, 중단 확인이 필요한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문항별 특성을 고려해 화면을 구성한 CAPI는 중단 자료를 활용하거나 로직 구현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림 IV-2-3]과 같이 관련 항목을 한 화면에 구현함으로써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예년보다 많은 중단 자료 활용 및 로직 구현을 통해 CAPI 활용의 폭을 넓혔다. 중단 자료 활용 및 로직 구현은 응답값 삽입, 응답 내용 확인, 응답 내용 구현, 세부 문항 내용 조율, 응답값 비교 등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중단 자료의 CAPI 구현 예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3] CAPI(보호자용) 화면 구성의 예

5) 가구 방문 조사는 패널 아동의 부모(주로 어머니)가 응답하며, 부모가 모두 부재한 경우 조부모 및 친인척이 조사에 참여함.

첫째, 종단 자료 삽입은 아동의 성별과 생년월일, 부모의 생년월일, 형제자매의 생년월일 및 성별 등 불변하는 자료를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응답자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둘째, 종단 자료 확인은 응답 내용의 변동이 적은 문항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이름, 학교 진학 여부, 부모의 결혼상태 및 결혼일, 장애 여부 등에 기존 응답값을 삽입하여 응답자가 확인 후 응답값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셋째, 종단 자료의 구현은 응답자가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기존 응답값을 보여줌으로써 9차년도 응답을 돕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최근 조사 참여 거주지, 최근 응답한 직업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넷째, 세부 문항 내용 조율은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하위 문항이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조사 시점의 취업 상태에 따라 취업 변동 여부를 묻거나, 특별활동 이용 기관에 따라 비용, 만족도 등의 세부항목을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응답값 비교는 소득 및 지출 등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에 일정 범위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취침 및 기상 시각을 활용해 수면 시간을 계산해 다음 문항에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응답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CAPI(보호자용) 질문지에 포함된 주요 변인 구성은 <표 IV-2-5>와 같다. 9차년도 조사에서는 먼저 아동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직업 특성, 일-가정 양립, 사회적 지원 관련 문항을 질문하였다. 아동 관련 문항으로는 학교생활과 일과 활동 관련 문항, 돌봄 및 양육 이용 특성과 사교육 이용 특성이 포함되었다. 가구 관련 문항으로는 가계 경제 요소와 가구구성 및 가정환경의 질이 있으며, 그 외 지역사회와 정책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IV-2-5> 9차년도 CAPI(보호자용) 질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이름, 아동 이름 변동 사유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이용 시간, 이용 정도 ○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일상생활 특성	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 시간
		실내/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활동 시간 ○ 독서량 ○ 활동별 참여 빈도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빠진 유치 개수,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충치 개수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및 시기 	

(표 IV-2-5 계속)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	신체 및 건강 특성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판정 여부, 장애 유형 및 판정급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및 이유 질환별 의사 진단 시기, 여부, 상담 및 치료 (만성질환, 심리사회적 질환) 입원 치료 여부, 이유 	
		질환 및 치료		
	학교생활	진학 및 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 기관 학교 명, 학년, 학급, 설립 유형 결석 여부, 결석 이유 	
		학교 적응 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교사 이용 유형, 빈도, 시간, 비용, 만족도 	
	돌봄 및 양육	부모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부모 감독 숙제 시 타인 도움 정도, 도움 제공자
			개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년월일, 최종학력
부모	인구학적 특성	가족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상태, 결혼일 패널 아동과의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신체 및 건강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환 및 장애 1·2급 장애 유무 	
	개인 및 부부 특성	심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업 상태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직장명, 업종,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 직위, 종사상 지위 근무일 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직업 특성	취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원 인원, 지원 정도
			지원 특성	
	양육 특성	가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동생 출생년도, 성별, 입양 여부 손위형제 출생년도, 성별, 결혼 여부 	
	가구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 아동의 개별 방 여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소득, 취업모 근로(사업)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가계 경제 요소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성 및 비소비성 지출(가구 전체, 자녀 대상) 패널 자녀의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금 	
가정 환경 특성		가정환경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응성, 성숙 장려, 정서적 환경, 학습자료와 기회, 강화, 가족 공동체, 가족 통합, 물리적 환경

(표 IV-2-5 계속)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특별활동 및 사교육	사교육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기관, 종류, 시간, 비용, 비용 부담도 이용 만족도
	연계 관련	부모의 학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참여 여부
지역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거주지 주소, 이사 횟수
	물리적 특성	양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이용 만족도 문화 시설 이용 편리성, 이용 만족도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이용 만족도 양육환경 안전성
정책	국가 지원	공공 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기타 지원	공공 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비 지원

나) 지필식 설문 조사(건강관련 질문지)

아동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는 아동과 분리되어 건강관련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건강관련 질문지는 서울 아산병원과의 MOU를 통해 구성된 자기 기입식 설문이다. 주요 변인은 <표 IV-2-6>과 같이 아동의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과 부모의 질환력, 그리고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 요인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의 알레르기성 질환과 관련된 환경으로는 간접 흡연 등의 유해 환경 노출이 있으며, 주거 환경 내 알레르기성 질환 유발인자인 애완동물, 곰팡이에 관한 문항, 실내 환경을 측정하는 환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및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된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표 IV-2-6> 9차년도 건강관련 질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	일상 생활 특성	실내/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운동 시간 집 밖에서 햇볕 쬐며 노는 시간
		질환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레르기 질환별(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피부염) 증상, 진단, 치료 식생활진단, 식품알레르기 약제복용
	신체 및 건강 특성	유해 환경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 흡연 여부 및 횟수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장애 및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레르기 질환 병력

(표 IV-2-6 계속)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견 수, 애완묘 수 ◦ 리모델링 여부, 종류 ◦ 벽이나 천장에 습기 얼룩진 모양 여부, 정도 ◦ 눈에 보이는 곰팡이 여부, 정도
		실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 횟수, 시간 ◦ 공기 청정기 사용 여부, 사용 공간 ◦ 방향제 또는 디퓨저 사용 여부, 횟수 ◦ 가습기 사용 여부, 기간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종류, 기간
학교	일반적 특성	물리적 특성	◦ (학교 및 학원)리모델링 여부, 종류

4) 가구 방문 조사(아동 대상 조사)

가) CAPI(아동용) 면접 조사

CAPI(아동용) 조사는 크게 아동의 신체 치수 측정과 면접 조사로 구분된다. 아동의 신체 치수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체중, 신장, 허리둘레의 크기를 조사원이 직접 측정하였다. 신체 크기는 종단값과의 비교를 통해 지나치게 변화가 클 경우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아동은 신체 측정 후 보호자와 분리되어 조사원과 사회 및 정서 발달, 학교 생활에 관련된 면대 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조사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CAPI(아동용)에 포함된 주요 변인 구성은 <표 IV-2-7>과 같다.

<표 IV-2-7> 9차년도 CAPI(아동용) 질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체중, 신장, 허리둘레
		자아 발달	◦ 자아존중감, 미래 기대
	사회 및 정서 발달	정서 발달	◦ 전반적 행복감
		사회성 발달	◦ 친구 수, 친구와의 싸움 빈도, 친구와의 놀이 빈도
학교생활	학교생활 인식	◦ 학교 선호도, 교사 선호도, 과목 선호도, 학교 생활 느낌, 부모의 학업 관심도	

나) 아동 수행 검사

아동용 CAPI 종료 후 수행 검사로 이종구, 현성용, 최인수(2015)의 다요인 지능검사(M-FIT)를 실시하였다. 다요인 지능검사는 지능의 다요인설을 제안한 Thurstone의 7요인 이론,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 Sternberg의 지능 3요인 이론을 근간으로 인지능력을 <표 IV-2-8>에 있는 6개 영역으로 측정한다. 9차년도 조사 아동의 연령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실시 가능하며,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등용, 고등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 시기에도 M-FIT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종단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할 예정이다.

각 검사는 수행 전 약 1분 10초 동안 간략한 설명을 듣고, 보기문제,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답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 후, 검사별로 지정된 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조사원 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시작과 종료 신호는 CAPI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였다.

〈표 IV-2-8〉 9차년도 수행 검사(M-FIT) 구성

하위 검사명	문항 수	검사 시간 (분)	측정내용
어휘적용력	20	3:00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장의 정확한 이해 및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
언어유추력	20	3:00	단어 간의 인과관계와 의미 간의 위계, 범주를 파악하고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도출해 내는 능력
도식화능력	20	6:30	언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전환하고 세부 그림들을 조직하고 통합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틀을 만들어 내는 능력
수리력	20	7:30	수와 기초적인 연산개념에 대한 이해와 자동적 처리를 바탕으로 수량을 비교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공간지각력	20	4:00	공간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적인 사고력과 공간 환경에서의 적용력
추리력	20	4:30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을 추론하는 귀납추론 능력

5) WEB 조사(학교)

아동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조사는 CAWI(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학교 조사는 먼저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패널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발송한 후, 가구 방문 조사 시 부모로부터 담임 교사 연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담임 교사에게 전화로 참여 의사를 질문하였다. 교사가 조사에 동의한 경우 교사의 이메일 주소로 웹사이트 URL을 발송하여 온라인상에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용 질문지는 <표 IV-2-9>와 같이 학교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널 아동의 발달 관련 사항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교사 관련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2-9> 9차년도 CAWI(학교용) 질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일반적 특성	물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유형 ◦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학교 환경
		교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교사 경력, 최종 학력, 직위 ◦ 근무 시간, 주말 근무 일, 주말 근무 시간 ◦ 교직원(소명외식), 수용성, 아동에 대한 열정 ◦ 불안, 우울, 편집증
			업무 특성
	연계 관련	가정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행사 참여 여부
아동	인지 및 언어 발달	학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수행 능력
	사회 및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난점(정서증상,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또래문제, 사회지향)
	학교 생활	학교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 적응, 교사 적응

3. 9차년도 대상자 관리

가. 9차년도 실사 대상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조사는 2008년 4~7월에 출생한 2,150가구의 전체 패널

중 사망, 이민, 연락처 유실 등으로 인한 영구 탈락자 380명을 제외하여 총 1,7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응답자는 패널 아동의 보호자(어머니, 아버지)와 패널 아동,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담임교사이다. 각 지역별로 분포된 패널 가구는 다음의 <표 IV-3-1>과 같다.

<표 IV-3-1> 권역별 원 표본 수

권역		지역	사례 수	단위: 가구, % 비율
서울권	서울		235	13.3
경인권	경기, 인천, 강원		590	33.3
충청권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		235	13.3
경북권	대구, 경상북도		202	11.4
경남권	부산, 울산, 경상남도		301	17.0
전라권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207	11.7
계			1,770	100.0

주: 9차년도 전화조사를 통해 확인한 패널 가구의 조사 거점 지역을 기준으로 함.

나. 패널 관리

조사 대상자는 패널 조사의 명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장기간 조사로 인한 대상자의 조사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이탈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조사 측면에서는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CAPI 내 종단자료 삽입 및 문항 간 로직 연결을 통해 문항 흐름을 간편화하거나 일부 문항(변인)은 격년제 조사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패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상적 관리와 전문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 관리는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지속하는 유지 전략으로 월 1회 안부 문자 발송, 홈페이지 정보 제공, 관련 기사 알림 문자 발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락처 및 주소 변경을 자발적으로 알려오는 패널에게 동화책을 선물함으로써 패널 컨택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전문적 관리로는 조사 대상자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내용 중 일부 혹은 아동 발달과 관련된 수행 검사 결과를 프로파일로 작성하여 패널 부모에게 제공하였다. 2016년에는 8차년도(2015년) 조사 내용 중 어머니가 응답한 문제행동 척도(CBCL 6-18)의 표준화된 점수 및 해석과 아동이 응답한 미래 기대에 대한 내용을 프로파일로 작성하여 [그림 IV-3-1]과 같이 개별 접속되는 web page를 통해 전달하였다. 9차년도 아동 수행점

사 결과 보고서는 10차년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7년 초반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IV-3-1]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 조사 결과 리포트 예시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에게 가구 조사 사례비 지급과 별도로 경품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경품 품목은 패널 가구를 직접 만나는 조사원 의견 수합을 통해 결정하였고, 경품 이벤트의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및 조사 안내문에 공개함으로써 패널 가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6년에도 9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림 IV-3-2]와 같이 총 30명의 패널에게 경품을 전달하였다. 경품 당첨자 명단은 9차년도 조사 종료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2017년 조사 안내문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림 IV-3-2] 한국아동패널 9차(2016년) 경품 추첨 내용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이 직접적인 참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패널 아동의 보호자의 참여 유도과 더불어 아동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 9차년도 조사에서는 참여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그림 IV-3-3]과 같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해 참여 의지를 장려하였다. 더불어 9차 조사를 진행하며 아동이 이후 조사에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이후 조사 참여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말에 아동을 수취인으로 연하장을 발송함으로써 패널 조사에 대한 소속감과 내년 조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림 IV-3-3]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아동 답례품

이외에도 8차년도(2015년) 조사에서와 동일하게 패널 전용 핫라인을 개통하여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패널 가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상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 조사원 관리

패널 대상자를 직접 만나는 조사원은 자료 수집의 질적 측면은 물론 패널 가구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패널 유지 및 조사 질 향상을 위해 조사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첫째, 조사원 교육에서는 질문지 내용을 숙지시키고, 조사 요령, 가정 방문 조사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며 조사원 간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 초반에 데이터를 중간 점검하여 개별 피드백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슈퍼바이저를 통해 재교육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를 최소화하고, 조사 자료의 질적 평준화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2015년부터는 조사원들 간 SNS 채팅방을 개설하여 주요 공지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고, 거점 지역별 전달체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조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실사 가구별 특이사항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9차년도 조사의 특이점을 확인하여 추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원 역할의 중요성 및 노고를 치하하며 조사원을 격려했다.

다섯째,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에게 연말 연하장을 발송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 참여의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조사원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9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원 이동이 빈번한 서울/경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일 조사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원 수 및 전년 대비 동일 조사원 투입 비율은 <표 IV-3-2>와 같다.

<표 IV-3-2>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지역별 조사원 수 및 전년 대비 동일률

구분	단위: %(명)					
	서울/경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1차	100.0(19)	100.0(5)	100.0(5)	100.0(2)	100.0(3)	100.0(2)
2차	58.8(17)	71.4(7)	100.0(4)	100.0(2)	50.0(4)	100.0(1)
3차	61.1(18)	60.0(10)	100.0(4)	100.0(2)	75.0(4)	100.0(1)
4차	60.0(20)	80.0(10)	100.0(4)	100.0(2)	100.0(3)	100.0(1)
5차	35.3(17)	88.9(9)	100.0(4)	100.0(2)	100.0(3)	100.0(1)
6차	65.0(20)	77.8(9)	100.0(4)	100.0(2)	100.0(3)	100.0(1)
7차	53.3(15)	100.0(9)	80.0(5)	50.0(4)	100.0(3)	100.0(1)
8차	47.1(17)	100.0(9)	80.0(5)	66.7(3)	100.0(3)	100.0(1)
9차	76.5(17)	88.9(9)	100.0(4)	100.0(3)	100.0(3)	100.0(1)

라.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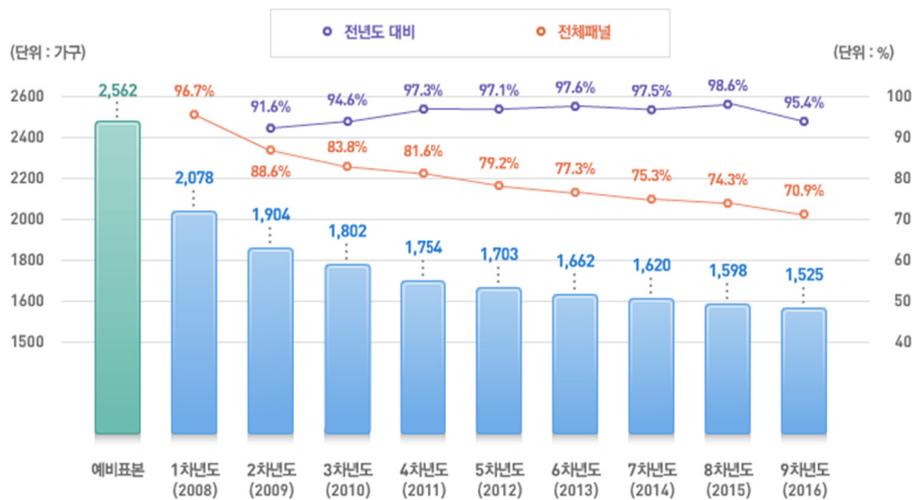
전체 패널의 연차별 표본 유지율은 <표 IV-3-3> 및 [그림 IV-3-4]와 같다. 2016년에 실시한 9차년도 조사 참여 가구는 1,525가구로 전체 2,150가구 기준 70.9%의 유지율을 보였다. 이는 2015년에 실시한 8차년도 조사 대상의 95.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체 패널 2,150가구의 연차별 표본 마모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11.4%를 제외하고 9개 년도에 걸쳐 1.0~4.8%의 패널 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년 대비 패널 유지율은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며, 이는 한국아동패널의 대상이 영·유아기 아동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의 유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3-3〉 한국아동패널 2008~2015년 조사 참여율

패널 현황	단위: 가구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병원구축 기준 가구 수	1,219	437	316	293	297	2,562
2008년 참여 가구 수	992	349	240	271	226	2,078
2009년 참여 가구 수	879	320	221	271	213	1,904
2010년 참여 가구 수	838	309	213	246	196	1,802
2011년 참여 가구 수	809	299	216	239	191	1,754
2012년 참여 가구 수	784	291	199	234	195	1,703
2013년 참여 가구 수	759	287	198	222	196	1,662
2014년 참여 가구 수	731	281	188	227	193	1,620
2015년 참여 가구 수	727	284	180	223	184	1,598
2016년 전년 대비 성공률						95.4%
2016년 전체 패널 기준 성공률						70.9%

주: 성공 패널의 지역 기준은 각 연도의 실제 거주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서울, 경기, 인천, 제주), 부산(부산, 울산, 경남), 대구(대구, 경북), 대전(대전, 충청, 세종, 강원), 광주(광주, 전라,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함.



〔그림 IV-3-4〕 한국아동패널 2008~2015년 조사 참여율

4. 자료 보급 및 확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국가 수준의 대규모 종단 조사를 통한 수집 자료를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학술대회 및 연구 논문 공모 등을 개최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하고 있다.

가. 학술대회 개최

1) 7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6년에는 패널 자료의 확산과 연구 심화의 일환으로 11월 24일에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제 7회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와 해외 패널 담당자들을 초빙하여 한국아동패널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패널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학문 교류의 장이 되었다.

〈표 IV-4-1〉 7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9:00 - 9:30	30 ▶등록	
사회: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협력실장		
9:30 - 9:50	▶개회식	
	- 축사	박경자 회(한국아동학회) 강영순 국장 (교육부 지방교육정책국)
	- 환영사	우남희 소장
9:50 - 10:00	10 ▶한국아동패널 소개	김은설 팀장
10:00 - 10:10	1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0:10 - 10:20	10 ▶휴식	
▣ 1부.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10:20 - 11:20	50 ▶기조강연1(영국사례) 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EPPE) Project: Findings from the Early Primary Years(가칭)	Prof. Kathy Sylva (University of Oxford)
	10 ▶질의 및 응답(10분)	

(표 IV-4-1 계속)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1:20 - 12:20	50 ▶기조강연2(독일사례) Ongoing reforms of the German ECEC System: The role of longitudinal studies	Dr. Bernhard Kalicki (The German Youth Institute, DJI)
	10 ▶질의 및 응답(10분)	
12:20 - 13:30	70 ▶오찬	
▣ 2부.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특별강연		
13:30 - 14:30	50 ▶특별강연1: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시간 정책 필요 결정 요인 분석(20분) ▶특별강연2: 한국아동패널조사를 통한 소아 알레르기질환 연구(30분)	김나영 박사 홍수종 교수
	10 ▶질의 및 응답(10분)	
14:30 - 14:50	20 ▶휴식 및 세션별 이동	
▣ 3부.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학술논문 발표		
14:50 - 16:20	90 ▶주제발표1: 아동의 문제 행동 관련 ▶주제발표2: 아동의 사회적 능력 관련 ▶주제발표3: 아동의 언어발달 관련 ▶주제발표4: 아동의 건강 및 패널 데이터 관련	4개 세션 × 3개 발표 (발표 당 20분 발표, 10분 토론)

7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외 중단 연구 중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의 EPEE(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프로젝트의 Kathy Sylba 교수와 독일의 DJI(Deutsches Jugendinstitut)의 Bernhard Kalicki 박사를 기조 강연자로 초빙하였으며, 각각의 중단 연구 특성과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나.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및 논문 발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학계 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 연말에 학술대회에 사용한 데이터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0년 1차 조사 자료(2008년 수집) 공개를 시작으로 2015년 연말에는 6차년도(2013년 수집) 자료를 공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집계한 누적 데이터 신청 건수는 2016년 11월 8일 기준으로 927건이었다.

승인된 데이터를 활용한 발간물 395편 중 116편이 6회에 걸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논문이며,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이 227편, 학위논문은 33편이었다.

〈표 IV-4-2〉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승인 및 사용 현황

단위: 건, 편 / 기준일: 2016년 11월 8일

데이터 신청	데이터 활용 발간물 ¹⁾				계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²⁾	학술지	학위논문	
927	18	117	227	33	395

- 주: 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기재 사항 기준이며,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학술대회 발표는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와 기타 기관의 학술 행사 발표를 포괄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발간된 연구물 중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377편의 연도별 발간 추이를 살펴보면 <표 IV-4-3>과 같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275편의 연구가 한 개의 조사 시점 데이터만을 활용한 횡단연구이며, 100편이 두 차수 이상의 조사 시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이다. 종단연구의 경우 분석 방법 적용이 용이한 3개 누적차수가 공개된 2013년부터의 증가 추세가 확인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아동을 둘러싼 주요 요소들의 변화궤적 추적, 다요인 인과관계 분석 등의 종단 연구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아동패널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특히 2016년 연말 공개 예정인 7차(2014년 수집)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대상 아동이 유아기에 조사된 마지막 조사인 만큼, 영·유아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단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4-3〉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연도별 발간 추이

단위: 편

발간년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계
전체	36	48	36	49	68	76	64 ²⁾	377
횡단연구	35	40	31	36	46	51	36	275
종단연구 ¹⁾	1	8	5	13	22	25	26	100

- 주: 1) 2개 연도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종단연구'로 분류함.
2) 2016년 발간 논문 중 2건은 저자의 요청으로 서가반출이 제한되어 횡/종단 구분이 불가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발간된 연구물 중 2015년에 출간된 자료를 정리하면 <표 IV-4-4>와 같다. 출간 논문 중 36편이 2013년 연말에 공개한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4편이 2014년 연말에 공개한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의 경우 공개 이후년도에는 가장 최근 공개 차수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종단 연구의 경우 3개년도 자료의 활용이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5개 차수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는 3편에 불과했다.

〈표 IV-4-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2015년 발간 논문의 활용차수(중복)

단위: 편

구분	활용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체	11	21	26	36	34
횡단연구	1	4	6	17	22
종단연구	10	17	20	19	12

주: 1) 한국아동패널 제6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3편의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종단연구 중 6편이 2개, 9편이 3개, 4편이 4개, 3편이 5개 차수를 사용함.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을 내용상 분류하면, 가장 많이 활용된 내용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이었으며,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특성이었다. 2015년에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발간된 연구물들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결과변수로 사용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상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및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 교사의 응답과 아동의 자가 응답 비율이 늘어나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4-5〉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2015년 발간 논문의 내용분류

단위: 편

구분	내용	아동				부모				육아지원 서비스	기타
		일상 생활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 전반	개인	부부	출산	양육		
전체		1	8	25	6	5	2	9	10	3	4
횡단연구		1	5	17	6	3	0	7	3	3	0
종단연구		0	3	8	0	2	2	2	7	0	4

주: 아동의 발달 전반을 다룬 연구는 2 영역 이상의 발달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이며, 기타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과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를 의미함.

2015년에 발간된 연구논문의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다.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논문은 주로 영유아의 또래관계 및 문제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아동의 성별(김상림·박창현, 2015; 임현주, 2015), 언어능력(문수아, 2015), 기질(김상림·박창현, 2015; 장혜인, 2015; 최인숙, 2015; 최은아·송하나, 2015), 수면시간(김수정, 2015; 김윤희, 2015), 스마트폰 이용(천희영, 2015)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또한 부모 관련 요소로는 어머니의 취업(임선아·임효진, 2015; 임현주·최선녀, 2015a), 어머니의 우울,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특성(장혜인, 2015; 최선녀, 2015)은 물론 자녀에 대한 가치(임선영, 2015), 양육행동(이선남·이경옥, 2015; 이희정, 2015; 임현주, 2015; 임선아·임효진, 2015), 양육스트레스(이선남·이경옥, 2015; 이희정, 2015), 아버지의 양육참여(임현주, 2015) 등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가정환경의 질(노성형, 2015; 장영은·성미영, 2015), 사회적 지원(임현주, 2015),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및 시기(오경희·나은경·박의향, 2015), 교실환경,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사 효능감(이형민, 2015a) 등 가정 외 요인에 대한 탐색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영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도 예년에 비해 활발한 진행을 보였다. 영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은 어머니의 우울감(박찬화·이윤선, 2015ab)이나 자녀의 기관생활 관심 정도(김지현, 김정민, 2015), 가정환경(김수정·정익승, 2015; 김지현, 김정민, 2015; 임현주·최선녀, 2015b; 임현주·최향준·김현정, 2015), 영유아가 생활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실환경 및 교사(곽수란·이진순, 2015; 최효식·윤해옥, 2015)와의 관련성 등을 다루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아동의 발달에 관한 2015년 발간 논문들은 한 아동을 주축으로 다양한 미시체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한 아동을 주축으로 아동 개인은 물론 부모, 교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부모 간 지각 차이(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5), 가정환경과 육아지원기관 교사의 동시적 영향력 탐색(김수정·정익중, 2015; 노성향, 2015; 임현주·최향준·김현정, 2015) 등의 연구물은 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의 영향력을 고르게 살펴볼 수 있는 한국아동패널의 장점이 잘 활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발간 연구물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복합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 아동

의 발달에 비해 드물게 연구가 수행되었던 유아의 수면(김진옥, 2015), 스마트폰 이용(천희영, 2015) 등 아동의 일상 생활시간 연구와 같이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연구 영역의 범위 또한 다양해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 특성을 다룬 연구로는 주로 어머니의 취업(권정미·이진숙, 2015; 박진아·장유진, 2015), 부모의 우울(김표민, 2015;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5), 자기효능감(김숙령·이서영, 2015; 이형민, 2015b) 및 자아존중감(김지효, 2015, 김숙령·이서영, 2015; 양진희, 2015) 등의 개인적 요소와 양육스트레스(김경은, 2015; 김영미·송하나, 2015; 김숙령·이서영, 2015; 양진희, 2015; 이주연·전종설·전혜숙·정하은, 2015; 이정민·김세리·이강이, 2015; 황성온·황지은, 2015), 양육태도(옥경희·김미혜, 2015; 이형민, 2015b) 등을 다룬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후속 출산에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가계 경제 요소(이진화·민정원, 2015; 임양미, 2015), 어머니의 경제활동(임양미, 2015; 최항준, 2015), 자녀가치(오승아·유준호, 2015; 장희연, 2015; 최항준, 2015), 양육스트레스(임효진·박휴용·장경은·이지은, 2015; 장재영, 2015; 최항준, 2015)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 후속 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육아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논문도 소수 발견되었다. 대리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특성을 탐색하거나(이윤형, 2015), 대리양육 유형별 차이를 검증(임유경, 2015)하는 노력은 물론 사교육비 추정을(이광현·권용재, 2015) 통해 교육격차 발생 가능성을 탐색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V.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가 기초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2015년에 실시된 제8차년도 패널 조사에 의한 자료로, 대상 아동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에 취학한 상황이다. 만7세가 되고 유아기를 벗어나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에 따라 아동이 보이는 특성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부모의 특성 또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한 결과를 본 패널 조사 자료의 분석 여러 곳에서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2015년 8차년도 조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적 결과들과 함께 특히 취학으로 인해 아동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변화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학령기 패널 자료가 보여 주는 특징적 결과

제8차년도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 보아야 할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취업모 자녀

첫째,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동의 생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모 자녀가 주중에는 미취업모 자녀보다 바깥놀이를 하는 평균 시간이 13분 짧고 (취업모 39분, 미취업모 52분), 주중 아동이 취침하는 시간이 11분 늦으며 (취업모 21:56, 미취업모 21:45),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6분 길 뿐 아니라 (취업모 5.82시간, 미취업모 5.38시간) 학원 등 학교외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13.8분 더 길다. 또한 주중 책을 읽는 시간도 미취업모 자녀보다 3.4분 짧았고(취업모 39.6분, 미취업모 43.2분)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았으며(취업모 1.52점, 미취업모 1.47점) 하루 중 성인 없이 아이들끼리만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취업모 1.82시간, 미취업모 1.49시간). 주중 TV에 노출되는 시간 또한 취업모 자녀가 길었다(취업모 1.05시간, 미취업모 0.96시간) 이들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중 평일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취업모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라 보겠지만 미취업모 자녀와 비교했을 때 취업모 자녀가 질적으로 부족한 하루를 보내지는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즉 바깥놀이 운동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수면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며 특히 독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산만하지 않도록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관련 변인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모의 취업이라는 변수가 아동간 차이를 모두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석결과가 보이는 경향성은 주의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이다.

2) 가구 소득, 모의 학력, 지역

둘째, 가구 소득과 어머니의 학력, 거주 지역(도시/농어촌) 등 변인에 따라 아동의 인지, 정서 및 문제행동, 식생활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구 소득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일수록 숙제시간이 길고 연간 1박 이상 여행 체험 경험이 많으며, 문화체험이나 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많았다. 또한 행동 통제나 정서 통제의 문제가 적게 나타나고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 점수가 높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경향이 있다. 고학력 어머니와 도시거주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자기존중감이 높고 우울/위축이 낮다.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력도 떨어지고 도시 아동이 농어촌 아동보다 행복감도 높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율도 높았다. 식생활에서도 학력과 소득이 낮고 농어촌 지역일수록 단백질 음식과 과일의 섭취가 적고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비율도 낮으며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

셋째,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수업 시간이 영유아기 교육·보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짧다. 유아기였던 7차년도 조사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일일 평균 시간이 7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 1학년은 평균 5.54시간으로, 1시간 40분 정도가 단축되었다. 이러한 기관(학교 포함) 이용 시간의 감소는 취업모들의 초등 1학년 자녀 돌봄에 새로운 숙제를 안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적정 자녀 수 인식

넷째,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2자녀 이하(1.9명)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재 2자녀인 가정이 전체 응답자의 63%이고 1자녀 가정이 11.5%이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3명 이상 다자녀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1자녀 가정이 2자녀 가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어머니 생활의 변화

다섯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어머니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

분석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취업률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자녀가 7세인 8차년도 조사에서는 44%의 어머니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연도보다도 2.2%p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녀 돌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비 등 지출이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면 우울 등 부정적 정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아이의 취학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가 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도서관 이용 편리성

여섯째, 지역사회의 문화적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과 만족도가 다른 시설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시설 중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 방식이 부담이 없고 편리함을 의미한다.

7) 유연근무제

일곱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육아 관련 지원 제도 중 가족돌봄휴직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다. 가족돌봄휴직은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수준이 조사된 것으로 보더라도 유연근무제는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8) 영유아 기관과 학교 간 연계

여덟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간 연계의 필요성을 학교 교사들이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유아기의 생활기록부가 학교 기록과 연결될 수 있다면 교사의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교사가 매우 많았다.

이 외에도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어머니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등 다양한 발견점들이 있으나 본 절에서는 특히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결과들에만 집중하기로 하였다.

2. 정책 방안 제언

앞 절에서 전술한 8차년도 조사 결과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교의 제도적 개선, 부모 또는 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 출산 대책의 방향성, 지역사회 자원의 활동 등 4개 부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학교의 제도적 개선

1)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수의 재고

방과후 과정이나 학교 외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수적으로 늘어나는 취업모가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조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유아기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보다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 시간이 더 짧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사교육이나 방과 이후 돌봄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추가로 소비되어야 하는 비용도 당연히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1학년 하교 시간이 1년 전인 유아기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이었던 7시간 정도에 맞추어 진다면 부모가 자녀 돌봄에서 갖게 되는 혼동이 줄어들 수 있다. 초등학교의 고학년 수준과 비슷한 하교 시간 즉, 오후 3시 또는 3시 30분까지 학교의 정상 일과가 진행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돌봄을 편리하게 하자고 학교 종료 시간을 늦추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동의 관점에서 학교 수업을 늘리는 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고 발달에도 긍정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해외 국가의 경우 초등학교 전학년이 동일한 수업시간을 갖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반드시 수업시수로 하교 시간을 조정하기 보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과후 돌봄 이용이 모든 초등학교에서 용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막 유아기를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 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1학년 교실과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즉, 유치원의 교실 환경 및 수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다 여유롭고 느슨하게 통합교과를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치원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동들이 학교를 즐겁게 여기고 기분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업 지도 방식을 더욱 놀이에 가깝게 하고 프로젝트 수업이 주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2)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기록부의 학교와의 연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생활기록부가 아동의 입학과 함께 초등학교에 전달이 된다면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개별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청 관할인 공립유치원을 공립초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NEIS)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지만 사립유치원이나 교육부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호환 가능하도록 국가 수준에서 조치하고 전자 문서로 생활기록부가 저장되어 있어 학교가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다. 서버 구축과 연결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접속하여 이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에게 아동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자료가 긍정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모 특성에 따른 지원

1) 취업모 1학년 자녀에 대한 영유아 종일반의 개방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모 자녀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몇 가지에 집중하여 취업모 자녀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부주의한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기 초기에

는 입학전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과후 반 또는 종일반이 운영된다면 이를 취업모 초등 1학년 자녀들에게도 개방하여 아동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아동이나 여러 학원을 바쁘게 다니도록 하기 보다는 유아기의 안전함과 익숙함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동의 안정적 발달에 유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초등 방과후 운영이 보다 탄력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조건이나 교사 조건 등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저소득 가구 1학년에 대한 독서 지원 강화

8차년도 패널 조사의 결과는 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거주하는 도시 유형 등이 아동의 언어 및 인지, 정서발달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특히 읍·면인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 가구에 대해 독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어휘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인지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바우처를 이용하여 학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기준뿐 아니라 농어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독서전문지도사가 농어촌 초등학교에 주 1-2회씩 파견되어 초등학교 1학년들의 읽기 지도가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 저소득층에게는 가정 방문을 통한 독서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즉, 일부 상업적 독서교육기업 등이 관여하여 독점하거나 부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다. 출산 대책의 방향성

1) 두 자녀 가정 지원 강화

자녀를 둘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음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를 3명부터로 인정하고 이들에게만 주택, 교육비 등 혜택을 주는 현행 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을 2자녀부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 하다. 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다고 유도하기 보다 1자녀를 두는 것이 2자녀

를 두는 것보다 결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2자녀 가정을 3자녀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1자녀 가정을 2자녀 가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2자녀를 가진 가정이 3자녀 가정으로 바뀌기는 더욱 큰 설득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 세제 혜택 등에서 3자녀 가정과 동일한 우선 지원을 하기 보다는 2자녀 가정도 차별적 지원이 있음을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 전환에는 국가 예산 규모가 검토되고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선행 조건이 되긴 한다.

2) 유연근무제의 확대

초등 1학년을 둔 부모에게 있어 가장 만족도가 큰 유연근무제가 모든 직장에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기와 비교해 등·하교 시간이 달라진 점은 취업모들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출퇴근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간 선택제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근무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사회전반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라.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성 확대

1) 공공 도서관 활용성 제고

공공 문화시설 등의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관이 다른 문화 시설이나 체험 공간보다 접근성이 높고 이용의 벽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도서관이 문화적 체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공공 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영화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간 이러한 기능에 대한 정비, 협력 등을 통해 지역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문화적 허브로서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우선

적으로 요구된다. 현재는 영유아 등 일정 연령 아도의 부모 참여에 치우쳐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수란·이진순(2015). 유아기 사회성 및 인지·언어 발달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5(3), 265-291.
- 권정미·이진숙(2015). 기혼취업여성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보육서비스 유형과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6(4), 507-533.
- 김정은(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7), 4566-4575.
- 김상림·박창현(2015). 유아의 기질과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37-58.
- 김수정·정익중(2015). 가정환경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효능감의 조절 효과. **육아정책연구**, 9(1), 1-28.
- 김숙령·이서영(2015).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 양육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4), 91-108.
-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윤희(2015). 만 5세 유아의 야간 수면길이와 문제행동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5(1), 351-375.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김정민(2015). 만4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87-108.
- 김지효(2015). 유아의 기질프로파일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분석. **유아교육연구**, 35(1), 135-152.
- 김진욱(2015).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4세 유아의 낮잠과 야간 수면과의 관계. 人

- 間發達研究, 22(1), 1-20.
- 김표민(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수준에 관한 중단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노성향(2015). 가정환경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21-35.
- 문수아(2015).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언어능력의 매개효과 및 모 취업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진아·장유진(2015). 생태체계 요인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지속 영향 요인: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육아정책연구*, 9(1), 149-175
- 박찬화·이운선(2015).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2), 77-97.
- 배광일(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현재자녀수에 따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31-53.
- 신나리·안재진·이정림·송신영·김영원(2008). *한국아동패널 200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지은(2015).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진희(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중단연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3(4), 303-327.
- 연은모·최효식(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0(-), 79-108.
- 오경희·나은경·박의향(2015).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9(1), 29-50.
- 오승아·유준호(2015).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11개월에서 31개월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2), 5-28.

- 옥경희·김미혜(2015).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461-480.
- 이광현·권용재(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2(3), 83-107.
- 이선남·이경옥(2015). 유아의 초기 발달수준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4), 381-396.
- 이윤형(2015). Profiles and Predictors of Families Using Grandparent Care in Korea(조부모 대리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예측 요인 및 특성). **아동과권리**, 19(4), 735-754.
- 이인정(2015). 남편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1), 343-370.
- 이정민·김세리·이강이(2015). 초산모의 출산 후 4년간 자녀가치 변화패턴. **아동학회지**, 36(4), 177-192.
-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구·현성용·최인수(2015). **M-FIT 다요인 지능검사**.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이주연·전종철·전혜숙·정하은(2015).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6(2), 293-312.
- 이진화·민정원(2015). 어머니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자극 수준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79-100.
- 이형민(2015a).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 환경, 상호작용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육아정책연구**, 9(2), 89-112.
- 이형민(2015b).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 **인지발달장애학회지**, 6(2), 119-136.

- 이희정(2015).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예측변인과 종단적 변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4), 209-227.
- 임선아·임효진(2015).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90, 159-184.
- 임선영(2015).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양미(2015).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한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 예측요인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4), 155-172.
- 임유경(2015). **영아기 취업모의 대리양육 유형별 특성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임현주·최선녀(2015). 기질(사회성) 및 가정환경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4), 339-355.
- 임현주·최향준·김현정(2015).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변인 및 가정환경,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인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247-264.
- 임효진·박휴용·장경은·이지은(2015). 어머니의 심리적, 관계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후속 출산의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297-318.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영은·성미영(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 장재영(201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인(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9-39.
- 장희연(2015).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 중앙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란영·김희화(2015).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영아의 문제해결력의 중단적 관련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39-54.
- 천희영(2015). 만 4세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와 발달특성, 생활시간 간의 관계 및 이용 정도 예측변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53-175.
- 최선녀(2015).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8), 5160-5174.
- 최은아·송하나(2015). 유아의 만 3세 기질이 만 4세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만 4세 수면 문제와 주의집중 문제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9(3), 463-490.
- 최인숙(2015).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중단 연구. **아동학회지**, 36(6), 147-164.
- 최향준(2015). 취업모의 심리변인, 사회적 지원변인, 경제변인 및 자녀(영아)의 기질변인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3, 89-114.
- 최향준·조수경(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157-8164
- 최효식·윤해옥(2015). 교실환경, 교사효능감, 교사-유아상호작용, 유아의 인지발달, 창의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유아교육연구**, 35(6), 339-356.
-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
- 한인숙·양혜정(2015). 부부갈등 및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 문제행동의 중단적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3), 287-317.
- 황성은·황지온(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중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6(4), 163-17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erk, Laura. E. (2008). *Child development*, Boston Pearson Education Allyn & Bacon.

Elder, G. H., Jr. (1998). *Life Course Dynam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lder, G. H., Jr.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939-991). New York: Wiley.

Abstract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6

Eunseol Kim, Yunjin Bae, Sook In Cho, Yejin Yi,
Shinyeong Song, Junbum Yim, Eunyong Park, Sinkyung Kim, Eunjeong Ki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6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Korean children's life since birth; the research is a continuous follow-up study that builds up the data to comprehend the process of children's development and their upbringing environments. It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design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aring environment systems such as parent, family, institution and child support policy. PSKC 2016 targets 1,598 households participated in 2015 investigation. The followings are some outcomes from our research.

First, 88.2% of household panels were nuclear families consist of parents and children with average income of 462,990,000won per month; additionally, 97.4% of the children were enrolled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96.1% were using private after-school programs such as Hakwon(learning academies).

Second, children's mean score of self-esteem was 3.45, perception of general happiness 3.21, and pro-school attitude 3.21 out of 5. The average hour of watching TV was 1 hour on weekdays and 2.19

Third, regarding the environment for children' growing, 56.1% of the children had their own bedroom, 43.9% possessed pets, and 13.5% received an allowance regularly. The mean score on the quality of home environment test was 47.55 out of 59, and 20.4% of the households are at risk in therms of the hom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 suggested several issues for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school system, supporting childr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arents, suggesting a new paragraph for the fertility policy, and utilizing community resources.

부록

부록 1. 차수별 조사 내용 상세표

부록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

부록 3. 9차년도(2016) 조사 안내문

부록 4. 9차년도(2016) IRB 승인 통지서

부록 5. 8차년도(2015) 질문지

부록 6. 한국아동패널 국·영문 홍보 리플렛

부록 1. 차수별 조사 내용 상세표6)

〈부표 1-1〉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인구학적 특성	아동 이름	☆	☆	☆	☆	☆	☆	☆	☆	☆
	아동 이름 변동 사유	-	-	-	○	○	○	○	○	○
	성별	○	○	○	○	○	○	○	○	○
	출산 예정일, 재태기간	○	-	-	-	-	-	-	-	-
	출생월, 월령	○	○	○	○	○	○	○	○	○
출생순위	출생순위	○	○	○	○	○	○	○	○	○
	출생순위 변동 사유	-	○	○	○	○	○	○	○	○

〈부표 1-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일상생활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식생활	모유수유 여부	○	○	○	○	-	-	-	-	-
	수유 방법	-	-	-	-	-	-	○	-	-
	혼합수유 시작 시기	-	-	-	-	-	-	○	-	-
	모유수유 중단 시기, 이유	○	○	○	○	-	-	-	-	-
	이유식 시작 시기	-	-	-	-	-	-	○	-	-
	수유 및 식습관 특성	○	○	○	○	-	-	-	-	-
	식습관 자립도	-	-	-	-	○	○	○	-	-
	식사 양, 식사 속도	-	-	-	-	○	○	○	-	-
	간식 횟수	-	-	-	○	○	○	○	-	-
	아침식사 횟수, 외식 횟수	-	-	-	-	○	○	○	-	-
	가족과의 식사	-	-	-	-	-	○	○	-	-
	식생활 진단	-	-	-	-	-	-	-	○	-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	-	-	-	-	-	-	-	○	-
	음료수 섭취 빈도	-	-	-	-	-	-	-	○	-
	유산균 복용 여부, 기간	-	-	-	-	-	-	-	○	-
	유산균 마지막 복용 시기	-	-	-	-	-	-	-	○	-
	편식, 규칙적 식사	-	-	-	-	○	○	○	-	-
미디어	미디어 이용 시간	-	-	-	-	○	○	○	○	○
	미디어 이용일	-	-	-	-	-	○	○	-	-
	미디어 이용 정도	-	-	-	-	○	○	○	-	○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	-	-	-	○	-	-	-	-
	미디어 이용 이유	-	-	-	-	-	-	-	○	-
	미디어 이용 순위	-	-	-	-	-	-	-	-	○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	-	-	-	-	-	-	○	○	

6) ☆은 내부 검토를 통해 비공개로 결정된 자료임.

(부표 1-2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수면	수면습관 특성	○	○	○	○	-	-	-	-	-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	-	-	-	-	-	-	-	○	-
	주로 재워주는 사람	-	-	-	-	-	-	-	○	-
	아침에 스스로 기상 여부, 횟수	-	-	-	-	-	-	-	○	-
	낮잠 여부	-	-	○	○	○	○	○	-	-
	낮잠 횟수	-	-	○	○	-	-	-	-	-
	낮잠 시간	-	-	○	○	○	○	○	-	-
	기상 및 취침 시각	-	-	○	○	○	○	○	○	○
	수면 시간	-	-	○	○	○	○	○	○	○
	수면 여부	-	-	○	○	○	○	○	○	-
	밤잠 중 깨는 횟수	-	-	○	○	-	-	-	○	-
	함께 자는 사람	-	-	-	-	-	-	-	○	-
	실내/외 활동	배변/씻기 습관 특성	○	○	○	○	-	-	-	-
일과 활동 시간		-	-	○	○	○	○	○	○	○
실내 놀이 일		-	-	-	-	-	○	○	-	-
독서량		-	-	-	-	-	-	-	-	○
바깥놀이 및 외출일		-	-	-	-	-	○	○	-	-
실내, 실외 운동 시간		-	-	-	-	-	-	-	○	-
활동별 참여 빈도		-	-	-	-	-	-	-	○	○

〈부표 1-3〉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신체 특성	두위	○	○	-	-	-	-	-	-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시기	-	-	-	-	-	○	○	○	○
	체중	○	○	○	○	○	○	○	○	○
	신장	○	○	○	○	○	○	○	○	○
	허리둘레	-	-	-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	-	-	-	○	○
	빠진 유치 개수	-	-	-	-	-	-	-	○	○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	-	-	-	-	-	-	○	○
	충치 개수	-	-	-	-	-	-	-	○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	-	-	-	-	○	○	○	○
운동 능력	운동발달	○	○	○	-	-	-	-	-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	○	-	-	-	-	-	-
	대근육 운동	○	○	○	-	-	○	○	-	-
	소근육 운동	○	○	○	-	-	○	○	-	-
	우세 손	-	-	-	-	-	○	○	○	-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질환 및 치료	장애 판정 여부	-	○	○	○	○	○	○	○	○
	장애 유형 및 판정급수	-	○	○	○	○	○	○	○	○
	예방접종 여부 및 횟수	○	○	○	○	-	-	-	-	-
	만성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	○	○	○	○	○	○	○	○
	만성 질환별 의사 진단 시기	-	○	○	○	○	○	○	○	○
	만성 질환별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	-	-	-	-	-	○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	-	-	-	-	-	-	○	○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시기	-	-	-	-	-	-	-	○	○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징후	-	-	-	-	-	○	○	○	-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응급 실 방문 및 입원 횟수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시기	-	-	-	-	-	○	-	○	-
	통원 치료 횟수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치료 여부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치료 기간 및 약물	-	-	-	-	-	○	○	○	-
	항생제, 진통제/해열제 복용 여 부 및 횟수	-	-	-	-	-	○	○	○	-
	알레르기 질환 유발 의심 식품	-	-	-	-	-	○	-	○	-
	알레르기 질환 유발 의심 식품 제한	-	-	-	-	-	-	-	○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	○	○	○	○	○	○	○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횟수	-	○	○	○	○	○	○	○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이유	-	-	-	-	-	-	-	-	○
	입원 치료 여부	○	○	○	○	○	○	○	○	○
	입원 치료 기간	○	○	○	○	○	○	○	○	-
	입원 치료 횟수	-	○	○	○	○	○	○	○	-
	입원 치료 이유	-	-	-	○	○	○	○	○	○

〈부표 1-4〉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인지 발달	문제해결	○	○	○	-	-	-	-	-	-
	창의성	-	-	-	-	○	-	-	-	-
	지능(인지, 동작)	-	○	-	-	-	☆	-	-	-
	인지 발달(교실상황 관찰형)	-	-	-	-	○	○	-	-	-
	집행기능(계획 및 조직화 곤란, 행동 통제 곤란, 정서 통제 곤란, 부주의)	-	-	-	-	-	-	-	○	○
	다요인 지능(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도식화능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추리력)	-	-	-	-	-	-	-	-	-
언어 발달	언어발달	○	○	○	-	-	-	-	-	-
	의사소통	○	○	○	-	-	-	-	-	-
	수용 어휘력	-	-	-	○	-	○	-	○	-
	표현 어휘력	-	-	-	○	-	○	○	○	-
	언어 발달(교실상황 관찰형)	-	-	-	-	○	○	-	-	-
	발화능력 (조음평정치, 읽기유창성, 모방 오류어절, 발음오류어절, 오류자음, 읽기지수)	-	-	-	-	-	-	○	-	-
학습 관련	학습준비도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	-	-	-	-	-	○	-	-
	학업능력 (언어 및 문해능력, 수리적 사고)	-	-	-	-	-	-	○	-	-
	학업수행 능력	-	-	-	-	-	-	-	○	○
전반적 발달	신체발달 및 성장,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의 적응									

〈부표 1-5〉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자아 발달	기질 (활동성, 부정적 정서성)	○	○	○	○	○	-	-	-	-
	기질(수줍음, 사회성)	-	-	○	○	○	-	-	-	-
	기질	-	☆	-	-	-	-	-	-	-
	자아개념(중요성, 유능성, 영향력, 일반적 평가, 덕목)	-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미래 기대	-	-	-	-	-	-	-	○	○
정서 발달	선호 놀이 영역 순위	-	-	-	○	○	○	○	-	-
	교사 선호도	-	-	-	○	○	○	○	○	○
	육아지원기관 선호도	-	-	-	○	○	○	○	-	-
	주관적 행복감	-	-	-	-	-	-	○	○	○
	행복감	-	-	-	-	-	-	○	-	-
	전반적 행복감	-	-	-	-	-	-	-	○	○
	일상적 스트레스	-	-	-	-	-	-	○	-	-
	학교 선호도	-	-	-	-	-	-	-	○	○
	학교 생활 느낌	-	-	-	-	-	-	-	○	○
	과목 선호도	-	-	-	-	-	-	-	○	○
사회성 발달	교사 선호도	-	-	-	-	-	-	-	-	-
	개인-사회성	○	○	○	-	-	-	-	-	-
	어머니와의 애착	-	☆	-	-	-	-	-	-	-
	놀이 및 사회적 활동 특성	-	-	○	-	-	-	-	-	-
	또래상호작용 (상호작용, 방해, 단절)	-	-	-	○	○	○	○	-	-
	문제행동 (내재화-정서적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외현화-주의집중, 공격행동/수면문제 /기타문제) (DSM정서, 불안, 전반적발달,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반항행동)	-	-	-	-	○	○	○	-	-

〈부표 1-6〉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개인 및 부부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인구학적 특성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	☆	☆	☆	☆	☆	☆	☆	☆	☆
	연령	○	○	○	○	○	○	○	○	○
	대한민국 국민 여부	○	○	○	○	-	-	-	-	-
	귀화 여부	○	○	○	○	-	-	-	-	-
	국적	○	○	○	○	-	-	-	-	-
	귀화 전 국적	○	○	○	○	-	-	-	-	-
	최종학력	○	○	○	○	○	○	○	○	○
	종교 유무 및 유형	○	○	○	○	-	-	-	-	-
	동거 여부	○	○	○	○	○	○	○	○	○
	비동거 이유	○	○	○	○	○	○	○	○	○
	비동거 시 아들과 만나는 일수	-	-	-	-	○	-	-	-	-
심리적 특성	우울	○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부정적 자기효능감	○	○	○	○	○	-	-	-	-
	성격	-	☆	-	-	-	-	-	-	-
	주관적 행복감	-	-	-	-	-	-	○	○	○
	일상적 스트레스	-	-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	○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	-	-	-	-	-	-	○	○
성역할 가치	-	-	-	-	-	-	○	-	-	
일상생활 특성	하루 일과 활동 시간	-	-	-	-	○	-	-	-	-
부부 특성	결혼 상태	○	○	○	○	○	○	○	○	○
	배우자 동일 여부	-	○	○	○	-	-	-	-	-
	결혼일	☆	☆	☆	☆	☆	☆	☆	☆	☆
	결혼 기간	○	○	○	○	○	○	○	○	○
	결혼 만족도	○	○	○	○	○	-	○	○	-
	부부 갈등	○	○	○	○	○	-	○	○	○
	배우자의 일상적 스트레스	-	-	-	-	-	-	○	-	-

〈부표 1-7〉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신체특성	신장	○	-	-	-	-	-	-	-	-
	임신/출산 전 체중	○	-	-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	-	-	-	○	○
질환 및 장애	1·2급 장애 유무	○	○	○	○	○	○	○	○	○
	희귀난치성 질환 유무	○	○	○	○	○	-	-	-	-
	알레르기질환 병력	-	-	-	-	-	○	-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	○	○	○	○	○	○	○	○
	음주 횟수	○	○	○	○	○	○	○	○	○
	음주 양	○	○	○	○	○	○	○	○	○
	과음 횟수	-	-	○	○	○	○	○	○	○
	음주 시 흥조 여부	-	-	-	-	-	-	○	-	-
	흡연 여부	○	○	○	○	○	○	○	○	○
	아플 때의 흡연 여부	○	○	○	-	-	-	-	-	-
	아침 흡연 시간	○	○	○	-	-	-	-	-	-
	아침 흡연 선호 여부	○	○	○	-	-	-	-	-	-
	아침 시간 흡연 집중 여부	○	○	○	-	-	-	-	-	-
	하루 흡연량	○	○	○	○	-	-	-	-	-
	흡연 욕구 자제의 어려움	○	○	○	-	-	-	-	-	-

〈부표 1-8〉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직업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일반적 특성	취업/학업상태	○	○	○	○	○	○	○	○	○
	희망 근로 형태	○	-	-	○	○	-	-	○	-
	시간제 희망 이유	-	-	-	○	○	-	-	○	-
	희망하는 일자리 수입	-	-	-	○	-	-	-	-	-
미취/학업 특성	취/학업 중단 시기	○	○	○	○	○	-	-	-	-
	경력 단절 시 취/학업 상태	-	○	○	○	-	-	-	-	-
	취/학업 중단 이유	○	○	○	○	○	-	-	○	-
	향후 취/학업 계획	○	○	○	○	○	-	-	-	-
	구직활동 여부	-	-	-	○	○	-	-	-	-
	구직활동 이유	-	-	-	○	-	-	-	-	-

(부표 1-8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학업 특성	재학 상태	○	○	○	○	-	-	-	-	-	
	학업 과정	○	○	○	○	-	-	-	-	-	
	학업 시간	○	○	○	○	-	-	-	-	-	
	통학 소요 시간	-	○	○	○	-	-	-	-	-	
	복학/입학 시기	○	○	○	○	-	-	-	-	-	
	휴학 여부	-	-	○	○	-	-	-	-	-	
	휴학 사유	○	-	○	○	-	-	-	-	-	
	휴학시기	○	○	○	○	-	-	-	-	-	
	복학 계획 여부	○	○	○	○	-	-	-	-	-	
	복학 예정 시기	○	○	○	○	-	-	-	-	-	
	미복학 사유	○	○	○	○	-	-	-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	○	○	○	○	○	○	○	○
		직장 변동 여부	-	○	○	○	○	○	○	○	○
		직장/직위 변동 이유	-	-	○	○	○	-	-	-	-
일을 하는 이유		-	-	-	○	○	-	-	○	-	
근로 유형		○	○	○	○	-	-	-	-	-	
직장(사업체) 명		-	☆	☆	☆	☆	☆	☆	☆	☆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	☆	☆	☆	☆	☆	☆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		-	☆	☆	☆	☆	☆	☆	☆	☆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	☆	☆	☆	☆	☆	☆	
직업 군(대·중·소분류)		○	○	○	○	○	○	○	○	○	
복직/취업 시기		○	○	-	○	-	-	-	-	-	
중사상 지위		○	○	○	○	○	○	○	○	○	
근무 일 수		-	-	-	-	○	○	○	○	○	
근무 시간		○	○	○	○	○	○	○	○	○	
왕복 출퇴근 시간		-	○	○	○	○	○	○	○	○	
주 40시간 미만 근로 이유		-	-	-	-	○	-	-	-	-	
직무만족도		○	○	○	○	-	-	-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	○	-	-	○	○	○	
직장 중사자 수		-	-	-	○	○	-	-	-	-	
임신 중 취업/학업 여부		-	-	-	-	-	-	○	-	-	
임신 중 직장/학교 주소		-	-	-	-	-	-	☆	-	-	
복직 계획 여부		○	○	○	○	-	-	-	-	-	
임신 중 출퇴근/등하교 시간		-	-	-	-	-	-	○	-	-	
복직 계획 시기		○	○	○	○	-	-	-	-	-	
향후 이직/퇴직 계획		○	○	○	○	-	-	-	-	-	
이직/퇴직 계획 사유		○	○	○	○	-	-	-	-	-	
지난 1년간 휴직 여부		-	-	○	○	-	-	-	-	-	
휴직 사유	-	-	○	○	-	-	-	-	-		
휴직 시기	-	-	○	○	○	-	-	-	-		

〈부표 1-9〉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양육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부모됨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미계획 사유	○	○	○	○	○	○	○	○	-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	○	○	○	○	○	○	○	-
	후속 출산 계획 시기	-	○	○	○	○	○	○	-	-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	○	○	○	○	○	○	○	-
	이상적 자녀의 성별 구성	○	○	○	○	○	○	○	○	-
	후속 출산결정의 주 영향자	-	○	○	○	-	-	-	-	-
임신 및 출산	○○(이)의 임신 계획 여부	○	-	-	-	-	-	-	-	-
	임신 중 기대 성별	○	-	-	-	-	-	-	-	-
	임신 확인 시, 출산 시 기분	○	-	-	-	-	-	-	-	-
	분만 직후 아기 접촉 여부	○	-	-	-	-	-	-	-	-
	임신 시 보조생식술 도움	○	-	-	-	-	-	-	-	-
	분만형태	○	-	-	-	-	-	-	-	-
	임신 중 항생제 복용 여부 및 횟수	-	-	-	-	-	-	○	-	-
	임신 중 흡연 여부	-	-	-	-	-	○	-	-	-
양육관	임신 중 담배 연기 노출 여부	-	-	-	-	-	○	-	-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	○	○	○	-	-	-	-
	양육 신념	○	○	○	-	○	-	-	-	-
	자녀 가치	○	○	○	○	-	○	-	-	-
	자녀의 미래 기대	○	○	○	○	-	○	-	-	-
양육 실제	교육열	-	-	-	-	-	-	-	-	○
	양육 지식	○	○	○	-	-	-	-	-	-
	양육 행동(사회적)	○	○	○	○	-	-	-	-	-
	양육 행동(은정적, 통제적)	-	-	-	○	○	○	○	○	-
	양육 시간	-	-	○	○	○	-	-	-	-
	양육 스트레스	○	○	○	○	○	○	○	○	-
	양육 효능감	-	-	-	-	-	-	○	-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	○	○	-	-	-	-
	양육 분담	-	-	-	-	-	○	○	-	-
	부모공동양육 (가족통합, 훈육, 비난, 갈등)	-	-	-	-	-	-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	-	-	-	-	○	○	○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	-	-	-	-	-	-	○	○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	-	-	-	-	-	○	○
	부모 감독	-	-	-	-	-	-	-	○	○
	부모의 학업 관심도	-	-	-	-	-	-	-	○	○
	○○의 숙제 시 도움 제공자	-	-	-	-	-	-	-	○	○
	○○의 숙제 시 타인 도움 정도	-	-	-	-	-	-	-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정서적)	○	○	○	○	-	○	○	○	○
	사회적 지원 인원	-	-	-	-	-	○	○	○	○

〈부표 1-10〉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가구 구성	가구 구성 형태	○	○	○	○	○	○	○	○	○
	○○(이)와 부모의 동거 여부	-	-	-	-	-	○	○	○	○
	가구원 수	○	○	○	○	○	○	○	○	○
	가구원 수: ○○(이)의 조부 모, 친인척, 기타 가구원	-	-	-	-	-	○	○	○	○
	가구원 수: 자녀	-	-	-	○	○	○	○	○	○
구성원 특성	성별	☆	☆	☆	☆	☆	-	-	○	○
	연령	☆	☆	☆	☆	☆	-	-	-	○
	결혼 상태	☆	-	-	-	-	-	-	○	○
	입양 여부	-	☆	☆	☆	☆	-	-	○	○
	○○(이) 형제자매의 알레 르기 질환력	-	-	-	-	-	○	-	-	-

〈부표 1-11〉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물리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주거 환경	거주 주택 유형	○	○	○	○	-	-	-	○	-
	패널 아동의 개별 방 여부	-	-	-	-	-	-	-	○	○
	습기 여부, 장소별 습기 정도	-	-	-	-	-	○	-	○	○
	곰팡이 여부	-	-	-	-	-	○	○	○	○
	곰팡이 냄새 정도	-	-	-	-	-	○	○	-	-
	집의 연식, 바닥재	-	-	-	-	-	-	-	○	-
	난방 형태, 주방 유형	-	-	-	-	-	-	-	○	-
	리모델링 여부, 종류	-	-	-	-	-	-	-	○	○
	리모델링 시기	-	-	-	-	-	-	-	○	-
생활 환경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사용 형태, 따뜻한 음식 보관 여부	-	-	-	-	-	-	-	○	-
	음료수 용기, 음료의 플라스틱 용기 보관 여부	-	-	-	-	-	-	-	○	-
	환기 시간, 환기 횟수	-	-	-	-	-	-	○	-	-
	공기 청정기 설치 여부 및 장소	-	-	-	-	-	-	○	-	-
	조리시 주 열 공급원, 환풍기 사용	-	-	-	-	-	-	○	-	-
	방향제 또는 디퓨저 사용 여부, 횟수	-	-	-	-	-	-	-	○	○
	가습기 사용 여부	-	-	-	-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기간, 종류	-	-	-	-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빈도, 시간, 투입 횟수	-	-	-	-	-	-	-	-	○
	애완동물 수	-	-	-	-	-	○	-	○	-

〈부표 1-12〉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경제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소득	가구 소득	○	○	○	-	-	○	○	○	○
	취업 모 근로 소득	-	-	-	○	○	○	○	○	○
	희망 근로 소득	-	-	-	○	-	-	-	-	-
	출산 전후 소득 변화 및 이유	-	-	-	○	-	-	-	-	-
	근로(사업) 소득	-	-	-	○	○	-	-	-	-
	이전, 자산, 기타, 공적 소득	-	-	-	○	○	-	-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	○	-	-	-	○	○
지출	가구의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	○	○	○	○	○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	○	○	○	○	○
	○○(이)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	○	-	-	-	-
	○○(이)에 대한 교육/보육 비용 부담	-	-	-	-	-	-	○	-	-
	○○(이)에 대한 교육/보육 비용	-	-	-	-	-	-	○	-	-
	○○(이)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	-	-	-	-	-	-	○	○
	○○(이)에 대한 용돈 지급액	-	-	-	-	-	-	-	○	○
자산 및 부채	부동산	○	○	○	○	○	○	○	○	○
	금융자산	○	○	○	○	○	○	○	○	○
	주택 소유 형태	○	○	○	○	-	-	-	-	-
	추가 주택 소유 여부	○	○	○	○	-	-	-	-	-
	부채 여부	-	-	-	-	-	○	○	○	○
	부채액	○	○	○	○	○	○	○	○	○
	월 상환액	○	○	○	○	○	○	○	○	○

〈부표 1-13〉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가정환경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수용성	-	-	-	○	○	○	○	-	-
아동기 가정환경의 질	가족 통합, 가족 공동체, 강화, 학습자료와 기회, 정서적 환경, 성숙 장려, 반응성, 물리적 환경	-	-	-	-	-	-	-	○	○
가족 생활	가족생활 사건 (비규범적, 규범적)	○	○	○	○	○	-	-	-	-
	가족 상호작용(균형 있는 응집성, 유연성)	-	-	-	-	-	○	○	-	○

(부표 1-13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유해환경 노출	간접 흡연	-	-	-	-	-	○	○	○	○
	위탁 여부	-	○	○	○	-	-	-	-	-
위탁 가구 특성	위탁 가구 동일 여부	-	○	○	○	-	-	-	-	-
	위탁 사유	-	○	○	○	-	-	-	-	-
	위탁 시기	-	-	○	○	-	-	-	-	-

〈부표 1-14〉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육아지원 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용 특성	낮시간 주 양육자		○	○	○	○	○	-	-
	최초 이용한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 시작 시기	○	-	-	-	-	-	-	-
	지난 1년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유형	-	○	○	○	○	○	-	-
	지난 1년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수	-	○	○	○	○	○	○	○
	향후 기관/시설 이용 계획	-	○	○	○	-	-	-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유형	○	○	○	○	○	○	○	○
이용/미이용 이유	서비스 이용 이유	○	○	○	○	○	○	○	
	서비스 미이용 이유	-	○	○	○	○	-	○	
	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	○	○	○	○	○	○	○	

〈부표 1-15〉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대인 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용관련 특성	대리양육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	○	○	○	-	-	-
	이용비용	○	○	○	○	○	-	-
	추가 지원자 이용 비용	-	○	○	○	-	-	-
	이용 비용 부담도	-	○	○	○	○	-	○
	전반적 이용 만족도	○	○	○	○	○	○	-
	대리양육자 동일 여부	-	-	-	○	○	-	-
	대리양육자 변경 이유	-	-	-	○	○	-	-
	이용 이유	○	○	○	○	○	-	-
	이용 경로	○	○	○	○	-	-	-
	이용 시작 시기	○	○	○	○	○	-	-
	이용 빈도, 시간	○	○	○	○	○	○	-
	비용 지불 여부 및 방식	○	○	○	○	○	○	-

(부표 1-15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대리양육자 특성	아동과의 관계	○	○	○	○	○	-	-
	대리양육자 성별, 최종학력	○	○	○	○	○	-	-
	대리양육자의 연령	-	-	-	-	○	-	-
	대리양육자의 결혼상태	○	○	○	○	-	-	-
	대리양육자의 자녀 양육 경험	○	○	○	○	○	-	-
	대리양육자의 국적, 거주지	○	○	○	○	○	-	-
비급여 양육도우미	지원 인력 여부 및 수	-	○	○	○	○	-	-
	지원자의 아동과의 관계	-	○	○	○	○	-	-
	동거 여부, 거주 거리, 시간	-	○	○	○	-	-	-

〈부표 1-16〉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보육/교육 기관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용 특성	이용 여부 및 유형	-	-	-	-	○	-	○
	등/하원 시간	○	○	○	○	○	○	○
	등/하원 동반자, 등/하원 방법	-	-	-	○	○	○	○
	일시보육 이용 여부, 이용 시간, 이용 일	-	-	-	-	-	○	-
	기관 이용 시작 시기	○	○	○	○	○	-	-
	기관 변경 여부, 변경 이유	-	-	-	-	○	-	-
	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	-	-	-	-	○	○
	이용 시간	○	○	○	○	-	○	○
	이용 일, 기관 이용 비용	○	○	○	○	○	○	○
	기관 이용 비용 부담도	-	○	○	○	○	○	○
기관 특성	전반적 이용 만족도	○	○	○	○	○	-	○
	설립 유형, 시설 유형	○	○	○	○	○	○	○
	기관 평가 여부	-	○	○	○	○	○	○
	기관 평가 시기	-	-	-	○	○	○	○
	간식 제공 횟수	-	-	-	○	-	-	-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	-	○	-	-	-	-
	학급 수, 재원 아동 수, 학급 연령 구성	-	-	-	○	○	○	○
	학급 담당 교사 수, 학급 내 아동수	-	-	-	○	○	○	○
	학급 아동 수 적절성	-	-	-	-	-	○	○
	물리적 특성	기관 입지 지역 유형	○	○	○	○	-	-
교실 규모 적절성		-	-	-	-	-	○	○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 인식		-	-	-	-	-	○	○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유무		-	-	-	-	○	○	○
실외 놀이 공간, 아동의 휴식 공간 유무		-	-	-	○	○	○	○
일상생활 공간 규모 적절성	-	-	-	-	-	○	○	

(부표 1-16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교사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자격, 경력	-	-	-	○	○	○	○
	경력 안정성	-	-	-	○	-	-	-
	근무 일(주말), 근무 시간(주중, 주말)	-	-	-	○	○	○	○
	교수 효능감	-	-	-	○	○	○	○
	업무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	-	-	-	-	-	○
	○○(이)의 담임이 된 시기	-	-	-	-	○	○	○
학급 운영	교실 환경	-	-	-	○	○	○	○
	교실 영역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간	-	-	-	○	-	-	-
	표준보육과정 및 유치원교육과정 인지 정도, 실시 여부	-	-	-	○	-	-	-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시간, 횟수	-	-	-	○	-	-	-
	아동과의 상호작용	-	-	-	○	○	○	○
특별 활동	특별활동 이용 여부, 종류, 수	-	-	○	○	○	○	○
	특별활동 이용 횟수, 시간	-	-	-	○	○	○	○
	부모의 선택 가능 여부, 특별활동 만족도	-	-	○	-	-	-	-
	특별활동 강사, 별도 비용 지불 여부	-	-	○	-	-	-	-
	특별활동 비용	-	-	○	○	○	-	-
가정 협력	부모참여 행사(교육) 참여 여부	○	-	-	○	○	○	○
	부모참여 행사(교육)의 주요 내용(순위)	-	-	-	○	-	-	-
	부모의 방문 빈도	-	-	-	○	○	○	○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정도	-	-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	-	-	○	-	-	-
	육아지원기관의 지원 만족도	-	-	-	-	-	-	○
	육아지원기관 선호도, 교사 선호도	-	-	-	-	-	-	○
	부모참여 행사(교육) 장소	○	-	-	-	-	-	-
	부모참여 행사(교육)의 안내 여부, 만족도	-	-	-	○	-	-	-
	부모참여 행사(교육) 실시 횟수, 참석 횟수	-	-	-	○	-	-	○
	참여가 많은 부모참여 행사(교육)	-	-	-	○	-	-	-
	가장 중요한 부모참여 행사(교육) 유형	-	-	-	○	-	-	-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	-	○	-	-	-	

〈부표 1-17〉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보육/교육 기관 외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특별 활동	특별활동 이용 여부, 종류	○	○	○	○	○	○	○
	특별활동 수	-	○	○	○	-	○	○
	특별활동 시간, 이용 횟수	○	○	○	○	○	○	○
	특별활동 이용기간	-	○	○	○	-	-	-
	특별활동 이용 시작 시기	-	-	○	○	○	-	-
	특별활동 진행 방식, 장소, 학습지 이용 여부	-	○	○	○	-	-	-
	학습지 교사 유무, 특별활동 이용 연속성	-	-	○	○	-	-	-
	특별활동 비용	○	○	○	○	○	○	○
	특별활동 만족도	-	-	-	-	-	-	○
	특별활동 이용 이유	-	-	-	-	-	○	-
가정 학습	가정내 영어학습 자료 보유 여부 및 유형	-	-	○	-	-	-	-
	가정내 영어학습 시작 시기	-	-	○	-	-	-	-
	가정내 영어학습 진행 동반자, 시간, 비용	-	-	○	-	-	-	-

〈부표 1-18〉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사교육 및 돌봄 서비스 특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차	9차
사교육	이용 특성	이용 종류	○	○
		이용 시간	○	○
		이용 기관	○	○
		이용 만족도	○	○
		교육 비용	○	○
		비용 부담 정도	○	○
	이용/미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이용 이유 영어 사교육 이유	○	- ○
돌봄 서비스	이용 특성	이용 유형	○	○
		이용 시간	○	○
		이용 빈도	○	○
		이용 비용	○	○
		이용 만족도	○	○

〈부표 1-19〉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공교육 특성

중분류	소분류	8차	9차
이용 특성	학교 진학 여부, 초등학교 대체 이용 기관	○	○
	결석 여부, 결석 이유	○	○
	결석일	○	-
학교 특성	소속 지역, 소속 교육청, 설립 유형	○	○
	1학년 등교 시간	○	-
	무상 급식 여부 및 장소	○	-
	특색사업 해당 여부, 아동 발달에 도움 정도	○	-
물리적 특성	학교장의 지도성, 동료 교사 태도 인식	○	-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	○
	교사 대 아동 비율 인식, 교실 크기 적절성	○	-
	학교 환경	○	○
	특별실 및 기타 시설 구비 여부, 구비 환경 인식	○	-
	리모델링 여부, 리모델링 종류(학교 및 학원)	○	○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교사 경력	○	○
교사 특성	교수 효능감	○	-
	업무 스트레스	○	○
	교직 만족도	○	-
	우울, 편집증, 불안	-	○
	아동에 대한 열정, 수용성, 교직원(소명의식)	-	○
	해당 학년 담임 경력	○	-
	직위	○	-
	근무 시간	○	○
	근무 일(주말)	○	-
	교직 동기	○	-
학급 운영	초등돌봄교실 참여 정도	○	-
	통합학급 학생 여부	○	-
	과제 부과 정도, 과제 소요 예상 시간, 과제량 적절성	○	-
	수업 활동	○	-
유아-초등 연계	교사-아동 관계	-	○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	○	-
	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 필요성	○	-
	유-초 연계 관련 연수 여부	○	-
가정 협력	학기 초 적응활동 도움 정도, 생활기록부 연계의 도움 정도	○	-
	등·하교길 동반 빈도	○	-
	행사 참여 여부	○	○
	행사 참여 빈도	○	-
	부모의 행사 참여 필요성	○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	

〈부표 1-20〉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일반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가구 특성	이사 시기	○	-	○	○	○	○	-	-	-
	이사 여부	-	-	-	-	-	○	-	-	-
	○○(이) 출산 후 이사 횟수	-	-	-	-	-	○	○	○	○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	-	-	-	-	○	○
	거주 지역 유형	○	○	○	○	○	○	○	○	-
	거주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	○	○	○	○	○	○	○	○
	거주 지역 17개 시/도 구분	○	○	○	○	○	○	○	○	○
	거주 지역[시/군/구]	○	○	○	○	○	○	○	○	○
교통과 산업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거리	-	-	-	-	-	-	-	○	○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차선	-	-	-	-	-	-	-	○	○
	도로의 통행량	-	-	-	-	-	-	-	○	-

〈부표 1-21〉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양육환경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교육· 복지· 의료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	○	○	○	○	○	○	-	-
	교육·의료·복지 시설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	-	-	-	-	-	-	○	○
	공공복지시설 접근 편리성	-	-	-	-	-	-	-	○	○
문화· 여가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	○	○	○	○	○	○	○	○
	문화시설 월별 이용 일	-	-	-	-	-	○	○	-	-
	문화시설 접근 이용 만족도	-	-	-	-	-	-	-	○	○
	공공 여가 공간·시설 접근 편리성	○	○	○	○	○	○	○	○	○
	공공 여가공간·시설 월별 이용 일	-	-	-	-	-	○	○	-	-
	공공 여가 공간·시설 접근 이용 만족도	-	-	-	-	-	-	-	○	○
사회 안전	전반적 양육 적절성	○	○	○	○	○	-	-	-	-
	안전사고 측면, 치안 측면 안전성	○	○	○	○	-	○	○	-	-
	양육환경 안전성	-	-	-	-	-	-	-	○	○

〈부표 1-22〉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위탁가구 환경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일반적 특성	이사 시기, 거주 지역 유형	○	○	○	○
	육아지원기관 충분성(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	○	○	○
양육 환경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편리성	○	○	○	○
	치안, 안전사고 안전성	○	○	○	○
	전반적 양육 적절성	○	○	○	○

〈부표 1-23〉 차수별 정책 변인: 국가지원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도움 정도	-	-	-	-	-	○	○	○	-
	보육비 면제(감면) 여부	○	○	○	○	○	○	○	-	-
	보육비 면제(감면) 사유	○	○	○	○	-	-	-	-	-
	농어민 가정 육아비 지원 여부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수혜 여부	-	-	○	○	○	○	○	○	-
수혜	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지원 유형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수혜 비용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추가 지불 비용 여부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	○	○	○	-	-	○	-
	육아지원 정책 개선 방안	○	○	○	○	-	○	-	-	-
	교육/보육기관 지원의 후속출산 의사 영향 여부	-	○	○	○	○	○	-	-	-
정책에 대한 의견	금액 지원 시 후속출산 의사, 지원 적정 금액	-	○	○	○	○	-	-	-	-
	교육/보육 지원 인식 여부	-	-	-	○	○	○	○	-	-
	교육/보육 지원 필요성	-	-	-	-	○	○	○	-	-
	양육지원 정책의 출산 및 양육 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력	-	-	-	○	○	-	○	-	-

〈부표 1-24〉 차수별 정책 변인: 직장 지원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	○	○	○	○	-	○	○	-
시행 및 이용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이용 여부	○	○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이용/미이용 이유, 양육 도움도	-	-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이용 만족도	○	○	○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	○	○	○	○	○	○	-	-
지원에 대한 의견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우선순위	○	○	○	○	○	○	○	○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	-	-	-	-	-	○	○
	국가 및 직장 지원이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부록 2. 가중치 작성⁷⁾ 및 추정

가.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아동패널은 의료기관을 집락으로 사용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표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설계 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보정,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보정의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특히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국아동패널과 같은 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조사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보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 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보정 및 사후층화 보정 과정을 통해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및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제공해 왔다.

나. 8차년도 가중치 보정

1) 한국아동패널 응답패턴 분석

패널 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 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패널 가구의 응답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였다.⁸⁾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차년도(2008년)부터 8차년도(2015년)까지의 조사 참여

7)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가중치 부여 방법은 매해 조사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됨.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시 설계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설계 가중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 외, 2009)를 참고할 것.

8)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구체적인 패널 가구의 응답 패턴 및 표본 마모 현황은 '한국아동패널 2015(이정림 외, 2015)'를 참고할 것.

분포는 <부록 2-1>과 같다. 우선 1차년도 원패널⁹⁾ 2,078가구 중에서 1차 ~ 8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는 1,367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65.8%로 전년대비 2.3%p 하락하였다. 2차 및 3차 조사에 신규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패널¹⁰⁾ 2,1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표본 유지율은 63.6%이다.

<부표 2-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참여 여부								가구 수	비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조사 성공	○	○	○	○	○	○	○	○	1,367	63.6
원패널										
8차년도 탈락	○	○	○	○	○	○	○	X	49	2.3
7차년도 탈락	○	○	○	○	○	○	X	X	35	1.6
6차년도 탈락	○	○	○	○	○	X	X	X	55	2.6
5차년도 탈락	○	○	○	○	X	X	X	X	45	2.1
4차년도 탈락	○	○	○	X	X	X	X	X	51	2.4
3차년도 탈락	○	○	X	X	X	X	X	X	92	4.3
2차년도 탈락	○	X	X	X	X	X	X	X	136	6.3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	○	25	1.2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	○	11	0.5
기타; 8차년도 성공	※	※	※	※	※	※	※	○	195	9.1
기타; 8차년도 탈락	※	※	※	※	※	※	※	X	89	4.1
계	-	-	-						2,150	100.0

주: 1) '○'는 해당 차수에 참여, 'X'는 해당 차수에 비참여, '-'는 해당 차수에는 표본에 속하지 않았음을, '※'는 단조 결측 패널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2) 8차년도 조사 성공가구는 1,598가구임.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2,150가구 중 552가구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패널 가구 중 1차부터 7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참여하였으나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49가구, 7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35가구, 6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5가구, 5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45가구, 4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1가구, 3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92가구, 1차년도에만 참여하고 2차년도 이후 조사에는 계속 참여하지 않은 136가구였고, 그 밖에 단조 결

9) 원패널: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원패널로 정의함.

10) 전체패널: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1차(2008년)부터 3차(2010년)까지 한번이라도 조사에 참여한 총 2,150가구를 전체패널로 정의함.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예비 표본의 패널 합류를 3차(2010)년도 조사까지 허용하였음. 이에 따라 1차년도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2009년), 3차년도(2010년) 조사에 각각 52가구, 20가구가 한국아동패널에 신규로 합류함.

측 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¹¹⁾에 해당하지 않는 8차년도 무응답 가구가 89가구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패널을 기준으로 보면 8차년도 패널 응답률은 74.3%이며 이는 7차년도 패널 응답률 75.3%보다 1%p 낮아진 수치이다.

2)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8차 참여 패널인 1,598가구가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가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출 과정은 우선 무응답에 따른 편향을 줄이고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패널 중 8차년도 무응답 552가구에 따른 무응답 가중치를 보정하였다. 무응답 보정은 기존의 7차년도까지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후 모집단 변동에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7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5년 주민등록인구(만 7세 기준) 자료를 벤치마킹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과정을 통해 최종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2015년도에 수집한 한국어동패널의 8차년도 가중치 산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8차년도 패널 가구의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가중치 보정은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어머니 특성을 고려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구성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에 따라 보정을 실시하였다. 가구/어머니 특성에 따른 응답률 분석을 위해 8차년도 조사 응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사 변수들 중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서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합 시켰다.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조사 참여 및 응답 여부와 별개로 전체 패널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각 패널 가구별 정보는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8차년도 횡단면 자료의 무응답 보정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부록 2-2>와 같다. 유의수준 10%에서 출생순서와 지역(권역)은 7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무응답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p <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와 달리 어머니의

11) 단조 결측 패턴이란 패널참여 시점부터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다가 특정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함.

취업여부 변수는 무응답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응답 가중치 보정 과정이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7차년도와 동일하게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서, 지역(권역) 변수를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였다. 참고로 종단면자료의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변수가 무응답패턴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조정 계급은 거주지(권역)를 나타내는 6개 범주(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출생 순서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취업/학업, 미취업)를 기준으로 총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 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 내의 응답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표 2-2〉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구분	자유도	Wald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p-value)
출생순서	1	3.0576	0.0804
모취업여부	1	0.0063	0.9368
지역(권역)	5	13.7911	0.0170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후, 통계청의 2015년 주민등록 인구 자료에서 15개 시·도별¹²⁾ 만 7세 남·여 아동 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5년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했다. 사후층화과정에서 일부 극단적으로 크게 산출된 가중치를 적정수준에서 절사하기 위해 가중치의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구하여 $Q_3 + 3IQR$ 을 넘는 수치를 극단(outlier) 가중치로 간주하여 절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단(outlier) 가중치가 포함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들을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5년 한국아동패널 횡단면 가중

12) 세종시는 충청남도로, 제주도는 전라남도로 병합하여 계산함.

치의 기술통계는 <부록 2-3>과 같다.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293.21, 중위수는 242.36, 표준편차는 161.68, 최솟값은 30.35, 최댓값은 794.57로 나타났다.

〈부표 2-3〉 8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사례별 가중치	293.21	242.36	161.68	1598	30.35	794.57

3)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패널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을 위한 횡단면 분석과 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 분석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가중치를 자료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을 위해 우선 원표본 가구로부터 8차년도까지 무응답 패턴을 분석해 응답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 계급을 설정하였다. 8차년도의 종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과 유사한 무응답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2008년부터 8개년도에 모두 참여한 가구에만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과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 연도별 응답가구 패턴 분석 결과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이 단조 결측 패턴을 보이지 않았기에 횡단면 가중치 및 종단면 가중치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횡단면 자료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무응답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2-4>와 같다. 분석 결과 출생순서, 모취업여부, 지역(권역)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10%기준)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7차년도에 적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했다.

〈부표 2-4〉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구분	자유도	Wald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p-value)
출생순서	1	3.4167	0.0645
모취업여부	1	308.0906	<.0001
지역(권역)	5	46.5165	<.0001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계급은 횡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 순서를 나타내는 2개 범주,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장 응답률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보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했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도 1차년도(2008년) 이후 발생한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주민등록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사후층화 형식의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에 대한 사후층화과정에서도 횡단면 가중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 극단 가중치를 절사 처리하였다.

서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1~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종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부록 2-5>와 같다.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342.75, 중위수는 270.22, 표준편차는 209.52, 최솟값은 39.70, 최댓값은 956.24로 나타났다.

<부표 2-5>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사례별 가중치	342.75	270.22	209.52	1367	39.70	956.24

다. 모수추정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또는 비율)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_{\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여기서 h 는 지역층, i 는 층내 의료기관, j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참고로 한국아동패널 분석용 자료에는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와 3차년도 자료부터는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위한 가중치도 제공하고 있다.¹³⁾ 따라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면 분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조사가 완료된 2,078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자료에 대한 횡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각각 적용해 분석해야한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한 1,367가구에 대한 종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와 함께 제공된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13) 1~3차년도 종단 가중치는 2015년 공개 데이터부터 제공함.

부록 3. 9차년도(2016) 조사 안내문



한국아동패널 2016년도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조사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6년 7월 초부터 한국아동 패널 9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조사는 귀 닥의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시점부터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귀 닥을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방문에 앞서 우송해 드린 '어머니 질문지'와 '아버지 질문지'는 미리 작성하셔서 면접원이 방문할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조사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조사 참여 사례금 3만원을 드립니다. 아동에게도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 조사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동패널 핫라인(010-9104-2704 :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가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7월 초부터 진행되는 '2015년 한국아동패널'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panel.kicce.re.kr/> 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한국아동패널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f08080;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f08080;">연구기관</div> <p>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398-7794, 7790 FAX) 02-730-3317</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f08080;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f08080;">조사기관</div> <p>(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3488-2783 핫라인) 010-9104-2704</p>
--	--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부록 4. 9차년도(2016) IRB 승인 통지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3층, 4층(137-865)
Tel. 02-398-7737, 7788 Email. kar22@kicce.re.kr

심 의 일 자 2016. 05. 9.
과 제 번 호 220996-160429-HR-002

의 리 하 신 다음 의 연 구 가 본 연 구 소 IRB 의 심 의 를 거 쳐
승 인 되 었 음 을 알 려 드 립 니 다 .

연 구 제 목 한국 아동 성장발달 중단 연구(한국아동패널 II):
한국아동패널 2016
연 구 책 임 자 김은설
연 구 승 인 일 2016. 07. 10.
연 구 승 인 기 간 2016. 07. 10. ~ 2016. 12. 31.
연 구 승 인 번 호 KICCEIRB-2016-제07호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장

부록 5. 8차년도(2015) 질문지

가. 어머니대상 질문지

ID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외 패널 아동을 주로 돌보시는 주 양육자께서 응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 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39,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 비공개 -
질문지 작성일 [E15int03]	_____ 월 _____ 일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E15int01]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Mt15brp04]

- ① 무자녀
- ② 1명 ⇨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 ⇨
- ⑥ 5명 이상 ⇨
- ⑦ 잘 모르겠음

3-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Mt15brp05]

- ① 딸·아들 구분 없이
- ② 딸·아들 구분해서 (딸 [Mt15brp07] 명, 아들 [Mt15brp06] 명)
-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 ④ 잘 모르겠음

다음은 귀하의 자녀(때닐 아동 - 이하 ○○)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다음의 문장을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1) 무슨 일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Ch15exf01]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Ch15exf02]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Ch15exf03]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Ch15exf04]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Ch15exf05]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Ch15exf06]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Ch15exf07]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Ch15exf08]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Ch15exf09]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Ch15exf10]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Ch15exf11]
12)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Ch15exf12]

문 항 내 용	① 전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Ch15exf13]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Ch15exf14]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Ch15exf15]
16)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Ch15exf16]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Ch15exf17]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Ch15exf18]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Ch15exf19]
20)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Ch15exf20]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Ch15exf21]
22)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Ch15exf22]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Ch15exf23]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Ch15exf24]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Ch15exf25]
26) 자주 울컥한다.	[Ch15exf26]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Ch15exf27]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Ch15exf28]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	[Ch15exf29]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Ch15exf30]
31)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Ch15exf31]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Ch15exf32]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Ch15exf33]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Ch15exf34]
35)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Ch15exf35]
36) 잘 잊어버린다.	[Ch15exf36]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Ch15exf37]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Ch15exf38]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Ch15exf39]
40)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Ch15exf40]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 아동 - 이하 ○○)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Mt15prs01]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Mt15prs02]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Mt15prs03]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Mt15prs04]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Mt15prs05]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Mt15prs06]
7)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Mt15prs07]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Mt15prs08]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Mt15prs09]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Mt15prs10]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Mt15prs11]

6.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Mt15scrs18]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Mt15scrs19]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Mt15scrs20]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Mt15scrs21]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Mt15scrs22]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Mt15scrs23]
7)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Mt15scrs10]
8)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Mt15scrs11]
9)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Mt15scrs12]

문항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Mt15crs13]
11)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Mt15crs14]
12)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Mt15crs15]

7. 지난 몇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아래의 질문을 읽고 얼마나 자주(많이) 그러한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나는 나와 남편, 아이가 함께 있을 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그렇다
1)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Mt15crs35]
2) 남편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Mt15crs36]
3)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Mt15crs37]
4) 아이에게 남편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Mt15crs38]
5) 남편과 아이가 다정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도와준다. 예) 아빠랑 같이 놀래?	[Mt15crs39]
6)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남편보다는 내가 한다.	[Mt15crs40]
7)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해야 할 때 남편이 하도록 요청한다.	[Mt15crs41]
8) 남편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	[Mt15crs42]
9) 남편이 아이를 훈육할 때 처벌을 못하게 하거나 반대하거나, 남편의 훈육을 제한한다.	[Mt15crs43]
10) 남편과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Mt15crs44]
11) 남편과 언쟁(말싸움)을 한다.	[Mt15crs45]
나는 아이와 있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 없는 상황임)	
12) 아이에게 부모에 대해 함께 짝을 지어 말하거나(엄마아빠가~), 하나의 가족단위(우리 가족이~)로 합쳐 말한다.	[Mt15crs46]
13) 남편이 없을 때, 아이가 남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 예) 아빠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Mt15crs47]
14)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언급하거나 상황에 포함 시킨다. 예) 아빠가 곧 오실거야.	[Mt15crs48]

나는 나와 남편, 아이가 함께 있을 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그렇다
15) 아이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한다. 예) 그거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Mt15crs49]
16) 자녀에게 남편에 관한 나쁜 이야기나 남편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Mt15crs50]

8. 다음은 ○○(이)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활동하시는 정도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2번 ③ 3~6번 ④ 매일함
1)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Mt15crs27]
2)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Mt15crs28]
3) 아이가 미술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Mt15crs29]
4)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한다.	[Mt15crs30]
5)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Mt15crs31]
6)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 놀이를 한다.	[Mt15crs32]
7) 아이와 함께 무엇을 만들거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Mt15crs33]
8)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Mt15crs34]
9) 아이와 읽기, 쓰기과 숫자를 익힌다.	[Mt15crs51]
10)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Mt15crs26]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9. 다음 내용을 읽고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매우 비교적 보통 비교적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Mt15mrs01]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Mt15mrs02]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Mt15mrs03]
4)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Mt15mrs04]

10.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문항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Mt15mrc01]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Mt15mrc02]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Mt15mrc03]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Mt15mrc04]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Mt15mrc05]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Mt15mrc06]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Mt15mrc07]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Mt15mrc08]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문항내용	① 전혀 안느낌	② 별로 안느낌	③ 중중 느낌	④ 대체로 느낌	⑤ 항상 느낌
	—————▶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십니까?	[Mt15dpr13]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십니까?	[Mt15dpr14]				
3) 지난 30일 동안 안정부절 못하십니까?	[Mt15dpr15]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십니까?	[Mt15dpr16]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Mt15dpr17]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Mt15dpr18]				

12.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Mt15sfs01]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Mt15sfs02]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Mt15sfs03]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Mt15sfs04]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Mt15sfs05]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Mt15sfs06]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Mt15sfs07]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Mt15sfs08]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Mt15sfs09]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Mt15sfs10]

13.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항 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전반적으로 나는 ... [Mt15shs01]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	→	보통 이다	→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Mt15shs02]	매우 행복하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 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 는 ... [Mt15shs03]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Mt15shs04]	매우 그렇다	→	→	보통 이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Mt15prs12]

- 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 ②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음
- ③ 약간 스트레스 받음
-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15.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Mt15shs12]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16.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Mt15hlt49]

-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귀하의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Mt15drn02]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20번 문항으로

18.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Mt15drn03]

- ① 1잔 또는 2잔 ② 3잔 또는 4잔 ③ 5잔 또는 6잔
④ 7잔에서 9잔 ⑤ 10잔 또는 그 이상

19. 한 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Mt15drn04]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20. 귀하의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Mt15smk05]

- ⑨ 피우지 않음 ⑩ 10개비 미만 ① 11~20개비 ② 21~30개비 ③ 31개비 이상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Hu15cmm03]

- ① 주택지역 ② 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산어촌지역 ⑥ 기타 [Hu15cmm04]

22.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시설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 13) 공공복지시설: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함.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수련시설도 포함됨.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약간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1) 놀이터	[Hu15cmm09a]	[Hu15cmm22a]
2) 공원	[Hu15cmm09b]	[Hu15cmm22b]
3) 산책로	[Hu15cmm09c]	[Hu15cmm22c]
4) 영화관	[Hu15cmm10d]	[Hu15cmm23d]
5) 관람 및 체험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등)	[Hu15cmm10g]	[Hu15cmm23g]
6) 공연시설(문예회관, 음악회, 연극 등)	[Hu15cmm10c]	[Hu15cmm23c]
7)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Hu15cmm09d]	[Hu15cmm22d]
8)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Hu15cmm10f]	[Hu15cmm23f]
9)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Hu15cmm09e]	[Hu15cmm22e]
10) 실외 체육시설(농구장, 축구장 등)	[Hu15cmm09f]	[Hu15cmm22f]
11)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	[Hu15cmm21a]	[Hu15cmm24a]
12) 교육기관(학원, 대학교 등)	[Hu15cmm21b]	[Hu15cmm24b]
13) 공공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Hu15cmm21c]	[Hu15cmm24c]

23.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Hu15cmm25]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Hu15cmm26]
3) 유해시설(유형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Hu15cmm27]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Hu15cmm28]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Hu15cmm29]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Hu15cmm30]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Hu15cmm31]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Hu15cmm32]

나. 아버지대상 질문지

ID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도) 아버지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본 질문지의 응답은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대상 질문지를 응답하셨을 경우, 본 질문지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39,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 비공개 -
질문지 작성일 [F15int03]	_____월 _____일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F15int01]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Ft15brp04]

- ① 무자녀
- ② 1명 ⇒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 ⇒
- ⑥ 5명 이상 ⇒
- ⑦ 잘 모르겠음

1-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Ft15brp05]

- ① 딸·아들 구분 없이
- ② 딸·아들 구분해서 (딸 [Ft15brp07]명, 아들 [Ft15brp06]명)
-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 ④ 잘 모르겠음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다음 내용을 읽고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Ft15mrs01]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Ft15mrs02]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Ft15mrs03]			
4)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Ft15mrs04]			

3.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Ft15mrc01]				
2) 아내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Ft15mrc02]				
3) 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Ft15mrc03]				
4)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Ft15mrc04]				

문항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Ft15mrc05]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Ft15mrc06]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Ft15mrc07]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Ft15mrc08]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 아동 - 이하 ○○)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항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Ft15prs01]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Ft15prs02]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Ft15prs03]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Ft15prs04]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Ft15prs05]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Ft15prs06]				
7)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Ft15prs07]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Ft15prs08]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Ft15prs09]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Ft15prs10]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Ft15prs11]				

5.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Ft15crs18]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Ft15crs19]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Ft15crs20]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Ft15crs21]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Ft15crs22]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Ft15crs23]
7)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Ft15crs10]
8)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Ft15crs11]
9)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Ft15crs12]
1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Ft15crs13]
11)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Ft15crs14]
12)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Ft15crs15]

6. 지난 몇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아래의 질문을 읽고 얼마나 자주(많이) 그러한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나는 나와 아내, 아이가 함께 있을 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그렇다
1)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Ft15crs35]
2) 아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Ft15crs36]
3) 아내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Ft15crs37]
4) 아이에게 아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Ft15crs38]
5) 아내와 아이가 다정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도와준다. 예) 엄마한테도 보여줘.	[Ft15crs39]
6)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아내보다는 내가 한다.	[Ft15crs40]
7)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해야 할 때 아내가 하도록 요청한다.	[Ft15crs41]

나는 나와 아내, 아이가 함께 있을 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그렇다
8) 아내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	[Ft15crs42]
9) 아내가 아이를 훈육할 때 처벌을 못하게 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내의 훈육을 제한한다.	[Ft15crs43]
10)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Ft15crs44]
11) 아내와 언쟁(말싸움)을 한다.	[Ft15crs45]
나는 아이와 있을 때... (아내는 그 자리에 없는 상황임)	
12) 아이에게 부모에 대해 함께 짝을 지어 말하거나(엄마아빠가~), 하나의 가족 단위(우리 가족이~)로 합쳐 말한다.	[Ft15crs46]
13) 아내가 없을 때, 아이가 아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 예)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하신단다.	[Ft15crs47]
14)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언급하거나 상황에 포함 시킨다. 예) 엄마 오시면 보여드리자.	[Ft15crs48]
15) 아이가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한다. 예) 그거 하면 엄마가 싫어할걸.	[Ft15crs49]
16) 자녀에게 아내에 관한 나쁜 이야기나 아내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Ft15crs50]

7. 다음은 ○○(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활동하시는 정도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2번 ③ 3~6번 ④ 매일함
1)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Ft15crs27]
2)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Ft15crs28]
3) 아이가 미술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t15crs29]
4)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한다.	[Ft15crs30]
5)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Ft15crs31]
6)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 놀이를 한다.	[Ft15crs32]
7) 아이와 함께 무엇을 만들거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Ft15crs33]
8)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Ft15crs34]
9) 아이와 읽기, 쓰기와 숫자를 익힌다.	[Ft15crs51]
10)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Ft15crs26]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안느낌	별로 안느낌	증증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Ft15dpr13]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Ft15dpr14]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Ft15dpr15]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Ft15dpr16]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Ft15dpr17]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Ft15dpr18]		

9.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Ft15sfs01]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Ft15sfs02]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Ft15sfs03]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Ft15sfs04]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Ft15sfs05]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Ft15sfs06]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Ft15sfs07]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Ft15sfs08]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Ft15sfs09]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Ft15sfs10]	

16. 한 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17.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Ft15smk05]
 ⑨ 피우지 않음
 ⑩ 10개비 미만 ① 11~20개비 ② 21~30개비 ③ 31개비 이상

다음은 귀하의 취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8. 귀하는 현재 취업 중 이십니까? [Ft15jcg03]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19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21번 문항으로**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19번 문항으로**
 ④ 아니요 ⇒ **21번 문항으로**
19.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14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Ft15jce24]
 ① 2014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1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 **19-1번 문항으로**
 ③ 예, 2014년과 동일함 ⇒ **20번 문항으로**

[Ft15jce18]	생성. "부" 직업종류: 대분류
[Ft15jce19]	생성. "부" 직업종류: 중분류
[Ft15jce20]	생성. "부" 직업종류: 소분류

- 19-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비공개 -)
- 19-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비공개 -)

19-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한식·양식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 주로 하는 일: (- 비공개 -).

19-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 직장(사업체) 내 직위: (- 비공개 -)

19-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Ft15jce21]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20.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문장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Ft15wfb01]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Ft15wfb02]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Ft15wfb03]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복돋아준다.	[Ft15wfb04]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Ft15wfb05]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Ft15wfb06]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Ft15wfb07]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Ft15wfb08]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 적이 있다.	[Ft15wfb09]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Ft15wfb10]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Ft15wfb11]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 적이 있다.	[Ft15wfb12]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Ft15wfb13]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난 적이 있다.	[Ft15wfb14]
15) 일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상충하는 역할을 양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Ft15wfb15]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Ft15wfb16]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Ft15wfb17]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Ft15wfb18]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Ft15wfb19]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Ft15wfb20]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Ft15wfb21]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Ft15wfb22]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Ft15wfb23]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Ft15wfb24]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Ft15wfb25]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Ft15wfb26]

21. 다음은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귀하의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21-1. 시행 여부	21-2. 이용 여부 21-1번 ①응답자만 응답	21-3. 도움 정도 21-2번 ①응답자만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용 대상 아님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1) 여성의 육아휴직	[Ft15sss07b]	[Ft15sss08d]	[Ft15sss10d]
2) 남성의 육아휴직	[Ft15sss07d]	[Ft15sss08d]	[Ft15sss10d]

구 분	21-1. 시행 여부	21-2. 이용 여부 21-1번 ①응답자만 응답	21-3. 도움 정도 21-2번 ①응답자만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용 대상 아님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3) 가족돌봄휴직	[Ft15sss07k]	[Ft15sss08k]	[Ft15sss10k]
4)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 근무제, 시간제 근무, 정시퇴근, 스마트워크 등)	[Ft15sss07i]	[Ft15sss08i]	[Ft15sss10i]
5) 대체인력풀 운영	[Ft15sss07j]	[Ft15sss08j]	[Ft15sss10j]
6)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직장교육 등)	[Ft15sss07l]	[Ft15sss08l]	[Ft15sss10l]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21-4. 다음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귀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Ft15sss11] 2순위: [Ft15sss12] 3순위: [Ft15sss13]

1) 여성의 출산휴가	7) 수유실 설치
2) 여성의 육아휴직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3) 남성의 출산휴가	9)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정시퇴근, 스마트워크 등)
4) 남성의 육아휴직	10) 대체인력풀 운영
5) 직장 어린이집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보육비 지원	12) 가족돌봄휴직
9) 스마트워크란? 영상회의 등 ICT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	
10) 대체인력풀이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12) 가족돌봄휴직이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이) 어머니의 결혼상태 [Mt15dmg03]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 본조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부, 모가 아니라 호적상의 부, 모에 대한 설문임(재혼한 경우 현재 호적상 부모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함)

1-2. 어머니의 현재 결혼일 : ()년 ()월에 (Q1-1 구현)함 - 비공개 -

[Hu15dmg04] 생성. "부모" 현 결혼상태 유지기간()개월

1-3.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년 ()월 ()일 - 비공개 -

[Mt15dmg06] 생성. "모" 연령[만 ()세]

1-4. 어머니의 최종학력 [Mt15dmg14]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1-5. 어머니의 1·2급 장애 유무 [Mt15hlt19]

-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1-6. 어머니와 ○○(이)의 (주 4일 이상) 동거 여부 [Mt15dmg29]

-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1-7번 문항으로

1-7. 어머니와 ○○(이)의 비동거 이유 [Mt15dmg12]

- ① 어머니가 타지역(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③ 어머니가 장기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Mt15dmg18])

2-1. ○○(이) 아버지의 현재 결혼상태 [Ft15dmg03]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2-2. 아버지의 현재 결혼일 : ()년 ()월에 (Q2-1 구현)함. - 비공개 -

2-3.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년 ()월 ()일 - 비공개 -

[Ft15dmg06] 생성. "부" 연령[만 ()세]

2-4. 아버지의 최종학력 [Ft15dmg14]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2-5. 아버지의 1·2급 장애 유무 [Ft15hlt19]

-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2-6. 아버지와 ○○(이)의 (주 4일 이상) 동거 여부 [Ft15dmg29]

-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2-7번 문항으로

2-7. 아버지와 ○○(이)의 비동거 이유 [Ft15dmg12]

- ① 아버지가 타지역(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복무
 ③ 아버지가 장기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Ft15dmg18)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Mt15jcg03]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단,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3-1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4번 문항으로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3-1번 문항으로
 ④ 미취업/미학업 ⇒ 3-2번 문항으로

3-1.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번 문항으로 [Mt15jcg04]

- ①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② 생계를 위해
 ③ 교육·양육비를 벌기 위해
 ④ 돈을 모아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여유 자금)
 ⑤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가사부담, 고부갈등, 양육 등의 이유로)
 ⑥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⑦ 가족이나 지인이 원해서
 ⑧ 기타

3-2. 일 또는 학업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번 문항으로 [Mt15jcg11]

- ①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건강상의 이유로
- ③ 임신 또는 출산으로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⑤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⑥ 일의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 ⑦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 ⑧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 ⑨ 가족이나 지인이 원하지 않아서 ⑩ 기타

4. 현재 근무상태와 관계없이, 귀하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Mt15jcg08]

- ① 시간제 근로 ⇒ 4-1번 문항으로
- ② 전일제 근로 ③ 일할 계획 없음

▶ Q3에 ①, ③ 응답자 중 Q4의 ① 응답자는 Go Q4-1, Q4의 ②, ③ 응답자는 Go Q5

▶ Q3에 ②, ④ 응답자는 Go Q10

4-1. 시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Mt15jcg09]

- ① 아이를 돌보기 위해 ② 가사 때문에
- ③ 다른 일(직장,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④ 건강상 이유로
- ⑤ 유학, 시험, 개인사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 ⑥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⑦ 기타

▶ Q3에 ①, ③ 응답자는 Go Q5이고, ②, ④ 응답자는 Go Q10

5.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Mt15jce12]

- ① 재직 중 ② 휴직 중

▶ 종단 데이터에 [② 학업 중, ④ 미취업/미학업] 응답자가 Q3에 ①, ③으로 응답 시, Go Q5-2, 종단 데이터에 [① 취업 중, ③ 취업/학업 병행 중. 공란] 응답자가 Q3에 ①, ③으로 응답 시, Go Q5-1

5-1. 귀하의 현재 직업은 지난 조사 이후 직장 또는 주 업무의 변동이 있습니까?

[Mt15jce24]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지난 조사 시 응답 : 직장명(), 주 업무()

- ① 아니오(변동 없음) ⇒ 5-6번 문항으로
- ② 직장이 바뀜 ⇒ 5-2번 문항으로
-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주 업무가 바뀜(전근, 부서, 직위 변경 포함)
⇒ 5-4번 문항으로
- ④ 지난 조사 시, 미취업/미학업이었음 ⇒ 5-2번 문항으로

5-2.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직장(사업체)명: (- 비공개 -)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5-3.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비공개 -)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 기입

5-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주로 하는 일: (- 비공개 -)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양식조리·서빙 등 /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5-5.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직장(사업체) 내 직위: (- 비공개 -)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Mt15jce18]	생성. "모" 직업종류: 대분류
[Mt15jce19]	생성. "모" 직업종류: 중분류
[Mt15jce20]	생성. "모" 직업종류: 소분류

5-6.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Mt15jce21]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 Q5에 ② 응답 시, Go Q7

6. 귀하는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6-1. 근무 일수	1) 주중(월~금) ([Mt15jce36a])일 근무 2) 주말(토, 일) ([Mt15jce36b])일 근무
6-2. 근무 시간	1) 주중(월~금) 1일 평균 ([Mt15jce25a])시간 근무 2) 주말(토, 일) 1일 평균 ([Mt15jce25b])시간 근무
6-3. 왕복 출퇴근 시간	1) 주중(월~금) 1일 평균 왕복 ([Mt15jce26a]) 소요 2) 주말(토, 일) 1일 평균 왕복 ([Mt15jce26b]) 소요

7.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Mt15jce11]

-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약간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다음은 귀하의 일과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문장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Mt15wfb01]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Mt15wfb02]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Mt15wfb03]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Mt15wfb04]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Mt15wfb05]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Mt15wfb06]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Mt15wfb07]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Mt15wfb08]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 적이 있다.					[Mt15wfb09]

문 항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Mt15wfb10]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Mt15wfb11]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 적이 있다.		[Mt15wfb12]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Mt15wfb13]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난 적이 있다.		[Mt15wfb14]			
15) 일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상충하는 역할을 양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Mt15wfb15]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Mt15wfb16]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Mt15wfb17]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Mt15wfb18]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Mt15wfb19]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Mt15wfb20]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Mt15wfb21]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Mt15wfb22]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Mt15wfb23]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Mt15wfb24]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Mt15wfb25]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Mt15wfb26]			

9.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카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	9-1. 시행 여부	9-2. 이용 여부	9-3. 도움 정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용대상 아님
1) 여성의 육아휴직	[Mt15sss07b]	[Mt15sss08b]	[Mt15sss10b]
2) 남성의 육아휴직	[Mt15sss07d]		
3) 가족돌봄휴직	[Mt15sss07k]	[Mt15sss08k]	[Mt15sss10k]
4)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정시퇴근, 스마트워크 등)	[Mt15sss07i]	[Mt15sss08i]	[Mt15sss10i]
5) 대체인력풀 운영	[Mt15sss07j]	[Mt15sss08j]	[Mt15sss10j]
6)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직장교육 등)	[Mt15sss07l]	[Mt15sss08l]	[Mt15sss10l]

- ▶ Q9-1 ② 응답 시, GO Q10 (Q9-2는 Q9-1 ①응답자만 구현)
- ▶ Q9-2 ②,③ 응답 시, GO Q10 (Q9-3은 Q9-2 ①응답자만 구현)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보기카드를 참조해 주세요

1) 여성의 출산휴가	7) 수유실 설치
2) 여성의 육아휴직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3) 남성의 출산휴가	9)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정시퇴근, 스마트워크 등)
4) 남성의 육아휴직	10) 대체인력풀 운영
5) 직장 어린이집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보육비 지원	12) 가족돌봄휴직

10. 위의 12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귀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중요도에 따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Mt15sss11] 2순위: [Mt15sss12] 3순위: [Mt15sss13]

11. 귀하는 위에 제시된 국가와 근로 장소에서의 육아 지원 정책이 우리사회 전반의 출산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Mt15sss30]**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영향을 미침 ⑤ 매우 영향을 미침

다음은 귀댁에 함께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Mt15scs01]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Mt15scs02]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Mt15scs03]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Mt15scs04]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Mt15scs05]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Mt15scs06]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Mt15scs07]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Mt15scs08]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Mt15scs09]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Mt15scs10]
11) 서로 집안 길흉사에 방문한다.	[Mt15scs11]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Mt15scs12]
13) 자녀양육 또는 돌봄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Mt15scs14]

12-1. 귀하에게 앞 문항에서와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 ○○(이)의 친가 식구	2) ○○(이)의 외가 식구	3) 응답자의 친구 및 동료	4) 응답자의 이웃
([Mt15scs13a])명	([Mt15scs13b])명	([Mt15scs13c])명	([Mt15scs13d])명

다음은 패닐아동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이)는 올해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였습니까? [Ch15scl01]

- ① 예, 올해 입학하였음 ⇒ 14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작년에 입학하였음 ⇒ 14번 문항으로
- ③ 아니오, 입학하지 않았음 ⇒ 13-1번 문항으로

13-1.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비공개 - ⇒ 13-2번 문항으로

13-2. ○○(이)가 초등학교 대신에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 17번 문항으로 [Ch15chg08]

- ① 이용하지 않음 ② 유치원, 어린이집
- ③ 학원 ④ 홈스쿨링 ⑤ 기타(_____)

14. ○○(이/*)가 다니는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Ch15scm01]

- ① 국·공립초등학교 ② 사립초등학교
- ③ 국제초등학교 ④ 초등대안학교 ⑤ 기타([Ch15scm02])

15. ○○(이)가 지난 학기 동안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Ch15scl12]

- ① 있음 ⇒ 15-1번 문항으로 ② 없음 ⇒ 16번 문항으로

15-1. ○○(이)가 결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가족행사/여행으로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도 포함

- [Ch15scl12a] ① 사고로 몸을 다쳐서 [Ch15scl13a])일
- [Ch15scl12b] ②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Ch15scl13b])일
- [Ch15scl12c] ③ 가족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Ch15scl13c])일
- [Ch15scl12d] ④ 가기 싫어서 또는 별 이유 없이 [Ch15scl13d])일
- [Ch15scl12e] ⑤ 기타 ([Ch15scl15]) [Ch15scl13e])일

16. ○○(이)가 초등학교에서 적응을 잘 합니까? [Ch15scl14]

- ① 전혀 적응하지 못함 ② 적응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 ④ 적응을 잘 하는 편임 ⑤ 매우 적응을 잘함

24. ○○(이)의 학기 중 가장 일상적인 하루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방학 중에 하는 조사일 경우, 학기 중 일상적 하루를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시간 환산 예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활동 내용	24-1. 주중
	24-2. 주말
1) 수면시간(밤)	(Ch15slp24a)시간 (Ch15slp24b)시간
2)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등학교 시간, 교내 방과후 교실 포함)	(Ch15dsc01a)시간 (Ch15dsc01b)시간
3)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시간 (학원,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 문화센터,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Ch15dsc02a)시간 (Ch15dsc02b)시간
4) 학교,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숙제를 하는 시간	(Ch15dsc03a)시간 (Ch15dsc03b)시간
5) 책 읽는 시간	(Ch15dsc04a)시간 (Ch15dsc04b)시간
6) TV 시청 시간	(Ch15dsc05a)시간 (Ch15dsc05b)시간
7) 미디어기기 사용시간(인터넷, 게임기, 휴대폰, 태블릿PC 등)	(Ch15dsc06a)시간 (Ch15dsc06b)시간
8) 장난감 놀이, 자유롭게 어슬렁거리기 등의 실내 활동	(Ch15dsc07a)시간 (Ch15dsc07b)시간
9)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놀이터 등 교육비 지출이 없는 활동)	(Ch15dsc08a)시간 (Ch15dsc08b)시간
10) 가족이나 또래와 함께 하는 외출(친구/친척 집 방문 포함)	(Ch15dsc09a)시간 (Ch15dsc09b)시간
11)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Ch15dsc10a)시간 (Ch15dsc10b)시간
12) 기타 시간	(Ch15dsc11a)시간 (Ch15dsc11b)시간

29. ○○(이)의 돌봄 및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장소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돌봄이 아닌, 교육이 이용목적인 사람이나 장소는 해당되지 않음.

29-1. 학기 중	<p>[Ch15chg31a] ①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31b] ②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31c] ③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31d] ④ 초등돌봄교실 [Ch15chg31e] ⑤ 지역아동센터 [Ch15chg31f] ⑥ 기타(기관명: [Ch15chg32]) [Ch15chg31g] ⑨ 이용하지 않음</p>
29-2. 방학 중	<p>[Ch15chg33a] ①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33b] ②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33c] ③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33d] ④ 초등돌봄교실 [Ch15chg33e] ⑤ 지역아동센터 [Ch15chg33f] ⑥ 기타(기관명: [Ch15chg34]) [Ch15chg33g] ⑨ 이용하지 않음</p>

- ▶ Q29-1 ①~⑥이고 Q29-2 ①~⑥ 응답 시, Q30~Q32 구현
- ▶ Q29-1 ⑨이고 Q29-2 ①~⑥ 응답 시, Q30-3, Q30-4, Q31, Q32 구현
- ▶ Q29-1 ①~⑥이고 Q29-2 ⑨ 응답 시, Q30-1, Q30-2, Q31, Q32 구현
- ▶ Q29-1과 Q29-2 모두에 ⑨ 응답 시, Go Q33

30. ○○(이)의 돌봄 및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기 중	<p>30-1. 일주일에 며칠 이용하십니까? 1주일에 ()일</p> <p>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35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35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35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35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35e] 6) 기타 [Ch15chg35f]</p>
	<p>30-2. 하루 평균 몇 시간 이용하십니까? 하루 평균 ()시간</p> <p>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37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37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37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37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37e] 6) 기타 [Ch15chg37f]</p>

여성아동	30-3. 일주일에 며칠 이용하십니까? 1주일에 ()일 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36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36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36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36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36e] 6) 기타 [Ch15chg36f]
	30-4. 하루 평균 몇 시간 이용하십니까? 하루 평균 ()시간 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38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38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38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38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38e] 6) 기타 [Ch15chg38f]
여성아동	31-1. 월평균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39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39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39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39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39e] 6) 기타 [Ch15chg39f]
	31-2. 월평균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40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40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40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40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40e] 6) 기타 [Ch15chg40f]
여성아동	32-1.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불만족함 ② 약간 불만족함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41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41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41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41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41e] 6) 기타 [Ch15chg41f]
	32-2.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불만족함 ② 약간 불만족함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1)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Ch15chg42a]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Ch15chg42b]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Ch15chg42c] 4) 초등돌봄교실 [Ch15chg42d] 5) 지역아동센터 [Ch15chg42e] 6) 기타 [Ch15chg42f]

36. ○○(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학원	② 가정내 개인/그룹지도 (과외)	③ 학습지 (방문교사)	④ 인터넷/화상 강의	⑤ 교내 방과후교실	⑥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시설기관에서 하는 교육	⑦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1) 미술	[Ch15cht26a]	[Ch15cht27a]	[Ch15cht28a]	-	[Ch15cht30a]	[Ch15cht31a]	[Ch15cht32a]
2) 음악	[Ch15cht26b]	[Ch15cht27b]	[Ch15cht28b]	-	[Ch15cht30b]	[Ch15cht31b]	[Ch15cht32b]
3) 체육	[Ch15cht26c]	[Ch15cht27c]	[Ch15cht28c]	[Ch15cht29c]	[Ch15cht30c]	[Ch15cht31c]	[Ch15cht32c]
4) 과학	[Ch15cht26d]	[Ch15cht27d]	[Ch15cht28d]	-	[Ch15cht30d]	[Ch15cht31d]	[Ch15cht32d]
5) 수학	[Ch15cht26e]	[Ch15cht27e]	[Ch15cht28e]	[Ch15cht29e]	[Ch15cht30e]	[Ch15cht31e]	[Ch15cht32e]
6) 한글(국어)	[Ch15cht26f]	[Ch15cht27f]	[Ch15cht28f]	[Ch15cht29f]	[Ch15cht30f]	[Ch15cht31f]	[Ch15cht32f]
7) 컴퓨터	-	-	[Ch15cht28g]	[Ch15cht29g]	[Ch15cht30g]	-	[Ch15cht32g]
8) 한자	[Ch15cht26h]	[Ch15cht27h]	[Ch15cht28h]	[Ch15cht29h]	[Ch15cht30h]	[Ch15cht31h]	[Ch15cht32h]
9) 영어	[Ch15cht26i]	[Ch15cht27i]	[Ch15cht28i]	[Ch15cht29i]	[Ch15cht30i]	[Ch15cht31i]	[Ch15cht32i]
10) 기타 외국어	[Ch15cht26j]	[Ch15cht27j]	[Ch15cht28j]	-	[Ch15cht30j]	[Ch15cht31j]	-
11) 창의성	[Ch15cht26k]	[Ch15cht27k]	[Ch15cht28k]	[Ch15cht29k]	[Ch15cht30k]	[Ch15cht31k]	[Ch15cht32k]
12) 기타1	[Ch15cht26l]	[Ch15cht27l]	[Ch15cht28l]	[Ch15cht29l]	[Ch15cht30l]	[Ch15cht31l]	[Ch15cht32l]
12) 기타2	[Ch15cht26m]	[Ch15cht27m]	[Ch15cht28m]	-	[Ch15cht30m]	-	-
12) 기타3	[Ch15cht26n]	[Ch15cht27n]	-	-	[Ch15cht30n]	-	-

* ○○(이)가 현재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37. 일주일 총 이용 시간	38. 이용 만족도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약간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39. 월평균 교육비용 월 평균 중 ()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평균 교육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월평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 하는 비용을 의미함.	40. 비용 부담 정도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① ○○(이)의 초등학교				
② 학원	[Ch15cht33b]	[Ch15cht34a]	[Ch15cht35a]	[Ch15cht36a]
③ 가정내 개인/그룹지도(과외)	[Ch15cht33c]	[Ch15cht34b]	[Ch15cht35b]	[Ch15cht36b]
④ 학습지(방문교사)	[Ch15cht33d]	[Ch15cht34c]	[Ch15cht35c]	[Ch15cht36c]
⑤ 인터넷/화상 강의	[Ch15cht33e]	[Ch15cht34d]	[Ch15cht35d]	[Ch15cht36d]
⑥ 교내 방과후교실	[Ch15cht33f]	[Ch15cht34e]	[Ch15cht35e]	[Ch15cht36e]
⑦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에서 하는 교육	[Ch15cht33g]	[Ch15cht34f]	[Ch15cht35f]	[Ch15cht36f]
⑧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Ch15cht33h]	[Ch15cht34g]	[Ch15cht35g]	[Ch15cht36g]
			[Ch15cht35h]	[Ch15cht36h]

★ ②~⑧항목은 Q36에서 한 번 이상 응답한 기관만 Q37~Q40을 구현

11) 저소득층 급식 지원 [Hu15sss02k]	12) 저소득층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유급식 지원 [Hu15sss02l]	13) 긴급복지 교육 지원(학비지원) [Hu15sss02m]	14) 교육급여(기초수급자 가구 대상 부교재비 지원) [Hu15sss02n]	15) 교육복지 우선 지원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
1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Hu15sss02o]	17)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통신비 지원) [Hu15sss02p]	18) 문화통합이용권(문화누리 카드/스포츠강좌 이용권 서비스) [Hu15sss02q]	19)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Hu15sss02r]	20) 언어발달 지원 사업(장애인부모가정대상 바우처) [Hu15sss02s]
21)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Hu15sss02t]	22)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부교재비 지원) [Hu15sss02u]	23)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Hu15sss02v]		

44. 현재 (Q43 응답값 구현)와(과)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이 ○○(이)의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Hu15sss06]**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다음은 귀 닥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45.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가구소득 (**[Hu15ses06]**)만원

가구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주민세·재산세·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임.

▶ SQ04에 ②~⑤로 응답 시, Go Q46, SQ04 ① 응답자 중 Q3 ②, ④는 Go Q46

45-1.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어머니의 근로소득 (**[Mt15ses08]**)만원

▶ SQ04의 ① 응답자 중, Q3에 ①, ③으로 응답된 경우만 질문 구현

46. 귀택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비소비성 지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가구원을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	
46-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Hu15ses19])만원
46-2. 이 중 자녀(들)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비소비성 지출 ([Hu15ses20])만원
소비성 지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식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용돈, 기타 잡비 등	
46-3.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Hu15ses17])만원
46-4. 이 중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소비성 지출 ([Hu15ses18])만원

47. 귀하는 ○○(이)에게 용돈을 줍니까? (다른 자녀는 제외함) [Ch15ses33]

① 주지 않는다 → 48번 문항으로

② 필요할 때마다 준다 → 47-1번 문항으로

③ 정기적으로 준다 → 47-1번 문항으로

47-1. 귀하가 ○○(이)에게 일주일간 주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일주일에 ([Ch15ses34])원

48. 귀택의 소유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은 얼마입니까? 현 시가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가 ([Hu15ses09])만원

49. 귀택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 등)은 얼마입니까? 총 ([Hu15ses12])만원

50. 귀택은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습니까? [Hu15ses31]

① 부채 있음 → 50-1번 문항으로

② 부채 없음 → 51번 문항으로

50-1. 귀택의 갚아야 할 부채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은 얼마입니까?

부채 :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

1) 총 부채 ([Hu15ses15])만원 2) 월 상환금 총 ([Hu15ses16])만원

51. 현재 귀 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Hu15sss01]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 없음

52. 지난 1년간 귀 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정부보조금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기타 보조금(기초노령연금, 통신비 감면, 바우처, 희망키움통장 등)이 포함됨.

[Hu15sss30] ② 없음

[Hu15sss30a] ① 정부(주민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

[Hu15sss30b] ②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에게서 받은 현금과 물품

[Hu15sss30c] ③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장학금 포함)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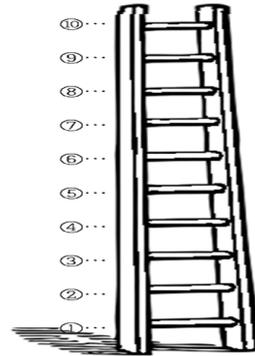
[Hu15sss30d] ④ 회사(자녀학자금 보조 포함)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

53.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53-1.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Hu15ses35]**)

53-2.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Hu15ses36]**)

- ▶ SQ04에 ①, ②로 응답한 경우 Go Q55
- ▶ SQ04에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Go Q54
- ▶ 무응답 시, SQ4에 ①, ②로 응답 시 Go Q55
- ▶ 무응답 시, SQ4에 ③, ④, ⑤로 응답 시 Go Q54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54. ○○(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Hu15dmg11]

- ①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엄마와 함께 살고 있음
 ③ 아빠와 함께 살고 있음 ④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SQ04에 ③, ④, ⑤로 응답된 경우만 구현

55. 귀택의 가구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택의 자녀 수 ([Hu15dmg19a])남 ([Hu15dmg19b])녀
2) ○○(이)의 출생순위 ([Ch15dmg02])째
3)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Hu15dmg19c])명
4) ○○(이)의 친인척 ([Hu15dmg19d])명
5) 기타([Hu15dmg19f]) ([Hu15dmg19e])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 증조부모 포함

[Hu15dmg19]	생성. 가구원 수(()명]
[Hu15dmg20]	생성. 가구 구성 형태

56.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오빠, 누나/언니			
	1	2	3	4
56-1. 출생년도 ()년	[Hu15dmg31a]	[Hu15dmg31b]	[Hu15dmg31c]	[Hu15dmg31d]
56-2. 성별 ① 남아 ② 여아	[Hu15dmg33a]	[Hu15dmg33b]	[Hu15dmg33c]	[Hu15dmg33d]
56-3.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Hu15dmg35a]	[Hu15dmg35b]	[Hu15dmg35c]	[Hu15dmg35d]

57. ○○(이)의 동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생		
	1	2	3
57-1. 출생년도 ()년	[Hu15dmg32a]	[Hu15dmg32b]	[Hu15dmg32c]
57-2. 성별 ① 남아 ② 여아	[Hu15dmg34a]	[Hu15dmg34b]	[Hu15dmg34c]
57-3. 비고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Hu15dmg36a]	[Hu15dmg36b]	[Hu15dmg36c]

다음은 패널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58. ○○(이)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Ch15hlt49]

-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59. ○○(이)는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Ch15hlt21]

- ① 치료 경험 있음 → 59-1번 문항으로 ② 치료 경험 없음 → 60번 문항으로

59-1. ○○(이)가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간 총 ([Ch15hlt22])번 치료받았음

60. ○○(이)는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Ch15hlt08]

- ① 입원한 적 있음 → 60-1번 문항으로 ② 입원한 적 없음 → 61번 문항으로

60-1. ○○(이)가 지난 1년 간 입원한 횟수는 모두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간 총 ([Ch15hlt10])번 입원

60-2. ○○(이)의 지난 1년 간 입원일은 모두 며칠입니까?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총 입원일을 응답해주시시오. 지난 1년 간 총 ([Ch15hlt09])일 입원

60-3. ○○(이)의 입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Ch15hlt11]

- ① 폐렴 ② 골절 ③ 장염 ④ 수술 (수술명: [Ch15hlt23])
- ⑤ 기타([Ch15hlt23])

61. ○○(이)는 최근 한 달 간 병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Ch15hlt24]

- ① 통원 치료 경험 있음 (번) ② 통원 치료 경험 없음

62. 지난 조사 이후 ○○(이)는 아래의 장애를 판정받았습니까? 중복장애의 경우는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장애아는 장애 급수를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Ch15hlt28]	0) 없음	⇒ 63번 문항으로
[Ch15hlt29]	1) 지체장애	()급
	2) 뇌병변장애	()급
	3) 시각장애	()급
	4) 청각장애	()급
	5) 언어장애	()급
	6) 안면장애	()급
	7) 신장장애	()급
	8) 심장장애	()급
	9) 간장애	()급
	10) 호흡기장애	()급
	11) 장루, 요루장애	()급
	12) 간질장애	()급
	13) 지적장애	()급
	14) 정신장애	()급
	15) 자폐성장애	()급

63. ○○(이)는 다음의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단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질환 유형	최초 진단일 ()년 ()월
신체질환	
[Ch15hlt31] 0) 없음	
[Ch15hlt31a] 1) 선천성 심장질환	[Ch15hlt33a]
[Ch15hlt31c] 2) 간질	[Ch15hlt33c]
-3) 당뇨	-
[Ch15hlt31f] 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Ch15hlt33f]
[Ch15hlt31g] 5) 만성 중이염	[Ch15hlt33g]
-6) 만성 요로감염	-
발달장애	
[Ch15hlt32] 0) 없음	⇒ 64번 문항으로
[Ch15hlt32a] 8) 의사소통 장애(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Ch15hlt35a]
[Ch15hlt32b] 9) 자폐 스펙트럼 장애	[Ch15hlt35b]
[Ch15hlt32c] 1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Ch15hlt35c]
[Ch15hlt32d] 11) 특정 학습장애	[Ch15hlt35d]
[Ch15hlt32e] 12) 운동장애(틱장애, 정형적 동작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Ch15hlt35e]

질환 유형	최초 진단일 ()년 ()월
[Ch15hlt32f] 13)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방화증, 도벽증)	[Ch15hlt35f]
-14) 배설장애	-
-15) 급식 및 섭식장애	-
-16) 불안장애(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
[Ch15hlt32g] 17) 기타 장애([Ch15hlt37])	[Ch15hlt35j]

64. ○○(이)는 다음의 경우에 주로 어느 손을 사용합니까?

문항 내용	① 오른손	② 왼손	③ 양손
1) 연필을 어느 손으로 잡습니까?		[Ch15phd01]	
2) 밥을 어느 손으로 먹습니까?		[Ch15phd02]	
3) 물건을 어느 손으로 잡습니까?		[Ch15phd03]	

65. ○○(이)는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합니까? **[Ch15hlt45]**

- ◎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 **66번 문항으로**
- ① 예, 안경 사용함 → **65-1번 문항으로**
- ② 예, 시력교정도구 사용함 → **65-1번 문항으로**

65-1. ○○(이)는 언제부터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하였습니까?
만 (**[Ch15hlt46]**)세부터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함

66. ○○(이)는 현재 유치가 몇 개나 빠졌습니까? (**[Ch15hlt27]**)개

66-1. 처음 유치가 빠진 것은 언제입니까? 만 (**[Ch15hlt26]**)세부터

66-2. 현재 치아 중 썩은 것은 몇 개입니까? (**[Ch15hlt38]**)개

Q69. HOME [문항 비공개]

[Hu15hom01] ~ [Hu15hom59]	D69-01 ~ D69-59. "가구" 가정환경의 질
--	--------------------------------------

라. 건강관련 질문지

ID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도) 건강관련 질문지

[K15int01]	생성. 건강관련 질문지 참여 여부 및 유형
------------	-------------------------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아동들의 건강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은 아동들에게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국가 알레르기질환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과 다양한 관련 원인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답변이 대상 아동의 정확한 건강 평가와 우리나라 아이들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0분 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한국아동패널』연구팀
서울아산병원 아동패널 알레르기연구팀
Tel 02) 398-7790, 3010-2966,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성명		아동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아동 생년월일	2008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 비공개 -					

작성자	엄마 <input type="checkbox"/> 아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____)	작성 일자	2015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 비공개 -			

1.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때라도 “숨 쉴 때 가슴에서 싹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Ch15asx01]

① 예 ⇒ 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번 문항으로

1-1. 감기와 상관없이 찬 공기 노출이나 운동 시에 가슴에서 싹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Ch15asx20]

① 예 ② 아니오

2.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싹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Ch15asx08]

① 예 ⇒ 2-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2-1.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싹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Ch15asx03]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6회 ⑤ 7회 이상

2-2.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싹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로 인한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는 몇 번입니까?

응급실 방문 횟수 [Ch15asx05]	① 없었음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입원 횟수 [Ch15asx07]	① 없었음 ② 1회 ③ 2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3. ○○(이)는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천식”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Ch15asx11]

① 예 ⇒ 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3-1. 이전에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 진단 받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생후 12개월 이내 ② 생후 13~35개월 ③ 만 3~4세

[Ch15asx12]

④ 만 5~6세 ⑤ 만 7세 이상

4.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Ch15asx14]

① 예 ⇒ 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5번 문항으로

4-1.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 ① 사용하지 않음 ② 1개월 이내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Ch15asx21]

-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4-2.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류코트리엔 길항제 (싱글레어, 오논, 씨투스 등)를 얼마나 복용했습니까? **[Ch15asx22]**

- ① 사용하지 않음 ② 1개월 이내 ③ 1개월 이내~3개월 미만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5. ○○(이)는 출생 후 36개월 내에 (만 3세 이전) 의사로부터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Ch15asx18]**

- ① 예 ⇒ **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6번 문항으로**

5-1. ○○(이)는 출생 후 36개월 내에 (만 3세 이전) 모세기관지염을 몇 번이나 앓았습니까? **[Ch15asx23]**

- ① 없었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5-2. ○○(이)가 모세기관지염을 처음 앓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Ch15asx19]**

- ① 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7~12개월 ③ 생후 13~24개월 ④ 생후 25~36개월

6.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Ch15ax01]**

- ① 예 ⇒ **6-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7번 문항으로**

6-1.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Ch15ax02a] ① 평소에 자주 재채기를 한다

[Ch15ax02b] ② 평소에 자주 맑은 콧물이 나온다

[Ch15ax02c] ③ 평소에 코가 막힌다

[Ch15ax02d] ④ 평소에 코가 가려워 자주 비빈다

7.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Ch15ax02]**

- ① 예 ⇒ **7-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8번 문항으로**

7-1.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이러한 증상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

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Ch15anx09]

- ① 1주일에 4일 미만 ② 1주일에 4일 이상

7-2.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이러한 증상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얼마동안 지속 되었습니까? [Ch15anx10]

- ① 4주 이내로 지속 ② 4주 이상 지속

7-3.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이러한 증상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 때문에 아래 사항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Ch15anx11a] ① 수면장애 [Ch15anx11b] ② 일상 생활 (레저 및 운동 포함)의 불편함

[Ch15anx11c] ③ 학교 생활의 불편함 [Ch15anx11d] ④ 기타 ([Ch15anx11e])

8.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빈 적이 있습니까? [Ch15anx03]

- ① 예 ② 아니오

9. ○○(이)는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Ch15anx04]

9-1. 이전에 알레르기비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 진단 받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생후 12개월 이내 ② 생후 13~35개월 ③ 만 3~4세

[Ch15anx12]

- ④ 만 5~6세 ⑤ 만 7세 이상

10.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0-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1번 문항으로**

[Ch15anx05]

10-1.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 치료를 위해 항히스타민제 또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나조넥스, 아바미스, 옴나리스 등)를 사용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사용한 적 없다 ② 1개월 이내 ③ 1개월 이상~3개월 이내

- ④ 3개월 이상~6개월 이내 ⑤ 6개월 이상 [Ch15anx13]

11.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진과 같은 가려운 피부발진 ('태열'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함)이 얼굴, 귀, 목, 접히는 부위, 몸통 등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Ch15adx01]



① 예 ⇒ 1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3번 문항으로

12.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이러한 가려운 피부발진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h15adx03]

13. ○○(이)는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Ch15adx04]

- 13-1.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 진단 받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생후 12개월 이내

②

생후

13~35개월

[Ch15adx07]

③ 만 3~4세

④ 만 5~6세

⑤ 만 7세 이상

14.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태열" 또는 "습진"이라고도 함)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Ch15adx09]

① 예 ⇒ 1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5번 문항으로

- 14-1.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태열" 또는 "습진"이라고도 함)으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크림, 로션 포함; 더마톱, 아드반탄, 리도멕스, 락티코트, 락티케어 등)를 사용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Ch15adx10]

① 사용한 적 없다

② 1개월 이내

③ 1개월 이상~3개월 이내

④ 3개월 이상~6개월 이내

⑤ 6개월 이상

15.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Ch15fax01]

- ① 예 ⇒ **1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6번 문항으로**

15-1. 의심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 [Ch15fax02a] ① 피부 증상(두드러기, 피부발진, 습진, 입 주위 부종, 얼굴이 붓는다, 가려움증 등)
 [Ch15fax02b] ② 위장관 증상 (구토, 설사, 복통 등)
 [Ch15fax02c] ③ 호흡기 증상 (기침, 콧물, 쌉쌉거림, 호흡곤란, 청색증 등)
 [Ch15fax20d] ④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압저하, 의식저하, 저혈압 등)

15-2. 의심되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 [Ch15fax03a] ① 계란 [Ch15fax03b] ② 우유 [Ch15fax03c] ③ 콩
 [Ch15fax03d] ④ 땅콩 [Ch15fax03e] ⑤ 밀 [Ch15fax03f] ⑥ 메밀
 [Ch15fax03g] ⑦ 소고기 [Ch15fax03h] ⑧ 닭고기 [Ch15fax03i] ⑨ 돼지고기
 [Ch15fax03j] ⑩ 깨 [Ch15fax03k] ⑪ 견과류(호두, 아몬드, 잣 등)
 [Ch15fax03l] ⑫ 갑각류(새우, 게, 가재, 굴 등)
 [Ch15fax03m] ⑬ 과일(복숭아, 메론, 수박, 키위, 사과,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Ch15fax03n] ⑭ 채소(샐러리, 당근, 겨자, 마늘, 브로콜리, 감자, 양파, 후추, 토마토 등)
 [Ch15fax03o] ⑮ 기타 ([Ch15fax03p])

16. ○○(이)는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식품알레르기”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7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8번 문항으로**
 [Ch15fax04]

17.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식품알레르기”로 6개월 이상 음식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까? [Ch15fax05]

- ① 예 ⇒ **17-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8번 문항으로**

17-1. 어떤 음식을 제한하였습니까? (제한한 음식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Ch15fax06]

18. ○○(이)는 출생 이후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아나필락시스 또는 쇼크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Ch15fax07]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음식, 약물,운동 등 원인에 노출 후 수분에서 수시간이내 두드러기, 눈뜨는 입술 부종, 호흡곤란, 구토, 어지러움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반응을 뜻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19. 가정 내에서 음식물의 보관 및 조리 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합니까?

[Hu15env13]

- ① 예 ⇒ 1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 20번 문항으로

19-1.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나요?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Hu15env14a] ① 전자레인지 용기 [Hu15env14b] ② 조리도구

[Hu15env14c] ③ 설문대상 아동의 숟가락 [Hu15env14d] ④ 설문대상 아동의 젓가락

[Hu15env14e] ⑤ 설문대상 아동의 식기(컵 및 그릇) [Hu15env14f] ⑥ 음식 보관용기

19-2. 조리 후 음식이 식기 전에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 편이다. [Hu15env15]

- ① 예 ② 아니요

19-3. 뜨거운 물이나 국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 편이다. [Hu15env16]

- ① 예 ② 아니요

20. ○○(이)가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Ch15eat36]

- ① 수돗물 ② 정수기 물 ③ 시판되는 생수 ④ 지하수 혹은 간이 상수도

21. ○○(이)가 평균적으로 음료수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어린이 음료, 과일 주스 등)를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Ch15eat37]

- ① 마시지 않음 ⇒ 22번 문항으로 ② 1주일에 1회
③ 1주일에 2~3회 ④ 하루에 1회 ⑤ 하루에 2~3회

21-1. ○○(이)가 주로 마시는 음료수의 용기는 어떤 것인가요? [Ch15env17]

- ① 캔 ② 페트병 ③ 팩 (종이류) ④ 유리병 ⑤ 비닐용기

22.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Hu15rmd09]

- ① 1년 이하 ② 2~5년 ③ 6~10년 ④ 10년 이상 ⑤ 기타 ([Hu15rmd10])

23.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에 속합니까? [Hu15ses04]

-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기타 ([Hu15ses05])

24.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난방 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Hu15env07]

- ① 중앙집중식 온돌난방 ② 중앙집중식 냉난방장치 (환풍형)

- ③ 개별난방-가스보일러 ④ 개별난방-기름 보일러
 ⑤ 개별난방-연탄 보일러 ⑥ 개별난방-전기 보일러 또는 태양열
 ⑦ 기타 ([Hu15env08])

25.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바닥재는 무엇입니까? [Hu15env09]

- ① 나무 ② 장판 ③ 대리석 또는 돌 ④ 세라믹 또는 점토 타일 ⑤ 리놀륨

26.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방은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Hu15env10]

- ① 같은 실내에, 거실과 분리되어 있다
 ② 같은 실내에, 거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③ 다른 공간에, 거실과 분리되어 있다.

27.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안에서 방향제 (페브리즈 등) 또는 디퓨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Hu15env11]

- ① 예 ⇒ 27-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8번 문항으로

27-1. 방향제 또는 디퓨저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Hu15env12]

- ① 1~2회/주 ② 3~4회/주 ③ 5~7회/주 ④ 8회 이상/ ⑤ 항상

28.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최근 1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28-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9번 문항으로

[Hu15rmd05c]

28-1. 어떤 종류의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 [Hu15rmd06a] ① 페인트칠 [Hu15rmd06b] ② 도배
 [Hu15rmd06c] ③ 바닥재 교체 [Hu15rmd06d] ④ 새로운 구획 분할 (partition)
 [Hu15rmd06e] ⑤ 기타 ([Hu15rmd06f])

29. ○○(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Hu15rmd07]

- ① 예 ② 아니오 ⇒ 30번 문항으로 ③ 잘모름 ⇒ 30번 문항으로

29-1. 어떤 종류의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 [Hu15rmd08a] ① 페인트칠 [Hu15rmd08b] ② 도배
 [Hu15rmd08c] ③ 바닥재 교체 [Hu15rmd08d] ④ 새로운 구획 분할

(partition)

[Hu15rmd08e] ⑤ 기타 ([Hu15rmd08f])

30.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정도의 도로)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Hu15cmm33]

- ① 바로인접 ② 50m 이내 ③ 100m 이내 ④ 500m 이내 ⑤ 500m 이상

31. 위에서 답한 도로는 몇 차선입니까? [Hu15cmm34]

- ①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②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 ③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 ④ 왕복 8차선 이상(편도 4차선 이상)

32. 위에서 답한 인접한 도로의 통행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Hu15cmm35]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매우 적다

33.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벽이나 천장에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진 모양이 있습니까? [Hu15mld10]

- ① 예 ⇒ 3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5번 문항으로

34. 있다면 다음 각 공간의 벽이나 천장에서 얼마나 됩니까?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진 모양이 없거나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다"에 모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분	① 보이지 않았다 (0%) ② 5% 미만 ③ 5~30% 미만 ④ 30% 이상
침실 및 거실	[Hu15mld11a]
주방	[Hu15mld11b]
욕실	[Hu15mld11c]
기타 (다용도실, 세탁실, 베란다, 지하실 등)	[Hu15mld11d]

35.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Hu15mld03]

- ① 예 ② 아니오

36. ○○(이) 최근 12개월 동안 주변에서 담배 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Ch15smk09]

- ① 없었음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6~7회

37.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8번 문항으로** ② 없다 ⇒ **39번 문항으로**

[Hu15env18]

38. ○○(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8-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39번 문항으로**

[Hu15env19]

38-1. ○○(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다음 중 어떤 상품을 사용하였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Hu15env20a] ① 옥시싹싹,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클린업

[Hu15env20b] ② 세퓨, 아토오가닉

[Hu15env20c] ③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Hu15env20d] ④ 기타 ([Hu15env20e])

38-2. ○○(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총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Hu15env21]

- ① 3개월 미만 ② 4~6개월 미만 ③ 6~9개월 미만 ④ 9~12개월 ⑤ 12개월 이상

39. ○○(이)는 출생 후 12개월 내 (돌 이전)에 3일 이상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Ch15drg04]

- ① 없었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40. ○○(이)는 최근 12개월 이내 3일 이상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었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Ch15drg06]

41. ○○(이)는 최근 12개월 이내 3일 이상 항생제를 마지막으로 언제 복용하였습니까?

- ① 1개월 이내 ② 2~3개월 전 ③ 4~6개월 전 ④ 7개월 이상 전

[Ch15ant07]

42. ○○(이)는 최근 12개월 이내 유산균 (람노스, VSL3, 라시도필, 락피도, 듀오락 등과 그 외 유산균 모두 포함)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Ch15drg09]

- ① 있다 ⇒ **42-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43번 문항으로**

42-1. ○○(이)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유산균 (람노스, VSL3, 라시도필, 락피도, 듀오

락 등과 그 외 유산균 모두 포함)을 복용하였다면, 총 얼마 동안 복용하였습니까?
 ① 3개월 이내 ② 3~6개월 동안 ③ 7~12개월 동안 ④ 1년 이상
[Ch15drg10]

42-2. ○○(이)가 유산균 (람노스, VSL3, 라시도필, 락피도, 듀오락 등과 그 외 유산균 모두 포함)을 복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복용한 것은 언제입니까? **[Ch15drg11]**
 ① 1개월 이내 ② 2~3개월 전 ③ 4~6개월 전 ④ 7개월 이상 전

43. ○○(이)는 최근 12개월 이내 진통제나 해열제 (타이레놀, 아스피린, 게보린, 브루펜)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Ch15drg08]**
 ① 없었음 ② 3~4개월에 1회 이하 ③ 1개월에 1~3회 ④ 1주일에 1~6회
 ⑤ 매일

44. ○○(이)는 하루에 운동 (태권도, 공놀이, 수영 등)은 어느 정도 합니까? (구체적으로 표시 바랍니다. 예: 30분/하루)
 주중: **[Ch15dsc16a]** 분/하루 주말: **[Ch15dsc16b]** 분/하루

45. ○○(이)는 하루에 집밖 (골목, 마당, 놀이터 등)에서 햇볕 쬐며 노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구체적으로 표시 바랍니다. 예: 30분/하루)
 주중: **[Ch15dsc17a]** 분/하루 주말: **[Ch15dsc17b]** 분/하루

46.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숨 쉴 때 가슴에서 뽁뽁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Ch15asx24]**
 ① 있다 ② 없다

다음은 애완동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47. ○○(이)가 최근 12개월 동안 집에서 키운 개는 몇 마리였습니까? **[Hu15pet05]**
 ① 없었음 ② 1마리 ③ 2마리 ④ 3마리 ⑤ 4마리 이상

48. ○○(이)가 최근 12개월 동안 집에서 키운 고양이는 몇 마리였습니까?
[Hu15pet06]
 ① 없었음 ② 1마리 ③ 2마리 ④ 3마리 ⑤ 4마리 이상

49.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음 질환 중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아버지	어머니
천식 ① 예 ② 아니오	[Ft15asx11]	[Mt15asx11]
알레르기비염 ① 예 ② 아니오	[Ft15arx09]	[Mt15arx09]
아토피피부염 ① 예 ② 아니오	[Ft15adx04]	[Mt15adx04]
알레르기결막염 ① 예 ② 아니오	[Ft15arx06]	[Mt15arx06]
식품알레르기 ① 예 ② 아니오	[Ft15fax04]	[Mt15fax04]

50. 식생활 진단

항목	①항상 그런 편이다 ②보통이다 ③아닌 편이다
1) 우유나 유제품 (요거트, 요플레 등)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Ch15eat26]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Ch15eat27]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	[Ch15eat28]
4) 과일 (1개)이나 과일주스 (1잔)를 매일 먹는다.	[Ch15eat29]
5)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Ch15eat30]
6)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Ch15eat31]
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을 때가 많다.	[Ch15eat32]
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Ch15eat33]
9)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	[Ch15eat34]
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이다(편식을 하지 않는다).	[Ch15eat35]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설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답변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주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어린이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역학조사팀 드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한림의대 한림대성심병원,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연락처: 중앙센터 연구원 02-3010-2641 / 4627]

마. CAPI(아동용) 질문지

ID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도) 아동 대상(CAPI) 질문지

[J15int01] 생성. [15CAPI(아동)] 참여 여부 및 유형

다음은 ○○(이)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Ch15hlt12])Kg
2. ○○(이)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Ch15hlt13])Cm
3. ○○(이)의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입니까? ([Ch15hlt25])Cm

지금부터 선생님이 몇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볼 거야. ○○(이)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주면 돼.

4. 보통 ○○(이)는..... [Ch15shs01]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에요.



④ 매우 행복해요.

5. 친구들에 비해 ○○(이)는..... [Ch15shs02]



① 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



② 친구들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친구들보다
행복한 편이에요.



④ 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해요.

6.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산대. OO(이)도 그러니?
[Ch15shs03]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에요.



④ 매우 행복해요.

7.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슬픈 일이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OO(이)도 그러니?
[Ch15shs04]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에요.



④ 매우 행복해요.

8. 선생님이 몇 개의 질문을 할 거야. OO(이)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주면 돼.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에요	④ 매우 행복해요

1) OO(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Ch15shs06]
2) OO(이)의 생김새나 모습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니?	[Ch15shs07]
3) OO(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니?	[Ch15shs08]
4) OO(이)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니?	[Ch15shs09]
5) OO(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니?	[Ch15shs10]
6)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Ch15shs11]

9. 다음 질문도 네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면 돼.

문항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OO(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Ch15sfs37]	
2) OO(이)는 좋은 면이 많다.			[Ch15sfs38]	
3) OO(이)는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Ch15sfs39]	
4) OO(이)는 소중한 사람이다.			[Ch15sfs40]	
5) OO(이)는 나를 좋게 느낀다.			[Ch15sfs41]	

10.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이니?

남자친구([Ch15psa40])명, 여자친구([Ch15psa41])명

11. 친구와 싸우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니? [Ch15psa43]

- ① 절대 싸우지 않는다. ② 몇 개월에 한 번 싸운다.
 ③ 한 달에 한 번은 싸운다. ④ 일주일에 한 번은 싸운다.
 ⑤ 거의 매일 싸운다. ⑥ 친구가 없다.

12. 주말에 (언니, 오빠, 형, 누나, 어른 없이) 친구들이랑 놀러 얼마나 자주 나가니? [Ch15psa44]

- ① 놀러 나가지 않는다. ② 몇 개월에 한 번 놀러 나간다.
 ③ 한 달에 한 번 놀러 나간다. ④ 거의 매주 놀러 나간다.
 ⑤ 친구가 없다.

13. 학교 밖에서 (언니, 오빠, 형, 누나, 어른 없이) 친구들이랑 놀러 얼마나 자주 나가니? [Ch15psa45]

- ① 놀러 나가지 않는다. ② 몇 개월에 한 번 놀러 나간다.
 ③ 한 달에 한 번 놀러 나간다. ④ 일주일에 한 번 놀러 나간다.
 ⑤ 거의 매일 놀러 나간다. ⑥ 친구가 없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OO(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볼 거야. OO(이)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주면 돼

14.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니? [Ch15scl02]

- 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②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4.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Ch15cre07]

- 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②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 ③ 우리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④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⑥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25. 언제까지 학교를 다니고 싶니? [Ch15cre08]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바. CAWI(학교용) 질문지

ID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도) 학교용(CAWI) 질문지

[L15int01]	생성. [15CAWI(학교용)] 참여 여부 및 유형
[L15int03]	생성. [15CAWI(학교용)] 조사일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적 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아동패널」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학교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아동 부모님의 동의하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선생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39,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학교의 환경 및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1-1. 학급	(1학년) 총 [In15iev01] 학급(반)
1-2. 해당학급 학생 수	총 [In15iev53] 명

2. 선생님이 담당하신 **학급의 아동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n15iev42]

- ① 많다고 생각한다 ②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③ 적다고 생각한다

2-1. 선생님이 생각하는 적합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교실 크기는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응답해 주십시오.

교사 1명 : 아동 ([In15iev43])명

3. 현재 아동 수에 비해 선생님 **교실의 크기(면적)**는 어떻게 됩니까? [In15iev44]

-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별로 적합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4.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에는 1학년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In15scm04]

- ①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많이 참여하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참여하고 있다

5.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학급에 통합학급 학생이 있습니까? [In15scm05]

- ① 네 ② 아니오

6.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각 특별실 및 기타시설(놀이터, 체육관 등)의 **환경**에 대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6-1. 구비여부	6-2. 환경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1) 도서실	[In15iev46a]	[In15iev47a]
2) 영어교실	[In15iev46b]	[In15iev47b]
3) 과학실	[In15iev46c]	[In15iev47c]
4) 컴퓨터실	[In15iev46d]	[In15iev47d]
5) 음악실	[In15iev46e]	[In15iev47e]
6) 강당/체육관	[In15iev46f]	[In15iev47f]
7) 놀이터	[In15iev46g]	[In15iev47g]
8) 기타([In15iev48])	[In15iev46h]	[In15iev47h]

7.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1) (학교) 전반적인 건물상태	[In15iev49]
2) 기자재 및 시설	[In15iev50]
3) 학교 주변환경	[In15iev51]
4) 학생들의 통학 조건(교통 편의성)	[In15iev52]

8.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무상급식입니까? ○○(이)가 급식을 제공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In15scm06]
 ◎ 무상 급식 아님 ① 식당에서 무상 급식 ② 교실에서 무상 급식

다음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다음 문항을 읽고 ○○(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①	②	③	④	⑤
○○(이)는 급우들에 비해...	하위 20% 이내	하위 21% -40%	중간 50% 내외	상위 21%~ 40%	상위 20% 이내
1) 이 아동의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0]				
2) 이 아동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1]				
3) 이 아동의 쓰기 능력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Ch15acs32]				
4) 이 아동은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3]				
5) 이 아동의 수세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4]				
6) 이 아동의 덧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5]				
7) 이 아동의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6]				
8) 이 아동의 비교 능력(길이, 무게 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7]				
9) 이 아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8]				
10) 이 아동의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Ch15acs39]				

10. 다음의 문장을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이)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각 문항에 해당되는 ○○이 모습과 행동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① 전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In15exf01]		
2) 해야 할 일(과제, 활동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In15exf02]		
3) 해야 할 일(과제, 활동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In15exf03]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In15exf04]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마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In15exf05]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In15exf06]		

문 항 내 용	① 전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In15exf07]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In15exf08]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In15exf09]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In15exf10]
11)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In15exf11]
12)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In15exf12]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n15exf13]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In15exf14]
15) 교사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시간내 주어진 활동이나 과제를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In15exf15]
16)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In15exf16]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In15exf17]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In15exf18]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In15exf19]
20)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In15exf20]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활동이나 과제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In15exf21]
22)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In15exf22]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In15exf23]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In15exf24]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In15exf25]
26) 자주 울컥한다.	[In15exf26]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In15exf27]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In15exf28]

문 항 내 용	① 전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	[In15exf29]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In15exf30]
31)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In15exf31]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In15exf32]
33) 책상이나 사물함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In15exf33]
34) 숙제를 다 해왔는데도 잊어버리고 교사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In15exf34]
35)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In15exf35]
36) 잘 잊어버린다.	[In15exf36]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In15exf37]
38)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	[In15exf38]
39)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In15exf39]
40) 주변을 잘 어질러서 교사나 누군가 대신 정리해 주어야 한다.	[In15exf40]

11. 다음 문항은 ○○(이)의 학교 적응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다.	[Ch15sca01]
2)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Ch15sca02]
3)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Ch15sca03]
4)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Ch15sca04]
5)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Ch15sca05]
6)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Ch15sca06]
7)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Ch15sca07]
8)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Ch15sca08]
9)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Ch15sca09]
10)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는다.	[Ch15sca10]
11)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Ch15sca11]
12) 매사에 의욕적이다.	[Ch15sca12]
13)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Ch15sca13]
14) 자신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Ch15sca14]
15)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Ch15sca15]
16)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Ch15sca16]
17)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Ch15sca17]
1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Ch15sca18]
19)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Ch15sca19]
20)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Ch15sca20]
21)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Ch15sca21]
22)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Ch15sca22]
23)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Ch15sca23]
24) 친구를 잘 도와준다.	[Ch15sca24]
25) 친구들의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Ch15sca25]
26)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Ch15sca26]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Ch15sca27]
28)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Ch15sca28]
29)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Ch15sca29]
30)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Ch15sca30]
31)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Ch15sca31]
32)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Ch15sca32]
33)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Ch15sca33]
34)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Ch15sca34]
35)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Ch15sca35]

다음은 ○○(이) 부모님의 학교 참여 및 교사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이)의 부모님(또는 주양육자)은 전반적으로 ○○(이)의 학교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까? **[In15ppe32]**
-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는 편임 ③ 보통임
 ④ 관심을 가지는 편임 ⑤ 매우 관심이 많음
13. 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음의 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아동 발달 측면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표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 입학식(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포함)	[In15ppe33a]
2) 행사(운동회 등)	[In15ppe33b]
3) 자원봉사(급식검수, 어머니폴리스회/안전등지회, 녹색어머니회, 야외활동, 수업보조, 학부모 재능기부, 청소 등)	[In15ppe33c]
4) 학부모 공개수업	[In15ppe33d]
5)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In15ppe33e]
6) 담임상담	[In15ppe33f]
7) 학교운영위원회/어머니회/학부모회(학부모총회)	[In15ppe33g]

다음은 선생님의 교사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선생님이 교직을 선택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In15tdm15]**
 ① 사회적 인정 ② 직업의 안정성 ③ 시간적인 여유(방학 등)
 ④ 가르치는 일이 좋음 ⑤ 주변의 권고 ⑥ 보수
 ⑦ 아이들을 좋아함 ⑧ 기타(**[In15tdm16]**)

15.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내 용		
[In15tcb01]	1) 사기가 높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n15tcb02]	2) 열의를 가지고 일한다	
[In15tcb03]	3)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In15tcb04]	4) 학업 성취를 중요시 한다	
[In15tcb05]	5) 인성 교육을 중요시 한다	
[In15tcb06]	6) 학생들의 창의성을 중요시한다	

1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학교장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교사들의 복지를 위하여 애쓴다	[In15tcb07]
2) 교장 자신의 입장에 대해 교사들과 이야기한다	[In15tcb08]
3) 교사들이 친근감을 느끼며 가까이 하기 쉽다	[In15tcb09]
4)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In15tcb10]
5) 교사들이 잘못된 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잘한 일을 찾아내려고 한다	[In15tcb11]
6) 모든 교사로 하여금 가족적 분위기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In15tcb12]
7) 교사들이 상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In15tcb13]
8)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In15tcb14]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In15tcb15]
10) 교사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In15tcb16]
11)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In15tcb17]
12) 학교교육의 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In15tcb18]
13) 공사가 분명하게 교사를 대한다	[In15tcb19]
14) 학교 업무에 관하여 교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사가 알도록 한다	[In15tcb20]
15) 교사들의 업무가 잘 조정되도록 노력한다	[In15tcb21]
16)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취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In15tcb22]
17) 필요한 수업 자료를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n15tcb23]
18) 교사들의 업무 결과에 대하여 상벌이 분명하다	[In15tcb24]
19) 수준 높은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	[In15tcb25]
20) 교사들의 업무 수행을 확인 점검한다	[In15tcb26]

17. 선생님께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In15tcb27]
2)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In15tcb28]
3)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In15tcb29]
4)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In15tcb30]
5)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 낼 수 있다	[In15tcb31]

문항내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분석해 낼 수 있다					[In15tcb32]
7) 생활지도를 할 때 학생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다					[In15tcb33]
8)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내가 지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In15tcb34]
9)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의 지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In15tcb35]

18. 선생님께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					[In15tcb36]
2) 나는 교사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					[In15tcb37]
3) 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교사가 될 것이다					[In15tcb38]
4) 나는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생활한다					[In15tcb39]
5) 우리 학교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In15tcb40]
6) 우리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In15tcb41]

19.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문항내용	①	②	③	④	⑤
[In15prs16]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In15prs17] 2) 생활지도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In15prs18] 3) 수업지도	③ 보통이다				
[In15prs19] 4) 행정업무	④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0. 선생님께서는 현재 본인의 수업방식에 대해 아래의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설명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In15ted01]
2) 나는 설명과 안내가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In15ted02]
3) 나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에게 제시한다					[In15ted03]
4) 나는 학생들과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In15ted04]
5) 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In15ted05]
6) 나는 학생의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In15ted06]
7) 나는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In15ted07]
8) 나는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In15ted08]
9)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In15ted09]
10)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n15ted10]
11) 나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도록 유도한다					[In15ted11]
12) 나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도록 도와준다					[In15ted12]
13) 나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n15ted13]
14) 나는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n15ted14]
15) 나는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n15ted15]

21.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 몇 회 제시하고 있습니까? **[In15ted16]**

- ①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23번 문항으로)
-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주 3~4회 ⑤ 1일 1회

22.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량 및 과제 소요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1. 과제량 적절성 [In15ted17]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함 ① ② ③ ④ ⑤
22-2. 하루당 소요시간 [In15ted18]	① 15분 미만 ② 15~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1시간 30분 미만 ⑤ 1시간 30분 이상

23. 선생님께서는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23-1.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 [In15crk18]	잘 모름 ----->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23-2. 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의 필요성 정도 [In15crk19]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24.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생활기록부를 보낸다면 연계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15crk20]**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음 ② 별로 도움되지 않음 ③ 보통임
-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25.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 간(유초연계) 활동에 대한 연계 관련 연수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In15crk21]**

- ① 네 ② 아니오

26.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적응활동은 학생이 적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In15crk22]**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음 ② 별로 도움되지 않음 ③ 보통임
-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7.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In15dmg01]
 ① 여 ② 남
28.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만 나이로 응답해 주세요. 만 ([In15dmg06])
 세
29. 선생님은 올해 교사경력 몇 년차 이십니까?
 총 ([In15dmg04])년차 / 육아휴직, 군경력 제외, 교육경력만
30. 선생님은 올해로 1학년 담임 경력이 몇 년 차이십니까? 총 ([In15dmg04e])년
 차
31.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주중, 주말
 을 나누어 응답해주세요.

31-1. 주중 근무시간	1일 주중 ([In15jce25aa])시간 ([In15jce25ab])분
31-2. 주말 근무 일 수	1개월 평균 ([In15jce36b])일
31-3. 주말 근무시간	1일 평균 ([In15jce25ba])시간 ([In15jce25bb])분

32.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In15dmg14]
 ① 초대졸(2, 3년제졸) ② 대졸 ③ 석사과정 ④ 석사 ⑤ 박사과정 ⑥ 박사
33. 선생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In15tdm12]
 ① 일반교사 ② 부장교사 ③ 기타 ([In15tdm13])

다음은 학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4.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In15scm01]
 ① 국공립 ② 사립 ⑤ 기타([In15scm02])

35.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특색사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업은 아동의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색사업	35-1. 해당여부	35-2. 아동 발달에 도움정도
	① 예 ② 아니오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된다 ⑤ 많이 도움이 된다
1) 혁신학교(혁신준비학교, 혁신공감학교 등)	[In15scm08a]	[In15scm09a]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In15scm08b]	[In15scm09b]
3) 교과중심(교과교실제 및 교육과정, 교과연구학교, 교육특화 등)	[In15scm08c]	[In15scm09c]
4) 인성중심	[In15scm08d]	[In15scm09d]
5) 예술체육중심	[In15scm08e]	[In15scm09e]
6) 환경중심	[In15scm08f]	[In15scm09f]
7) 독서중심	[In15scm08g]	[In15scm09g]
8) 기타 ([In15scm11])	[In15scm08h]	[In15scm09h]

36.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 1학년의 등교시간은 몇 시입니까? [In15scm07]
① 9시 이전 등교 ② 9시 등교

37.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나 패널 아동 OO(이)와 관련해서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

부록 6. 한국아동패널 국·영문 홍보 리플렛



한국아동패널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생아 패널 연구이며,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성인이 되는 2027년까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Cross-sectional)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Longitudinal)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합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는 아동의 성장·발달, 가정의 양육 환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에서의 아동 경험 등이 포함되며, 수집된 자료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개발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

⊕ 전국 신생아 분만 의료기관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대상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 아동이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과 학교의 담임교사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다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 2,150명이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하여 2단계로 표집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 충청/강원, 경북, 경남, 전라)으로 구분한 후 신생아를 분만하는 의료기관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집하였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 내용과 특징**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이론과 Elder의 생애이론을 기초로 아동발달, 부모 특성, 가족 특성,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합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매해 조사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부터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아동은 물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조사를 실시하므로,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아동의 특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달 수행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 응답만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아동의 발달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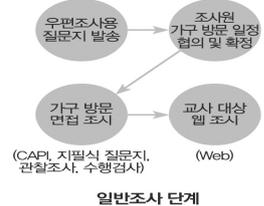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한국아동패널 조사방법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성됩니다. 일반조사는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150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매해 실시하며, 심층조사는 발달상 중요한 시기에 일부 패널을 선별하여 전문가를 통해 수행 검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조사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가구 방문 전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조사용 질문지가 발송되며, 가구 방문 시 CAPI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이용한 면접과 지필식 질문지, 조사원의 환경 관찰, 그리고 아동발달 측정을 위한 개별 수행 검사를 실시합니다. 가구 방문 후에는 아동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웹(Web)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층조사는 전국 주요 권역별로 구성된 아동발달 전문가 네트워크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대상 패널이 직접 거점센터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이 출생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총 20차의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영유아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초등학교	7세~12세																			
	13~15세																			
고등학교	16~18세																			
성인기	19세																			
심층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한국아동패널
공헌**

**한국아동패널
연구 분석 결과**

**한국아동패널
제공 자료 및
데이터 신청 방법**

일반 조사 → 횡단/중단 자료 구축 → 심층 조사

학술대회 및 논문 공모전 개최 국내 학계 및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 국제 비교 연구 유아정책 제안

아동·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건강한 아동발달 및 성장환경 조성

- 변화하는 환경과 부모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여아 선호 사상의 증가
 -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남편에 비해 낮은 편임
 - 아버지의 양육협조 및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됨
-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공
 - 영유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취업 확률은 높아지나 비정규직이 다수임
 -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확률이 낮아짐
 -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주부보다 높음
- 한국 아동의 생활 및 발달 진단
 - 남녀 아동의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 수준 진단 및 성장곡선을 파악함
 - 부모의 응주·흡연이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임
 -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과 유아의 문제 행동/부적응이 비례 관계를 보임
- 제공 자료 : 연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도구프로그램, 코드북 등
- 데이터 신청방법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panel.kicce.re.kr)
 - ▶ 연구계획서 제출 ▶ 데이터 신청 ▶ 승인 ▶ 데이터 다운로드

The first national study to track our children's development from bir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3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06750)

Tel: +82-2-398-7714 Fax: +82-2-730-3317 Email: panel@kicce.re.kr

Website: <https://panel.kicce.re.kr>

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s a long-term study to track the growth process of Korean children.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the KICC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PSKC is the first national panel study on newborn babies in Korea. It collects and provides, at a national level,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data. It deals with data from the year 2008, when the panel children were born, to the year 2027, when they will be 19-year-olds. PSKC includes data on children's growth, development,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experiences in child 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schools. The collected data will help form the foundation of national child care policies in Korea.

Sample of PSKC

PSKC has investigated, multi-dimensionally, children, parents, child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eachers. Sampling 2,150 Korean babies born in 2008, PSKC employed a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technique with two steps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In Stage 1, PSKC divided Korea into six districts : Seoul, Gyeonggi/Incheon, Chungcheong/Gangwon, Gyeongbuk, Gyeongnam, and Jeolla. It then identified medical institutions that deliver babies. In Stage 2, PSKC sampled 2,150 families whose babies were delivered at the corresponding medical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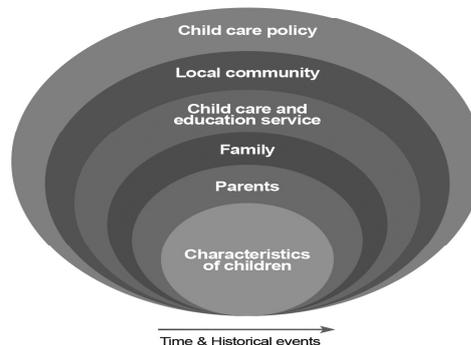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PSKC

Drawing on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and Elder's Life Course Theory, PSKC investigates child development, parents'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policies.

PSKC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each year it modifies the content of its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children's ever-changing growth, development, and environments. Since 2015, when the children entered primary school, PSKC has included content that is related to school life. Second, PSKC shows a diversity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regarding various aspects of development by including content about the parents and teachers, too.

Third, by implementing performance tests to assess development, PSKC complements the weakness of regular questionnaires and explores more deeply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Investigation areas of PSK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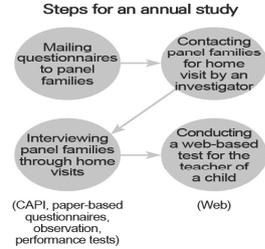


Investigation methods of PSKC

PSKC consists of annual studies and in-depth studies. The annual studies are conducted using a particular set of 2,150 families and gathering data from 2008 (the children's birthyear) to 2027. In contrast, the in-depth studies are conducted by experts targeting some selected panels at important developmental periods.

The annual studies proceed through various methods, selected by researchers according to the subjects and content. Researchers mail out questionnaires for parents prior to home visits and during the visits they conduct interviews using a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technique. They also conduct paper-based questionnaires, observation of environment, and individual performance tests for children's development. Following the home visits, researchers direct teachers to fill out web-based questionnaires.

These in-depth studies are conducted at several focusing centers through the nationwide network of experts. The panel families visit the centers and take the in-depth tests.



Annual investigation plan of PSKC

PSKC started the first investigation in 2008, and plans to conduct the 20th investigation in 202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pre-primary	Age 0																				
	Age 1																				
	Age 2																				
	Age 3																				
	Age 4																				
	Age 5																				
primary	Age 6																				
	Age 7-12																				
secondary	Age 13-15																				
post-secondary	Age 16-18																				
tertiary	Age 19																				
In-depth study			1st				2nd			3rd				4th				5th			6th

Contributions of PSKC

Analyzing results of PSKC

Requesting PSKC's materials and data

Developing effective policies for children and family and constructing good environment for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 Providing implications regarding the influence of changing environment and parents' child rearing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 Increasing preference for girls
 - A wife's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re lower than those of a husband.
 - A father's cooperation in nurturing kids and attitude are helpful for his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Offering objective data regarding balancing of women's work and family**
 - As a child gets older, the probability of the mother's getting a job increases, though most of these are temporary positions.
 - With the addition of a child to a family, the probability of the mother's getting a job decreases.
 - When it comes to nurturing a child, a housewife undergoes higher stress than a working mother.
- Diagnosing life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 PSKC provides a growth curve as well as an assessment of physical, languag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level of boys and girls.
 - Par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increase the risk of child allergies.
 - The amount of time an infant remains in a child care center is proportional to its misbehavior/maladjustment.

Materials provided : research papers, manuals for users, tool profiles, code books, etc.

How to request data : visit PSKC website (panel.kicce.re.kr) > submission of a research proposal > data request > approval > data download

연구보고 2016-35

한국아동성장발달 중단연구(아동패널Ⅱ)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선우인쇄정보 02) 2272-610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10-7 93330